

국립국어원 2009-01-48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136-14

2009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이기갑
- 연구 보조원 : 정재선 · 이효선 · 정성경
장 혁 · 정보경
- 조사 지역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19일
연구책임자 : 이 기 갑

<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2009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전남 영암군 신북면에서 이루어진 방언 조사의 결과이다. 2005년 이후의 전남 지역 조사는 전남의 서북부(영광), 동북부(곡성), 서남부(진도), 동남부(보성) 등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9년 조사는 비교적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영암군 신북면이 조사지점으로 선택되었다.

이번 조사에는 박옥규 님을 비롯한 네 분의 제보자가 참여하였으며, 주제보자인 박옥규 님이 어휘, 음운, 문법, 그리고 대부분의 구술발화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보조제보자는 어휘와 구술발화의 일부에 기여하였다.

조사는 정해진 조사 질문지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총 녹취 시간은 약 34시간이다. 조사된 자료 가운데 어휘, 음운, 문법 항목은 모두 음운 차원에서 전사되었으며, 약 10 시간의 녹취된 구술발화 자료 가운데 245분(4시간 5분)의 분량의 전사가 완료되었다. 이 전사된 구술발화 자료에는 조사지점인 신북면 갈곡리의 마을 소개, 그리고 주제보자 박옥규 님의 개인 생활과 농사 및 식생활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주제어 :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 방언 조사, 전남 영암, 음운, 문법, 어휘, 구술발화, 전사

2009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13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17
제 2 편 어휘	174
제 3 편 음운	222
제 4 편 문법	248
4. 제출 자료(별첨)	
1.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2.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3.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trs 전사 파일	
5. 지역어 조사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6. 구술발화 발간용 파일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2009년도 조사 지점은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종오마을로 정하였다. 2005년은 전남 동북부의 곡성군, 2006년은 전남 서남부의 진도군, 2007년은 전남 서북부의 영광군, 2008년은 전남 동부의 보성군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남의 중앙에 위치한 영암군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영암군의 위치는 사실 전남의 중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남부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영암군은 전남의 남부인 장흥군, 강진군 그리고 서부인 무안군 등과 접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암군 내에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신북면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전남의 중앙에 가깝도록 노력하였다. 신북면은 지도에서 보듯이 영암의 북쪽에 위치하여 나주에 접해 있는 곳이다. 광주에서는 승용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므로 조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편리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택한 것은 제보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성경 선생의 친정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인연을 바탕으로 하여 몇 분의 제보자를 구할 수 있었다.

신북면 갈곡리는 밀양박씨들이 한데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이 마을은 들소리로 유명한데 이에 대해서는 영암군청 홈페이지의 아래와 같은 소개 글이 참고 된다.

『갈곡 들소리』가 불리워지고 있는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는 드넓은 나주평야와 맞닿아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에 의지해 살아온 까닭에 남도 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들소리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농촌의 기계화와 함께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갈곡 들소리』의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인 이소라 위원이 영암민요를 조사, 정리하는 가운데 무형문화재로 신청한 유승림이 채록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소리 보유자인 유승림과 함께 갈곡 들소리 보존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갈곡 들소리』에는 남도지방의 농요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찌기 소리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예전에는 흔하게 불려지던 모찌기소리지만 서서히 사라지는 가운데 최근 몇몇 지방에는 남아 있는 아주 귀한 소리가 되었다. 다행히 갈곡 들소리에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까닭에 전남 중부지방 모찌기 소리의 실체를 밝히는 실례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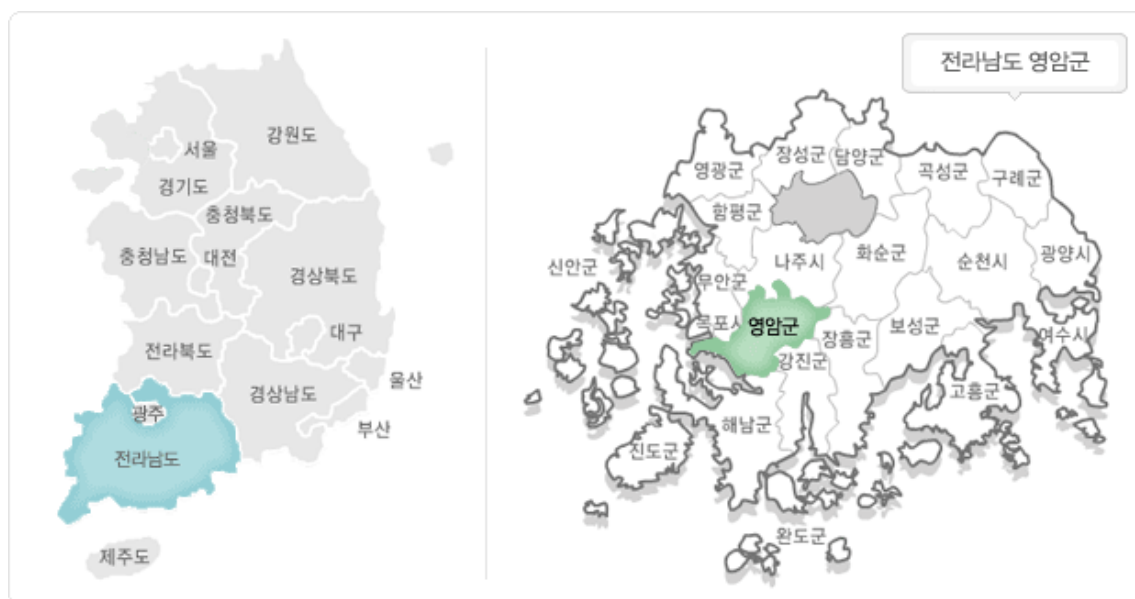
『갈곡 들소리』에는 오전 들내기와 오후 들내기라는 독특한 명칭의 김매기소리가 있다. 이와 같은 곡명은 전통적인 농요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갈곡리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전통적인 농요에서는 초벌매기와 두벌매기 소리가 각기 다르지만 갈곡리에서는 하루 종일 똑같은 소리를 부르며 김매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전과 오후에 각기 다른 소리를 부르며 김을

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매우 독특한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잘 나타나 있는 실례이다.

『갈곡 들소리』의 우야소리는 농요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3분박(triple rhythm)과 2분박(duple rhythm)이 혼합된 부정격 5박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작을 일치시킴으로써 일의 능률을 올리고자 하는 농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단이다. 이 5박자는 신쾌동 류 거문고산조와 김병호 류 가야금산조에 등장하고, 심청가와 흥보가의 ‘중 내려 오는 대목’이라든지 적벽가의 ‘흰 장수 나오는 대목’에 나타나는 장단이다. 특히 민속음악에서 사용되는 ‘엇모리’장단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전라도 무가(舞歌)에 나타나는 시님(신임)장단과 그 맥을 같이하며, 동해안 무가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는 고제(古制)의 장단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갈곡 들소리』는 남도 지방의 농요가 갖는 다양한 특징을 내포하면서도 『갈곡 들소리』만이 갖는 독특함까지 지닌 매우 독특한 농요인데 유승림에 의해 전승되어 왔고 최근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을 수상하여 다시 복원되었다.

영암군 신북면의 위치



District

▶ 행정지도 크게보기



1.2 조사 기간

2009년 6월 25일 ~ 11월 말

1.3 제보자

① 박 (남)

나이 : 78세(1932년 생)

출생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거주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선대 거주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13대째 내려옴)

직업 : 농업

학력 : 초등학교 중퇴

경력 : 군대 안 갔음. 다른 경력 없음.

가족 : 2남 3녀

조사 내용 : 대부분의 어휘와 구술 발화.

제보자의 음성 특징

- (1) 매우 건강한 체격을 가진 분이다.
- (2) 한쪽 귀가 안 들리고 발음이 약간 불분명하다.
- (3)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며, 언어에 대한 감각도 부인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 (4) 예상 밖으로 표준어 사용 비율이 높았다.
- (5) 조사 도중 날씨가 더운 탓에 부채질을 하는 바람에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다.

② 박 (남)

나이 : 78세(1932년 생)
 출생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거주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선대 거주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13대째 내려옴)
 직업 : 농업
 학력 : 원예고등학교 졸업
 경력 : 면사무소 근무. 새마을 지도자. 마을 이장.
 경기도포천에서 육군으로 복무.
 가족 : 2남 3녀
 조사 내용 : 어휘(농사에 관련된 어휘)

제보자의 음성 특징

- (1) 건강 상태는 매우 좋은 편.
- (2) 농사보다는 행정적인 일을 해 오다 보니 농업 등에 관한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음.
- (3) 교육 정도가 높아 표준어 사용 비율이 아주 높았음.
- (4) 언어에 대한 감각은 아주 훌륭하였음.
- (5) 어휘의 초반 부분만 조사하고 박옥규 제보자로 교체함.

③ 김 (여)

나이 : 73세
 출생지 : 전남 영암군 도포면
 거주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선대 거주지 : 전남 영암군 도포면
 직업 : 농업
 학력 : 무학
 경력 : 주부(박 의 처)
 조사 내용 : 어휘 및 구술발화(식생활, 의생활)

음성 특징

- (1)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함.
- (2) 언어에 대한 감각은 남편인 박 님에 비해 아주 좋았음. 따라서 남편을 보조하여 어휘 조사 시 많은 도움을 줌.
- (3) 청력이나 발음이 아주 좋음.
- (4) 식생활이나 의생활에 관한 구술발화를 맡아 해 줌.
- (5) 친정이 도포면인 관계로 일부 어휘에서는 남편과 다른 어휘를 보이는 수가 있었음.

④ 유 (남)

나이 : 79세(호적은 1932년 생)

출생지 : 전남 나주군 왕곡면

거주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7살 때 영암군 신북면 로 이주했다가 40여
 년 전 현재의 거주지인 로 이주)

선대 거주지 : 전남 나주군 왕곡면

직업 : 농업

학력 : 무학

경력 : 군대 안 감.

가족 : 3남 2녀

조사 내용 : 어휘 보충조사 및 구술발화(갈곡들소리에 관한 내용)

음성특징

- (1) 나이에 비해 건강은 비교적 좋은 편임. 다만 과거 투병 경력이 있었음.
- (2) 언어에 대한 감각이 좋은 편이었고, 질문의 의도를 바로 알아채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바로 제공해 주었음.
- (3) 특히 갈곡 들소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를 전승시키려는 노력이 대단하였음.
- (4) 박 제보자가 놓친 일부 어휘의 보충 조사와 갈곡 들소리에 대한 구술발화.

1.4 조사자 및 조사 내용

- (1) 이름 : 이기갑, 정성경
- (2) 조사 일시 : 2009. 6월 25~11월 말
- (3) 조사 장소 : 제보자의 집
- (4) 조사 내용

파일	분야	제보자	내용	시간(분)	전사
SJN_YA_1	어휘		20101-20134	48	전사
SJN_YA_2	어휘		20201-20533	73	전사
SJN_YA_3	어휘		20601-20842	80	전사
SJN_YA_4	어휘		20901-21235	77	전사
SJN_YA_5	어휘		21236-21433	94	전사
SJN_YA_6	어휘		21501-21742	65	전사
SJN_YA_7	어휘		21801-22136	92	전사
SJN_YA_8	어휘		22201-22379	84	전사
SJN_YA_9	어휘		22401-22736	77	전사
SJN_YA_10	어휘		22801-23121	73	전사
SJN_YA_11	어휘		23201-23441	62	전사
SJN_YA_12	음운		31001-32020	94	전사
SJN_YA_13	음운		32021-32046	47	전사
SJN_YA_14	음운		32047-32138	75	전사
SJN_YA_15	음운		32139-32174	23	전사
SJN_YA_16	음운		32175-32270	76	전사
SJN_YA_17	음운		32271-32362	66	전사
SJN_YA_18	음운/문법		40101-40357	97	전사
SJN_YA_19	문법		40401-41113	62	전사
SJN_YA_20	구술		길쌈	51	미전사
SJN_YA_21	구술		마을	83	전사
SJN_YA_22	구술		농사	67	미전사
SJN_YA_23	구술		자유대화	10	미전사
SJN_YA_24	구술		타작	90	전사
SJN_YA_25	구술		식생활	72	전사
SJN_YA_26	구술		집짓기/질병	76	미전사
SJN_YA_27	구술		세시풍속	64	미전사
SJN_YA_28	구술		들소리	61	미전사
SJN_YA_29	어휘		어휘(보충)	54	전사
SJN_YA_30	어휘		어휘(보충)	26	전사
SJN_YA_31	구술		자유대화	07	미전사
SJN_YA_32	구술		제보자소개	11	미전사
합계(32개)				2,037분 (약34시간)	

2. 전사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제보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제보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다만 조사자가 복수일 경우 주된 조사자는 @로 표시하고, 보조 조사자는 @2로 표시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ε)’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므로 ‘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1.1 마을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오느리, 오느리 메치링가? 파월 십치리리조? {오늘이, 오늘이 며칠인가? 팔월 십칠일이지요?}

10101 @2 예. {예.}

10101 @ 이천 구년 파월 십치릴 이~? 예~ {이천 구년 팔월 십칠일? 예.}

10101 @ 저네 다 말씀하셔뎌 내용이에요. {전에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10101 #1 예. {예.}

10101 @ 근데 이제, 아: 이야기, 이야기 형시그로, 요노믄 뭐냐. 아, 이 마을, 요, 요 마을 이르미 머조? {그런데 이제, 아 이야기, 이야기 형식으로, 이것은 무엇이나. 아, 이 마을, 이, 이 마을 이름이 뭐지요?}

10101 #1 종오릅니다. 종오. {종오리입니다. 종오.}

10101 @ 아, 종오. {아, 종오.}

10101 #1 마침 종짜, 나: 오짜요. {마침 '終'자, 나 '폼'자요.}

10101 @ 예, 마으리 언:제나, 생긴 지가 오래 데, 텐나요? {예, 마을이 언제나, 생긴 지가 오래 되었나요?}

10101 #1 나, 나로 해서 십삼대 하나버지가 낭남해:쑹께. 예~ 계사늘 해: 보문 나오, 나오 꺼 아니요? {나, 나로부터 십삼대 할아버지가 낙남(落南)했으니까. 예 계산을 해 보면 나올 것 아니요?}

10101 @ 한 사백년. 십삼대 하라버지가 여기 와서 이 마으를 만드... {한 사백년. 십삼대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이 마을을 만드...}

10101 #1 낭남해게제. {낙남(落南)하셨지.} {'-졌-'은 '-졌-'에 대응)}

10101 @ 예, 그러면 전, 점부다 이게 지금 가튼 성씨로 이뤄, 자작 일촌 이뤄진. {예, 그러면 전, 전부 다 이게 지금 같은 성씨로 이뤄, 자작일촌 이뤄진.}

10101 #1 그러지요.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10101 @ 뭐, 뭐, 박씨데 무슨 박씨입니까? {뭐, 뭐 박씨인데 무슨 박씨입니까?}

10101 #1 미량입니다. {밀양입니다.}

10101 @ 미량 박씨. {밀양 박씨.}

10101 #1 예. {예.}

10101 @ 예, 미량 박씨드리 이러케 모여 가지고 뎌 메토나 한 때... {예, 밀양 박씨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몇 호나 한 때...}

10101 #1 엔, 엔:나레는 거시기웁는디 시방 다 조라지고 한 사:시보, 누가 업: 노미 업:씨요. {옛날에는 뭐 했는데 지금 다 줄어들고 한 사십 호, 누가 남이 없어요.}

10101 @ 지그믄 한 사:시포. {지금은 한 사십호.}

10101 #1 예. 한 사:시보 남. {예, 한 사십호 남.}

10101 @ 엔:나레는 마:나씀니까? {옛날에는 많았습니까?}

10101 #1 엔:나레는 한 팔씨벼:촌 데야쪄. {옛날에는 한 팔십 여 호쪄 되었지요.}

10101 #1 마:니 띠껴부러썰요. {많이 뜯겨 버렸어요.}

10102 @ 예. 요 마을 근:처에는 사는, 노픈 사는 업:는 거 가꼬. 복판이니까이~. {예. 이 마을 근처에는 산은, 높은 산은 없는 것 같고. 복판이니까.}

10102 #1 ** 사니 업:썰요. 구리. {** 산이 없어요 그리.}

10102 @ 사는 업:꼬이~. {산은 없고.} #1 예. {예.}

10102 @ 그 다음에:: 드:른 널분 거 가꼬요이~. 드:른 {그 다음에 들은 넓은 것 같고 들은} #1 드:른 {들은} @ 이르미 이씀니까? 무슨 들. 머. 먼. {이름이 있습니까? 무슨 들. 뭐. 무슨.}

10102 #1 쪼 쪼:그 가서, 쪼 하천 너머가는 바람뜨리라고 바람, 바람뜨리 이꼬 겨가, 거가 바람땅입니다. {저 저기 가서 저 하천 넘어가면 반남들이라고, 반남, 반남들이 있고, 거기가 반남 땅입니다.} @ 예. {예.}

10102 #1 요짜그로는 시 영암따이고.{이쪽으로는 영암 땅이고.}

10102 @ 영암. {영암.}

10102 @ 바라미면... {바람이면...}

10102 #1 바남, 반나미면 나주. {반남, 반남이면 나주.} @ 바남? 아, {반남? 아} #1 반남. {반남.}

10102 #1 나주 나주 반남 {나주 나주 반남}

10102 @ 바남이라고 그래. {'바남'이라고 그래.}

10102 #1 반남. {반남.}

10102 @ 음. 그리고:: 저수지도 이쪼요 {음. 그리고 저수지도 있지요?}

10102 #1 저수지 여그 업:썰니다. {저수지 여기 없습니다.}

10102 @ 저수지는 업:꼬요. {저수지는 없고요.} #1 예. {예.}

10102 #1 엔:나레는. {옛날에는.}

10102 @ 예. {예.}

10102 #1 여가 천봉지 아조, 그 하천데다가 모래 파가꼬 거:그나 쪼 포도시 물 푸머서 가:네 무꼬 인는다. {여기가 천봉답('천봉지'는 '천둥지기', '천봉답'의 뜻), 아주 그 하천데다가 모래 파 가지고 거기나 조금 겨우('포다시'는 '겨우'의 방언) 물 퍼서 ** 먹고 있는데.}

10102 @ 예. {예.}

10102 #1 인자는 쪼:가 보가 되야 가지고 그거이 물 푸머서 사용항께 그 물로 시방 농사 지꼬 이쪼. {이제는 저기가 보가 되어 가지고 그곳의 물 퍼서 사용하니까 그 물로 지금 농사 짓고 있소.}

10102 @ 아, 보 마거 가지고요? {아, 보 막아 가지고요?} #1 예. {예.}

10102 @ 예, 그래요이~? 음: {예, 그래요? 음.}

10102 @ 그 다:메 요 근:처 인제 이제 머: 마으리나 머 들파나나 머 바우나 그런데 머 이름 인는 바우나 그렇거 이씀니까? 머? {그 다음에 이 근처 이제 이제 뭐 마을이나, 뭐 들판이나, 뭐 바위나, 그런 곳 뭐 이름 있는 바위나 그런 것 있습니까? 뭐?}

10102 #1 바우는 여그, 요 사네 가면 운동바우라고 이썰요. {바위는 여기, 이 산에 가면 운동바위라고 있어요.}

10102 @ 먼: 바우요? {무슨 바위요?}

10102 #1 운동바우. {운동바위}

10102 @ 운동바우? {운동바위?}

10102 #1 야. {예.}

10102 @ 오. {오.}

10102 #1 문동바우. {문동바위.}

10102 @ 문동바우? {문동바위?}

10102 #2 운 운동바우라 하드만. {운 운동바위라 하더구먼.}

10102 #1 어? {어?}

10102 #2 문동바우라 거가? 운동바우라. {문동바위요 거기가? 운동바위라고.}

10102 #1 운동바우라 하등가? {운동바위라고 하던가?}

10102 #2 그래, 운동바우제 먼: 문동바우여. {그래, 운동바위지 무슨 문동바위야?}

10102 #1 운동바우. {운동바위.}

10102 #2 운동바우가. {운동바위.}

10102 @ 거, 거그서 먼: 머 머 그 뜨시 머:테다 머:가람니까? 운동한다는 뜨신가요? {거, 거기에서 무슨, 뭐 뭐 그 뜻이 무엇이람니까? 운동한다는 뜻인가요?}

10102 #1 운동하는 뜨시 아인디, 거가 바우라고. {운동한다는 뜻이 아닌데, 거기가 바위라고.}

10102 #2 그 저네 {그 전에} #1 사네 텅이머는 {산에 다니면은} #2 거가 저 운동바우라고, 제:까납따다. 바우도. {거기가 저 운동바위라고 조그마합디다('제간하다'는 '조그맣다'의 뜻) 바위도.}

10102 #1 바우가 제:까네. {바위가 조그마해.}

10102 #2 올라 여그 올라가든 제수제라고 올라가든, 그라든 거 가서 인자, 엔나레 거: 가물고 그라든 어:른드리 가서 치로 막 이려고 까:불테요. {올라, 여기 올라가면 채숫제라고 올라가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옛날에 그 가물고 그러면 어른들이 가서 키로 막 이렇게 까부르테요.}

10102 #1 {웃음} #2 비 오든, 저 거시기 비 오라고. {비 오면 저 거시기 비 오라고.}

10102 #1 물 담, 물 부서가꼬 치에다 거 까:불고. 그래 인자 하다 가물든 비 오라고. 거 가서 마:니 그거시 이찌라. {물 담, 물 부어 가지고 키에다 그 까부르고. 그래 이제 하도 가물면 비 오라고. 거기 가서 많이 그것이 있지요.}

10102 @ 기우제를 지넨나요? 일종에? {기우제를 지냈나요? 일종의?}

10102 #1 예. {예.} #2 그렇 거 마냥으로 막 여자드리 가서 비가 요고 아노고 장, 거시기 가물머는 가서 물 까부른다고 그라테요. {그런 것처럼('마냥' 또는 '마냥으로'는 '처럼'의 뜻) 막 여자들이 가서, 비가 이렇게 안 오고 거시기 가물면은 가서 물 까부른다고 그러더군요.}

10102 #2 치에다가 다머서 물 까부른다고. {키에다가 담아서 물 까부른다고.}

10102 @ 치에다 무를 다머가꼬요? {키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요?} #2 예, 무를. {예, 물을}

10102 #1 치에다 물 다머가꼬 까불, 까:분다고. {키에다 물 담아 가지고 까부른다고.}

10102 #2 또 여그 여 식쭈 시야메서도 막 그라고 그라테요, 엔:나레 {또 여기 여 식쭈 샘에서도('시얌'은 '우물'이나 '샘'의 방언) 막 그려고 그러테요, 옛날에.}

10102 #1 물똥우를 이고 가가꼬 인자, 한나나 이고 가가꼬 인자, 거그다 형식찌그로 까:분

다고 인자. {물둥이를 이고 가 가지고 이제, 하나나 이고 가 가지고 이제, 거기다 형식적으로 까부른다고 이제.}

10102 #2 그라지요 이제. {그렇지요 이제.}

10102 @ 그: 제, 제도 이꾸만. 무슨 제가 이따고 금니까? {그... 제, 제도 있구먼. 무슨 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10102 #2 제숙제라고. {재숙제라고.}

10102 #1 제숙 제, 제. 제숙제요 거가. {재숙제, 제. 재숙제요 거기가.}

10102 #2 제숙제 너머가면 거가 이썬요. 거 운동바우라고. {재숙제 넘어가면 거기에 있어요. 그 운동바위라고.}

10102 #1 시방도 거 이썬라 시방. {지금도 그 있어요 지금.}

10102 @ 음: 그다메 여그는 무슨 당:산나무나 큰 나무가 이썬니까? {음,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당산나무나 큰 나무가 있습니까?}

10102 #1 엔나레 당:산나무 큰 저, 썬: 썬그 썬건네 아니썬 저. {옛날에 당산나무 큰 저 저기 저 건너 있잖소? 저?} @음 #1 썬건네 썬:건네 저, 전:주 이꼬 요요, 지아 썬 썬:그 {저 건너 저 건너 저 전신주 있고 요 요 기와 * 저기} @ 예예, 예. {예, 예.}

10102 #1 거가서 요 야눔베기 가튼 놈 이썬는디, 우리 에레썬뿌툼 이썬가지고 거기서 당:산군 구또 치고 그레제마는 {거기에서 이 아눔들이('아눔베기'는 '아눔들이'의 뜻) 같은 것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당산곳 곳도 치고 그랬지마는.}

10102 @ 예. {예.}

10102 #1 여 거가 썬땅 당:산 썬:그 아네 가서 또 안땅사니 이꼬 그렌는디 인자 업:썬불고 인자 업썬저부썬. {거기가 썬당 당산, 저기 안에 가서 또 안당산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없애 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2 바라미 부러서 그거시 자뿌라저 분능갑떼요 뿌리가 파져서.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넘어져 버렸나 보데요. 뿌리가 파져서.}

10102 @ 아, 너무 오래데서. {아, 너무 오래데서.}

10102 #1 그라고 자빠라저불고 오래 되야서 자빠라지고 간서블 안헤봉께. {그리고 넘어져 버리고, 오래 되어서 넘어지고 간섭을 안 해버리니까.}

10102 #2 썬거가꼬. 그레가꼬 업:썬저부떼요. {썬어 가지고. 그레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10102 @ 음: {음.}

10102 #1 어 엔날, 그 전 어:르신드리 그 당산나무에서 뽀뽀뽀 소리, 하이 요걸 빠라 그라고 막 기양 비여불고 그레따고 그레썬따다. {어, 옛날 그 전 어르신들이 그 당산나무에서 뽀뽀뽀 소리, '하이고~ 이것 봐라.' 그러면서 막 그냥 베어 버리고 그랬다고, 그레땡따다.}

10102 #1 그 저네 송암하네가 비여부따고 고러케헤썬:커덩. {그 전에 송암할아버지가 베어 버렸다고 그렇게 했었거든.}

10102 @ 뭐 소리 나가지고요? {뭐 소리 나 가지고요?}

10102 #1 야, 뽀뽀뽀뽀 소리 낭께. 아이 요걸 빠라 고라고는 비여불따고. {예, 뽀뽀뽀뽀 소리가 나니까. '하이고~ 이것 봐라.' 그러고는 베어버렸다고.}

10102 @ 당:산나무 비:면 별로 안 조차나요? {당산나무 베면 별로 안 좋잖아요?}

10102 #1 그 저네 자빠저서, 자빠저봉께 모도 비여다가 나:무도 헤:불고 그랍따다. {그 전에 넘어져서, 넘져져 버리니까 모두 베어다가 뽀감으로 쓰고('나무도 하다'는 '뽀감으로 쓰다'의 뜻) 그러디다.}

10102 @ 아, 하하하. {아, 하하하.}

10102 #2 그 저네 거:서 당:산꾼또 치고 그렌는다. {그 전에 거기서 당산곳도 치고 그랬는데.}

10102 #1 당:산꾼 그거 역:씨게 처쎄. {당산곳 그거 역세게 쳤지.}

10102 @ 어:

10102 #1 아이, 우리도 곧 곧치고 더 따라텐엔넌디. {아이, 우리도 곳치고 따라 다녔는데.}

10102 @ 하하하

10102 #1 곧치고 텐엔넌디. {곳치고 다녔는데.}

10103 @ 예, 자, 여기서는 다 인자 농사 지꼬 사실 텐데. {예, 자, 여기에서는 다 이제 농사 짓고 사실 텐데.}

10103 #1 그라지요. {그렇지요.}

10103 @ 농사 지슬 때 머, 먼 계:가 이꺼나 그러쎄니까? 머 어트케 모여가지고. {농사 지을 때 무슨, 무슨 계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모여가지고.}

10103 #1 계가 이짜네, {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103 @ 예. {예.}

10103 #1 서로 농사지:게 되면, {서로 농사 짓게 되면,}

10103 @ 예. {예.}

10103 #1 푸마시 해야, {품앗이 해야,}

10103 @ 예. {예.}

10103 #1 서로 오고 가고 함시로 하제. 그라나면 누가 놉, 잘 업기도 하고 하지마는, 모더 더라 잘. {서로 오고가고 하면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놉 잘 얻기도 하고 하지마는, 못 얻어요 잘.}

10103 @ 아: {아}

10103 #1 푸마시 해:서 마:니 해:짜라. {품앗이 해서 많이 했지요.}

10103 @ 푸마시 해서? 예:: {품앗이 해서? 예.}

10103 #2 지그든 돈 주고 해:도 누가 안 올라게라. 이녀기 가서 그 직꺼 해: 주고 또 그 사라미 와서. {지금은 돈 주고 해도 누가 안 오려고 해요. 자기가 ('이녀'는 '자기'에 대응하는 재귀대명사) 가서 그 집 것 해 주고 또 그 사람이 와서.}

10103 #1 시방은 시방잉게 거 저 푸마시도 잘 안 하고 이녀 계잉게이 다 해:분디. {시방은 시방이니까, 그, 저, 품앗이도 잘 안 하고 자기 개인개인이 다 해 버리는데,}

10103 @ 예. {예.}

10103 #1 노무 일도 안 갈라게야, 지금 {남의 일도 안 가려고 해요, 지금.}

10103 #1 엔:날 가짜네. 푸마시 해서 주로 마:니 승겨짜라. {옛날 같지 않고. 품앗이 해서 주로 많이 심었지요.}

=1 @ 예. 레코딩이 데고 인능경가? {예. 레코딩이 되고 있는 건가?}

=1 #2 어머니 잔. {어머니 줌.}

=1 @2 안 계셔 가지고. {안 계셔 가지고.}

=1 #2 안 계셔? {안 계셔?}

=1 @2 예. {예.}

=1 #2 어디 가서쎄? {어디 가셨어?}

=1 @2 예, 그래 가지고 저나 드런는데 안 바드시고 몬 만나쎄요. {예, 그래 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고 못 만났어요.}

10104 @ 으흠: 자, 그 다음에 요 마을에 자:랑꺼리, 자:랑꺼리는 머 드, 들로레요? {으흠, 자, 그 다음에 이 마을의 자랑거리, 자랑거리는 뭐 들, 들노래요?}

10104 #1 거, 인자 뽕야 들:로레지라. {그, 이제 내나('뽕야'는 '내나'의 뜻) 들노래지요.}

10104 @ 어, 거 쫘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데 자:랑꺼리니까 아: {어, 그 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데 자랑거리니까. 아.}

10104 #1 뽕야 그저네 푸마시할 때에는, 저 집점마지 노버더가꼬 이:를 하며는 거시기 헤써라. {내나 그전에 품앗이할 때에는 저 집집마다 놉 얻어 가지고 일을 하면은 거시기 했어요.}

10104 #1 모숭끼::는, 처메 모 거시기 하면 모 부서서 찌고. {모심기는, 처음에 모 거시기 하면 모 부어서 찌고.}

10104 @ 예. {예.}

10104 #1 또 모 다 찌며는 세:견 무꼬, 또 모 심:꼬 그레쓰 그라고. {또 모 다 찌면은 곁두리('새겻'은 '곁두리'의 방언) 먹고, 또 모 심고 그랬을 그리고.}

10104 @ 예. {예.}

10104 #1 또 그라고는 인자 (기침) 인자 지심메:때 테알 치믄, 초불 메:고 가며는. {또 그리고는 이제 (기침) 이제 김('지심'은 '김'의 방언) 땔 때 되려 하면, 초벌 매고 가면은.}

10104 #1 초불 매며는 그때부터서 인자 메:기 시자가고, 두:불, 세:불 매지라. {초벌 매면은 그때부터서 이제 매기 시작하고, 두 벌, 세 벌 매지요.}

10104 @ 예. {예.}

10104 #1 그라남 금불도 메:고, 금불 너:먼 맘:드리 네:불까지 메, 메 메:제 이야. {그렇지 않으면 군벌도('군벌'은 세 벌 외로 매는 김매기를 가리킨다.) 매고, 군벌 넣으면 막벌 네 벌까지 매, 매, 매지 이제.}

10104 @ 예. {예.}

10104 #1 검 세:부른 맘테로 해: 불고. {그럼 세 벌은 마음대로 해 버리고.}

10104 #2 마:드리 하믄 엔:나레 풍장꾼 치고 막 그라데요. {막벌 하면 옛날에 풍장꾼 치고 막 그러데요.}

10104 #1 풍장 하고, 두:째 굳치고 따라 땡이고 그렌는디. {풍장하고, 굿치고, 따라 다니고 그랬는데.}

10104 #1 저::기 여. {저기 여.}

10104 #2 곁궁 치고. {곁궁 치고.}

10104 #1 저::기 여 거시기하고, 저 장화 요르케 멩길고, 멘드러서 한, 상:세, 방구, 장구, 소:구, 소리한 사람 이제. {저기 여, 거시기하고, 저 장화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서 한, 상쇠, 북, 장구, 소고, 소리하는 사람 있지.}

10104 @ 예. {예.}

10104 #1 그라고 멘메시 요 오울 아폐서 소리 함시로 그라고 지심 메:고 그러지라. {그리고 몇몇이 여기, 우리 앞에서 소리 하면서 그렇게 김매고 그러지요.}

10104 @ 아: {아,}

10104 #1 아, 그란디 지심 땔 때는 예, 소리를 모:다먼 벌 바다가꼬 떼찌를 지고 그레라. 들:쏘리 모:다먼. {아, 그런데 김땔 때는 예, 소리를 못하면 벌 받아 가지고 땃짐을('땃짐'은 뿌리째 떼어 낸 잔디를 등에 지는 일) 지고 그래요. 들소리 못하면.}

10104 #1 어, 나는 떼찌믄 안 저 바썩. {어, 나는 땃짐은 안 저 봤소.}

10104 @ 하하하.

10104 #1 푸마시 해:도. {품앗이 해도.}

10104 #2 등거리에다 호글 띠여서 막 부쳐붙데요. {등에다('등거리'는 '등'의 방언) 흠을 떼어서 막 붙여 버리데요.}

10104 @ 그게 떼찌미예요? {그것이 뗏짐이에요?}

10104 #2 예. 그거이 또 떼찌미라고 하데요. {예, 그것이 뗏짐이라고 하데요.}

10104 #1 그래서 우리도 나는 소리 하면 거식항께 떼찌믄 안 저씨라. {그래서 우리도, 나는 소리 하면 뭐 하니까 뗏짐은 안 졌어요.}

10104 @ 떼찌미라는 거슨 소리 모:단 사람 벌 줄라고. {뗏짐이라는 것은 소리 못하는 사람 벌 주려고.}

10104 #1 벌 줄라고. {벌 주려고.}

10104 #2 그러지요. {그렇지요.}

10104 @ 어:트케. {어떻게.}

10104 #1 거시기해:라. 여 자:상이 이꼬, 보루떼 자:상 어쟁이 미테 자:상님, 보리떼 베:루님. {거시기해요. 어, 좌상이 있고, 보릿대 좌상, '어쟁이' 밑에 좌상님, 보릿대 '베루님'.}

10104 @ 예? {예?}

10104 #1 저, 총:각데:방 다 시여 노코 징이를 야물게 지요. 그러면 노래 모:뿌르면 총:각데:방이 자버다가 얼치고 크나큰 모폭 뜨더다가 아남베기로 디 뒤:에다가 영거라. {저, 총각대방 다 세워 놓고 증인을 야물게 지요. 그러면 노래 못 부르면 총각대방이 잡아다가 얼치고('얼떨떨하게 하다'의 뜻) 크나큰 모폭 뜯어다가 아람들이로('아남베기'는 '아람들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한 아람 정도의 모폭의 양을 가리킨다.) 뒤에다가 얹어요.}

10104 @ 아: {아.}

10104 #1 지심 다 메도록. {김 다 매도록.}

10104 @ 하하하.

10104 #2 그거 모:단다고 벌 중감만. {그것 못한다고 벌 주나 보구먼.}

10104 #1 벌 줘. 허허 {벌 줘. 허허}

10104 @ 아:: 근데 아까 그 증:이늘 세운다건, 근제 그 가:치 지심 멘 사람 중에 한사라믄 머:라고 이르믄 부친다고요? 총각. {아, 그런데 아까 그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그 같이 김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고요? 총각?}

10104 #1 총:각데방. {총각대방.}

10104 @ 총:각데방? {총각대방?}

10104 #1 야. {예.}

10104 @ 또 한사람 또, 또 다른 사라믄. {또 한사람 또, 또 다른 사람은.}

10104 #1 자:상니믄 인자 거가서 또 지 직제. {좌상님은 이제 거기 가서 또 있지.}

10104 @ 자:상니미 이꼬. {좌상님이 있고.}

10104 #1 야. {예.}

10104 @ 또 머: 이썸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10104 #1 보리떼 베루님네. {보릿대 베루님네.}

10104 @ 보루떼 머요? {보루떼 뭐요?}

10104 #1 베:루. {베루.}

10104 @ 보루떼 베:루? {보릿대 베루?}

10104 #1 야, 보리떼 저, 보리떼서 메:머는 베루고, 저 어덕어덕 미테 자:상은 인자 풀 띠
껴가꼬 해양께 인 자:상은 감:마 쪼깐 뜨파 말제 음마나 마:니 멘다우? 자:상이라고.? {예,
보릿대 저, 보리밭에서 매면은 '베루'고, 저 언덕 언덕 밑에 좌상은 이제 풀 뜯겨가지고 해
야하니까 이제 좌상은 가장자리만 조금 뜯다 말지 얼마나 많이 맨대요? 좌상이라고?}

10104 @ 자:상은 젤 어:르니 예요? {좌상은 제일 어른이에요?}

10104 #1 아, 그러지요. {아, 그렇지요.}

10104 @ 아:: {예.}

10104 #1 자:상. {좌상.}

10104 @ 지심 뭘 때도 다 그러케 게:그비 이릅니까? {김뽕 때도 다 그렇게 게급이 있습니
까?}

10104 #1 아, 그러지요. 허허. {아, 그렇지요. 허허.}

10104 @ 아: 자:상은 젤 어:르시는 어인 쫘 쪼끔만 메:고. {아, 좌상은 제일 어르신은 쫘
조금만 매고.}

10104 #1 야. {예.}

10104 @ 그 다투메, 그 다음 미테는 누구라구요? 자:상 미테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는 누구라고요? 좌상 밑은?}

10104 #1 인자 자:상 미테 인자, 보리떼 가서 또 거 쪼 이꼬. {이제 좌상 밑에 이제, 보릿
대 가서 또 그 저 있고.}

10104 @ 보루떼 베루. {보릿대 베루.}

10104 #1 인자 베:루 이꼬. {이제 베루 있고.}

10104 @ 베:루. {베루.}

10104 #1 예. {예.}

10104 #2 또 머 총:각 머:시라우? {또 뭐 총각 뭐라고요?}

10104 #1 총:각떼방. {총각대방.}

10104 @ 총:각떼방? 총:각떼방은 젤: 일 마:니, 어린 사라밍가요? {총각대방? 총각대방은
제일 일 많이 어린 사람인가요?}

10104 #1 아이, 어린 사라미 아니고 거가서 심께나 쓰고 그라믄 인자 그 사라만테 노래
모:뿌른 사람 쪼 작트레다 자버 노코, 막 게양 거시기 떼짚 영꼬 그레요. {아니, 어린 사람
이 아니고 거기에서 힘께나 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노래 못 부른 사람 '작틀'에다 잡
아 놓고, 막 그냥 거시기 떼짚 엮고 그레요.}

10104 @ 아:: 그러면 지심 메:거나 이런 양반드른 다:: 노래 한 자리씨근. {아, 그러면 김
매거나 이런 분들은 다 노래 한 곡씩은('자리'는 노래나 이야기 따위를 세는 단위).}

10104 #1 다 불려야조 우리도. 우리는 인다 함께 아따 아산하고 우리는 지방도 그 소리에
하러거믄 아 한디요. {다 불려야조 우리도. 우리는 이제 하니까 아따 **** 우리는 지금도
그 소리에 하라고 하면 아 하는데요.}

10104 @ 오: 한번 해: 보십씨오. {오, 한번 해 보십시오.}

10104 @ 하하하하

10104 #1 거시기 해라. {거시기 해요.}

10104 @ 어: {어.}

10104 #1 처:메 {처음에}

10104 @ 예. {예.}

10104 #1 부르면, 노래를 부르면. {부르면, 노래를 부르면.}

10104 @ 네. {네.}

10104 #1 짜: 네가 또 부르께 해, 드르씨요이~ {저, 내가 또 부를게 해, 들으시오.}

10104 @ 예, 노그미 다 데니깐요. {예, 녹음이 다 되니까요.}

10104 #1 오늘또 어허에헤::어허

10104 #1 오늘또야 심심하고 야:심하고 {오늘도 심심하고 야심하고}

10104 #1 정마간 고데야거따거:: {적막한 곳이어야겠다.}

10104 #1 아::: 에헤:::허 이::: 에헤::: 어:::이

10104 #1 우리가 십씨일바느로 노래 한 자리씩 불러::보세:::이.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노래 한 곡씩 불러 보세.}

10104 #1 그라든 또 디:쏘리 합니다. {그러면 또 뒤통리 합니다.}

10104 #1 아: {아}

10104 #1 아리아리씨구나:::~

10104 #1 네야::: 어허::: 우::: 여:::이::: 네:::오::: 오호::호 예야::: 에헤야::

10104 #1 어얼::씨::구 어허::을 로::레로구나::

10104 #1 저건::네에::: 어허허:::허허 {저 건너에}

10104 #1 저건::네라 드::노꼬 드노 노푼 지비. {저 건너라 드높고 드높은 집이}

10104 #1 아::: 에헤::: 이::: 에헤:::어:::이::

10104 #1 모시 삼베나 땅땅 짚 이리제. {모시 삼베나 땅땅 짚 일이지}

10104 #1 아::: 에헤::: 히::: 에헤::: 어허

10104 #1 모시 삼베나 땅땅 짚 이리제. {모시 삼베나 땅땅 짚 일이지.}

10104 #1 동네 공사청 일꾼들 무슨 소양이 인네:::이히 {동네 공사청 일꾼들 무슨 소용이 있나?}

10104 #1 아리아리씨구나아:::아하.

10104 #1 네:::에헤::: 우::: 여:::이::: 네:::호::: 오호:: 예야:: 에헤야::

10104 #1 어::얼씨::구 어혈::로::레로구나::

10104 #1 불러보세::어::어허: {불러보세}

10104 #1 불러보세 불러를 보시구려::아 {불러보세 불러를 보시구려.}

10104 #1 아~::아:: 에헤::어:이::: 에헤::어히

10104 #1 이시 바네 베훈 노래 삼십 아네 불러::보세:::이. {이십 안에 배운 노래 삼십 안에 불러보세.}

10104 #1 아리아리씨구나아:::아하::

10104 #1 네야::: 어허:::으 우:::여:::이:::이: 네:::오::: 오호:: 예야:: 에헤야::

10104 #1 어::얼씨::구 어혈::로::레로구나::

10104 #1 인자 고만 합씨다. {이제 그만 합시다.}

10104 #1 할라든 더 하거쏘마는. {하려면 더 하겠소마는.}

10104 #2 모다 학생드리 와서 노그메 가요. {모두 학생들이 와서 녹음해 가요.}

10104 @2 예: {예.}

10104 @ 아, 그래씨요? {아, 그랬어요?}

10104 #1 예, 나분 더 잘한 사라미 또 이씨요. 선생님. {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선생님.}

10104 @ 예: {예.}

10104 #1 거, 나는 또 거기서 뒤:쏘리나 하고 그래요. {거, 나는 또 거기에서 뒤:쏘리나 하고 그래요.}

10104 @ 요, 언: 이 노래는 배우셔썬요? {이, 이 노래는 배우셨어요?}

10104 #1 아니, 저 떼뽀 안 질랑께 배우조 으짜꺼시여? {아니, 저 '뽀뽀' 안 지려니까 배우지요. 어쩔거야?}

10104 #1 @ 하하하

10104 @ 떼뽀 안 질라고. {뽀뽀 안 지려고.}

10104 #1 예. {예.}

10104 @ 예: 그 때는. {예, 그 때에는.}

10104 #1 떼뽀든 안 저썬라. {뽀뽀는 안 졌어요.}

10104 @ 예. 예. {예. 예.}

10104 #1 자 전:장 보네면 또 거 자란 사라미 또 나한테로 보네 또. {이제 ** 보내면 또 그 잘한 사람이 또 나에게로 보내 또.}

10104 #1 전:장은 또 바다야제, 안 바드든 또 떼뽀장께. {**은 또 받아야지, 안 받으면 또 뽀뽀 지니까.}

10104 @ 예, 그때는 어느 동네나 다 이러케 지심. {예, 그때에는 어느 동네나 다 이헔게 감.}

10104 #1 그래썬요. {그랬지요.}

10104 @ 노래 하고 그래썬요이~? {노래 하고 그랬어요?}

10104 #1 다 그러지요. 그, 그, 그 시테에는. {다 그러지요. 그, 그, 그 시테에는.}

10104 @ 힘드니까. 이제 노래하면 썬 더 나:꼬. {힘드니까. 이제 노래하면 썬 더 낫고.}

10104 #1 그라고 또, 오:전:: 저, 또 오:저네 들:레기소리도 이꼬. {그리고 또, 오전, 저, 또 오전에 들내기소리도 있고.}

10104 #1 오:후에 또 시야자소리도 이꼬 그래라. {오후에 또 시야자소리도 있고 그래요.}

10104 @ 무슨? {무슨?}

10104 #1 었. {예.}

10104 @: 시야자요? {시야자요?}

10104 #1 야. {예.}

10104 @ 무슨, 무슨, 무슨 뜨시예요? 시야자는? {무슨, 무슨, 무슨 뜻이에요? 시야자는?}

10104 #1 시야자 썬리라고 인자 들:레기 한다 해서 오:전 들:레기. {시야자 소리라고 이제 들내기 한다고 해서 오전 들내기.}

10104 @ 아, 오: {아, 오}

10104 #1 오:후 들:레기 그래요. {오후 들내기 그래요.} #2 인자 거시기 인자 논 {이제 거시기 이제 논}

10104 #2 다 메고 인자 들: 인자. {다 매고 이제 들 이제.}

10104 #1 아: 들::로 노께 데든. {아 들로 놓게 되면} #2 지비로 밤 머그로 온다든지 {집으로 밥 먹으러 온다든지}

10104 #2 해서 그 들: 인자. {해서 그 들 이제.}

10104 #1 들:쏘리를, 또 들:레기를 해라. {들소리를, 또 들내기를 해요.} #2 들:쏘리를 항갑따다. {들소리를 하나 뽀다다.}

10104 @ 아:: 다 일 끝내고? {아, 다 일 끝내고?}

10104 #1 예. {예.}

10104 @ 일 끝내고 하는 노래가 이꼬. {일 끝내고 하는 노래가 있고.}

10104 #1 그러지라. {그러지요.}

10104 @ 오:저네 일 할 때 하는. {오전에 일할 때 하는.}

10104 #1 오제, 오:저네, 저, 거그, 나 항거슨 인자 지심 땀: 때 마:니, 주로 항 거시고. {오전에, 오전에, 저, 거기, 나 한 것은 이제 김땀 때 많이, 주로 하는 것이고.}

10104 @ 예. {예.}

10104 #1 또 파:할때는 인자 오:전 들:레기 소리를 또 해라. {또 끝날 때에는 이제 오전 들 내기 소리를 또 해요.}

10104 @ 예. {예.}

10104 #1 들:소리를. {들소리를.}

10104 @ 들:소리를 하고이~ 예. 근데 이제 요, 이 동:네가 특빠리 인제 어디 정국떼헤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레짜나요? {들소리를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이 동네가 특별히 어디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잖아요.}

10104 #1 땀 여 처데 가서 해:가꼬 나주, 함평 까가꼬 그때 저, 도:지사 으뜸상 타고. {땀 처 첫해에 가서 해 가지고 나주, 함평 가 가지고 그때 저, 도지사 으뜸상 타고.}

10104 #1 그 이듬해 가가꼬 저, 충청도 부여. {그 이듬해 가서 저, 충청도 부여.}

10104 @ 예. {예.}

10104 #1 거그 가가꼬 또 땀 데:통령상 타제라. {거기 가 가지고 또 대통령상 탔지요.}

10104 @ 오: {오,}

10104 #1 우리도 일찌기 시자게쓰든 일찌기 또 타쓰꺼잉디 너머 느께 시자가지가꼬, 그레 가꼬 거시기헤써라. {우리도 일찍이 시작했으면 일찍이 또 탔을 것인데,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그레 가지고 거시기했어요.}

10104 @ 그레도 다른 데에는 다, 어치키 노래가 업:써지고 그렌는데. 그, 이 마으른 쫘 나 마인네요. {그레도 다른 곳에는 다, 어떻게 노래가 없어지고 그렸는데. 그, 이 마을은 좀 남아 있네요.}

10104 #1 야, 그란디 그 사람도 나부듬 한 살 수상인디. {예. 그런데 그 사람도 나보다 한 살 위인데.}

10104 @ 예. {예.}

10104 #1 모미 마:니 아풍께 또 까따가다가 요거시 보:조네 나가야쓰꺼신디. {몸이 많이 아프니까 또 잘못하다가 이것이 보존해 나가야할 것인데.}

10104 @ 아: {아,}

10104 #1 또 총:생드리 이씨야 또 배우고 어:짜고 한다. 누가 배울 사람도 업:꼬 인자, 칸 따가다가 요 무근받 되거쑈. {또 후손들이('총생'은 '후손'을 가리킨다.) 있어야 또 배우고 어 켜고 하는데. 누가 배울 사람도 없고 이제. 까딱 하다가 이 목정발 되겠소.}

10104 @ 아: 역 노래 잘 하는 구시니 한 분 게:시는데? {아, 이 노래 잘하는 **, 한 분 게 시는데?}

10104 #1 예, 여가 우리 마을써 살다가 거 이사간 지가 한 삼십년. {예, 여기에 우리 마을 에서 살다가 거, 이사간 지가 한 삼십 년.}

10104 #1 삼, 삼십년나머 되야쓰꺼시오. {삼, 삼십 년 남짓 되었을 것이오.}

10104 #1 거그는 저, 우리 그저 거시기가 여가 예가요. {거기는 저, 우리 그저 거시기가 여기가 외가요.}

10104 @ 예. {예.}

10104 #1 유썬디, 여가 예간디, 여그서 이 마을써 살:다가, 어려서부툼 여그서 살:다가, 그 레야꼬는 고양에 차자간다고 가쑈. {유씨인데, 여기가 외가인데, 여기에서 이 마을에서 살다가, 어려서부터 여기에서 살다가, 그래가지고는 고향에 찾아간다고 갔소.}

10104 @ 예. 그 부니 노래를 잘 하시고마뇨. {예. 그 분이 노래를 잘 하시는구먼요.}

10104 #1 예, 나보듬 한 살 더 자세씨라. {예, 나보다 한 살 더 자셨어요.}

10104 @ 예. 그리고 또 저네 보면, 저네 짐마머이 지푸로, 또 지부로 뭇 만드시기도 하고, 이 마으레서. {예. 그리고 또 전에 보면, 전에 *** 짚으로, 또 짚으로 뭇 만드시기도 하고, 이 마을에서.}

10104 #1 그레쪄요. {그랬지요.}

10104 @ 저네부터 마:니 헨나요? {전부터 많이 했나요?}

10104 #1 예: 엔나레도 마:니 해쪄요. {예, 옛날에도 많이 했지요.}

10104 @ 아: {아,}

10104 #1 나도 직접 네 손세에 모도 멩글고 한디라우. {나도 직접 내 손수 모두 만들고 하는데요.}

10104 @ 예: 그러니까뇨이~. 특빠리 더 자, 만 잘하시는 거 가테. 다른 마으른 다: 어:디. {예, 그러니까요. 특별히 더 잘,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 다른 마을은 다 어디.}

10104 #1 아이 그라고 요, 왕인 축제 나가며는 우리가 한:: 끝나도로그 한, 한 오일 사려요. {아이, 그리고 이, 왕인 축제 나가면은 우리가 한, 끝나도록 한, 한 오일 살아요.}

10104 #1 거그서 지뽈 공예를 합니다. {거기에서 짚공예를 합니다.}

10104 @ 아: {아,}

10104 #1 그레가꼬 우리도 쪄, 행사 다 하며는 거시, 거 시:간다치면 메뵐 메칠, 그라고 시간다치면 하고, 그 후:로는 인자 시간 라고, 양인 축제 끝나도라근 우리 우더 거 지뽈 공예를 하고 이썬요. {그레 가지고 우리도 저, 행사 다 하면은 거시, 거, 시간 닥치면 몇 월 몇 일, 그렇게 시간 닥치면 하고, 그 후로는 이제, 시간 ** 왕인 축제 끝나도록은 우리, 우리들 짚공예를 하고 있어요.}

10104 @ 음: 예. {음, 예.}

10104 #1 오:월 오:일랄, 또 어리니날 또, 또 가서 또 하루 오고시 해:주고. {오월 오일, 또 어린이날 또, 또 가서 또 하루 가서 해주고.}

10104 @ 아: 그니깐 다른 마을 아니고 이, 여기 종오리 마을 분드란테 항 거 보면, 여, 머 자라시니까 그러게쪄? {아, 그러니까 다른 마을 아니고 이, 여기 종오리 마을 분들에게 한 걸 보면, 여, 뭐 잘하시니까 그러쪄쪄?}

10104 #1 자레서 그랄랍떠? 거가 그레도 인자 할찌 양께 쟁이도. {잘해서 그랄랍디까? 거기가 그레도 이제 할 줄 아니까 그레도.}

10104 @ 아: {아,}

10104 #1 거시기 항께. {거시기 하니까.}

10104 @ 예: 지브로 뭇: 주로 짜:시나요? {예. 짚으로 뭇 주로 짜시나요?}

10104 #1 지비로 만들며는, 저, 송쿠리 안 이쑈여? {짚으로 만들면은, 저, 삼태기 있잖소?}

10104 #1 여러:께. {이렇게} @ 예 제 해서 제.{예, 재 해서 재} #1 여러께 그거또 거, 거

그다 기야 길: 실 어렵, 어렵소. {이렇게 그것도 거, 거기에다 그 실 어렵, 어렵소.}

10104 @ 아, 송쿠리 만드능게? {아, 삼태기 만드는 것이?}

10104 #1 예. 여거 시작할 때는 별 거 아:니지마는, 그놈 또, 지블. {예, 이게 시작할 때에는 별 게 아니지마는, 그것 또 짚을,}

10104 #1 이러케 데서, 꼬굴쳐서, 요넘 한나 예께 노코 또 저러가요. {이렇게 대서, 구부려서('꼬굴치다'는 '구부리다'의 방언), 이것 하나 아껴 놓고 또 걸어 가요.}

10104 #1 그러면 나:중에 또 그놈 인자 절:머는 그놈 사네키 까:가꼬 또 그러케 제송꾸리 하든 짐니를 다 압: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것 이제 걸으면은 그것 새끼 파 가지고 또 그렇게 재삼태기 하면 짚 일을 다 압니다.}

10104 @ 아: 쥔 어려움네요. {아, 제일 어렵네요.}

10104 #1 예. 네가 멍기라는 놈, 저, 술뽕도 멍기라봐:쥔. {예,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저, 술병도 만들어 봤지.}

10104 @ 술뽕이요? {술병이요?}

10104 #1 예. {예.}

10104 @ 술 이케 거테 쌍: 거? {술 이렇게 곁에 싼 것?}

10104 #1 여이쥔. 요러케 거, 웅:구병. {여기 있소. 이렇게 거, 웅기병.}

10104 @ 오: {오,}

10104 #1 요러, 요러케 해서, 요러케 여서, 요 쪼 쪼:까 쪼뽕, 또 시방 멍기라진 놈 하나 이썬라우.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조금 쪼뽕, 또 지금 만들어진 것 하나 있어요. 내가.}

10104 @ 음: {음.}

10104 #1 두: 게 멍긴노든 다 나가불고 업:꼬. {두 개 만든 것은 다 나가 버리고 없고.}

10104 @ 하하하.

10104 #1 또, 거시기 시방 데뽕 아 이쥔? {또, 거시기 지금 되들잇병('땃병'은 '되들잇병'의 방언) 있잖소?}

10104 @ 예. {예.}

10104 #1 뽕디시 이케 해:가꼬 올라가까꼬 쪼뽕다니 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쪼뽕하게 해서.}

10104 @ 아, 지브로 병을 만드셔파고요? {아, 짚으로 병을 만드셨다고요?}

10104 #1 만드라쥔요. {만들었어요.}

10104 @ 병모양으로, (웃음) 제주가, 손제주가 조으신, 하하하. {병모양으로, 제주가, 손제주가 좋으신, 하하하.}

10104 #1 아이라, 머 든 멍. {아니예요, 뭐 만.}

10104 #2 생:전 아네바썬도 그 저네는 요, 덕썬 절:고 안, 그라나요. {생전 안 해봤어도 그 전에는 이, 멍석 곁고 그러잖아요?}

10104 #1 덕썬 절:고, 모도 그룽 거시나 하고, 도래방썬 은. {멍석 곁고, 모두 그런 것이나 하고, 도래방썬은.}

10104 #2 도래방썬까튼, {도래방썬 같은,}

10104 #1 처:메 시작또 모테썬. 마:는 사람드른 어:트케 시자가냐고 나보뽕 갈쳐 주요. 근디 이저불든 아나고. 또 그:저네 배아놓 거시라. {처음에 시작도 못 했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냐고 나보고. 가르쳐 줘요. 그런데 잊어버리진 않고. 또 그 전에 배워 놓은 것이

라.}

10104 #1 또 끈메듭, 요, 맘: 할 때 그거또 잘 모다니까 나도 얻 어:체 해:봉께는 또, 다 안나저불고 또 해:집따다 잘. {또 끝 매듭, 이, 마무리 할 때 그것도 잘 못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보니까는 또, 다 안 잊어버리고 또 해집디다 잘.}

10104 @ 음: {음.}

10104 #1 시방 우리 마을 여: 도레방석 모도 큰: 놔도, 네가 예:: 삼 메따 오십 하고, 한 사: 메따 짜리는 나가불고, 네가 삼 메따 오십 절고. {지금 우리 마을 이, 도레방석 모두 큰 것도, 내가 예, 삼미터 오십하고, 한 삼미터짜리는 나가버리고, 내가 삼미터 오십 절고.}

10104 #1 그거또 네가 크게 전: 놔도 나가불고 그레쑈. {그것도 내가 크게 결은 것도 나가 버리고 그렸소.} @ 아: {아}

10104 #1 시방 현:제 열따서쎈 저라는 놈, 헨찰 딱 박꼬 시퐁디 시방 보:간해가꼬 이쑈. 시 방. {지금 현재 열다섯 개 걸어 놓은 것, 현찰 딱 받고 싶은데 지금 보관하고 있소. 지금.}

10104 @ 어: {어.}

10104 #1 도:는 바던넌디 저, 차받 한 사لامي 아직 거식항께 성주하고 먼: 하나라고 안 가져가부러쑈. {돈은 받았는데 저, 차받 하는 사람이 아직 거시기하니까 성주하고 뭐 하느라고 안 가져가 버렸소.}

10104 #2 그 창고. {그 창고.}

10104 #1 시방 이쑈요. {지금 있어요.}

10104 #2 차: 늘:, {차 넣을,}

10104 #1 나께다 가서, {나중에 가서,}

10104 # 해 허시 허시쑈요. {해 하시 하십시오.} #2 지서야 인자 거, 저기 언, 가져간다고. {지어야 이제 거, 저기 언, 가져간다고.}

10104 @ 음: 궁께 그 수요가 인네요? 살려는 사لامي? {음,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네요? 살려는 사람이?}

10104 #1 야아. {예.}

10104 @ 그 도레방석 가통 것또이~. {그 도레방석 같은 것도.}

10104 #2 예.

10104 @ 음: {음.}

10104 #1 도레방석또 이제, 메빵석또 이제, 또 골망테도 이제. {도레방석도 있지, 멧방석도 있지, 또 먹동구미도('골망테'는 '먹동구미'의 방언) 있지.}

10104 @ 예. {예.} #2 골망테 이제. {먹동구미 있지.}

10104 #1 송쿠리, {삼태기} #2 머 신:도 이제, {뭐 신도 있지,} #1 또 집썸도 이제. {또 짚신도 있지,}

10104 #2 벨건 다 저. {별것 다 저.}

10104 #1 저 아라지마이로 게다. 그걸, 그거또 멧그라 농거또 이제. {저 '아라지'처럼 게다. 그것,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

10104 @ 머, 머:라고요? 머 아라지? {뭐, 뭐라고요? 뭐 아라지?}

10104 #2 엔:날. {옛날.}

10104 #1 아이, 엔:나레는 저, 일본 싸람드른 아라지라 하고 고거시 게따, 게다 보다가, 게 다도 일본, 쎡야 일본마리요. {아이, 옛날에는 저 일본 사람들은 '아라지'라 하고 그것이 '게 다'(일본말로서 '왜나막신'을 가리킨다.) 게다보고 게다도 일본 내나 일본말이오.}

10104 @ 어: {어,}

10104 #2 거가 엔:나레 거. {그것이 옛날에 그.}

10104 #1 아라지도 게, 게다. {아라지도 게, 게다.} #2 거시기 거 저 {거시기 그 저}

10104 #2 나:무로 멘든 켜파 인. {나무로 만든 게다.}

10104 @2 예, 예. {예, 예.} #2 이뜨라고요 큰 {있더라고요. 그것,}

10104 #2 그렇 시기로 헤:서 접:띠다 지비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곁읍디다('절다'는 '곁다'의 방언) 짚으로.}

10104 @ 아, 집, 지브로? {아, 짚, 짚으로?}

10104 #1 그러면 여, 발 세에다 끼여 가꼬. {그러면 이, 발 사이에다 끼워 가지고.}

10104 @ 아: {아,}

10104 #1 꼬타불 이러케 헤:서. {꼬나풀 이렇게 해서.}

10104 @ 아: 요세 가트면 쉼다리구만. {아, 요즘 같으면 샌들이구먼.}

10104 #2 마라자면 샌달. {말하자면 샌들.}

10104 @ 쉼다런디, 집, 지브로 만든 쉼달. {샌들인데 짚, 짚으로 만든 샌들.}

10104 #1 나케다 가서 보시문 다 이쓰 나케다 가서 보시문 다 이썬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 다 있어 나중에 가서 보시면 다 있어요.}

10104 @ 예: 알게썬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05 @ 지금 이제 마으리 사라미 썬 주러드러꼬. 옛날하고 비:교해보니 머:가 달라전나요? 마으리? {지금 이제 마을에 사람이 좀 줄어들었고. 옛날하고 비교해 보니 뭐가 달라졌나요? 마을이?}

10105 #1 마으리 엔:나레는 고로 모:쌀고 그렌넌디 인자는 마:니 고로 산 퍼니여. {마을이 옛날에는 고루 못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고루 사는 편이요.}

10105 @ 아, 살기가 조아져썬요? {아, 살기가 좋아졌어요?}

10105 #1 살기가 마:니, 글마만치 조아지고. {살기가 많이, 그만큼 좋아지고.}

10105 @ 예. {예.}

10105 #1 여, 여그도 우리 마으리 동쪽, 서쪽, 거시기헤썬라. {여, 여기도 우리 마을이 동쪽, 서쪽, 거시기했어요.}

10105 #1 그란디 동쫘게는 먼 엔:나레는 서:숙뺨 허썬, 여그는 밥, 밤 무꼬 산:다고 여그 서구뎨는 밥쟁이라고 헨:는디, 인자는 그거시 업:꼬. {그런데 동쪽에는 무슨 옛날에는 조밥하지, 여기는 밥, 밥 먹고 산다고 여기 서구는 밥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고.}

10105 @ 예: {예.}

10105 #1 더 오이로 거, 그짜게가 돈:도 마:니 이꼬 더, 더 잘 살고 그레요. {더 오히려 그, 그쪽이 돈도 많이 있고, 더, 더 잘 살고 그레요.}

10105 @ 아: 아, 엔:나레는 두, 양:쫘그로 데 가지고, 동쪽, 서쪽. {아, 아, 옛날에는 두, 양쪽으로 돼 가지고, 동쪽, 서쪽.}

10105 #1 야: {예.}

10105 @ 동쪽 싸람드른 몬:싸라꾸마뇨? {동쪽 사람들은 못 살았구먼요?}

10105 #1 예:나레는 그레쫘. {옛날에는 그랬지요.}

10105 @ 드리, 드리 저:건나요? 거기까? {들이, 들이 적었나요? 거기까?}

10105 #2 저그 막 드른 입꾸예요. {저기 막 들어오는 입꾸예요.}

10105 @ 아: {아,}

10105 #2 거기가 동구태라고 그래요. {거기가 동구태라고 그래요.}

10105 @ 동구태. {동구태.}

10105 #1 동, 동서, 동, 서, 서구, 서구시고. 동서라고. {동, 동서, 동, 서, 서구, 서구고. 동서라고.} #2 엔:나레는 요쪼근 서구태라 하고 {옛날에는 이쪽은 서구태라 하고}

10105 #2 그 저네는 요 서구태가 더 부:자드리 마네딱 하데요. {그 전에는 이 서구태가 더 부자들이 많았다고 하데요.}

10105 @ 음: {음.}

10105 #2 간디 인자는 서구태가 인자 부:자드리 더 어, 읍:써저블고 동구태로 가고. {그런데 이제는 서구태가 이제 부자들이 더 어, 없어져 버리고 동구태로 가고.}

10105 #1 동구태가 인자 더 부자가 마, 만체. {동구태가 이제 더 부자가 마, 많지.}

10105 #2 절문 사람드리라. {젊은 사람들이라.}

10105 @ 음: {음.}

10105 #2 인자 여그는 노:인드리 다 인자 주거, 저 주거블고, 도라가시고 앙 계시고. {인자 여기는 노인들이 다 이제 죽어, 저 죽어버리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10105 @ 음: {음.}

10105 #2 그랑께 인자 더 골:라네지고 썸:쪼게서는 더 맨: 절문 사람드리라 더, 어찌게 하든 성:시레서 해:가꼬 다 돈 마:네가꼬 부:자들 데야썸. {그러니까 이제 더 곤란해지고, 저 쪽에서는 더 맨 젊은 사람들이라 더 어떻게 하든지 성실하게 해 가지고 다 돈 많아 가지고 부자들 되었어.}

10105 #1 요, 요구 소구, 소구떼서 농사진 사라미 엄마니 나, 나 나나하고 징:기리하고 호기하고, 요 거서 지:노, 도고베끼 더 인능가. 동구태가 더 마:네. {이, 여기 서구, 서구태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나하고 진길이하고 호기하고, 이, 거기서 진호, 독오밖에 더 있는가. 동구태가 더 많아.}

10105 #2 동구태가 농사도 체 마네. {동구태가 농사도 훨썸('채'는 '훨썸'의 뜻) 많아.}

10105 @ 음: 예: 거그도 다 가튼 박씨. {음, 예. 거기도 다 같은 박씨.}

10105 #2 예: {예.}

10105 #1 다 또까터요. 그란디, {다 똑같아요. 그런데,}

10105 @ 아: {아,}

10105 #1 엔:나레, {옛날에,}

10105 @ 예, {예,}

10105 #1 예:, 줄 자부텅이하고 골궁치고 하며는 동서로 나나가꼬. {예, 줄 잡아당기기하고, 걸궁치고 하면은 동서로 나눠 가지고.}

10105 @ 아: {아,}

10105 #1 저 삼충각 썸, 저 짜그로는 동, 동이고, 삼충각 요짜그로는. {저 삼충각(전라남도 기념물 제 108호. 임진왜란 때 명량 전투에서 순절한 박형준과 그의 아들 효남, 호남 등 세 부자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정려각이다). 저, 저 쪽으로는 동, 동이고, 삼충각 이쪽으로는.}

10105 @ 아: {아,}

10105 #1 저, 서쪼기고 그래가꼬. 줄자부텅이 하면 불만해썸라. {저, 서쪽이고 그래 가지고 줄 잡아당기기 하면 불만했어.}

10105 @ 아: {아,}

10105 #1 해해

10105 @ 줄 자부탱기고? {줄 잡아당기고?}

10105 #1 줄, 주를 요리케 동에줄마니로 떼:락 크게 트러서 지비로 멘드라서. {주, 줄을 이렇게 동아줄처럼 엄청나게('떼락'은 엄청나게 큰 것을 강조하는 말) 크게 틀어서 짚으로 만 들어서.}

10105 @ 아: {아.}

10105 #1 그레썸라. {그랬어요.}

10105 #1 그, 그어까쩍 다 다 알:고 이썸만. {그, 그것까지 다 다 알고 있소만.}

10105 @ 네에. 그제 언:제썸이나 업:썸저썸요? 그런 게? 언제부터서? {네, 그제 언제썸이나 없어졌어요? 그런 게? 언제부터서?}

10105 #1 고거시: {그것이.}

10105 @ 언:제까지 헤썸니까? {언제까지 했습니까?}

10105 #1 우리 에레서 여나무살 머거서 헨:넌디. {우리 어려서 여남은살 먹어서 했는데.}

10105 @ 예. {예.}

10105 #1 그 뒤:로는 업:썸저볼고 안 함띠다. {그 뒤로는 없어져 버리고 안 함디다.}

10105 @ 그면 한 오:십년. {그러면 한 오십년.}

10105 #1 한 오:십년 더다니, 한 육썸년. {한 오십 년 더, 한, 한 육십 년.}

10105 @ 육썸년? {육십 년?}

10105 #1 육썸년 더 데거썸. {육십 년 더 되겠소.}

10105 #2 나 와서나, 몰라 나 와서는 안 헤썸꺼요. {나 와서는, 몰라 나 와서는 안 했을 거요.}

10105 #1 아, 장시니 저 저 수무사레 와썸께 거, 그땀마네도 네가 이:시보녀니께 얻:, 아네 썸. {아, 당신이 저 저 스무살에 왔으니까 그, 그때만해도 내가 이십오 년이니까 어, 안 했지.}

10105 #2 나 와서는 아네썸. {나 와서는 안 했어.}

10105 #1 네가 여나무살 나머 무거서 헤썸, 헤썸께. {내가 여남은 살 남짓 먹어서 했어, 했으니까}

10105 @ 그러머는 유기오, 유기오 저네. {그러면은 육이오, 육이오 전에.}

10105 #1 저니요, 전. {전이요, 전.}

10105 @ 저네까지는 헤:따 그 마리구뇨? {전까지는 했다 그 말이군요?}

10105 #, @ 예. {예.}

10105 #1 헤:방 데기 저네 모도. {해방 되기 전에 모두.}

10105 @ 그면 유기오 이후:부터. {그러면 육이오 이후부터?}

10105 #1 네. {네.}

10105 @ 이제 그런 노리드리 다 업:썸저버려꼬. {이제 그런 놀이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

10105 #1 그레썸요. {그랬지요.}

10105 @ 웨 업:썸저썸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10105 #1 인자 아나니까 인자 모도 업:썸집띠다. 결국도 무지 어, 우리 마으리 억썸께 친 디여요.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모두 없어집디다. 결국도 무지 어, 우리 마을이 억세게 친 곳 이에요.}

10105 @ 예: {예.}

10105 #1 궁기도. {**도.}

10105 @ 인자 요세는 아남니까? {이제 요즘은 안 합니까?}

10105 #2 걸궁도 다: 이썬요. {걸궁도 다 있어요.}

10105 #1 다: 인이, 다 이썬요 시방. 꼬:깁 가툽 거또 다 이꼬. {다 이, 다 있어요 지금. 고 깁같은 것도 다 있고.}

10105 @ 어: {어.}

10105 #2 징이여, 장구여, 방구여 다 인. {징이며, 장구며, 방구며.}

10105 @ 도시도 가:끔 연초엥가는 허던테. 걸궁 치고 막 가:게 도라다니면서 먼: 얻꼬. {도시에도 가끔 연초쫂에는 하던테. 걸궁 치고 막 가게 돌아다니면서 뭘 얻고.}

10105 #2 여그도 먼 녁가는. {여기도 몇 년간은.}

10105 #1 명질 다치면 마당 불분다고. {명질 닥치면 마당 밟는다고.}

10105 @ 예. {예.}

10105 #1 그거슬 해:요. {그것을 해요.}

10105 @ 예: 마당 불분다고요.{예. 마당 밟는다고요.}

10105 #1 예. {예.}

10105 @ 예, 집쫂마다 도라텡김서. {예, 집쫂마다 돌아다니면서.}

10105 #1 예. 집쫂마당 도라텡이면 암마네도 그저 마:꺼썬요? {예. 집쫂마다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그저 말 것이오?}

10105 @ 예. {예.}

10105 #1 쌀뜨리라도 떠나야야제. {쌀이라도 떠 놓아야지.}

10105 @ 예. {예.}

10105 #1 또 도:이라도 쫂 또 뎡마마나, 뎡마노니나 해야제. {또 돈이라도 쫂 또 몇 만이나 몇 만원이나 해야지.}

10105 @ 하하하 예: 음. {예. 음.}

10105 #1 우리지도 우리 마을도 한 제가, 한. {우리도, 우리 마을도 한 지가, 한.}

10105 #2 한 지금 이삼년 아넽능가 {한 지금 이, 삼년 안 했는가?}

10105 #1 이, 사:년, 한, 하노년 남. {이, 사년, 한, 한 오년 남짓.}

10105 @2 : 아니여. 그라네. {아니야, 그렇지 않아.}

10105 #1 이삼년, 한 사:년. {이삼 년, 한 사년.}

10105 @ 아: 최:근까지도 하썬나요? {아, 최근까지도 하썬나요?}

10105 #1 그, 해:썬, 해:썬요. 우리, 우리까지 해:썬. {그, 했어, 했어요. 우리, 우리까지 했어.}

10105 @ 아: {아,}

10105 #1 건, 거시기 나 아까 거 말 합띠여? 소리한 양반 이꼬 거. {거, 거시기 나 아까 그 말 하썬습디까?{'-읍디요'는 '-읍다까'의 방언) 소리하는 양반 있고 그.} @ 예. {예.}

10105 #1 누구요, 거 거그 치고 , 나, 나하고, 저 종테썬. 요 호:기썬라 하고 또 쟁:친 사람 이꼬. 고 먼며시 해요. 허먼 인잔 여아드림 주로 또 하고. {누구요? 거 거기 치고, 나, 나하고, 저 종테 썬, 여기 호기썬랑 하고 또 징 치는 사람 있고. 그 몇몇이 해요. 하면 이제 여자들이 주로 또 하고.}

10105 @ 하하하. 제민는데. {하하하, 재밋는데.}

10105 #1 한 멘 년 되야꺼썬요 헨 제가. {한 몇 년 되었썬어요 한 지가.}

10105 #1 하, 하, 하노년 되야썬. 아, 모녀눔 하노년 되, 되야썬. 그 후로 한 이때 하다가

또 아네부러제. {한, 한, 한 오년 되었어. 아, *** 한 오년 되었어. 그 후로 한 이태 하다가 또 안 해버렸지.}

10105 #1 시방도 여, 갈곡 둘:쫄리 한다하문 모임 이쓰면 이따가면 우리가 모타서 또 암싸람 모여이께 할라고 또 거, 굳, 궁기도 치고 그레라. {지금도 이, 갈곡('갈곡'은 영암 신북면 갈곡리를 가리킨다.) 들소리 한다 하면 모임 있으면 이따금 우리가 모아서 또 아무 사람 모여 있게 하려고 또 그, 궁, 걸궁도 치고 그래요.}

10105 @ 예: {예.}

10105 #1 그라든 우리가 소리할라 머:달라 함께 모:다거쫄께 저그 탄 디서 데려와썩쇼. 무나원들. 그레야꼬 거시게썩라. {그러면 우리가 소리하랴 뭐하랴 하니까 못 하겠으니까 저기 다른 곳에서 데려왔어요. 문화원들. 그레 가지고 거시기했어요.}

1.2 일상 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예: 예. 그 다오메 인제 마오레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구요, 그 다메 인제 우리 하라버님 개인저긴 이야기를 좀 드께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겠썩니다.}

10201 @ 자, 여기서 쭉, 여기서 십쌔뎨썩부터 여기서 쭉. {자, 여기에서 쭉, 십삼 대썩부터 여기에서 쭉.}

10201 #1 그레썩요. {그랬지요.}

10201 @ 태어나신 디도 이 마오리고이~? {태어나신 곳도 이 마을이고.}

10201 #1 예. {예.}

10201 @ 예: 머 부모님도 다 그러코. {예, 뭐 부모님도 다 그렇고.}

10201 #1 그러지요. 조분, 조분, 저, 조부도 그라고 {그렇지요. 조부 조부, 조, 조부도 그렇고.}

10201 @ 다 여기서 농사 지시고. {다 여기에서 농사 지으시고.}

10201 #1 예. {예.}

1.2.2 결혼 과정

10202 @ 예. 그러면 우리 인자 할머니는 어:디라고 그러썩썩가요 그때? 친정어? {예. 그러면 우리 이제 할머니는 어디라고 그러썩썩가요? 그때? 친정어?}

10202 #2 도포요. {도포요.}

10202 #1 도포. {도포.}

10202 @ 도포, 도포면 여기서 얼마나 거:리가 데나요? {도포, 도포면 여기에서 얼마나 거리가 되나요?}

10202 #1 도포면. {도포면.}

10202 #2 여그서 거:리가 엄:마나 텡가 몰라도, 여그서,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10202 #1 거 한, 한, 한 삼십니 데꺼요. {그, 한, 한, 한 삼십 리 될 거예요.}

10202 #2 텍:씨 타머는 거으 가머는 그 저네는 마:년씩 주라고 합띠다. {택시 타면은, 거기 가면은, 그 전에는 만 원씩 달라고 합디다.}

10202 @ 어: {어.}

10202 #2 그랑께 멕 꺼리나 델랑가 몰라.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10202 #1 아니야, 한 삼십니 되야. {아니야, 한 삼십 리 돼.}

10202 @ 삼십니? {삼십 리?}

10202 #2 삼십니 텡가 어쨌가 몰른디 텍:씨 타고 가면 쫘 마:년씩, 구쳐년씩 하드라고. 지 그믄. {삼십 리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택시 타고 가면 쫘 만원씩, 구천원씩 하더라고. 지금은.}

10202 #1 거, 여, 저, 거시기 와, 와:낭께. 여그서. {거, 여기, 저, 거시기 와, 와 놓으니까. 여기에서.}

10202 #2 말:든 아네요. {말지는 않아요.}

10202 @ 아, 멀진 아나고? {아, 멀지는 않고?}

10202 #1 그레 안 머. 한, 삼십니 데야. {그리 안 멀어. 한 삼십리 돼.}

10203 @ 예, 그러머는 누가 중매를 하션나요? {예, 그러면 누가 중매를 하셨나요?}

10203 #1 중마라우? {중매요?}

10203 @ 예, 중마를 누구한테 헨나요? {예, 중매를 누구한테 했나요?}

10203 #1 중마 아넨넌디 따로, 따로옴띠다. {중매 안 했는데 따로옴디다.}

10203 @ 하하하.

10203 #1 중마 한 낭바니 이쨌께 또와찌요. {중매 한 분이 있으니까 또 왔지요.}

10203 @ 예: {예.}

10203 #2 옴:나른 보도 아나고 중마 헤가꼬 와쑈. {옛날은 보지도 않고 중매 해 가지고 왔소.}

10203 @ 암보, 암보써쑈요? {안 보, 안 보셨어요?}

10203 #2 예, 암바쑈요. {예, 안 봤어요.}

10203 @ 그레요? {그레요?}

10203 #2 예. {예.}

10203 #1 나도 보도 아나고 중마해쑈. 나도 저, 거시기 겨로네쑈. {나도 보지도 않고 중매 했소. 나도 저 거시기 결혼했소.}

10203 #2 여가 고무집 이쑈요. 망, 막똥이 고무가 여가 사러게. {여기에 고무집 있어요. 막 내 고무가 여기에 사셔.}

10203 @ 예: {예.}

10203 #2 그 낭바니 중마헤:게쑈. {그분이 중매하셨어.}

10203 @ 중마헤쑈요? {중매했어요?}

10203 #1 아예 달레 그르자네 그 낭바니 나 착씨라다고 중마이헤:조파우. {아예,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나 착실하다고 중매해 줬대요.}

10203 @ 예: 착씨라다고? 예: 착씨라시자나요. 글고 아, 어, 얼굴도 안 보써쑈만 보니까는

체격도 조:코 그러시죠? {예, 착실하다고? 예, 착실하시잖아요? 그리고 아, 어, 얼굴도 안 보
 셧지만 보니까는 체격도 좋고 그러시죠?}

10203 #2 예예, 겁나게 때락 커가꼬. {예, 엄청나게 굉장히 커 가지고.}

10203 @ 예: 자좌따 생가기 들딩가요? {예, 잘 왔다 생각이 들던가요?}

10203 @ 하하하

10203 @ 살:기는 어떠통가요, 나 오시니까? {살기는 어떻던가요, 오시니까?}

10203 #2 예? {예?}

10203 @ 여기 이, 시테게 오시니까. {여기 이 시택에 오시니까.}

10203 #2 겁나 골:라네씨요. {굉장히('겁나'는 '굉장히'의 뜻) 곤란했어요.}

10203 #1 엔:나레는 골:라네씨라. {옛날에는 곤란했어요.}

10203 @ 아, 골:라네꼬. {아, 곤란했꼬.}

10203 #1 엔나레는 골:라네가꼬 저도 제사들 마:니, 마이 제사들 모빠다씨요. {옛날에는 곤
 란해 가지고 저도 재산을 많이, 많이 재산을 못 받았어요.}

10203 @ 예. {예.}

10203 #2 그레가꼬 골:라네가꼬 어:런덜 우:게서 인자, 인자 총:각 때 삼:수로 어:띠게 그
 엔:나레는 세메다비라고 이씨. 바테가. {그레 가지고 곤란해 가지고 어른들 위에서 이제, 이
 제 총각 때 살면서 어떻게 그 옛날에는 '세메답'이라고 있어. 발에.}

10203 @2 : 아: {아,}

10203 #2 공:두페도 이꼬, 세메답또 이꼬. {'공두대'도 있고, '세메답'도 있고.}

10203 #1 보리밭. {보리밭.}

10203 @ 무슨 말? {무슨 말?}

10203 #1 보리바테 가면. {보리밭에 가면.}

10203 @ 예. {예.}

10203 #2 풀, 풀. {풀, 풀.}

10203 #1 풀, 세메다비 지러나요. {풀, 세메답이 길어나요.}

10203 @ 풀 이르미 세메다비예요? {풀 이름이 세메답이예요?}

10203 #1 예. {예.}

10203 #2 세메답또 이꼬 공:두페도 이꼬. {세메답도 있고, 공두대도 있고.}

10203 #1 공:주페도 이꼬 그란디 그거슬 마:이 뜨더다 무그며는, 사:라미 마이 무그른 부어
 요, 부어. {공두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많이 뜯어다 먹으면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부어
 요, 부어.}

10203 #2 그랑게 골:라낭게 그 저네 어머니나.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그 전에 어머니나.}

10203 #1 부서. {부어.}

10203 #2 어머니나 할미나 그 공:두페를 뜨더다가.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 공두대를 뜯어
 다가.}

10203 #1 아이, 나는. {아이, 나는.}

10203 #2 죽 썬주고 그레가꼬, 땡:땡: 부서가꼬. {죽 썬 주고, 그레 가지고 땡땡 부어서.}

10203 #1 나는 어려서 썬, 일제 때 하꼬 땡임시로 읍:, 땡:땡 부서가꼬 땡잉게 골:라나다고
 싸를 한 데 주더니. {나는 어려서 저, 일제 때 학교 다니면서 어, 땡땡 부어 가지고 다니니
 까 곤란하다고 싸를 한 되 주더니.}

10203 #1 그 이튼날 강게 또 싸를 한 데 더 줍, 줍따. {그 이튼날 가니까 또 싸를 한 되

더 줍디다.}

10203 @ 아: {아.}

10203 #1 그레가꼬 무꼬 텅에라 허고 어째, 땡:땡 부서가꼬 텅잉께 안줍땡. 모도 학생들 인는디서 가:치 그라고 이쫑께. {그래 가지고 먹고 다녀라 하고 어째, 땡땡 부어 가지고 다니니까 안 좋습땡. 모두 학생들 있는 데서 같이 그렇게 있으니까}

10203 @ 예: {예.}

10203 #2 검나 골:라네게딱 험띠다. {굉장히 곤란하셨다고 합디다.}

10203 @ 그제 쯔 독쟁이 인는 모양이쥬? {그제 쯔 독성이 있는 모양이쥬?}

10203 #2 예, 예. 검:나 동에라. 그거시. {예, 예. 굉장히 독해요.}

10203 @ 예. {예.} #1 도게. {독해.}

10203 #2 그 푸리비. {그 풀잎이.}

10203 @ 예: {예.}

10203 #1 그언만 뿌니라? 그건 무그먼 다행인디 저, 옴:날 누파가통거또 보까서 무꼬. 별 건 다: {그것만 뿐이라요? 그것 먹으면 다행인데, 저 옛날 등겨('누까'는 '등겨'의 방언) 같은 것도 볶아서 먹고, 별것 다.}

10203 @ 아: {아.}

10203 #2 옴:나레는 요, 방에 찌고, 보리 방에 찢 놔, 그놈 떼께가꼬, 거 죽제가 몽글디 몽글면 그놈 가꼬 게:떡 해:무꼬 그라드만. 거기다 쿵 너가꼬. {옛날에는 이, 방아 찧고, 보리 방아 찧은 것, 그것 다시 곱게 찧어 가지고('떼끼다'는 한 벌 찧은 보리 등을 더 곱게 찧는 것을 가리킨다.), 거 등겨가('죽제'는 '등겨'의 방언형) 몽글디 몽글면, 그것 가지고 개떡 해먹고 그러더구먼. 거기에다 쿵 넣어 가지고.}

10203 @ 예: {예.}

10203 #2 어:런더리. {어른들이.}

10203 @ 그레 인제 고모, 거 고모, 친정 고모니미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 {그래 이제 고모, 그 고모, 친정 고모님이 이제 중매를 해 가지고.}

10203 #2 예. {예.}

10203 @ 해:선는데. 그러며는 어: 겨론할 때 그러면 어트케 오, 오, 겨론할 때 먼 가:마타고 오시고 그 때도 그랜나요?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 겨혼할 때 그러면 어떻게 오, 오, 결혼할 때 뭐 가마 타고 오시고 그때도 그랬나요?}

10203 #2 아니요, 추렉 타고 와썬요. 추렉. {아니요, 트럭 타고 왔어요. 트럭.}

10203 @ 트럭. {트럭.}

10203 #1 추:룩까지야 거시기, 옴:나레는 짐짜세. {트럭까지 거시기, 옛날에는 화물차일세.}

10203 #2 짐차. {화물차.}

10203 @ 어: {어.}

10203 #2 추렉. {트럭.}

10203 #1 추렉쓰 타고 가쥬. {트럭 타고 갔지.}

10203 #2 타고 찌:: 사네로 어:디로 옹께 꼭 머 산중이로 시지본줄 아라썬라. {타고 저 산으로 어디로 오니까 꼭 뭐 산중으로 시집온 줄 알았어요.}

10203 #1 거시기, 거아 거, 거시기 금지 미차 모:동께. {거시기, 거기가 거, 거시기 금지 미쳐 못 오니까.}

10203 #2 방망골로 썰리 온디. {방망골로 저리 오는데.}

10203 #1 보망. {보망.}

10203 #2 꼴창이로 오드마. {꼴짜기로 오더구먼.}

10203 #1 방망골로 와도, 와쓰까? {방망골로 왔을까?}

10203 #2 방망골로 와쎄. {방망골로 왔지.}

10203 #1 아이 어장생이로 드와쎄. {아니 오장성으로 들어왔지.}

10203 #2 궁게 예장생이가 아니여 방망골 어:디로 드룽게 꼭 산꼴창 가뜨만. {그러니까 오장성이 아니야. 방망골 어디로 들어오니까 꼭 산꼴짜기 같더구먼.}

10203 #1 방망골로 와쓰른 그때가 도로가 업써쎄. {방망골로 왔으면 그때가 도로가 없었어.}

10203 #2 야:튼 방망골로 어:디로 웅게 산꼴창이데? {하여튼 방망골로 어디로 오니까 산꼴짜기데.}

10203 @ 아, 하하. {아, 하하.}

10203 #1 아이 그라고 요, 어장생이로 이리 와 가꼬 썰 제똥이서 안 네레쎄? {아이, 그리고 이, 오장성으로 이리 와 가지고 저 잿등에서 내렸잖아?}

10203 #2 그레똥까 어쎄똥까 몰라. {그랬든지 어쎄든지 몰라.}

10203 #1 제똥에서 네레쎄. {잿등에서 내렸어.}

10203 #2 수무살 무거서 시지바썰게 머 석:또 업:써쎄라 그뎐. {스무 살 먹어서 시집왔으니까 뭐 철도('숙'은 '철'의 뜻) 없었어요 그때는.}

10203 @ 아, 그레 하라버니른 거기 저, 처가로 인제 가서, 가서야데자나요. 그때도 짐차 타고 가서쎄요? {아, 그레 할아버님은 거기 저, 처가로 이제 가서, 가서야 하잖아요. 그때도 화물차 타고 가셨어요?}

10203 #1 저는 거리가쎄요. {저는 걸어갔어요.}

10203 @ 아, 거리가쎄요? {아, 걸어갔어요?}

10203 #1 예. {예.}

10203 @ 예: {예.}

10203 #1 저는 저: 아버님하고. {저는 저, 아버님하고.}

10203 @ 예. {예.}

10203 #1 저, 저, 저 제:종 형님, 저 키 큰 양반도 거가 게:싱게, 제:종 형님하고. {저, 저, 저 재종 형님, 저 키 큰 분도 거기에 계시니까, 재종 형님하고.}

10203 #1 나하고 중마, 중방쟁이는 함 지고 가고. {나하고 중매, 중매장이는 함 지고 가고.}

10203 @ 아: {아,}

10203 #1 그라고 거리가쎄요. {그렇게 걸어갔어요.}

10203 @ 예. {예.}

10203 #1 거까지. {거기까지.}

10203 @ 아: {아.}

10203 #2 난 거러온지 머:다곤지. {난 걸어온 줄 뭐 하고 온 줄.}

10203 @ 거 마으른 어떻 간, 어떠덩가요? 여기 이쪼가고 비:교해 보니까 도포는. {그 마을은 어떤, 어떻덩가요? 여기 이 쪽이랑 비교해 보니까 도포는.}

10203 #1 쎄야 비:교해보른 여그나 간, 가:썰떠다. {내나 비교해 보면 여기나 같습디다.}

10203 @ 예예. {예.}

10203 #2 그래도 거그는 여그 안 가터. 여그 시지봉께는, 먼 데학생 한나도 업꼬, 먼 학생 한나도 업:는디. 거그는 데학생드리 검:나 마너요. {그래도 거기는 여기 같지 않아. 여기 시집오니까 무슨 대학생도 하나도 없고, 무슨 학생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1020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3 #1 암마네도 발찌니, 발찌니 더 잘테야농께 그라제 여그는. {아무래도 발전이, 발전이 더 잘 되어 놓으니까 그러지. 여기는,}

10203 @ 아: {아,}

10203 #1 머 여그는 그렘마 무썸만 살:라고 예:를 써쥔. {뭐 여기는 그때는 먹고만 살려고 애를 썼지.}

10203 @ 예: {예.}

10203 #1 머 거, 갈친 사람도 업:, 그리 업:써꼬 그레쥔마는 인자는, 인자는 모도 갈칠라고 예:를 쓰고 다. {뭐 그,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없었고 그랬지마는 이제는, 이제는 모두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다.}

10203 #2 우리 친정 마으른 데::테로 거시기 멘:장, 멘:장이 데:테로 이서서 나로요. {우리 친정 마을은 대대로 거시기 면장, 면장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요.}

10203 @ 그 마으레서 멘장이 날따고요? {그 마을에서 면장이 났다고요?}

10203 #2 예: 위페. {예, 웃대.}

10203 #1 멘장이 데테로 데:도. {면장이 대대로 돼도.} #2 ** 그 마으레서 {** 그 마을에서}

10203 @ 어: {어.}

10203 #2 안 떠나고, 요 낭바니 드러가시면 또 파른 낭바니, 다른 아, 아제가 나오시고, 하나부지가 나오시고, 오빠가 나오고, 데:로. {안 떠나고, 이분이 들어가시면 또 다른 분이, 다른 아저씨가 나오시고, 할아버지가 나오시고, 오빠가 나오고, 대대로.}

10203 @ 허허허

10203 #2 나 알게도 멘 사라미 멘:장헌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몇 사람이 면장을 하는데.}

10203 @ 음: {음.}

10203 #2 그레가꼬 다: {그래 가지고 다.}

10203 #1 거시기꾸마. 오빠네 윤중이. {거시기했겠구먼. 오빠네 윤중이.}

10203 #2 교:편 자부고 그란디 여그는 옹께는. {교편 잡고 그러는데 여기는 오니까는.}

10203 #1 ** 윤:중이, 요, 용달 씨, 모도 거시기헤쥔. 또 그 우그로 또 하고. {** 윤중이, 요, 용달 씨, 모두 거시기했지. 또 그 위로 또 하고.}

10203 #2 또 거 망:중 아짐네집씨 거그서도 멘:장, 거, 하나부지도 멘:장 하시고. {또 그 망중 아주머니 집에서든 면장, 그, 할아버지도 면장 하시고.}

10203 @ 여기는 인제 주로 농사 지:꼬. {여기는 이제 주로 농사 짓고.}

10203 #2 예, 예. {예, 예.}

10203 @ 그러케 사시는. {그렇게 사시는.}

10203 #1 예, 그때, 그때는 저 당:수기, 처넌땅숙보다 멘:장하라해도 아네게뜨라네. {예, 그때, 그때는 저 당숙이, 천해 당숙보고 면장하라고 해도 안 하셨더라네.}

10203 #1 왜냐며는 멘:장 잘 모다든 요거더 무근다고. {왜냐면 면장 잘 못하면 욕 얻어 먹는다고.}

10203 #2 해해해.

10203 #1 그래서 또 아나고, 아나기도 하고, 주로 여그는 모사리, 모사리가 이꼬 소:제지가 가까웁게 모사리 사람드리 마:니 하고 그레썬요. {그래서 또 안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주로 여기는 모산리, 모산리가 있고, 소재지가 가까우니까 모산리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랫어요.}

10203 @ 모살리? {모살리?}

10203 #1 모산리. {모산리.}

10203 @ 예. {예.}

10203 @2 : 유씨. {유씨.}

10203 @ 으:음. {으음.}

10203 #1 모살리 쩌. {모산리 저.}

10203 #2 거가 술차니 쎄요. {거기가 상당히('술차니'는 '상당히'의 뜻) 세요.}

10203 #1 버들 여, 버들 유씨드리. {버들 여, 버들 유씨들이.}

10203 #2 저러케 먼 여런 성. {저렇게 무슨 이런 성.}

10203 #1 무나 유씨들. {문화 유씨들.}

10203 #2 나머는. {나면은.}

10203 @2 : 응, 지금도. {응, 지금도.}

10203 #2 먼 노:인들도 썩 다 나아요. {노인들도 썩 다 나와요.}

10203 #1 가:고 또 수:가 기일 만체. 저저 쩌저 심부썬만 해도. {그리고 또 수가 제일 많지. 저저 신북에서만 해도.}

10203 @ 음: {음.}

10203 #2 삭: 뽀꼬 이러나서 다 아주 선저나고. {썩 벗고 일어나서 다 아주 선전하고}

10203 @ 아주. {아주.}

10203 #2 겐나 쎄. {굉장히 세.}

10203 @ 하하하. 조지기 잘 데꾸만. {하하하. 조식이 잘 땀구먼.}

10203 #1 그라고 거시게요 시방 웬만한 소:제지 치고는 심북 상다이 크요. {그리고 거시기 해요. 지금 웬만한 소재지치고는 신북 상당히 커요.}

10203 @ 예: {예.}

10203 #1 모사니 쩌 드리가면 모사니 딱 썬이제 학교 여서 중하꼬 서교 저 초등하꼬 이쎄. {모산이 저 들어가면 모산이 딱 짜이지 학교 여기서 중학교 서교 저 초등학교 있지.}

10203 #1 또 올평니 딱 웨:싸가꼬 오늘평 상다이 크게 베이요. {또 월평리 딱 에워싸 가지고 원월평 상당히 크게 보여요.}

10203 @ 예: {예.}

10203 #1 이 시:종보듬 더 외:로 더 크게 뵈에 소:제지가. {이 시종보다 더 오히려 더 크게 보여 소재지가.}

10203 @ 네. 중방쟁이:는 그때는 하:믈 지고 어, 가서 그냥 좀 놀리지요? {네, 중매장이는 그때는 함을 지고 어, 가서 그냥 좀 놀리지요.}

10203 @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10203 @ 예, 이어서 하겠습니까.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1.2.3 전통 혼례식

10207 @ 그러면 그때 거론해쓰, 하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그머고 마:니 다르자나요. {그러면 그때 결혼하신, 하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10207 #2 그러지요. {그렇죠.}

10207 @ 그때는. {그때는}

10207 #1 거론 피로연이라노 먼, 전, 막 그, 그, 그 마으레 드리장께는 판지비다가 양끼드 마노. {결혼 피로연이라도 머, 저, 막 거, 그,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는 남의 집에다가('판 집'은 여기서는 '남의 집'을 뜻함) 앉히더구먼요.}

10207 @ 예: {예.}

10207 #1 그레가꼬 거, 거그서 요 모도 사람드리 와서 인사하고 머:다고 하고 거시가고는 그 술쌍 나오고 머:더고 그레쌈띠다. {그레 가지고 그 거기에서 요, 모두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뭐하고 거시기하고는 그 술상 나오고 뭐 하고 그레 쌍습디다.}

10207 @ 예: {예.}

10207 #1 그거시 그라고 쪼간 이쌍께는 예:시가로 드로간다고 거시게서 청년드리 마가싸 키레. {그것이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는 예식하러 들어간다고 거시기 해서, 청년들이 막아 대기예.}

10207 #1 머 하도 하구나 하초리라고 쪼로 해싸크레 아, 시, 어:디서 완냐고 여쭙라 그랑 거가따. {뭐 하도 하고 하초리라고 ** 해 대기예 어디서 왔냐고 여쭙라 그런 것 같다.}

10207 @ 응. {응.}

10207 #1 네 짐자게. {내 짐작예.}

10207 @ 하하하. {하하하.}

10207 #1 게서 얼렁 여~암군 심봉면 예, 갈공니서 예 더가리 아나뿌라기고 여 어 간다고 여쭙라고 예 해:뜨니 그레야고 그랍띠다. {그래서 얼른 영암군 신북면 예, 갈곡리에서 예, 덕하리 안암부락에 여어 간다고 여쭙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럽디다.}

10207 #1 아이, 썸:그서만 하문 쓴디. {아이, 저기에서만 하면 되는데.}

10207 @ 예. {예.}

10210 #1 메:빠늘 머꺼가꼬 그레싸꼬 절문 사람드리. {몇 번을 멈춰 가지고('머끄다'는 '멈추다'의 방언) 그레 대고 젊은 사람들이.}

10210 @ 예. {예.}

10210 #1 그란디. {그런데.}

10210 #2 엔:나레는 무지허게 억씨여씨요. 말:도 모더게. {옛날에는 무지하게 억쌌어요. 말도 못하게.}

10210 #1 나는 이상하게 거 천날 저녁게 젼:장 엄:마나 거시게뚱고 나도 어떠 아를 때 찢 똑떨똑하고 와서 {나는 이상하게 그 첫날 저녁에 젼장 얼마나 거시기 했든지 나도 내려올 때 절똑절똑하고 와서}

10210 @ 아: 발빠다글 마:니 마즈서씨요. 어허허허. {아, 발바닥을 많이 맞으셨어요. 어허허.}

10210 #1 안 마줄라고 하면 더, 더 떼린다. 으헤헤헤. {안 맞으려고 하면 더, 더 떼리는데. 으헤헤헤.}

10210 @ 허허허허.

10210 #1 아이, 말기지도 아납띠다. {아이, 말리지도 안 함디다.}

10210 @ 하하하. 말기지도. 하하. {하하하. 말리지도. 하하.}

10210 #1 말게줄찌 아라뜨~이. 이헤헤헤. {말려줄 줄 알았더니. 이헤헤헤.}

10210 #1 말게주도 아납띠다 차말로. {말려 주지도 않습디다, 정말로.}

10210 @ 엔:나렌 마:니 그레썬요이~ {옛날에는 많이 그렸어요.}

10210 #2 예: 마:니 그레썬요. {예, 많이 그렸어요.}

10210 @ 거, 머안다고, 신랑을 다룬다. {그, 뭐 한다고 신랑을 다룬다고.}

10210 #2 예, 실랑 다룬다고. {예, 신랑 다룬다고.}

10210 #1 예, 띠를 몽겨가꼬 강 열:마나 강. {예, 끈을 묶어 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10210 #2 실랑 다룬다고. {신랑 다룬다고.}

10210 @ 예, 허허. {예, 허허.}

10210 #2 띠로 몽겨가꼬 막 방망이로 두들고 그랴요 안 엔:나레는? 지그밍게 그라제. 지그
 른 어:디 실랑 여페서 온지나 아요, 간지나 아요? {끈으로 묶어 가지고 막 방망이로 두들기
 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니까 그렇지. 지금은 어디 신랑 옆에서 온 줄이나 알아요,
 간 줄이나 알아요?}

10210 #1 시방은, 시방은 거시기헌디. {지금은, 지금은 거시기하는데.}

10207 @ 시방도 함, 함. {지금도 함, 함.}

10207 #2 야, 함가통 거슨 가꼬 오지라. {예, 함 같은 것은 가져오지요.}

10207 #1 함 가통 거슨 가꼬 오도. {함 같은 것은 가지고 와도.}

10207 @ 예, 그럼 거, 처가에서 하루뽀 자고 오싱가요? {예, 그럼 그, 처가에서 하룻밤 자
 고 오시나요?}

10207 #1 그라지라우. {그렇지요.}

10207 @ 하루뽀 자고. {하룻밤 자고.}

10207 #1 하루뽀 자고 또 와야지요. {하룻밤 자고 또 와야지요.}

10207 @ 예: {예.}

10207 #1 저영네 노:다 봉께 한, 한 시, 뒤:시:나 데야썬띠다. 뒤:시 너머 너머쓰까? 세: 시
 가차이 되던디. {저녁내 놀다 보니까 한, 한 시, 두 시나 되었습디다. 두 시 넘었을까? 세
 시 가깝게 되던데.}

10207 #1 그때마네도 동지딸 보르밍게. {그때만 해도 동짓달 보름이니까.}

10207 #1 자만숨도 모:짜고 온또 다 찌저불고 나는 오슨 찢 찌:끼든 아네썬라. 인저비, 인
 저비 다 찌끼제. {잠 한숨도 못 자고, 옷도 다 찢어 버리고. 나는 옷은 찢기지는 않았어요.
 인접이('인접'은 신행 때 함께 간 상객을 가리킨다.), 인접이 다 찢겼지.}

10207 @ 오, 가치 간 분드리. {오, 같이 간 분들이.}

10207 #1 예. {예.}

10207 @ 하하하하.

10207 #2 그라지요. {그렇지요.}

10207 #1 그러지라. {그렇지요.}

10204 @ 남자드른 멀: 해주고 여자드른 멀: 해줍니까? {남자들은 뭘 해주고 여자들은 뭘

해줍니까?)

10204 #1 나는 해:중거또 업:써. {나는 해준 것도 없어.}

10204 @ 여자들도 해:중 거. {여자들도 해준 것.}

10204 #2 남자도 머 그때는 골:라남께 머또 해:주도 아나고. {남자도 뭐 그때는 곤란하니까 무엇도 해 주지도 않고.}

10204 #1 그때는 예:물도 아네주고 기양 그테로 그테로. {그때는 예물도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10204 @ 여자드른 멀, 멀: 하셔씀니까? {여자들은 뭘, 뭘 하셨습니까?}

10204 #1 하장품도 아, 아네가꼬 완는디 그때. {화장품도 아, 안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10204 #2 거시기 저, 이불 한나 해:가꼬 시지바췌. {거시기 저, 이불 하나 해 가지고 시집 왔지.}

10204 @ 이불 하나, 아: {이불 하나, 아.}

10204 #1 이닝니블 온, 오다고 그렁 거시나 해:가꼬 와췌. {자기 입을 옷, 옷하고 그런 것이나 해가지고 왔지.}

10205 @ 음. 거론, 이쪼게 오시니까 식꾸드리 누구누구 이쓰시딩가요? {음. 결혼, 이쪽에 오시니까 식구들이 누구누구 있으시던가요?}

10205 #2 시아바니 게:시고 하나부지, 할머니는 아니 하나부지는 도라가시고 양계시데요. {시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데요.}

10205 @ 예: {예.}

10205 #2 함머니 게:시고 시어머니, 시아바니, 또 말:모단 자근아부니가 함분 게:셔요. {할머니 계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말 못하는 작은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10205 @ 가치 사라췌요? {같이 살았어요?}

10205 #2 예: {예.}

10205 #1 가치. {같이.}

10205 #2 큰집췌 사라게췌. 나는 인자 우리는 두췌::께 근디 큰집췌 사르시고. 거 종조췌. {큰집에서 사췌지. 나는 이제 우리는 둘췌니까. 그런데 큰집에서 사시고. 그 종조 췌.}

10205 @2 예, 예. {예, 예.}

10205 #2 거 구:네 땡인 그 조카가 거가 큰지비요. {그 군에 다니는 그 조카가, 거기가 큰 집이오.}

10205 @2 아: {아.}

10205 #1 거가 큰지비여. {거기가 큰집이야.}

10205 #2 거그서 인자 거뜨 머시기 헤췌. 그 형니미 모:세췌 다. {거기서 이제 머시기 했지. 그 형님이 모셨지 다.}

10205 @ 아: {아.}

10205 #2 우리 성니른 열릴곱쌀 무거서 시지바게딱 헤췌. {우리 형님은 열일곱살 먹어서 시집오셨다고 했어.}

10205 @ 어: {어.}

10205 #2 그레가꼬 고 게:신디서 인자 모도. {그래서 그 계신 데서 이제 모두.}

10205 #2 하나, 할머니, 우리 아버님, 거시기 우리 어먼님, 시숙, 자 말무단 자근아부지, 일곱, 우리 성님, 나, 시누드른 다 여워블고 업:떼요. {할아, 할머니, 우리 아버님, 거시기 우리 어머님, 시숙, 말 못하는 작은아버지, 일곱, 우리 형님, 나, 시누이들은 다 여의어 버리고 없

데요.}

10205 #2 조카드라고 궁께 수가 검:나 마네써. {조카들하고, 그러니까 수가 굉장히 많았어.}

10205 #1 **** 한지비서 다 사라써. {**** 한집에서 다 살았어.}

10205 @ 오: {오,}

10205 #2 한지비서 삼:시롱 그때는 다:: 미영베 나:가꼬 두루메기여, 두루메기 바느질 하제. 온 끼미제. 히:가 히논 맨나 히논만 이봉께. 징헤쏘 빨레, 빨레 하니라고. {한 집에서 살면서 그때는 다 무명베 낳아 가지고 두루마기며, 두루마기 바느질 하지, 옷 꿰매지. 하얀 흰 옷 만날 흰옷만 입으니까. 징그러웠소. 빨레, 빨레하느라고.}

10205 #1 빨레하다 밤메제 머. {빨레하다 밭 매지 뭐.}

10205 #2 엔:나레는 숨 나:서도 바지 허요 앙 거. 숨 나:서 바지 꿰미고. {옛날에는 숨 넣어서도 바지 하잖소 그? 숨 낳아서 바지 꿰매고.}

10205 @ 음: {음.}

1.2.4 결혼 생활

10211 #2 그래가가꼬는 거그서 삼년 사란능가 이:년 사란능가. {그래 가지고는 거기에서 삼 년 살았는가, 이 년 살았는가.}

10211 #1 큰지비서? {큰집에서?}

10211 #2 예. {예.}

10211 #1 한 삼년, 삼년 사러쥬. {한 삼 년, 삼 년 살았지.}

10211 #2 한 삼년 사라쓰꺼시오. 그래야꼬 쥬:깐 오두막찌비로 인자 이:사와쥬쥬. {한 삼년 살았을 것이오.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오두막집으로 이제 이사왔었지.}

10211 #1 저, 지까 떠끼고 업:쥬. 고거. 저그 저 쥬:그 헤:관 우게 쥬:그 저짜긴디. {저, ** 뜯기고 없어 그쥬. 저기, 저 저기 회관 위에 저기 저쪽인데.}

10211 #2 이자 요리 인자 짜글라질라간 지반나 사가꼬 와쥬. {이제 이리 이제 쓰러지려고 하는 ('짜그라지다'는 '집 따위가 쓰러지다'의 뜻) 집 하나 사 가지고 왔어.}

10211 @ 음: {음.}

10211 #2 살:다가 지비 기양. {살다가 집이 그냥.}

10211 #1 여그도 고:가여쥬는디. {여기도 고가였었는데.}

10211 #2 지서쥬 우리가. {지었어 우리가.}

10211 @ 예: {예.}

10211 #2 예. 지선는디 지비 조금 야참께 지서저쥬 그때는. {예. 지었는데 집이 조금 얇게 지어졌어 그때는.}

10211 #1 그때마네도 암파네고 지서쓰면 조:꺼신디. {그때만 해도 안 파내고 지었으면 좋을 것인데.}

10211 #2 조:꺼신디 너머 파네부러쥬. {좋은 것인데 너무 파내 버렸어.}

10211 #1 호기 뚝딱 헤서 파네부뜨니 후헤생게. {흙이 높다고 해서 파내버렸더니 후회가 생겨.} #2 나도 이:리 여그 와서 꺾도 헤:쥬예 {나도 일이 여기 와서 꺾도 했어요.}

10211 @ 음: {음.}

10211 #2 집 지서쎄. 그때 새마을 가꺼 할 때 단:장 저런 땀: 썩 썩 행낭채 모도 고간채 다:: 집. {집 지었지. 그때 새마을 가꾸기 할 때 담장 저런 담('땀'은 '담'의 방언) 저, 저 행낭채 모두 곳간채 다 집.}

10211 #1 썩 저 아폐가 다 여 땀지비요, 땀. 그라몬 네가 이사와가꼬 다 지비로 용마람 트러서 다 거시기하고 덩꼬. {저 저 앞이 다 담집이오 담. 그러면 내가 이사와 가지고 다 짚으로 용마람 틀어서 다 거시가 하고 덩고}

10211 #2 퍼게서 이지비 드러와썰때. 하이고, 서기나 일. {퍽 해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하이고, 퍽이나 일.}

10211 #2 그레가꼬 인자 이려고 병:신텁께 누가 아라주요? 그때 항거슨 어:디 다 불고. {그레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신되니까 누가 알아줘요? 그때 한 것은 다 어디 가 버리고.}

10211 #1 해해해해.

10211 @ 허허허허.

10211 #1 나도 일 무지하게 헤쎄. 안 한상 불러도. {나도 일 무지하게 했어. 안 한 것 같아도. ('성 부르다'는 '것 같다'의 뜻)}

10211 @ 예: {예.}

10211 #2 우리는 성:지리 그베가꼬 일: 나두고는 모:데. 언녕언녕 헤:부러야제. 그거시 골병이네. {우리는 성질이 급해 가지고 일 놔 두고는 못 해. 얼른 얼른 해 버려야지. 그것이 골병이네.}

10211 @ 해해해.

10211 #1 아이 동:네 하다무테 마당마 하여, 하도 노코 나만 빌려가고담 데려가고. {아이, 동네 하다못해 마당만 해도 나만 빌려가고 데려가고}

10211 #1 밀판질. 반지라이 요리케 문데야제. 저, 보, 보뚝도 나는 느껴 가도 얼렁 오, 오라 헤 싸코 거 감도기. 거 탄 사람 막 보네불고 일찍 가도. {밀판질. 반질하게 이렇게 문질러야지.('문데다'는 '문지르다'의 방언) 저, 보, 보 뚝도 나는 늦게 가도 얼른 오, 오라고 해 대고 그 감독이. 그 탄 사람 막 보내버리고 일찍 가도.}

10211 @ 오: {오,}

10211 #1 거 나는 또, 또 안 보네 생인. {그 나는 또, 또 안 보내 생전.}

10211 @ 이를 자라시니까 글조. {일을 잘하시니까 그러지요.}

10211 #1 아이 일 자라든 모다지마는. 그 누네 드러똥가 어제똥가. 그때마네도 또 세뎡가 통 거또 다 네게다 메껴불고 세멘 네주라 헤:싸코 머:다고. {아이, 일 잘하지는 못하지마는. 그 눈에 들었든지 어쨌든지. 그때만 해도 또 시멘트같은 것도 다 내게 맡겨 버리고, 시멘트 내 주라고 해 대고 뭐 하고.}

10211 #1 그때 그거또 귀차넙띠다마는 헤:도 할 쑤 업씨. 또 네가 또 고간문 끌러노몬 네:서 주고. {그때 그것도 귀찮습디다마는 그래도 할 수 없이. 또 내가 또 곳간문 열어 놓으면 내어서 주고.}

10211 #1 또 가 이:런 또 가:치 하고. 일 무지하게 헤쎄 나도. {또 가서 일은 또 같이 하고. 일 무지하게 했어 나도.}

10211 @ 예: {예.}

10211 #2 예: {예.}

10201 #1 아이, 오지게서 나도 하꼬를 몬 땡에 부쎄. 텅이다가 헤:방 후로. {아이, 오죽했으면 나도 학교를 못 다녀버렸소. 다니다가 해방 후로.}

10201 @ 아: 일 헐라구요? {아, 일 하려고요?}

10201 #1 아이, 그거시 아이고. {아이, 그것이 아니고.}

10201 #2 골:라남게 도:늘 모:떼중께 그라제 부문. {곤란하니까 돈을 못 대주니까 그러지 부모는.}

10201 #1 그랑께 인자 하꼬 텅에먼 인자 월싸그물 안 중께.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 이제 월사금을 안 주니까.}

10201 @ 예: {예.}

10201 #1 납뽀를 모:당께 나도 인자 나부꾸롭쎄. 선생한테 데이고 인자 학생들또 미아나고. {납뽀를 못하니까 나도 이제 낮부끄럽지. 선생한테 데이고 학생들도 미안하고.}

10201 @ 예: {예.}

10201 #1 에이 오:지게서 예, 헤:방 후로 안 데에부쓰꺼시요? {에이, 오죽했으면 예, 해방 후로 안 다녀 버렸을 것이지?}

10201 @ 아: {아,}

10201 #1 부모드리 업:썰께 얼릉 거 학뻘을 안중께. {부모들이 없으니까 얼른 그 학비를 안 주니까.}

10201 @ 예: {예.}

10201 #1 예기, 네 팔자가 이랑가비다 그라고는, {에이,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그러고는,}

10201 @ 하하하.

10201 #1 일 헤:무글 팔짜다. 지비서 어:디 나갈라게도 나갈 쭈도 업:꼬 쌀, 서 어머니 서 쌀, 서이 이쓰른 쌀 서: 데만 주썰요. {일 해 먹을 팔자다. 집에서 어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도 없고, 쌀, 어머니 쌀, 서이 있으면 쌀 석 되만 주십시오.}

10201 #1 그 동아에 네가 어:디 가든지 직짜~에 드리갈라그끔 에이 쯔쯔 업:썰께 안조불고 어:디 모까부러. {그 동안에 내가 어디 가든지 직장에 들어가려고 에이 쯔쯔 없으니까 안 줘 버리고, 어디 못 가 버려.}

10201 #2 아조 지금도 그란다 이따거면. 쌀 서: 데만 어머니가 조:쓰머는 나 직장에 가서 페나나니. {아주 지금도 그런대요 이따금. 쌀 석 되만 어머니가 줬으면은 나 직장에 가서 편안하께.}

10201 #1 그라고 일, 이라나고. {그리고 일, 일 안 하고.}

10201 #2 이라나고 사:꺼신디. {일 안 하고 살 것인데.}

10201 #1 그때 누가 말 헤:조서 시계빵이라도 보내준다 헨:넌디. {그때 누가 말 해 줘서 시계방이라도 보내준다고 했는데.}

10201 @ 아. {아,}

10201 #1 그때마네도 관한헤:쓰꺼신디 인자 거그 가쓰면. {그때만 해도 괜찮았을 것인데 이제 거기 갔으면.}

10201 #2 서:데 안 조서 이려고 이:레무꼬 산:다고. {석 되 안 줘서 이렇게 일해 먹고 산다고.}

10201 @ 하하하하.

10201 #1 아이, 시방잉께 우습 나오고 그러구로, 아이고, 그때 차말로 서:름, 서:름 나오고 눈물도 마:니 흘르고 그레제. {아이, 지금이니까 웃음 나오고 그러고, 아이고, 그때 정말로 설움, 설움 나오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지.}

10201 @ 예: {예.}

10201 #1 시방잉께 인자 그런 예:기도 하고 저런 예:기도 한다. {지금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10201 #2 제:칸 인자 돈: 버러가꼬 제:칸 또 논 한마지거나 두:마지거나 사고, 또 뎌 마지거나 서:마지거나 사고, 쪼까씩, 쪼까씩. {조금 이제 돈 벌어 가지고 조금 또 논 한 마지거나 두 마지거나 사고, 또 몇 마지거나 세 마지거나 사고, 조금씩, 조금씩.}

10201 #1 전답또, 저 전답또 다 네가 사썰요. {전답도, 전답도 다 내가 샀어요.}

10201 #2 그래가꼬. {그래 가지고.}

10201 #1 집또 그라고. {집도 그렇고.}

10201 #2 그래도 하인 한 수물 뎌 마지기 데네요. {그래도 한, 한 스물 뎌 마지기 되네요.}

10201 @ 아, 아이구. {아, 아이고.}

10201 #2 집 찌스고, 자식들 다선 녀우고. {집 짓고, 자식들 다섯 결혼시키고.}

10201 @ 마:니 버션네. {많이 버섯네.}

10201 #2 그랑께 병:거또 마니 버러썰라. {그러니까 번 것도 많이 벌었어요.}

10201 @ 예: {예.}

10201 #2 인자, 인자 도:는 업:제라. {이제, 이제 돈은 없지요.}

10201 #1 그마만치 네가 인자 깡깡하니 하고 모아썰께 그라제, 그라나면, {그만큼 내가 이제 단단하게('깡깡하다'는 '단단하다'의 뜻) 하고 모았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10201 @ 처, 처:메는 아무거또 업따가. {처,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다가.}

10201 #1 아, 그레제. {아, 그렇지.}

10201 @ 노난나도 업:꼬. {논 하나도 없고.}

10201 #1 어, 업:썰제. {어, 없었지.}

10201 @ 아: {아.}

10201 #2 큰집썰 논 서:마지기 타가꼬 나와썰요. {큰집에서 논 서 마지기 타 가지고 나왔어요.}

10201 #1 에이, 머이 타가꼬 나와썰. {에이, 뭐가 타 가지고 나왔어.}

10201 #2 에이, 그레 타가꼬 나와썰 머:시 어썰썰? {에이, 그렇게 타 가지고 나왔지 뭐가 어썰어?}

10201 #1 아이, 저 네가 저 주저 버:러논놈 원: 저 자기 또 두:마지기 인는 노고 그넌 저 거시기 상하냥도 안 드러간 저 거시기 서:마지기아고 가까웁께 그놈 버러라고 헨디, {아이 저 내가 저 부처 놓은 것('벌다'는 '논 따위를 부치다'의 방언) 원{'원'은 '원래의'의 뜻) 저 자기 또 두 마지기 있는 것하고 그것 저 거시기 ** 안 들어간 저 거시기 서 마지기하고 가까우니까 그것 부치라고 했는데,}

10201 #1 머:러도 그놈 자기트로 두:마지기 버제 누가 그, 또 그넌 삼포기여. {멀어도 그것 자기 손으로(?) 두 마지기 부치지, 누가 그, 또 그것 산 썸이야.('폭'은 '썸'의 뜻을 갖는 의존명사)}

10201 @ 어: {어.}

10201 #1 사:냥 다 너 너:서, 인자 해:썰께. {** 다 너, 넣어서 이제 했으니까.}

10201 @ 아: {아.}

10201 #1 궁게 제:불 삼포기여. {그러니까 두 차례('제불'은 '재벌'로서 '두 차례'의 뜻) 산 썸이야.}

10201 @ 음, 하하하.

10201 #1 켄 함마지기 더 이따게서 그거시 문제가 아이제. {한 마지기 더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10201 @ 예: 하이튼 데:다나심니다. 스물 마지기 이상을. {예,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스무 마지기 이상을.}

10201 #2 예: 겁나게 서:럽게 사:라써, 서:럽게. 일:도 무:지하게 해써. 나는 나제마는. {예, 굉장히 서럽게 살았어, 서럽게. 일도 무지하게 했어. 나는 나지마는.}

10201 @ 아: {아,}

10201 #2 일 무:지하게 해써. 소니로 몸똥아리로 해:서 사라써. 놔더런 머리로 영:리해서 산디 우리는 모미로 노력해서. {일 무지하게 했어. 손으로 몸똥아리로 해서 살았어. 남들은 머리로 영리해서 사는데 우리는 몸으로 노력해서.}

10201 @ 하하하. 그 스무, 스무마지기 이상 버:시면 그래도 인자. {하하하. 그 스무, 스무마지기 이상 버시면 그래도 이제.}

10201 #2 우리 싱냥은 허지요. {우리 식량은 하지요.}

10201 #1 아, 인자 우리는 머꼬. {아, 이제 우리는 먹고.}

10201 @ 엔나레, 엔:날부터도 쫘 엠만큼 싱냥도 하고, 애들 다 가르칠마나케 그러케 해써요이~? {옛날에, 옛날부터도 좀 웬만큼 식량도 하고, 애들 다 가르칠만 하게 그렇게 했지요?}

10205 #2 갈치도 모:데써요, 예기들또.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아이들도.}

10205 @ 어: {어.}

10205 #1 그랑게 포도시 코드~하꼬 나오고, 저, 데야꼬 나온 노른, 막똥이만 나완능가 데야꼬? {그러니까 겨우('포도시'는 '겨우'의 뜻) 고등학교 나오고, 저, 대학교 나온 놈은, 막똥이만 나왔는가 대학교?}

10205 #2 막똥이만 쩌: 목포, 목포 거 어:디. {막똥이만 저 목포, 목포 그, 어디.}

10205 #1 데불? {대불?}

10205 #2 목포 가면 데:불학꼬 이써. {목포 가면 대불학교 있어.}

10205 @ 데:불데약. {대불대학.}

10205 #1 응. {응.}

10205 #2 데불데약, 거그 나와뜨라. {대불대학, 거기 나왔더래요.}

10205 @ 아: {아,}

10205 #1 이:년데? {이년대?}

10205 #2 이:년. {이년.}

10205 @ 어? 사:년제 아니여? {어? 사년제 아니에요?}

10205 #2 사:년탱가 이:년탱가. {사년대인가 이년대인가.}

10205 @ 궁게. {그러니까.}

10205 @ 응, 예. {응, 예.}

10205 #2 목포 거, 유, 융:기, 누구? 거 시수기 먼: 데야기요 거그는? {목포 그, 유, 윤기, 누구? 그 시숙이 무슨 대학이요 거기는?}

10205 #1 거그는 이:경, 이:경술씨라고 거그는 요 우리 고모님 아야, 아드리신디 나는 나로 해서는 행님텐디 목포 유달병원하고. {거기는 이경, 이경술 씨라고 거기는 요, 우리 고모님 아야, 아들이신데 나는 나에게는 형님 되는데, 목포 유달병원 하고.}

10205 @ 거 유달병원이니. {그 유달병원이지.}

10205 #1 유달병원하고 하교도 마:니 지:꼬. {유달병원하고 학교도 많이 짓고.}

10212 @ 그러면 아이를 나아가지고 이렇게 제급나션나요?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분가하셨나요?}

10212 #1 아이~요. {아니요.}

10212 #2 아:니요, 예기들 나:찌요. {아니요, 아이들 낳았지요.}

10213 @ 크넨. {큰애는.}

10213 #2 우리 저, 큰따를, 큰딸 임:신혜:가꼬 저급나와서 나:쑤웨. {우리 저, 큰딸을, 큰딸 임신혜 가지고 분가('저급'은 '분가'의 뜻) 나와서 낳았소.}

10213 @ 예: 그레썬요? {예, 그랬어요?}

10213 #2 예. {예.}

10213 @ 음: {음.}

10213 #2 그라고 인자 다, 다 여과서 나:썬. {그리고 이제 다, 다 여기 와서 낳았어.}

10213 @ 음: {으음.}

10213 #2 아니, 여그 와서 나:꾸나. {아니, 여기 와서 낳았구나.} #1 머::우. 막둥이 하나만 나:썬. {뭘, 우, 막둥이 하나만 낳았어.}

10213 #2 썬:그서 나꾸나. {저기에서 낳았구나.}

10213 #1 다 나:코, 오막찌비서 다: 나코 막둥이만 여과서. 그랑게 저 시:썬 저 미쟁이, 미쟁이가 여 안 갈란다코 막 기양 때 썬고 그레썬. {다 낳고 오두막집에서 다 낳고. 막둥이만 여기 와서. 그러니까 저 셋썬 저 미쟁이, 미쟁이가 여기서 안 가썬다고 막 그냥 때 썬고 그랬지.}

10213 #2 여그 이:상 이리 가썬다고 양갈란다코 거그서 산다고. {여기 이사 이리 가자니까 안 가썬다고 거기에서 산다고.}

10213 #1 거그서 살란다코. {거기에서 살썬다고.}

10213 @ 하하하, 요러코 조은, 조은 지비 인는디 안 간다고. 헤헤. {하하하, 이렇게 좋은, 좋은 집이 있는데 안 간다고. 헤헤.}

10213 #1 기도, 살:때 기도 시방 살:기보듬 그, 거가 더 나:썬. {그래도, 살 때 그래도 지금 살기보다 그, 거가가 더 나았어.}

10213 #1 팔짜 퍼네썬. 시방은 더 무더니 띠끼다 판나. {팔자 편했어. 지금은 더 무던히 뜯기다 끝나.{'판나다'는 '-다가' 다음에 썬여 '-다가 세월이 다 가다 또는 끝나다'는 뜻}

10213 #2 ** 썬간 더진 거시 더 머리가 아프데요. 더 썬간 질 때라. {**조금 더 지은 것이 더 머리가 아프데요. 더 조그맣게 지을 때라.}

10213 #1 아, 기예도. {아, 그레도.}

10213 #2 잘썬란는디. {잘 살았는데.}

10213 #1 기도 거그서 사라썬도 누가 뜨더간 사람 업:꼬, 어리통이 두:개썬 이썬꼬 그레썬. {그래도 거기서 살았어도 누가 뜯어가는 사람 없고, '어리통'(곳간이 없는 집에서 벼 따위를 넣어 두는 커다란 통)이 두 개썬 있었고 그랬어.}

10213 #2 히히히. {웃음}

10213 @ 머:시 이썬요? {뭘가 있어요?}

10213 #1 아이요, 자근 방에다 이빠이 썬여 노코. 오리통 이꼬. {아이, 이, 작은 방에다 가득 썬여 놓고. 어리통 있고.}

10213 @ 오:리통이요? {오리통이요?}

10213 #/#2 하하하.

10213 #1 어리통도. {어리통도.}

10213 #2 엔:나레는 나락 하문 이리코 어리통 만드라. {옛날에는 벼 하면 이렇게 어리통 만들어.}

10213 @2 아: 어리: {아, 어리.}

10213 #2 마리랑 마당에다 이리코. {광이랑('마리'는 '광'을 가리킨다.) 마당에다 이렇게.}

10213 @ 아, 아, 어리통을? {아, 아, 어리통을?}

10213 #2 함석 사다가 요로코. {함석 사다가 이렇게.}

10213 #1 함석 사다가 아니, 가마니 딱 하고, 켜, 하고, 또 함석 사, 사다도 하고. {함석 사다가 아니, 가마니 딱 하고, 저, 하고, 또 함석 사, 사다가도 하고.}

10213 #2 이 그때는 인자 그마니 농사 켜:칸 지어도 더 페넨넨디 요리고 농사 더 징게 요로코 고증하다고 그 말쓰미여게 지금. {이, 그때는 이제 그만큼 농사 조금 지어도 더 편했는데, 이렇게 농사 더 지으니까 이렇게 고되다고('고증하다'는 '고되다'의 뜻) 그 말씀이서 지금.}

10213 @ 그래도 인자 그때는 예기드리 어려쓰니까 하교 학삐가 안 들고, 크면 인자 학삐가 드니까 더 힘들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학교 학비가 안 들고, 크면 이제 학비가 드니까 더 힘들조. 아무래도.}

10213 #1 그라지요. {그렇죠.}

10212 @ 예. 그 아이를 가지거나 그러며는 막 입떠또 하고 그러서썩요? {예, 그 아이를 가지거나 그러면 막 입땃도 하고 그러셨어요?}

10212 #2 그웁, 그러지요. {그랬, 그렇죠.}

10213 @ 그러면 엔:날, 지그른 막 남편드리 머:또 사 주고, 머:또 사 주고 막 그란디. {그럼 옛날, 지금은 막 남편들이 무엇도 사 주고, 무엇도 사 주고 막 그런데.}

10213 #2 머또 사주도 아납떠다. {무엇도 사 주지도 않습디다.}

10213 @ 하하하

10213 #1 그렇 거이 업써썩. {그런 것이 없었어.}

10213 #2 그 저네는. {그 전에는.}

10213 #1 아이 차말로 나는 {아이, 정말로 나는}

10213 #2 거 입땡, 요, 우리 큰딸 날:때 거, 여가 예:긴지도 그때는 몰라썩요. 그런 뜨땡 지그밍 쪼깁 이짜면 병:위네 가서 보고 항게 예긴 증 알제, 머:디여 그때는 예긴 지도 모르지요. {그 입땃, 이, 우리 큰딸 낳을 때 거, 이것이 아기인지도 그때에는 몰랐어요. 그런 ** 지금이야 조금 있으면 병원에 가서 보고 하니까 아기인 줄 알지, 뭐 그때는 아기인 줄도('지'는 '줄'가 같은 뜻의 의존명사) 모르지요.}

10213 #2 그레가꼬 예, 멜:겍씨 거 수루메가 오중어가 무꼬 잡뜨라고요. 그뻬씨. {그래 가지고 예, 켜히 ('멜겍씨'는 '켜히'의 방언) 거 오징어{'수루메'는 '오징어'의 일본말)가 오징어가 먹고 싶더라고요. 뜬금없이{'금없이'는 '뜬금없이'의 뜻.}

10213 @ 어. {어.}

10213 #2 인자 해:봉게 알지요? {이제 해보니까 알지요?}

10213 @ 하하하.

10213 #2 아이 그:뻬씨 오중어가 무꼬 자바요. 이상하다. 인자, 그뻬 인자 이런 체경이 이

썩썩. 게로날때 거,그 게: 무더가꼬. 여름 여, 체경을 해:주더라고요. {아이, 뜬금없이 오징어가 먹고 싶어요. 이상하다.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체경이 있었어. 결혼할 때 그, 게 물어 가지고. 여, 여름 체경을 해주더라고요.}

10213 @ 음. {음.}

10213 #2 큰::노를 그란디, 거그 저, 우리 저기가 아서, 친구가 와서 기양, 껌:부러썩, 그거슬. 그랑께. {큰 것을, 그런데, 거기 저, 우리 저기가 와서, 친구가 와서 그냥 깨버렸어, 그 것을. 그러니까.}

10213 #2 머 영산포 장에로 체경 사로 간다고 그러고 가테요. 그래서 우메 나 수루메가 무꼬, 어째 수루메가 이상하게 무꼬 잠네. 수루메 한나 사다주썩요 그레썩. 인자 어:디 드:레서 이:라고 와가꼬. {뭐 영산포 장으로 체경 사러 간다고 그렇게 가테요. 그래서 아이고 나 오징어가 먹고, 어째서 오징어가 이상하게 먹고 싶네. 오징어 하나 사다 주시오 그랬어. 이제 어디 들에서 일하고 와 가지고.}

10213 #1 네여 그거인또 모르고 또 깜박 이저불고 와부썩. {에이, 그것인 것도 모르고 또 깜빡 잊어버리고 와 버렸지.} #2 수루메가 어디가 사다 난능가 오:만 디를 {오징어가 어디에 사다 놓았는지 모든 곳을('오만 곳'은 '모든 곳'의 뜻).}

10213 @2 : 하하하.

10213 #2 엔:나레는 바꾸리가통 거 막 동구리작가통 거 이썩썩라. {옛날에는 바구니 같은 것, 막 동구리 같은 것 있었어요.}

10213 @ 예. {예.}

10213 #2 흑썩 그런 데다 사다 너:난능가. 벨::반 디를 다 뒤여바도 머 수루메쟁이는 머:또 업썩. 그래서 서우네썩라. {흑시 그런 데다 사다 넣어 놓았는가. 별 군데를('반디'는 '군데'의 방언형) 다 뒤져봐도 뭐 오징어는 커녕 무엇도 없어. 그래서 서운했어요.}

10213 #1 그레가꼬 서우네따고 항:시 마:레썩라. {그레 가지고 서운했다고 항시 말을 해대요.}

10213 @2 : 예: {예.}

10213 @ 아: {아,}

10213 #1 나도 마:른 드린넌디 이저불곤 체경만 사가꼬 기양. {나도 말은 들었는데 잊어버리고는 체경만 사 가지고 그냥.}

10213 @2 : 하하하.

10213 #1 거 이칭께라 하고 해:서 썩부천넌디 거그서 또 썩서 너:서 {그 ***라 하고 해서 썩 붙었는데 거기서 또 썩서 넣어서}

10213 #2 그러고는 인자 예기덜 이썩도 먼: 목꼬 잔:능가 어쩐능가 모르거썩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 있어도 무슨 먹고 싶었는지 어땀는지 모르겠어요.}

10213 @ {웃음}

10213 #2 왜냐면 머꼬, 무꼬 시퍼서 머그니까 두러노꼬 나는 예:기슨 그거 깔:크마기라 안 시여네, 안 서농께 잘 몰라. {왜냐하면 먹고, 먹고 싶어서 먹으니까 들어눕고, 나는 아기가 든 그것, 가폴막이라 ('깔크막'은 '가폴막'의 방언) 안 들어, 안 들어 놓으니까 잘 몰라.}

10213 @ 음. {음.}

10213 @2 : 예? {예?}

10213 #2 머 머꼬 십꼬 그라든 아네썩. {뭐 먹고 싶고 그러지는 았았어.}

10213 @2 : 예. {예.}

10213 #2 깔크막하게 안 서파고. 예기 스면 손지도 모르게. {가폴막 있게 안 섰다고. 아기가 들면 든 지도 모르게.}

10213 @2 : 예: {예.}

10213 #2 이뜰 나부리고 그렌넌디 큰딸만 그러케 오중어가 무꼬 잡떼요. {** 낳아 버리라고 그랬는데 큰딸만 그렇게 오징어가 먹고 싶테요.}

10213 @ 으흐흠.

10213 @ 에들 나:은 후에. {애들 낳은 후에.}

10213 #1 딸, 그랑게 딸 랄라고 오중어가 말 업 구뭉꾸마. {딸, 그러니까 딸 낳으려고 오징어가 ****}

10214 @ 하하하, 아이들 나:코는 요세는 마:니들 쉬자나요이~. 엔:나레는 묻 쉬:셔쨌? {하하하, 아이들 낳고는 요즘은 많이들 쉬잖아요. 옛날에는 못 쉬쨌쨌?}

10214 #2 그러지요. {그렇쨌.}

10214 #1 시:도 모:다고 그때는. {쉬지도 못하고 그때에는.}

10214 #2 지그른 페나지요 엔:나레다 데:면. {지금은 편하지요, 옛날에 비하면('에다 대다'는 '-와 비교하다'의 뜻).}

10214 #1 인나서 도로 그, 이:라고. (일어나서{'인나다'는 '일어나다'의 방언) 도로 그, 일하고.}

10214 @ 메칠 마네 나가서 일: 하셔쨌요? {며칠 만에 나가서 일하쨌어요?}

10214 #2 어이고, 큰딸 망 나:노코, 아이, 큰딸 망 나:노코는 밤매다 나:코, 유:월따레 나쨌요. {아이고, 큰딸 막 낳아 놓고는, 아이, 큰딸 막 낳아 놓고는 발매다 낳고, 유월에 낳았어요.}

10214 #1 그 산 더울 때. {그 한창 더울 때} #2 여레쨌날 나쨌. 금방 쨌, 너머가쨌. 그렌넌디. {열엇쨌날 낳았소. 금방 저 넘어갔소. 그런데.}

10214 #1 음닉 유:월따랑게 그때도 더워, 더와쨌. {음력 유월이니까 그때도 더워, 더웠소.}

10214 #2 네:일 인자 콩발 맘:드리 한다 그람오 오늘 저니게, 오늘 나:쨌. 우리 저, 큰따를. {내일 이제 콩발 마지막 김매기 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늘 낳았소. 우리 저 큰따를.}

10214 #2 글때는 그냥:: 이레쨌이~. 큰딸 그레도 예기 나:가꼬는 비가 마:니 와쨌 그헤. 그랑게 바슬 몸: 멩게 마:니 시여쨌요. {그때는 그냥 일했쨌. 큰딸, 그레도 아기 낳아 가지고는 비가 많이 왔어 그 해. 그러니까 받을 못 매니까 많이 쉬었어요.}

10214 @ 음. {음.}

10214 #2 조리를 더 마:니 헤쨌. 그렌넌디 우리 크나들 나:코는 세밀도 양 가서 가마니 짜쨌요. 토:지 토:저가 양거서. {몸조리를 더 많이 했어.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 낳고는 삼 일도 안 가서 가마니 짰어요. 마루 마루에('토지'는 '마루'의 방언) 앉아서.}

10214 @ 음: {음.}

10214 #2 우리 형니마고 두:리. 가마니 짜야 그놈 파라서 무꼬 상께. {우리 형님하고 둘이서. 가마니 짜야 그것 팔아서 먹고 사니까.}

10214 @ 음: {음.}

10214 #2 일:도 퍼게쨌. {일도 무척 했소.}

10214 #1 예, 우리지비 와서 고상 마:니 헤쨌라우. {예, 우리집에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10214 #2 모 떼우고, 모 숭꼬. {모 떼고, 모 심고.}

10214 #1 우리지베 와서 고상을 마:니 헤쨌 차말로. {우리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 정

말로.}

10215 @ 허허허. 그러면 예기들 저, 나:코 나선 돌 가통 거슨 다 세워주고 그레씀니까?
{허허허, 그럼 아이들 저, 낳고 나서는 돌 같은 것은 쇠어 주고 그렸습니까?}

10215 #2 돌도 안 세쪼, 그때는 먼, 그때가 먼. 지금가치로, 지그른 돌 세우고 그라지마는.
돌도 안 세고. {돌도 안 쇠었지요, 그때는. 무슨, 그때가 무슨. 지금같이, 지금은 돌 쇠고 그
렇지만. 돌도 안 쇠고.}

10215 #1 도리문 도령갑따 하고 나, 나, 나이 너머가불고. {돌이면 돌인가 보다 하고, 나,
나, 나이 지나버리고.}

10215 #2 지그밍게 거식허제. {지금이니까 거시기하지.}

10216 @ 음: 그먼 예:기들 키우면서 기영 남는 이리 이쓰십니까? 머 에드리 마:니 아파따
등가, 아니면 예:드리. {음, 그럼 아이들 키우면서 기억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뭐 애들이
많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10216 #2 예, 우리 큰딸, 큰딸 부니가 마:니 아파썬요. 아파가꼬 저, 그때 먼:: 한디 친정에
로 먼 야글 가지로 간다고 가썬. 먼 야기, 존: 야기따고. {예, 우리 큰딸, 큰딸 분희가 많이
아팠어요. 아파 가지고 저, 그때 뭐 하는데 친정으로 무슨 약을 가지러 간다고 갔어. 무슨
약이, 좋은 약 있다고.}

10216 #2 우리 친정 어무니가 아이마다 썬, 거시기 우리집까 먼: 야기따마다. 가서 가파야
쓰거따 그라고. 여그 네:까썬 보가 이썬요. 보 건:닐라든 무리 검:나 지퍼요. {우리 친정 어
머니가 '아이 말이다, 저, 거시기 우리집에 무슨 약이 있단 말이다. 가서 가지고 와야 디썬
다.' 그러고. 여기 냇가에 보가 있어요. 보 건너려면 물이 매우 깊어요.}

10216 #2 간:디 우리 친정 어무니가 가서 약 가꼬 와서 그놈 양 미기고, 그놈 미기고, 어
썬 썬:헨 썬:헤썬. {그런데 우리 친정 어머니가 가서 약 가지고 와서 그것 약 먹이고, 그
것 먹이고, 어떻게 수윳헨 수윳헨어요.}

10216 @ 예: 머, 머, 먼: 병인지도 몰르고. {예. 뭐, 뭐, 무슨 병인 줄도 모르고.} #2 검:나
그거시 {굉장히 그것이}

10216 #2 예, 먼: 병인지도 몰르고, 검나 마:니 아파썬요. 그때는 인자 이른 사람드리, 절
무고 그랑게는, 머:시 어썬등가, 마:니 아파서 곧 주글라게썬. {예,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들이('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킨다), 젊고 그
러니까, 뭐가 어썬던지, 많이 아파서 곧 죽으려고 했어.}

10216 #1 그때 호녀기 아니여쓰까? {그때 홍역이 아니었을까?}

10216 #2 먼: 머시여썬까 몰라. 그레가꼬 우리 친정 엄니가 먼 약 가따 조:썬까 어썬등가,
그라고는 썬:레썬요. {무슨, 무엇이었던지 몰라. 그레 가지고 우리 친정 어머니가 무슨 약
갓다 썬던지 어썬던지, 그렇게 하고는 수윳헨어요.}

10216 #1 예헤어.

10216 #2 오메, 그때 차라꼬 예레서 저기헤가꼬 아따 그때 차라꼬 주거부러쓰든 요로코 아
나꺼신디 그란다고 밤나 그레썬. {아이고, 그때 차라리('차라꼬'는 '차라리'의 방언) 어려서
저기헤 가지고 아따 그때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이렇게 안 할 것인데 그란다고 밤낫 그렸
어.}

10216 @ 따리요? {딸이요?}

10216 #2 예. {예.}

10216 @ 하하하

10216 #2 아퍼싸꼬 그랑께. {자꾸 아프고 그러니까.}

10216 @ 아: 지금도요? {아, 지금도요?}

10216 #2 예, 차코 아퍼싸요. 전대병워니 즈그 지비여. {예, 자꾸 아파요. 전대병원이 자기 집이야.}

10216 @ 어이고. {아이구,}

10216 #1 시방 쉬운 두:링가? {지금 쉰 둘인가?}

10216 #2 쉬운 두:리제. {쉰 둘이지.}

10216 @ 오: 나이도 인자, 지금도 어디 아퍼요? {오, 나이도 이제, 지금도 어디 아파요?}

10216 #2 차코 아퍼싸요. {자꾸 아파요.}

10216 @ 오: {오,}

10216 #2 요, 모게 가서 거시기, 갑쌍서니 이써가꼬 고, 수술허고. {이, 목에 거시기, 갑상선이 있어 가지고 그 수술하고.}

10216 @ 아, 갑쌍선. {아, 갑상선.}

10216 #2 췌야 그거이 암: 종류라가데요. {내나 그것이 암 종류라고 하데요.}

10216 @ 예: {예.}

=1 #2 성:씨가 누구시요? 베까 아저씨? {성씨가 누구시요? 바깥 아저씨?}

=1 @2 : 남편, 남편요? {남편, 남편이요?}

=1 #2 예예. {응응.}

=1 @2 : 송, 송. {송, 송.}

=1 #2 송씨? {송씨?}

=1 @2 : 예. {예.}

=1 #1 송씨? {송씨?}

=1 #2 우리, 우리 사우는 신, 싱가포르. {우리, 우리 사위는 신, 싱가포르.}

=1 #1 송씨여라우? {송씨예요?}

=1 @2 : 예. {예.}

=1 #2 우리 사우도 알:면 다 알겐네. {우리 사위도 알면 다 알겠네.}

=1 #1 아이고, 종제허고도 가:치 일허고 다 알제. {아이고, 종제하고도 같이 일하고 다 알지.}

=1 #2 저 사우는 신영철.

=1 #1 신영:처리라고. {신영철이라고.}

=1 @2 : 예: {예.}

=1 @ 음: {음.}

=1 #1 거가 시방 쉬운 네:살. {거기가 지금 쉰 네 살.}

=1 #2 쉬운 네:살. {쉰 네 살.}

=1 @ 예: {예.}

=1 #2 송씨? {송씨?}

=1 @2 : 예. {예.}

10216 @ 흐흐흠, 다른 아이드른 머 크게 아프거나 크게 머 어찌거나 그런 이른 업씨꼬요? {흐흐흠, 다른 아이들은 뭐 크게 아프거나 크게 뭐 어찌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10216 #2 머 예기들도 인자 키:다가 봉께 또 마:니 아프제 아나푸꺼요? 다 이저불고 어:디가 아퍼서 어쩔능가는. {뭐 아이들도 이제 키우다가 보니까 또 많이 아프지 안 아플 것이

오? 다 잊어 버리고 어디가 아파서 어쨌는지는.}

10216 #2 또, 우리 또, 거시기, 저 두:짜 따른 그 때 마:니 아퍼가고 곧 주꺼썬. {또, 우리 또, 거시기, 저, 둘째 딸은 그때 많이 아파 가지고 곧 죽겠어.}

10216 #2 그래서는 우리 친정 아버지나 그때 우리 짐니, 그때는 지붕이로 짐 마람 여꺼서 짐 년디, 곧 주꺼썬 예기가. {그래서는 우리 친정 아버지나 그때 우리 쥘 이 그때는 지붕으로 쥘 이영 엮어서 쥘 이는데, 곧 죽겠어 아이가.}

10216 #2 그래서 거시기 어:쨌 이려고 예기가 요로고 마:니 아프끄나고, 머 예기가 숨:도 모:썬고, 말:도 모다고 그라더니. {그래서 거시기 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많이 아픈가 하고, 뭐 아이가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그러더니.}

10216 #2 아이, 가서 이제 어꼬, 어꼬 갈 때는 예기가 거시기 저 곧 죽꺼썬라. 디렁디렁하고 말 한자리도 아나고 가드니. {아이, 가서, 이제 업고, 업고 갈 때에는 아이가 거시기, 저, 곧 죽겠어요. 드렁드렁하고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더니.}

#2 가서 친 썬:그 시워리라 가서 체 네고 나서는 말:도 허고, 노래도, 콘노래도 부르고. {가서, 저기 시월리에 가서 체 내고 나서는 말도 10216 하고, 노래도, 콧노래도 부르고.}

10216 @ 어이고. {아이고.}

10216 @ 체 해, 체 해꾸나. {체해, 체했구나.} #2 그레가고 함번 그레썬. {그레 가지고 한번 그렸어.}

10216 #2 예, 체 해가고. {예, 체해 가지고.}

10216 #1 체 해, 체 해썬. {체해, 체했어.}

10216 #2 또 함버는, 그:미가 자꼬 아퍼썬썬. {또 한번은 금희가 자꾸 아팠었어요.}

10216 #2 저기, 또 함버네 아퍼가고 곧 주꺼썬. 그래서 그때 거, 저, 썬:그서 살 때 거 께 종나무로 요, 울짱에다가 께종나무를 시면넌디 그노를 비여다가 데야지마그로 지서썬. {저기, 또 한번은 아파 가지고 곧 죽겠어. 그래서 그때 그, 저, 저기서 살 때 그 '껴종나무'로 이, 울타리에다 께종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베어다가 돼지우리로 지었어요.}

10216 #2 그레께 동:전 나똥갑썬, 그때. {그래서 동티('동전'은 '동티'의 방언) 났던가 봐요 그때.}

10216 #1 아, 하하하.

10216 #2 동:정 나가꼬 곧 주건넌디 그놈 비여불 그놈 뜨더불고 제비하고 낭게 설하드라. {동티 나 가지고 곧 죽겠는데 그것 베어 버리 그것 뜯어 버리고 **하고 나니까 수월하더래요.}

10216 @ 오: 그먼, 긍까 그거는 나:무를 안 비, 나:무로 해:서는 안 텔 꺼슬 해:따 그 마리 지요? {오, 그럼, 그러니까 그것은 나무를 안 베어, 나무로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 그 말이 지요?}

10216 #1 그러지요. 데:고, 데:고 빔, 안 빌 꺼슬 비여봉께. {그렇지요. 함부로('데고'는 '함부로'의 뜻) 함부로 베, 베지 않아야 할 것을 베어 버리니까.}

10216 #2 데야지마그로 지서뜨니 그거시 타:리 나가꼬. 그레가고 두:, 두: 번 주글 고편을 넘겨썬. {돼지 우리로 지었더니 그것이 탈이 나 가지고. 그레 가지고 두, 두 번 죽을 고편('고폐'는 '고비'의 방언) 넘겼어.}

10216 @ 아: {아,}

10216 #2 ** 다룽 거뜰도 마:니 아퍼썬테지라우 인자. {** 다른 것들도 많이 아팠을 테지요 이제.}

10216 @ 예. 예. 예. 헤헤. {예. 예. 예. 헤헤.}
 10216 #1 그때 동:에지른 누가 헤똥가? {그때 ***은 누가 했던가?}
 10216 #2 큰집 시수기 헤:게꾸만. {큰집 시숙이 하셨구먼.}

1.2.5 시집살이

10218 @ 그 다으메 혹씨 그:, 우리 할머니는 시집싸:리는 어트케. {그 다음에 혹씨 그, 우리 할머니는 시집살이는 어떻게.}
 10218 #2 나는 시집싸리는 아나. {나는 시집살이는 안 해.}
 10218 @ 아나서씨요? {안 하셨어요?}
 10218 #2 예, 시집싸리 아네. {예, 시집살이 안 해.}
 10218 @ 시어머니가 조으션나. {시어머니가 좋으셨나.}
 10218 #2 예, 시집싸리는 아네씨. {예, 시집살이는 안 했어.}
 10218 #1 시집싸리는 아나고, 아이, 아나고 또. {시집살이는 안 하고, 아이, 안 하고 또.}
 #2 우리 형님도 조:으시고 {우리 형님도 좋으시고}
 10218 #2 시집싸리라고는 아네바서. {시집살이라고는 안 해봐서.}
 10218 #1 이를 잘 항께. {일을 잘 하니까.}
 10218 #2 먼 시집싸리 하고 먼. {무슨 시집살이하고 무슨.}
 10218 #1 시킬 꺼시, 시킬 거씨 업:썩께. {시킬 것이, 시킬 것이 없으니까.}
 10218 #2 그러면 징허니도 나는 안 조아헤. {그러면 굉장히('징허다'는 '징그럽다'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광장히'의 뜻) 나는 안 좋아해.}
 10218 @ 아: {아,}
 10218 #2 시집싸리 항 거시 업:씨가꼬 머:신지 머:신지 모르고 사라씨. {시집살이 한 게 없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
 10220 #1 어머이가 그러케 조아게씨라.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10220 @ 예: {예.}
 10220 #2 할머니나 어머이나. {할머니나 어머니나.}
 10220 #1 할머니도 그라고. {할머니도 그렇고.}
 10220 @ 아: {아,}
 10220 #2 엔:나레는 머글 꼬니에 쌀:도 안 시어머니드리 네:주고 안 그레썩 안. {옛날에는 먹을 끼니에 쌀도 시어머니들이 내어 주고 그러잖았소?}
 10220 #2 엔:나렌 베:추지 다머가꼬도 어:런더리 베:추지 다무먼 말레다 딱 도가지에다 다머서 가따 도:불고 메너리나 몸:무께. {옛날에는 배추김치 담가 가지고도 어른들이 배추김치 담그면 광에다 딱 독 안에다 딱 담아서 갖다 뒀 버리고, 며느리나 못 먹게.}
 10220 @ 아: {아,}
 10220 #2 상에만 노라고. 상에만 노라고 몸:무께 하고 그레따게씨. 그렌넌 나는 그렁 거슨 아네반넌디. {상에만 놓으라고, 상에만 놓으라고 못 먹게 하고 그랬다고 했어. 그랬는데 나는 그런 것은 안 해 봤는데.}
 10220 #2 싱냥 인자 싸:리 저기 형께 시어마니더른 싸를 마:니씩, 바블 모:다게항께 우리 형니미 모:르게 시어마니 모르게 싸를 언녕 마:니 떠다가, 인자 나 시집 와농께 예롭제. {식

량, 이제 쌀이 저기하니까 시어머니들은 쌀을 많이씩 밥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형님이 모르게 시어머니 모르게 쌀을 얼른 많이 떠다가, 이제 나 시집 와 놓으니까 어렵지.)

10220 @ 예. {예.}

10220 #2 그라나요. 밥 제:까씩 주기도 예롭꼬 그랑께 우리 형니미 쌀:도 마:니 퍼가꼬 와썬. 모:르게 마:니 퍼가꼬 바베가꼬. {그렇지 않아요? 밥 조금씩 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쌀도 많이 퍼 가지고 왔어, 모르게 많이 퍼 가지고 밥 해 가지고.}

10220 #2 엔:나렌 막 진짜 향:에다, 도가지에다 다머서 막 줄랑 짐체 도가지에도 노코 그레썬라. 한지 다머서 연:는디. {옛날에는 막 진짜 향아리에다 독에다 담아서 막 ** 김치독에도 놓고 그랬어요. 김장 김치('한지'는 '김장 김치'의 뜻) 담가서 넣는데.}

10220 #2 그런 디다가 막 바베서, 양파네다 퍼서, 막 감채노코 무꼬 그레썬. {웃음} {그런데다가 막 밥 해서, 양파에다 퍼서, 막 감취 놓고 먹고 그랬어.}

10220 @ 하하하, 형니미 조으썬네. {하하하, 형님이 좋으썬네.}

10220 #2 궁께 나느뇨이~ 시지바서. {그러니까 나는요 시집와서.}

10220 #1 그랑께 그 냥바니 요:랭이 이썬께 그레. {그러니까 그 양반이 요령이 있으니까 그레.}

10220 #2 나는 그랑께 궁:꼬 머:다고 그라도 아네썬. 그란디, {나는 그러니까 굶고 뭐하고 그러지도 안 했어. 그런데}

10220 #1 그레, 그냥바니 요:랭이 이썬께 그라제. {그레, 그분이 요령이 있으니까 그렇지.}

10220 #2 마네썬라우, 그때는. {많았어요, 그때에는.}

10218 @ 이 동네에서도 시집싸리 시:마게한 사람도 이썬썬요? {이 동네에서도 시집살이 심하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10218 #2 그라제라우. 시마게 한 사람도 이제. {그러지요. 심하게 한 사람도 있지.}

10218 @ 아: {아,}

10218 #2 궁께 나는 시집싸릴 아네바서 시지싸리라하든 몰. {그러니까 나는 시집살이를 안 해 봐서 시집살이라고 하면 몰라.}

10218 @ 네: {네.}

10218 #1 몰라, 시집싸리 헤:고도 아네따고 향가. {몰라, 시집살이 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지.}

10218 #2 아니여. {아니야.}

10218 @ 헤헤헤헤

10220 #2 아부니도 나를 이:빼허시고 할무이도 그라고 그랑께 몰라. {아버지도 나를 예뻐하시고 할머니도 그러고 그러니까 몰라.}

10220 #1 함머니가 아은두:레 도라가시고, 어머이는 뽕네:세 도라가셔썬. {할머니가 아흔 둘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백 넷에 돌아가셨어.}

10220 @2 : 음: {으음.}

10220 @ 아이구. 예: 아주 장:수지바니시네. {아이고, 네, 아주 장수 집안이지네.}

10220 #1 아여간 남자드룬 그르케. {하여간 남자들은 그렇게.}

10220 #2 우리 친정어머니가 아은니:세 도라가시고. {친정어머니가 아흔 넷에 돌아가시고.}

10220 @2 : 음: {으음.}

10220 #2 으호.

10220 @ 시누이는 오니까 머: 다 시집가부려서. {시누이는 오니까 뭐 다 시집 가 버려서.}

#2 예. {예.}

10220 @ 시누이도 업:꼬이~. {시누이도 없고.}

10220 #2 여워 불고 업:꼬 {여의어 버리고 없고}

10220 @ 스:

10220 #1 머 시누드리 업:썩께 먼 시집싸리라거도 누가 하 암:띠 아나고. {뭐 시누이들이 없으니까 무슨 시집살이라도 누가 아무도 안 하고.}

10220 @ 하하.

10220 #1 시누드리 시집싸리 싱킨다 하두만. {시누이들이 시집살이 시킨다 하더구만.}

1.2.6 환갑 잔치

10223 @ 예: 황:갑, 황:가븐 세서썩요? {예, 환갑, 환갑은 쇠셨어요?}

10223 #1 예: {예.}

10223 @ 아: 그 어떠케 세서썩요? {아, 그 어떻게 쇠셨어요?}

10223 #1 저:: 저 잔치, 잔치 해:가꼬, 거 잔치하고 그레썩요. {저 저 잔치, 잔치해 가지고, 그 잔치하고 그랬어요.}

10223 @ 동네에선 어:서 잔치합니까? {동네에서는 어디에서 잔치합니까?}

10223 #1 지비서 해:썩. {집에서 했썩.}

10223 @ 지비서? 하고 다 동:네싸람들 초테하고? {집에서? 하고 다 동네 사람들 초대하고?}

10223 #2 예. {예.}

10223 #1 그레썩요. {그랬썩요.}

10223 #2 지비서 초테해서 지비서 모도. {집에서 초대해서 집에서 모두.}

10223 @ 아: {아,}

10223 #1 그때는 홀차니 크게 세:썩요. {그때는 상당히('홀차니'는 흔히 '술차니'로 발음되는데 '상당히'의 뜻) 크게 쇠셨어요.}

10223 @ 어떠, 음:식 장마 그다:메 또 놀:기도 하고 그럼니까? {어떤, 음식 장만, 그 다음에 또 놀기도 하고 그럼니까?}

10223 #2 그러지요, 저녁:네 노라썩요 또. {그러지요, 저녁내 놀았썩요 또.}

10223 #1 저영네 와서 마을 양반드리 여그서 자:시고 가머넌 또 함바꾸 하고 와서 또 자:시고 늘 자시고. {저녁내 와서 마을 양반들이 여기서 드시고 가면 또 한바퀴 하고 와서 또 드시고, 늘 드시고.}

10223 @ 아: 하루 종일? {아, 하루 종일?} #2 예, 하루 종일, 저녁:게까장. {예, 하루 종일, 저녁까지.}

10223 #1 저녁:게까장도 놀:고. {저녁까지도 놀고.}

10223 @ 하하, 그러면 밥 안허고 여그 와서 다 세:번 다 멩나요? {하하, 그럼 밥 안 하고 여기 와서 다 세번 다 먹나요?} #2 예 그러지요. {예, 그렇썩.}

10223 #1 그러썩. {그렇썩.}

10223 #2 여그는 다 그러지요. 다 누구던지 다 그레요 그때는. 황:갑 세:고. {여기는 다 그러지요. 다 누구든지 다 그레요 그때는. 환갑 쇠고.}

10223 @ 아: 정말 황:갑잔치처럼 하, 해신네요. {아, 정말 환갑잔치처럼 하셨네요.}

10223 #2 예. {예.}

10223 @ 네: 요세는. {네, 요즘은.}

10223 #1 그때 나 주거부러쓰든 황:갑도 안세쓰겄 아닝가? {그때 나 죽어 버렸으면 환갑도 안 쇠었을것 아닝가?}

10223 #2 그러제. 누구든지 주거부러 안 세제. {그렇지. 누구든지 죽어 버리면 안 쇠지.}

10223 @ 하하하. 그래, 그, 자녀분드리 황:갑 상도 차려주고 그래썬요? {하하하. 그래, 그, 자녀분들이 환갑 상도 차려주고 그랬어요?}

10223 #2 그래썬요. {그랬지요.}

10223 #1 그라고 여게, 자녀드리 다 그거 해:제. {그리고 여기 자녀들이 다 그것 했지.}

10223 @ 예: {예.}

10223 #1 운나: 아날라고 헨넌디 자녀드리 다 거시기해가꼬.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다 거시기 해 가지고.}

10223 @ 따님드리이~. {따님들이.}

10223 #1 사우들또 이:기해가꼬 다. {사위들도 얘기해 가지고 다.}

10225 @ 그러면 그때는 머 다른 집때도 황:갑잔치도 초대바다서 가시고. {그러면 그때는 뭐 다른 집 때도 환갑잔치도 초대 받아서 가시고.}

10225 #2 그러지요. {그러지요.}

10225 @ 그때는 그냥 빈:소느로 감니까? {그때는 그냥 빈손으로 감니까?}

10225 #2 그때는 먼:, 머또 해:가 지금가간니면 돈:도 가꼬가고 그란디 그때 그 저네는 그러케 머 돈:도 별로 안가꼬가고. {그때는 무슨, 무엇도 해 가지 지금과 같으면 돈도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때 그 전에는 그렇게 뭐 돈도 별로 안 가져 가고.}

10225 #1 벨라 아나. {별로 안 해.} #2 술 한 되씩 바다가꼬 가고 막 그래썬라. {술 한 되씩 받아 가지고 가고 막 그랬어요.}

10225 #1 ** 인자 인사로 수란데씩 바다가꼬 가기도 하고. {** 이제 인사로 술 한 되씩 받아 가지고 가기도 하고.}

10225 #2 머, 또 이러코 인자 중가네 한 사람드른 또 도:니로 쪼간씩 주고 인자 그래썬요. {뭐, 또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한 사람들은 또 돈으로 조금씩 주고 이제 그랬지요.}

10225 @ 음: {으음.}

10225 #2 우들 혈때는 벨라 돈:도. {우리들 할 때에는 별로 돈도.}

10225 #1 벨라 도:늘 앙 가꼬와 {별로 돈을 안 가지고 와.} #2 돈 마:뉘써기나 수란데씩 그러케 바다가꼬 오고 그래제. {돈 만원씩이나 술 한 되씩 그렇게 받아 가지고 오고 그랬지.}

10225 @ 음: 예, 조씀니다. {으음. 예, 좋습니다.}

1.2.7 장례

10226 @ 그 다으메는 인제 장:네에에, 사람 주그면 인제 어뜨케 장:네를 치르는지 엔:날 거 함번 말쓰메 주실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례에, 사람 죽으면 이제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옛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226 #1 예: {예.}

10226 @ 그 사람 주그먼 어떠케.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10226 #1 엔:나레는 거시게찌라. {옛날에는 거시기했지요.}

10226 @ 사람 주거따 그러면 인제 우선 알려야테조이~? {사람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알려야 되지요?}

10226 #1 알려야지라. {알려야지요.}

10226 @ 어: {어.}

10226 #1 부:고, 저 부:엄도 쓰고, 딱 거시기 하문, 딱 주그먼. {부고, 저 부음도 쓰고, 딱 거시기하면, 딱 죽으면.}

10226 @ 예. {예.}

10226 #1 예: 사:자밥, 사:자밥 해 논다고 밥, 바베 노코. {예, 사자밥, 사자밥 해 놓는다고 밥, 밥 해 놓고.}

10226 @ 예. {예.}

10226 #1 또, 예, 사:자신도 사마야 쓰고. {또, 사자신도 삼아야 하고.}

10226 @ 아: {아,}

10226 #1 꼬랭이밥또또 그랑께 인자 사:자바비 인자 꼬랭이로 싹 그눔가꼬 인자 싸, 싸요. {'꾸러미밥'도 그러니까 이제 사자밥이 이제 꾸러미로('꼬랭이'는 '꾸러미'의 방언) 싹 그것 가지고 싸, 싸요.}

10226 @ 먼, 먼: 바비요? 꼬랭이밥? {뭔, 뭘 밥이요? '꼬랭이밥'?}

10226 #1 꼬랭이밥 싸. {꾸러미밥 싸.}

10226 @ 꼬랭이바비 멈:니까. {꾸러미밥이 뭘니까.}

10226 #2 지베다가. {짚에다가.}

10226 #1 지베다가. {짚에다가.}

10226 #2 여로코 해:서. {이렇게 해서.}

10226 #1 싸. {싸.}

10226 #2 지베다가 요리코 저, 엔:나레 계란하머는, 계란 엔:나레는 거, 지베다 싸요 안? {짚에다가 이렇게 저, 옛날에 계란 하머는, 계란 옛날에는 그, 짚에다 싸잖아요?}

10226 #1 계란싸데끼. {계란 싸듯이.}

10226 #2 계란 싸데끼 거 꼬레미 이로코 만드러가꼬 거그다가. {계란 싸듯이 그 꾸러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10226 #1 시:반장사해. {'시반장사'해}

10226 #2 시:반디다 딱 꼬레밀 싸:데요. 그레가꼬 거그다 돈:도 거 엄마씩 너:코. 그레가꼬 어:디 찌:그 가따 안:사네다 다라노테요, 으흐흐. 그거 사:자바비라고. {세 군데에다 딱 꾸러미를 싸데요. 그레 가지고 거기에다 돈도 그 얼마씩 넣고. 그레 가지고 어디 저기 가져다 안산에다 달아 놓데요. 으흐흐. 그게 사자밥이라고.}

10226 @ 사:자밥. {사자밥.}

10226 #1 찌: 다, 당:산나무인넌디 여그 또 별또로 숲, 수비 이씨씨요. 거기다가 다라 다라 메 노코, {저 다, 당산나무 있는데 여기 또 별도로 숲, 숲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매달아 놓고,}

10226 @ 아: {아,}

10226 #1 그라고, 그라고 아 인는 사람드른 오:일 출쌍또 하고, 사:일 출쌍또 하고, 데:락 보른 사밀 출쌍. {그리고, 그리고 아 있는 사람들은 오일 출상도 하고, 사일 출상도 하고,

대략 보면 삼일 출상.}

10227 @ 예, 예. 그럼 부고는 이제 누가 돌립니까? {예, 예. 그럼 부고는 이제 누가 돌립니까?}

10227 #1 부고::는 게 무더가꼬. {부고는 게 물어 가지고.}

10227 @ 예. {예.}

10227 #1 하머는 벨 수 업써 게:원드리 인자 가야제 또. 부:고 하인이 업:쓰, 업쓰니까. 아:로 안 갈라가니까. {하머는 벨 수 없어. 계원들이 이제 가야지 또. 부고 하인이 없으, 없으니까.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10227 @ 예: {예.}

10227 #1 그럼 푸마시 거시기로 마:니 텅이기도 하고. {그럼 품앗이 거시기로 많이 다니기도 하고.}

10227 @ 예. {예.}

10227 #1 그거 데~이머는 암:마네도 천:데 바꼬 먼, 그냥. (웃음) {그거 다니머는 아무래도 천대 받고, 뭐 그냥.}

10227 @ 부:고가 조, 안 조, 안 조은 소식이니까이~. {부고가 조, 안 좋, 안 좋은 소식이니까.}

10227 #1 그러조. 인잔 인잔 엔:나레는 거시기 안 조은 사람드리 마:이 텅잉께. 부:고도 마:이 텅이고. {그러지요. 이제 이제 옛날에는 거시기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부고도 많이 다니고.}

10227 @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10227 #1 예. {예.}

10227 #1 그랑께 부:고 가머는 인자:: 그 산지거나 제쟁이, 제지기드리 마:이 텅엔넌디, 시방은 쩌. {그러니까 부고 가머는 이제 그 산지거나 재지, 재지기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저.}

10227 #2 지그른 머. {지금은 뭐.}

10227 #1 떼에 따라서 게:원드리 마:니 데에봉께. {떼에 따라서 계원들이 많이 다녀 버리니까.}

10227 @ 예. {예.}

10227 #1 혹 마:냐게 그런 행세한 사람 혼나지요이~ {혹 만약에 그런 행세한 사람 혼나지요.}

10227 @ 엔:나레 제 어려쓸 때 봄, 보니까 그 부:고를 바드면 지바느로 안 드리고 이러케 다메다가 꼬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부고를 받으면 집안으로 안 들이고 이렇게 담에다가 꽂아.} #2 예. {예.} @ 노트라고. {놓더라고.}

10227 #2 예. {예.}

10227 #1 그란디. {그런데.}

10227 @ 예. {예.}

10227 #1 먼, 거시기한다 헤:서 쩌, 쩌, 울타리에다 쩡게노코 가라하고, 머:단 사람드른 그 거이 또 바까테다 날, 저 쩡게노꼬 가서 나:두고 가란 사람도 이꼬. {뭐 거시기한다고 해서 저, 저, 울타리에다 끼워 놓고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또 밖에다 놔, 끼워놓고 가서 놔두고 가라는 사람도 있고.}

10227 #1 거 핀찬한 사람드른 고생한다고 술짜나라도 바다주고. {그 괜찮은 사람들은 고생

한다고 술잔이라도 받아주고.}

10227 @ 예: {예.}

10227 #1 그라고 여비도 준 사람도 인는다. {그리고 여비도 주는 사람도 있는데.}

10227 @ 예: {예.}

10227 #1 엔 거시기한 사람드른 양:반티한다고 거러다가 코 다칠라고. {원래 거시기한 사람들은 그 양반 티 낸다고 그렇게 하다가 코 다치려고.}

10227 @ 하하하. #1 그린, 그린 소리도 하고. {그런, 그런 소리도 하고.}

10227 @ 허허, 그레가지구요. 이제 부:고는 그러케 하고. 사람 주그면 인제, 인제, 관 가통 거슨 어터케 만듭니까? {허허, 그레 가지고요. 이제 부고는 그렇게 하고. 사람 죽으면 이제, 이제, 관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10227 #1 간, 엔:나레는. {관, 옛날에는.}

10227 @ 널: 인제. {널 이제.}

10227 #1 술 비여다가, 인는 사람드른 지비서. {소나무 베어다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10227 @ 예. {예.}

10227 #1 툇질 해:서 짜구질 다 해:서, 데페질 해:가꼬 그레가꼬 과늘 멩글기도 하고. {툇질 해서 자귀질 다 해서, 대페질 해 가지고, 그레가지고 관을 만들기도 하고.}

10227 @ 예: {예.}

10227 #1 거 또 시방잉께 인자, 마:니 인자 과늘 사다가 마:니 쓴디 {그 또 지금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관을 사다가 많이 쓰는데.}

10227 @ 예. {예.}

10227 #1 그 저네는, 인는 사람드른 마:니 여그서 목쭈 데레다가 다 짜:서 다 거 해:썩요. {그 전에는,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여기서 목수 데려다가 다 짜서, 다 그 했어요.}

10227 @ 아, 그레썩요? {아, 그랬어요?}

10227 #2 짜:썩? {썩소?}

10227 #1 어~, 인는 사람드른 마:니 그레썩, 우리 에레서. {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그랬지, 우리 어려서.}

10227 @ 그이~까 미리 줌:비를 해:논 집또 이꼬.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은 집도 있고.}

10227 #1 그러지라. {그렇지요.} @ 아이~문 줌:비를. {아니면 준비를.} #1 아난, 아나는 사람도 이꼬. {안 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10227 @ 고먼 도라가시면 바로 사네 가서 나:무를 뱌: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면 바로 산에 가서 나무를 뱌니까?}

10227 #1 야, 비여다가 또 네리, 네레가꼬 하기도 하고. {예, 베어다가 또 내려, 내려 가지고 하기도 하고.}

10227 @ 음: {으음.}

10227 #1 줌:비해:논 사라문 이꼬. {준비해 놓은 사람은 있고.}

10227 @ 음: {으음.}

10227 #1 판자를 조:케 나:둔 사라미 만: 주로 마:네요. {판자를 좋게 놔 둔 사람이 많 주로 많아요.}

10227 @ 긍께 저 기여게도.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10227 #1 몰, 물론 놈. {마, 마른 것.}

10227 @ 예, 판자로. {예, 판자로.}

10227 #1 아이, 우리집또 그:저네 저, 저, 널:깎 한다고 판자 여럿 뜨꼬. 네 게가 나:도뜨마
이라. {아이, 우리집도 그 전에 저, 저, 널감한다고 판자 여럿 뜯고 네 개가 놔 뒀더구먼요.}

10227 @ 예. {예.}

10227 #1 네:게. {네 개.}

10227 @ 예. {예.}

10227 #1 그놈 인자 다 써불고 거식해서 피로하니 쓰:기 줍:떠다 거. {그것 이제 다 써 버
리고. 거시기해서 필요하니 쓰기 좋습디다 그.}

10227 @ 흐흠.

10227 #1 허허허.

10227 #2 지그른 그거 누가 이까니? {지금은 그게 누가 있나요?('-가니'는 옛말 '-관대'의
후대형이다.)}

10227 #1 어? {어?}

10227 #2 지그른 누가 그렇걸 이칸디? {지금은 누가 그런 게 있나요?('-간디'는 옛말 '-관
대'의 후대형)}

10227 #1 아, 여어, 꼬꼬 우리 킨지비여 그때 써제. {아, 여어 우리 큰집에도 그때 썼지.}

10227 #2 큰지베는 써써. {큰집에는 썼어.}

10227 #1 간 저 사다 쓰고 그노문 써제. {관 저 사다 쓰고 그것은 썼제.}

10227 @ 음: 그러지요. 음. 그르고. {음, 그렇지요. 음, 그리고.}

10227 #1 그라오 사일 출쌍하면 인자 여그서 인자 지비서 거시기 제: 모시고 황복제 모:시
고. {그리고 사일 출상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집에서 거시기 제사 모시고 '황복제' 모시고.}

10227 #1 또 썸:그 거리제 모신다고 또, 마을 아페 가서 체알 쳐 노코 모타가꼬 거리제
모:시머는, 제: 모시고. {또 저기, 거리제 모신다고 또, 마을 앞에 가서 차일 쳐 놓고 모아
가지고 거리제 모시머는 제 모시고.}

10227 #1 이자 유데군들, 소임들 오른 소임 바꼬, 또 저라고 나오면 한탕씩 미기고, 유데
군들또 한탕씩 머꼬. 간: 그 때만 해도 유데군드리 파니, 유데군드리 제, 재미 바: 부러제.
{이제 상여꾼들('유데군'은 원래 포도청에 속하여 상여를 메는 인부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
서는 일반 상여꾼을 가리킨다), 손님들 오면 손님 받고, 또 절하고 나오면 한 탕씩 먹이고,
상여꾼들도 한 탕씩 먹고.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상여꾼들이 판이, 상여꾼들이 재, 재미 봐
버렸지.}

10227 @ 예: {예.}

10227 #1 아, 거그는 저 유데군드른 고생한다고 몽텅이로 상을 논 놈 다 가지가요. {아,
거기는 저 상여꾼들은 고생한다고 몽텅이로 상을 놓은 것 다 가져가요.}

10227 #1 다리 한나씩 딱 가지가고. {다리 하나씩 딱 가져가고.}

10227 @ 해해해.

10227 #1 해해.

10227 @ 유데군들리 생이 멘, 생이 멘 사람드리조? {상여꾼들이 상여 멘, 상여 멘 사람들
이지요?}

10227 #1 그러제. 그랑께 우리는 주로: 게온드리라 서로 푸마시 거시기깁게 거 가서 해:야제.
아나몬 안 데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게원들이라 서로 품앗이 거시기니까 거기
가서 해야지, 안 하면 안 되고.}

10227 @ 예. {예.}

10227 #1 우리는 인자 생에도 무지하이 떠머쏘 우리 나도. {우리는 이제 상여도 무지하게 떠맷소 우리 나도.}

10227 @ 아: {아,}

10227 #1 주로 아:폐서 마이 땀:째 나는. {주로 앞에서 많이 떠메지 나는.}

10227 @ 아, 히미 쎄:그. {아, 힘이 세니까.}

10227 @2 : 하하하

10227 #1 아니, 키가 또 크고 그랑께. {아니, 키가 또 크고 그러니까.}

10227 @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10227 #1 시미 이짜네 거 엔:나레는 에나무다리도 건너 탕에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옛날에는 외나무다리도 건너 다녔소.}

10227 @ 왜나무다리든 한 줄로 서야, 가야 데는데. {외나무다리면 한 줄로 서야 가야 하는데.}

10227 #1 그라네라. 그저, 생에 여거시 징 마리자면 요거시 생에라하면 요거시 생에라머이 요거시 바리 다 이쎄. {그렇지 않아요. 그 저 상여 이것이 즉 말하자면 이것이 상여라 하면 이것이 상여라면 이것이 발이 다 있어.}

10227 #1 그라고 주를 메. {그리고 줄을 매.}

10227 @ 예. {예.}

10227 #1 그라면 저이 한조게다만 여그다 근자 평지사니 여그데로 간디, {그러면 저 이 한쪽에다만 여기다 그 이제 평지이면 여기대로 가는데.}

10227 #1 인자 이짜게다 딱 거리. 그라고 지금 마:라자면 여거시 다리라가면 요러케 양:조게, 양:조게서 버팁니다. {이제 이쪽에다가 딱 걸어.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이것이 다리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에, 양쪽에서 버팁니다.}

10227 @ 아: {아,}

10227 #1 발 마쳐 감시로 요러케. 요러케 떠여 감시로. {발 맞춰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떼어 가면서.}

10227 @ 오: {오,}

10227 #1 너머 버테불면 안탱께. {너무 버터 버리면 안 되니까.}

10227 #2 궁께 요러코. {그러니까 이렇게.}

10227 #1 안 버티고. {안 버티고.}

10227 #2 여가 다리, 에나무다, 지리다그라면 여그다가 양조게서 요러코 버트고. {여기가 다리, 외나무다, 길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양쪽에서 이렇게 버티고.}

10227 #1 양조게 보투고, 보투고 이로고 가. 요, 저썩, 저썩 사람드른 이러케 보투고 서로. {양쪽에 버티고, 버티고 이렇게 가. 이 저쪽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버티고 서로.}

10227 #2 응, 서로. {응, 서로.}

10227 #1 발 마쳐 감시로. {발 맞춰 가면서.}

10227 #2 그레야꼬. {그레가지고.} #1 그레가꼬 건:너 땡김마. {그레가지고 건너 다니더만.} @ 아유. {아유}

10227 @2 아~

10227 #2 그랑께 힘:들제 거그는. 까딱잘모:다른 요:리 너머가불든지 요:리 너머가불고 그랑께 서로가 또까치. {그러니까 힘들지 거그는. 까딱 잘못하면 이리 넘어가 버리든지 이리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이.}

10227 #1 그렇게 소리꾸니 또 자라고. {그러니까 소리꾼이 또 잘하고.}

10227 @ 아: {아.}

10227 #1 또 아페서 부튼 사라미 이꼬 또 뒤에서 안 부튼 사라미 이꼬. {또 앞에서 붙은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붙은 사람이 있고.}

10227 @ 아:

10227 #1 ***

10227 @ 음. 에헤헤헤.

10227 #1 아 그라고 함번씩 멤:문 따 저 땀 땀차제라. 힘드러. 찌이 먼:디 아 저 쪼:그 저 거시기 돈남 뒤에까장 갈라든 차말 머:리. {아 그리고 한 번씩 메면 저 땀 차지요. 힘들어. 저 이 먼 테 저 저기 저 거시기 돈남 뒤까지 가려면 정말 멀어.}

10227 #1 그 때는 질도 고야가고 그렇게 인자 시방 하천 뛰기쥬게 시방이야는 예:인자 차로 마:니 움지겨불고 머:다고 함께 그라제 우리, {그때는 길도 고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천 독이 있으니까 지금이야 예 이제 차로 많이 움직여 버리고 뭐 하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10227 #2 지금 생에*** 병:위네서 막 장. {지금 상여*** 병원에서 막 그냥.}

10227 @ 영:구차로. {영구차로.}

10227 #2 차로, 영:구차로 저기 해분디. {차로, 영구차로 저기해 버리는데.}

10227 #1 우리 거시기할 때만 해도 생에도 무지허니 띠꼬. {우리 거시기할 때만 해도 상여도 무지하게 떠메고.}

10227 #2 지비서 던때 안 치고 막 도라가실라 하든 강 병:위노로 갑띠이다. {집에서 ** 안 치고 막 돌아가시려고 하면 그냥 병원으로 갑디다.}

10227 #1 거리제 머:시 올라든 여그서 한:참 놀:고 가다가 또 반지 조은데 가서 이쓰른 쉬 여가꼬 또 술한잔씩 무꼬 또 가고. {거리제 뭐가 오려면 여기서 한참 놀고 가다가 또 ** 좋은 데 가서 있으면 쉬어 가지고 또 술 한 잔씩 먹고 또 가고}

10227 #1 술 안 머금 또 일 또 안 모:다고 {술 안 먹으면 또 일 또 못하고}

10227 @ 예 생 생에는 그 동네에 딱 하나가 이릅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만듭니까? {예, 상여는 그 동네에 딱 하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만듭니까?}

10227 #1 그 제::는 생에찌비 이써썩요. {그 전에는 상여집이 있었어요.}

10227 @ 예: {예.}

10227 #1 그레가꼬 그 노멀 보:관 딱 해:가꼬 가따 쓰고 헨:넌디 {그레 가지고 그것을 보관 딱 해 가지고 가져다 쓰고 했는데}

10227 #1 머 우리는 인자:: 각짜가 다 모도 켜창케 사:니까 거시기 여그 생에쩍 업:썩불고 거식하더니 생에 지비 가서 주:문해:가꼬 와서 거시하고 {뭐 우리는 이제 각자가 다 모두 팬찮게 사니까 거시기 여기 상여집 없애 버리고 뭐 하더니 상여집에 가서 주문해 가지고 와서 뭐 하고}

10227 #1 인는 사람드른 생에도 지비서 만드레야서 또 쓰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여도 집에서 만들어서 또 쓰기도 하고}

10227 @ 아 끝 머 마:니 꼬꼬 {아, 꽃 뭐 많이 꽃고}

10227 #1 꼬또 아 우리 행니든 그렇거또 기수리 이써나서 꼬또 멩그라서 생에 멘들고 두:냥반드리 멘드라썩요. {꽃도 아 우리 형님은 그런 것도 기술이 있어 놔서 꽃도 만들어서 상

여 만들고 두 분이 만들었어요.}

10227 #1 바로 아까 저: 소리 한 낭반 아버지가 그거를 잘 멩길고 {바로 아까 저 소리 한 분 아버지가 그것을 잘 만들고}

10227 @ 아: {아,}

10227 #1 우리 형님도 그거, 그렇 거를 잘 멩그라쎄요. {우리 형님도 그것 그런 것을 잘 만들었어요.}

10227 @ 음. 그래쎄요. 예. {음, 그랬어요, 음.}

10228 @ 생에 메:고 그때 거, 그분들 노래. {상여 메고 그때 그 그분들 노래}

10228 #1 노래 하지요. {노래 하지요.}

10228 @ 아페서, 아페서 하고. {앞에서 앞에서 하고}

10228 #1 소리, 소리꾸니 아:페 하고. {소리, 소리꾼이 앞에 하고.}

10228 @ 예. {예.}

10228 #1 그라고 우리는 뒤:소리 하고 {그리고 우리는 뒷소리 하고.}

10228 @ 예: {예.}

10228 #1 그라고 텅입니다. {그렇게 다닙니다.}

10228 @ 압소리는 아네보써쎄요? {앞소리는 안 해 보셨어요?}

10228 #1 압소리도 인자 할라면 한디 야, 자, 잘 아네바쎄요. {앞소리도 이제 하려면 하는 데 자, 잘 안 해 봤어요.}

10228 @ 아하하하.

10228 #1 헤 디, 뒤:소리만 하고. {헤, 뒤, 뒷소리만 하고.}

10228 @ 뒤:소리는 데:게 어트케 합니까? 뒤:소리는? {뒷소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뒷소리는?}

10228 #1 처:메 거시기, 가나아:: 아::: 오오호:::오보살 이러케 뒤:소리 합니다. {처음에 거시기 가나아 아 오오호오보살 이렇게 뒷소리 합니다.}

10228 @ 아: {아,}

10228 #1 그라면 압:소리 한 사라미 허을::더 {그러면 앞소리 하는 사람이, 허을 더}

10228 #2 ** 하지마쎄요. {** 하지 마시오.}

10228 #1 안 헤네부려야제. {안 해 버려야지.}

10228 #2 **하면 초상난다게. {**하면 초상난다고 해.}

10228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28 #1 저 저그, 노그메 다, 노그메 다. {저 저그 녹음에 다, 녹음에 다.}

10228 @ 귀찬헤요 노그미. {괜찮아요 녹음이.}

10228 #1 예, 뒤:소리는 그러케 하고. {예, 뒷소리는 그렇게 하고.}

10228 @ 예, 예, 예. {예, 예, 예.}

10228 #1 그라고 거, 거시기합니다. {그리고 거, 거시기합니다.}

10228 @ 예, 예. 알게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0228 #1 그랑께 인자 압소리 한 사라미 그 소리를 돌려볼면 인자 허:널허:널 함 또 그 사람 따라서 또 허:널허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소리 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돌려버리면 이제 허널허널 하면 또 그 사람 따라서 또 허널허널 하고.}

10228 @ 음. {음.}

10228 #1 생에 쏘리도 여러가지요. {상여 소리도 여러가지예요.}

10228 @ 그러거쨌요이~. {그러쨌지요.}

10228 @ 마을마다 다릅가요? {마을마다 다른가요?}

10228 #2 다릅따다. {다릅디다.}

10228 #2 아, 이 금방은 거자 간는다. {아 이 근방은 거의('거자'는 '거의'의 방언) 같은데.}

10228 #1 거자, 거자 가터요. {거의 거의 같아요.}

10228 #2 쩌 다른. {저 다른.}

10228 #1 딴 디 지방은 또 틀리고. {다른 곳 지방은 또 다르고.}

10228 #2 더 이상아 함. {더 이상하게 함.}

10228 #1 예, 여그는 벨로 절라, 절라도는 또 거시기 한디 쩌 따른 지방에 가면 틀리긴디가 이쨌요. {예, 여기는 별로 전라, 전라도는 뭐 하는데 저 다른 지방에 가면 다른 곳이 있어요.}

10228 @ 예: {예.}

10228 #1 아이, 바로 진도 가튼 디는 하머는 저 북짱구 치고, 아:폐서 치고 가고. {아이, 바로 진도 같은 곳은 저 북장구 치고, 앞에서 치고 가고.}

10228 @ 예, 그러치요. {예, 그렇쨌.}

10228 #1 그라고 생에 땡:꼬 가고. {그렇게 상여 떠메고 가고.}

10228 @ 예. 초상날 데 음:식 가통거슨 멀 돼:지를 잡꼬 그럼니까? {예. 초상날 때 음식 같은 것은 뭘 돼지를 잡고 그럼니까?}

10228 #1 그러지요. {그러지요.}

10228 @ 어: {어.}

10229 #2 돼:지 작꼬, 홍어 사고, 인자 다:: 사지요. 머글 꺼슬. {돼지 잡고, 홍어 사고, 이제 다 사지요, 먹을 것들.}

10229 #1 부:자찌비 쩌 모:지라면 또 되야지 두:마리 잡꼬 시:마리 자분 사람도 이꼬. 함마리 작꼬. {부갓집이 저 모자라면 또 돼지 두 마리 잡고, 세 마리 잡는 사람도 있고. 한 마리 잡고.}

10229 @ 예: {예.}

10229 #1 모도 그레요. {모두 그레요.}

10229 @ 음: {음.}

10229 #1 소임이 마니 오면 암마네도. {손님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10229 #2 **하제라우 그때는. 근디 지그른 머 병:위네서 해봉께. {**하지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뭘 병원에서 해 버리니까.}

10229 #1 시방은 초상 나따 하꺼또 업꼬 마꺼또 업떼요. 돔:만 이쓰면 다 병:위네서 다 해:봉께. {지금은 초상 났다 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네요. 돈만 있으면, 병원에서 다 해 버리니까.}

10229 @ 음. {음.}

10229 #1 그저네는 초상 나따 하문 한, 또 오:일간 거시기할라문 인자, 아이 거시기 또 사 모까지 볼라문 상당이 시간 묵제라. {그 전에는 초상 났다 하면 한, 오일간 뭘 하려면 이제, 아이 거시기 또 삼우까지 보려면 상당히 시간 먹히지요.}

10229 @ 그러지요. {그렇쨌.}

10229 #1 거 소임 다 접떼헤:서 도시하고, 사모 모:신다고 또 사:람드리 다 오 오꺼시고. {그 손님 다 접대해서 뭘 하고, 삼우 모신다고 또 사람들이 다 올 것이고.}

10229 @ 어: {어,}

10229 #: 주, 주, 주로 유데군들 사몬날 또 오라게서 바베다가 술 데:접 해:야제 아, 안데요. {주, 주, 주로 상여꾼들 삼우날 또 오라고 해서 밥에다가 술 대접해야지. 아, 안 돼요.}

10229 #2 사모 세라고도 마이 장만하지요이~. {삼우 쇠려고도 많이 장만하지요.}

10229 @ 요즘, 요세는 가족들만 그냥 하는데이~. {요즘, 요세는 가족들만 그냥 하는데.}

10229 #2 지금 허먼 사모도 양:꾸또 아니제. {지금 하면 삼우도 아무것도 아니지.}

10229 #1 시방언, 시방은 시 양:꾸또 아니여. {지금은,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야.}

10229 @ 그래도 사모 {그래도 삼우} #2 멍테 함마리 사다 노코도 사모 셀라면 세:고, 강 그때 다 업세북띠여 안? {멍테 한 마리 사다 놓고도 삼우 쇠려면 최고. 그냥 그때 다 없애 버리잖습디까?}

10229 @ 그러지요. {그러지요.} #2 예. {예.}

10229 #2 그레췌도 암:시라토 아납띠다. {예, 그랬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디다.}

10229 @ 하하하하.

10227 #1 예, 그때, 그때 저 초상 치고 그날 막 모신, 저 거시기 한 사람 사모 셴 사람 이췌. {예, 그때, 그때, 저 초상 치르고 그날 막 모신, 저 거시기 한 사람 삼우 췌 사람 있어.}

10227 @ 아: 그날 세고요? 사모는. {아, 그날 쇠고요? 삼우는.}

10227 #2 사모는 그라네. 사모는 아니고, {삼우는 그렇지 않아. 삼우는 아니고,} @ 메칠 지네야 시. {며칠 지나야.}

10227 #2 지:사는 딱 그때 모:셔불고. {제사는 딱 그때 모셔 버리고.}

10227 #1 지:사만 모:셔불문 사모 안 생께 인자, {제사만 모셔 버리면 삼우 안 쇠니까 이제,}

10227 #2 사모는 이녁쩍 와서 인자 췌며? {삼우는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췌디까?}

10227 #1 사모 마:니 세췌. {삼우 많이 쇠었지.}

10227 #2 엔:나레는 사모가 커췌마는 지그믄, {옛날에는 삼우가 췌지마는 지금은,}

10227 @ 사모란 건 이제 그 묘: 쓰고 흑췌 이케 함번, {삼오라는 것은 이제 그 묘 쓰고 흑시 이렇게 한 번,}

10227 #1 예, 그라지요, 그라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10227 #2 그러지요. {그렇지요.}

10227 #1 그래서 사몬날, 메:쓰고 아치메 가서 돌아보믄. {그래서 삼우날, 묘 쓰고 아침에 가서 돌아보믄.}

10227 @ 짐승이나 명 거뜨리 *** 파게지 아난능가.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 파괴하지 않았는가.}

10227 @ 자, 도라가시며는 인자 안, 지남 버네 어떤 데는 머 보기라고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고 그러데요, 사:람 주그머는. {자, 돌아가시며는 이제 아, 지난 번에 어떤 곳은 뭐 북이라고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고 그러데요, 사람 죽으머는.}

10227 #1 춤 추고? {춤 추고?}

10227 @ 북::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북,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10227 #2 보궐려서 가게똥감만. 보궐려서 가야췌 우:는 그런 지는 안 바췌. {북 궐려서 가췌던가 보구믄. 북 궐려서 가야 되 우리는 그런 것은 안 봤어.}

10227 #1 그런 디는 암반는디. {그런 것은('데'가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안 봤는데.}

10227 @ 지붕에 올라가서 막 거 도라가신. {지붕에 올라가서 막 거, 돌아가신.}

10227 #1 도라가시면 복, 복하고 시:번 해에. {돌아가시면 복, 복 하고 세 번 해.}

10227 @ 예. {예.}

10227 #1 시:번 해. {세 번 해.}

10227 #2 여그도 도라가시머는 기양 온 가따가. {여기도 돌아가시면 그냥 옷 가져다가.}

10227 #1 아에 온 가따가 쩌 시:번 여그서 둘러가꼬 마당에서 거시기해가꼬 복, 복하고는, 머이라고 하고는 지붕으로 떼 던저라. {아에, 옷 가져다가 저, 세 번 여기서 둘러 가지고 마당에서 뭐 해 가지고 복, 복하고는, 뭐라고 하고는 지붕으로 띄워 던져요.}

10227 @ 예: {예.}

10227 #1 여그서도. {여기서도.}

10227 @ 예: {예.}

10227 #2 간:디 지그믐. {그런데 지금은.}

10227 #1 지그믐 인자 ****. {지금은 이제 ****.} #2 병:워네서 도라가싱께 머 여그다 온 딸: 일:도 업꼬.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여기다 뭐 옷 던질 일도 없고.}

10227 #1 하하하하.

10227 @ 예, 지난버네 노무현 데:통령 도라가실 때도. {예, 지난 번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에도.}

10227 #2 예. {예.}

10227 @ 행사 하는데 그 행사를 하드라고. {행사 하는데 그 행사를 하더라고.}

10227 #2 예: {예.}

10227 #1 아, 바:게꾸만. {아, 보셨구먼.} @ 복, 복 허드라고요. {복, 복 하더라고요.}

10227 #1 복, 복. {복, 복.}

10227 @ 어: 허허허. 예, 엔:날 시그로 헐다고. {어, 허허허. 예, 옛날 식으로 한다고.}

10227 #2 엔:날 시그로 한다? {옛날 식으로 한다?}

10227 #1 엔나레 다 그게 그래써요. {옛날에 다 그게 그랬어요.}

10227 @ 예. {예.}

=1 #2 참말, 노무허니가치로 차말로 도라가시여 그러케 훌:려나, 훌:룡시로께 도라가신 양바는 다, 아:무리 데:통령 도라가셔써도 그르케는 안 하꺼시요. {정말, 노무현처럼 정말로 돌아가서 그렇게 훌룡하, 훌룡하게 돌아가신 양반은 다, 아무리 대통령 돌아가셨어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요.}

=1 #2 그 양바는 역:끼로 저기해가꼬 도라가셔농께. {그 양반은 역지로 저기해 가지고 돌아가서 놓으니까.}

=1 @ 예: {예.}

=1 #2 원:도 하원도 업:씨. {원도 한도 없이.}

10230 @ 예: 자, 그러면 인제 도라가신다메 제:사 지네지 안씀니까이~ {예,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10230 #2 예. {예.}

10230 @ 제:사 지네고, 제:사는 이려고 인제 방아네서 지내는 제사도 이꼬. {제사 지내고, 제사는 이렇게 이제 방 안에서 지내는 제사도 있고.}

10230 #1 그러지요. {그렇지요.}

10230 @ 또 인제 저 시제도 이꼬이~. {또 이제 저, 시제도 있고.}

10230 #1 그때에 삼년상 모:시머는. {그때에 삼년상 모시면.}

10230 @ 예. {예.}

10230 #1 쩌, 거시기 아나요? 베 베 베까테서 마이 저, 삼녀늘 모:시게 데면. {저, 거시기 하잖아요? 밖에서 많이 저, 삼 녀를 모시게 되면.} @ 삼년 동안. {삼 년 동안.}

10230 #1 거시기 제:사, 영호 이꼬, 영호에다가 밥 차려노코. {거시기 제사, '영호'('영호'는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위패를 가리킨다.) 있고, 요 영호에다가 밥 차려 놓고.}

10230 @ 밥 차려노코 그러지요? {밥 차려 놓고 그러지요?} #1 제 모시 제, 제, 제 모:시고 그레썬요. {제 모시 제, 제, 제 모시고 그랬어요.}

10230 @ 예, 삼년 동안이~? {예, 삼년 동안?}

10230 #2 그라고는 인자 삼년 가면 방에로. {그리고는 이제 삼년 가면 방으로.}

10230 #1 삼년 가면 인자 자 방으로 가입썬다 하고 인자 인사하고 저, 방에서 인자 모:싱 거시제. {삼년 가면 이제, 자 방으로 가십시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저, 방에서 이제 모시는 것이지.}

10230 @ 그러썬요. 공께 인제 쩌:기 저, 막 지코 거 무덤가에서 이썬야텐디 거 그거슨 모:다고 지베서 인제 삼년간 영호에다가 밥 올린다고 그 마리조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 흙막 짓고 그 무덤가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 그것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삼 년간 영호에다가 밥 올린다고 그 말이지요.}

10230 #1 그러지요이. {그렇지요.}

10230 @ 예. {예.}

10230 #1 상:식하테끼 이자 그레썬. {상식하듯이 이제 그랬지.}

10230 @ 자: 예. {자, 예.}

10230 #1 밥 차려 노코는 아이고, 아이고 세:번 또. {밥 차려 놓고는 아이고, 아이고 세 번 또.}

10230 @ 날마다? {날마다?}

10230 #1 예고, 예고. {예고, 예고.}

10230 @ 세:번? {세 번?}

10230 #2 아니, 보름나리면. {아니, 보름날이면.}

10230 @ 보름나리면. {보름날이면.}

10230 #2 초하레 보름날. {초하루 보름날.}

10230 #1 초하레 보름. {초하루 보름.}

10230 @ 아: {아,}

10230 #1 거 머한 사람드른 막 거시기 하면 나:지코 바미고 차라 논는 사람 이썬서. {그 뭐한 사람들은 막 뭐하면 낮이고 밤이고 차려 놓는 사람 있지.}

10230 #2 그 보:통 일 아:니제. {그 보통 일 아니지.}

10230 #1 그랑께 그거시 정성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정성이지.}

10231 @ 예: 제:사:: 제:사는 큰지베서 지네시조? {예, 제사, 제사는 큰집에서 지내시죠?}

10231 #2 그러지요. {그러지요.}

10231 #: 예. {예.}

10231 @ 예: 그 어떤 차례로 지네십니까? 이거또 지방마다 차례도 다르고 그러튼데. {예, 그 어떤 차례로 지내십니까? 이것도 지방마다 차례도 다르고 그렇던데.}

10231 #1 *** 차례썬마는 썬야 저 종오리 우리는 우리 물레데로 썬야 그러케 모:시제라. {*** 잘했지마는 내나 저 종오리 우리는 우리 문레대로 내나 그렇게 모시지요.}

10231 @ 예: {예.}

10231 #1 저 저 사네서 사양 모시테끼 썩야. {저저 산에서 시제 모시듯이 내나.}

10233 @ 예. 근데 고 제:사 지내는 절차나 요령 게 엔:날하고 지금 똑:가씀니까?며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안씀니까? {예,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절차나 이런 게 옛날하고 지금 똑같습니까?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10233 #1 달라지든 아너거코. {달라지지는 않겠고.}

10233 @ 그 음식가통 거슨 또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그 음식같은 것은 또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10233 #1 음시기요? {음식이요?}

10233 @ 예, 제:사쌍에 올리는 음식. {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10233 #1 가테요 그자. {같아요 그저.}

10233 @ 요, 그대로 또:까꼬. {이, 그대로 똑같고.}

10233 #1 예. {예.}

10232 @ 예. 큰지베서 제:사 지내면 가서 음:식 하시조? 제:산나른? {예, 큰집에서 제사 지내면 가서 음식 하시지요? 제삿날은?} #1 참석 하, 하지요. {참석 하, 하지요.}

10232 #2 그러지요. {그러지요.}

10232 @ 예, 음식근 머 비슨 하겐데요이~ {예, 음식은 뭐 비슷할 건데요.}

10232 #1 비슨해. *** 또 어디나 또 비슨비스 해. {비슷해. *** 또 어디나 또 비슷비슷해.}

10232 @ 예, 특빠리 제:사할, 또 올려서는 안 델 음:시기 이씀니까? 올리면 안 텐다는 음:시기? {예, 특별히 제사할 또 올려서는 안 될 음식이 있습니까? 올리면 안 된다는 음식이?}

10232 #1 인제 엔:나렌 안 올림스근 안 올리고, 올링 거지만 올리고, 올리고 그라제. {이제 옛날에는 안 올리는 음식은 안 올리고, 올릴 것만 올리, 올리고 그러지요.}

10232 #2 계정, 이런 데는 계정가통 거슨 아놀린다. 요, 딴 디는 계정도 올린닥 하데요. 계정 가꼬도 지:사 모:신다고 하데요. {개장, 이런 곳은 개장 같은 것은 안 올리는데. 이, 딴 곳은 개장도 올린다고 하데요. 개장 가지고도 제사 모신다고 하데요.}

10232 #1 게: 자바서도 제: 모:신디 머 이꼬 이따게. 헨디 여그는 그렇거슨. {개 잡아서도 제사 모시는 곳 뭐 있다고 해.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은.}

10232 #2 여그는 안 항께. {여기는 안 하니까.}

10232 #1 주로 과:이른 초, 율, 베, 베는 이:잉께 이, 시 {주로 과일은 棗, 栗, 배 베는 이 아니까 梨, 柿}

10232 #1 시 이로 모:시면, 우리는 주로 시 이, 시 이로 모:싱께 우리는 거시기아고. {'시이'로 모시면, 우리는 주로 '시이', '시이'로 모시니까 우리는 거시기하고.}

10232 @ 예. {예.}

10232 #1 베는 인자 이, 썩, 베 이짜 이:고. {배는 이제, 저, 배 '梨'자 '梨'고.}

10232 @ 예. 예. 예. {예. 예. 예.}

10232 #1 우린 시 이로 모:십니다. {우리는 '시이'로 모십니다.}

10232 @ 예, 그래요. 그럼 꼬감, 꼬까미나 가:물 먼저 하고. {예, 그래요. 그럼 꽃감, 꽃감이나 감을 먼저 하고.}

10232 #1 예, 그랑께 인자 시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시이'지요.}

10232 @ 네에. {네.}

10232 #1 {헛기침}

10232 @ 제:사 떼는 떠글, 머똔 떠글 저기 만드시등가요? {제사 떼는 떡을, 뭐 어떤 떡을 만드시던가요?}

10232 #1 쩌, 주로 시시 시리떠가고 임절메:, 또 저. {저, 주로 시루떡하고 인절미, 또 저.}

10232 #2 인절미하고. {인절미하고.}

10232 #1 그라고 또 머단 사람드른 보꾼떡도 마:니 하고 그랍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붉은떡도 많이 하고 그럽디다.}

10232 @ 먼 떠기요? {무슨 떡이요?}

10232 #1 보꾼떡. {붉은떡.}

10232 @ 보꾼떠기요? {붉은떡이요?}

10232 #1 아, 보까서 고물 나:서 여그 짝 똥그라니 헤:가꼬 고물 나:가꼬 요로케 접체요. {아, 붉아서 고물 넣어 가지고 짝, 둥그랴게 해 가지고 고물 넣어 가지고 접체요.}

10232 #2 그거뽀다 우찌지랍니다. {그것보고 '우찌지'라고 합니다..} #1 우찌지. {우찌지.}

10232 @ 우찌지? {우찌지?}

10232 #1 예. {예.}

10232 @ 우찌지? {우찌지?}

10232 @ 보까가지고 아네, 아네 고물 너코? {붉아가지고 안에, 안에 고물 넣고?} #2 예, 예. {예, 예.}

10232 #1 고물 너:코 딱 접쳐서. {고물 넣고 딱 접쳐서.}

10232 @ 아, 거 보꾼떠기라고 그래요? {아, 거 붉은떡이라고 그래요?}

10232 #1 보꾼떡. {붉은떡.}

10232 #2 그거뽀다 우찌지라가데요. {그것보고 '우찌지'라고 하데요.}

10232 @ 우찌지. {우찌지.}

10232 #1 거 인자 떡 우게다 그런 자 영거 농께 우찌지라고 현디. 우찌지. {거 이제 떡 위에다 그런 이제 얹어 놓으니까 우찌지라고 하는데. 우찌지.}

10232 @ 우리, 저희는 거 부께미라 그등가? {우리, 저희는 그 '부께미'('부께미'는 '부꾸미'의 방언)라 그러던가?}

10232 #1 하하하

10232 #2 팽야 여그도 부께미라 한디 그보다 우찌지라 하데요. {내나 여기도 '부께미'라 하는데 그것보고 '우찌지'라 하데요.}

10232 @ 예: 그래요이~. 생서는 어떤 생선 주로 사서 올리세요? {예, 그래요. 생선은 어떤 생선 주로 사서 올리세요?}

10232 #1 생서는 모도 조구, 또 상어, 거시기 안 합떠여? 송어, 뱀치, 멘태 모도 그릉 건 마:이 올립떠다. {생선은 모두 조기, 또 상어, 거시기 하잖습디까? 송어, 병어, 명태, 모두 그런 것 많이 올립디다.}

10232 @ 예. 홍어 가통 거또 올리는... {예. 홍어 같은 것도 올리는.}

10232 #1 홍어도 올리고. {홍어도 올리고.}

@ 아: {아,}

10232 #2 낙짜. {낙지}

10232 #1 홍어도 낙짜 올리고 홍어도 저, 껌끼 멩그라가꼬 끼여서, {홍어도, 낙지 올리고, 홍어도 저 껌미('껌'은 '껌미'의 방언) 만들어가지고 껌어서,}

10232 #2 끼여서 노치요. {끼워서 놓지요.}

10232 #1 다 거시기하고, 다 거시기혜:요. {다 뭐 하고 다 뭐 해요.}

10232 @ 그래요이~ {그래요.}

10232 #1 또 혜:판 혜:도 또 노키도 하고 {또 생선회('회판'은 생선회의 뜻) 회도 또 놓기도 하고.}

10232 @ 혜를료? 생선, 아, 홍어훼? {회를료? 생선, 아, 홍어회?}

10232 #1 야. {예.}

10232 @ 아, 홍어혜:. {아, 홍어회.}

10232 @ 예, 우서는 여기까지 하고 쉬:게씁니다. {예,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3 생업활동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아이고, 김테중 테통녕이 끈네 도라가 {아이고 김테중 대통령이 끝내 돌아가} #2
그랑께요. {그러니까요.}

10318 @ 예:: 자:: 그러면 저이는 또 이 불리리 이쓰닌까뇨.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
불일이 있으니까요.}

10318 #1 시뵤 다 되야부쑤. {10분 다 되어 버렸소} @ {웃음}

10318 @ 네네, 그러쑤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2 아유, 더와라 {아이, 더워라.}

10318 @ 예: 오느른 하실 내용이요, {헛기침} 타:작 하는 내용. {예, 오늘은 하실 내용이
요, 타작하는 내용.}

10318 @1 타작? {타작?}

10318 @ 예 인자 가을 {예, 이제 가을.}

10318 #1 먼 먼 타:자기여? {무슨 무슨 타작이요?} #2 가을 가을 가락 {가을 가을 타작.}

10318 #2 가을 타작. {가을 타작} #1 가을. 그랑께 누구든지 타:작한다 그거시여 {가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타작한다 그것이야.}

10318 @ 예에 고런 내용 하고 그 다:으메는 인제 머 소머기 소머기고 그런 이야기 {예에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 먹이 소 먹이고 그런 이야기.}

10318 @ 예:: 요거시고 그 다메 인제 우리 할머니 해튼 어제 지남 번 헐, 기쌔년 지남 버
네 해:쓰니까 너머가고, {예,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머니 했던 어제 지난 번 했
길쌔은 지난 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10318 @ 우리 할머니가 하실 꺼시 또 나먼네요. 채:소, 요:리 요령 거시 쫘 나머 인네요.
{웃음} 채:소 고롱 거시 쫘 예 고거 쪼끔 하고 또 시가니 나르면 집찌끼{웃음} 지블 어뜨케
진:느냐 머 고령 거. 고령 거시 이꼬 {우리 할머니가 하실 것이 또 남았네요. 채소 요리 이
런 것이 쫘 남아 있네요. {웃음} 채소 그런 것이 쫘 예 그것 조금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집짓기 {웃음} 집을 어떻게 짓느냐 뭐 그런 것. 그런 것이 있고.}

10318 고거 다 모:덜꺼요 오늘까지. 그 다음 다음나레는 인자 병: 엔:나레 머 마:는 병:이
머:시 이썩능가 머 고런 네:용. 그 다메 인자 { 헛기침} 엔:나레는 막 설:라레 서:리든 설:
보리미면 보름 막 머 여러가지 놀:고 막 그렇거 이썩짜나요. 인자 고런 네:용 {그것 다 못할
거예요, 오늘까지. 그 다음 다음날에는 이제 병 옛날에 뭐 많은 병이 뭐가 있었는가 뭐 그
런 내용 그 다음 이제{헛기침} 옛날에는 막 설날에 설이면 설, 보름이면 보름 막 뭐 여러가
지 놀고 막 그런 것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

10318 #1 그거시 그거시여. {그것이 그것이야.}

10318 @ 예: 고런 네:용이 이꼬 저:: 엔:날부터 저:네 오는 이야기나 머 그렇 거 고런 정:
도 고 고거시든 다 끝나네요. {예, 그런 내용이 있고 저 옛날부터 전해 오는 이야기나 뭐
그런 것 그런 정도 그 그것이면 다 끝나네요.}

10318 #2 먼: 이야기도 이야기도 업썩요 {무슨 이야기도 이야기도 없어요} #1 야, 그러거

쏘. {예, 그렇겠소.}

10318 @ {웃음}업쓰 {없으}

10318 #2 손지드리 어 함무니 이야기 잔 나는 이야기도 업씨야. {손자들이 어 할머니 이야기 좀 나는 이야기도 없어.}

10318 #1 {웃음} #2 나는 입따미 안 조아가꼬 이야기도 업씨야 하든 {나는 입담이 안 좋아 가지고 이야기도 없어 하면} #1 {웃음}

10318 #2 아 함무니가 다 이야기도 업땅가 그람 {아 '할머니가 다 이야기도 없단가?' 그러면,}

10318 #2 즈그드리 해:라. 예손지드리 그르케 가면 {자기들이 해요. 외손자들이 그렇게 가면,}

10318 @ 네, 알게습니다. 나락 베 가꼬 인자 타:작 허고 탈곡 허고 형 거시 엔:나라고 지그마고 마:니 다르자나요? {네, 알겠습니다. 나락 베어 가지고 이제 타작하고 탈곡하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1 그러지요 {그렇지요.}

10318 @ 어 엔:나라는 어트케 타:자글 {어 옛날에는 어떻게 타작을?}

10318 #1 엔:나라는 여:: 가락 홀테라고 {옛날에는 이 벼훅이('가락홀테'는 '벼훅이'의 방언)라고} @ 에 #1 여 여러케서 뽀바서 홀트기도 하고 {이 이렇게 해서 뽀아서 훅으기도 하고} @ 예

10318 #1 또 손홀테 나아 가지고 거 발 니:게 달려 가꼬 거시에가꼬 인자 딱 이르케 사네 키 이르케 까:가꼬 발뽀 보:꼬 {또 그네('손홀테'는 '그네'의 방언) 나와 가지고 그 발 네게 달려 가지고 거시기해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새끼줄 이렇게 꼬아 가지고 발판 밟고,}

10318 @ 예 {예}

10318 #1 홀트기도 하고 {훅으기도 하고,}

10318 @ 아 손홀테 {아, 그네.}

10318 #1 예, 그라고 그 뒤로:: 는 {예, 그리고 그 뒤로는,}

10318 #2 기계가 나아췌 인자. {기계가 나왔지 이제. }

10318 #1 기 어뜨 발 볼븐 기계 그러케 해:서 나와 가꼬 {기 어떻게 발 밟는 기계 그렇게 해서 나아 가지고,}

10318 # 기또 거식 함께 그거시 또 후에압따. 하이 두:리는 항시 볼부면 두:리는 띠예 조야 쓰고 거 기계홀테 나아가지고 {그것도 거시기 하니까 그것이 또 거시기 합디다. 아이, 둘은 항상 밟으면 둘은 떼어 줘야 하고 기계 홀테 나와 가지고,}

10318 @ 네 {네} #1 겐: 마니 췌 홀타 디끼머는 두:리는 한자는 모따 몽끄머는 두:리 두:리 몽껴야췌 지벌. {거 많이 저 훅어 대면은 둘은 혼자는 다 못 묶으면은 둘이 둘이 묶어야지, 짚을.} @ 예{예}

10318 #1 그러케 모도 거식 해:씨요. {그렇게 모두 거시기했어요.}

10318 @ 아 {아.}

10318 #1 거 마징게 글거 넌: 사람 이씨야제. 또 띠여준 사람 이씨야제. {거 마징게('마징게'는 낱알이 붙어 있는 검불) 끊어 내는 사람 있어야지, 또 떼어주는 사람 있어야지.}

10318 @ 마징게요? {마징게요?}

10318 #1 엇 검부리 나오면 검부른 글거네:야 {예, 검불이 나오면 검불을 끊어내야,}

10318 #1 거 께:꺼시 글거진:: 남 아님 {거 께:꺼시 끊어진 남 아님}

10318 @ 고거뽀다 마징게라 그러니까? {그것보고 마징게라 그러니까?} #2 예, 그거뽀다

마징게. {예 그것보고 마징게.}

10318 #1 검부를 글거 념:먼 그거이 마징겔니다. 그라고, {검불을 굶어 내면 그것이 마징겔니다. 그리고, }

10318 #1 사싱구가 나오면 그거이 마징게가 데고 . {'사싱구'가 나오면 그것이 '마징게'가 되고} @ 먼 머:요 ?{뭐 뭐요?}

10318 #1 서스렁구. {'서스렁구'.}

10318 @ 서스렁구가 머:예요? {서스렁구가 뭐예요?}

10318 #2 요 나라글 홀트 {예, 벼를 홀으}

10318 #1 나라기 모가이 떠러지고 {벼가 이삭이 떨어지고,}

10318 @ 어 {예}

10318 #1 머이든지 이러케 갈쿠로 글그면 다:: 모도 모타지요. {뭐든지 이렇게 갈퀴로 굶으면 다 모두 모아져요.}

10318 #1 그럼 별도로 나:도따가 또 타:자글 헤:라. {그럼 별도로 놔뒀다가 또 타작을 해요.}

10318 @ 고 안에 그니깐 근 나락 아:리 이찌요? 서스렁구*****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벼알이 있지요? '서스렁구' *****}

벼10318 #1 그라니까 그노를 모타 놔:따가 뜯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 뒀다가 또,}

10318 #1 마징게 타자글 헤:라우. {마징게 타작을 해요.}

10318 @ 아 마징게 타:자글료 {아, 마징게 타작을요?}

10318 #1 도리째질 다 헤. {웃음} {도리께질 다 헤} @ 아, 도리께질로 {아, 도리께질로.}

10318 @ 아:: 요세는 인제 요세는 콤파이노로 다 하나요? {아, 요새는 이제 요새는 콤파인으로 다 하나요?}

10318 #2 지그른 그라지요. {지금은 그렇지요.}

10318 #1 콤파이요? {콤파인이요?}

10318 #1 지그른 콤파이로 다 헤:불테요. {지금은 콤파인으로 다 해 버리테요.}

10318 #1 콤파이로 다 헤:붕께 시방은 먼 {콤파인으로 다 해 버리니까 시방은 뭐,} #2 일 할 꺼시 {일할 것이} #1 {시방은} @ 어 #1 그렇 거시 나옉 거시 업썩요. {시방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10318 #1 거 나랑만 나랑만 빼:가꼐 가을한닥 하문 나랑만 빼:가꼬 지베 올 따르미제 뵈. {거 벼만 벼만 빼 가고 가을한다고 하면 벼만 빼 가지고 집에 올 따름이지 뵈.}

10318 @ 아 {아}

10318 #1 건조기에다 능: 거시 이:리고. {건조기에다 넣는 것이 일이고.}

10318 @ 아 {아}

10318 #2 건조기에다 너:서 말레불고 {건조기에다 넣어서 말려 버리고,} #2 또 물:베 한 사람덜 강 막 노네서 홀터가꼬 차로 실코 강 {또 물벼 하는 사람들 그냥 막 논에서 홀어 가지고 차로 싣고 그냥,} #1 바로 인자 {바로 이제} #2 거시기로 {거시기로} #1 거시기 바로 공장으로 가불 {거시기 바로 공장으로 가 버리고,}

10318 #2 공장으로 가불 {공장으로 가버리.}

10318 @ 저는 어려썩 떼 붕 거시 그 기계: 기계 홀텐데 그 발똥기를 다라가꼬 {저는 어렸을 때 본 것이 그 기계 홀테인데 그 발똥기를 달아가지고,} #2 예 #1 예 {예.}

10318 @ 발로 안 보꼬 {발로 안 밟고,}

10318 #1 안 보꼬?: {안 밟고?}

10318 @ 어 {어.}

10318 #2 또 그래쎄요 증가네. {또 그랬어요 중간에.} #1 그러케도 해:짜라. {그렇게도 했지요.}

10318 @ 허기도 하고이~ 발로도 밟:끼도 하고 {하기도 하고 발로도 밟기도 하고,} #1 아아 {예.}

10318 #2 그러지라. {그렇지요.}

10318 @ 예: 그렇 거뜨리 {예, 그런 것들이.}

10318 #1 엔:나레는 거 띠여주면 손 홀테로 홀트면 또 이러케 발로 딱: 보:꼬요. {옛날에는 거 떼어주면 그네로 훑으면 또 이렇게 발로 딱 밟고요.} #@ 예 {예}

10318 #1 전 니: 게 딱 발 달:고 그러면 사네키 저 해:가꼬 인잡 여러켄 판자 하나 데:요. 그라든 {저 네 발을 딱 달고 그러면 새끼줄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자 하나 대요. 그러면,}

10318 #1 딱 보:꼬 띠여주면 홀트고 홀트고 막: 하레 마:니 홀타바짜 마:니 모:돌타요. {똑 밟고 떼어주면 훑으고 훑으고 막 하루 많이 훑어 봤자 많이 못 훑어요.}

10318 #1 엔:날 거식힐때는 술 이러케 가라 홀테는 {옛날 거시기할 때는 술 이렇게 베풀어는,}

10318 #1 한나 둘:씩 인제 해:바짜 그 {하나 둘씩 이제 해 봤자,} #2 으::메 {아이고!} #1 마:니 모:돌트고 (웃음) {많이 못 훑으고,} #2 징아다 {징그럽다.}

10318 @ 가락 홀테 해: 보셔쎄요? {벼훑이 해 보셨어요?}

10318 #1 아 우리도 드른 풍우리제 그거는 아네보고 (웃음) {아, 우리도 들은 풍월이지 그것은 안 해 보고, (웃음)}

10318 #1 여 발로 보:꼬 홀트기는 해:쎄. 으~? {예, 발로 밟고 훑으기는 했지요.}

10318 #2 엔:나레 가락 요거 한나요? {옛날에 가락 이것 하나요?}

10318 #2 한나에다 홀튼다우? {하나에다 훑은대요?}

10318 #1 아 여러케 해:가꼬 여그다 끼여서 {아,이렇게 해 가지고 여그다 끼워서,}

10318 #2 위메 위메 {아이고 아이고.} #1 어찌 쭉 @ 막떼기 나:무로 {막대기 나무로} #1 나 헐 떼면 해:기만 나오고: {나올 때면 새패기만('해:기'는 '새패기'의 방언) 나오고}

10318 #2 나:무로 만들자네 인자 거 거시기로 세:로 만들지요? {나무로 만들지않고('-자네'는 '-지 않고'의 뜻임) 거 거시기로 쇠로 만들지요?}

10318 #1 세:로 안 만들고 {쇠로 안 만들고} #2 그람 머:시로 만든다? {그러면 무엇으로 만든대요?} #1 나:무로 멘드러도 다 데야 {나무로 만들어도 다 돼.} @ 가락 홀테는 나무로 {벼훑이는 나무로,} #2 가라걸? {가락을}

10318 @ 예 (웃음)

10318 #1 그나 모릉께. (웃음) {그나 모르니까.}

10318 #2 인제 손 홀테부터는 하셔쎄요? {이제 그네부터는 하셨어요?}

10318 #1 그러제라. 마니 홀타쎄요. {그렇지요. 많이 훑었지요.} @ 손홀테부터는 {그네부터는}

10318 #1 그라고 홀투면 {그렇게 훑으면,}

10318 #1 저 한나 차면 딱 글그고 뜯 띠여 주다가 또 한나나 가서 그끼도 하고 글거서 마징게 빼:네고 또 그라고 또 한자 또 홀트고 그래쎄요. {저 가득 차면 딱 긁고 또 떼어 주다

가 또 하나나 가서 굽기도 하고 굽어서 마징게 빼 내오고 또 그리고 또 혼자 또 훑고 그랬
지요.}

10318 @ 그러면 이제 고로케 홀타 가지고 인제 어떠케 합니까, 인제 고거슬? 아까 그 마
마징게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훑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아까 그
마 마징게는 어?}

10318 #1 마징게는 마징게데로 또 따로 하고 {마징게는 마징게대로 또 따로 하고,} @ 거
가서 거가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1 그 아:네는 알:데로 해:가꼬 또 더 조:케 해:서 더 장
쳐이~ 하지요. {그 안에는 알대로 해 가지고 또 더 좋게 해서 더 *** 하지요.}

10318 #2 엔:나레는 그래능갑뜨만. 존: 나라근 다:: 거 거시기 저 머:시기 할 때 거 공:출
네불고 {옛날에는 그랬는가 보구먼. 좋은 벼는 다 거시기 저 뭐 할 때 그 공출 내 버리고,}

10318 #1 아유야 거시기:: {아이, 거시기} #2 마징게는 도:따가 거시기 헨:능갑뜨만. {마징
게는 뿔다가 거시기 했나 보구먼.}

10318 #1 엔:나레는 인자 그도 모:지레서 그렌는다 {옛날에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그랬
는데} #2 마징게는 도:따가 바사가꼬 {마징게는 뿔다가 바쉬가지고,}

10318 #1 엔:나레는 거시게썸. 그놈 홀타가꼬 또 공:출 다:: 네:불고 {옛날에는 거시기했어.
그것 훑어 가지고 또 공출 다 내 버리고,}

10318 #1 마징게는 그도저도 모따 네이며는 마징게께양 다: 떠러가불고 그레쑈요. {마징게
는 그도 저도 다 못 내면은 마징게까지 다 떨어가 버리고 그랬어요.}

10318 @ 네::

10318 #2 거그 부체이썸요.{거기 부채 있어요.} @ 예 #2 막 뒤에 {예, 막 뒤에} @ 먹 먹
머글 머글 꺼시 엄:네요. {먹 먹 먹을 것이 없네요.} #2 예, 머글꺼시 업:썸게 {예, 먹을 것
이 없으니까,}

10318 #2 마징게뜰 떠 마징게나 뒤:따가 그거시나 떠러서 인자 찌거서 {마징게 뜰 떠 마
징게나 뿔다가 그것이나 떨어져 이제 쥘어서}

10318 #1 그레도 그도 모:지라면 더 공:출 네:불고 업:썸. {그레도 그것도 모자라면 더 공
출 내 버리고 없지.}

10318 #1 그른 떠러서 공:출 넌:다고. 다 수량이 모:떼면 {그러면 떨어져 공출낸다고. 다
수량이 못 되면.}

10318 #2 지금 시대는 살기 조치요이~. 그릉 거슨이~? {지금 시대는 살기 좋지요. 그런
것은.} #1 체 {훅썸} #2 농사 지끼는 {농사 짓기는.}

10318 #2 물만 비만 거시기아게 오시면 차말로 {물만 비만 거시기하게 오시면 정말로,}

10318 #2 농사 지끼 퍼나지요. {농사 짓기 편하지요.} #1 저 오오썸 금너네 저 농사 다 진
포기여 인자. {저 어썸 금년에 저 농사 다 지은 썸이야 이제.}

10318 #2 여 오레는 하도 비가 와서 그란디 {이 올해는 하도 비가 와서 그런데,}

10318 @ 그리고 그 저기 검불가통 거 이렇 거는 머:로 까 어트게 치로 까부러요? {그리고
그 저기 검불 같은 것 이런 것은 뭐로 어떻게 키로 까부러요?}

10318 #1 치로 안 까부러요. 거 모타 나따가 딱 어리를 싸:놔. {키로 안 까부러요. 거 모아
놔다가 딱 '어리'를 싸 놔.}

10318 #1 그레가꼬 날 바다가꼬 날 존: 날 뚜두려야요. {그레 가지고 날 받아 가지고 날
좋은 날 두들겨야 해요.}

10318 #1 도리께 도리께로 뚜두려 {도리께 도리께로 두들겨.} @ 도리께로, 예. {도리께로,

예.}

10318 #1 그레가꼬 뚜들며는 인자 다 떠러지고 우게는 폭삭폭삭 하게 하며는 {그레 가지고 두들기면은 이제 다 떨어지고 위는 폭신평신허게 하면은,}

10318 #1 검불만 나옵니다. 갈쿠로 글게네. 우거지만. {검불만 나옵니다. 갈퀴로 긁어네, 우거지만. ('우거지'는 위에 있는 검불을 가리킨다.) @ 아

10318 #1 그레가꼬 또 뒤께가꼬 또 뚜들고 하면 또 검불만 늘: 나오면 글 글거 네:고 {그레 가지고 또 뒤집어('뒤끼다'는 '뒤집다'의 방언) 가지고 또 두들기고 하면 또 검불만 늘 나오면 긁어 내고,} @ 아

10318 #1 거 알맹이만 처지제이~. {그 알맹이만 처지지.} @ 아::

10318 @ 치로 아나고요? {키로 하지 않고요?} #1 예.

10318 #2 그레가꼬 인자 그놈 인자 저기하면 풍노질 하지라? {그레 가지고 이제 그것 이제 저기 하면 풍구질('풍노'는 '풍구'의 방언) 하지요?}

10318 #1 그 다: 뚜두러가꼬 거시기 하고는 인자 모타가꼬 풍노질또 하고 {그 다 두들겨 가지고 거시기 하고는 이제 모아 가지고 풍구질 또 하고}

10318 #1 거시허제. 검불 다 빼:블면. {뭐 하지. 검불 다 빼 버리면} #2 그랑께. {그러니까}

10318 @ 혹시 거 거 머라고 합니까? 이러케 거 검불 업:썩 거쁘다 {혹시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검불 없애는 것보고?}

10318 #2 갈쿠요. {갈퀴요.} @ 아니 저 {아니 저} #2 풍노 {풍구} @ 기계로 풍노라고 함 {기계로 풍구라고 합니다.} #1 풍노 풍노 {풍구 풍구.}

10318 @ 아:: #1 풍노가 이씨 이씨요. {풍구가 있어 있어요.}

10318 @ 그건 소느로 돌리나요? {그것은 손으로 돌리나요?} #2 예.

10318 소니로 돌리기도 하고:: 이자 그저넌 소니로 마:니 돌련는디 한 사라미 돌리고 {손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제 그전에는 손으로 많이 돌렸는데 한 사람이 돌리고,}

10318 #1 떠부꼬 {떠서 붓고,} #2 아페서 꼬서네고 {앞에서 끌어 내고,} #1 겹 더 거시기 아고 헨:넌디: {거시기 하고 했는데,}

10318 #1 시방은 인자 여련 요런 거시기 장치를 마:니 해:부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시기 장치를 많이 해 버리니까,}

10322 @ 예. #1 거시기야요. {거시기 해요.} @ 음 #1 정:기 장치를 마:니 해:부니까. {전기 장치를 많이 해 버리니까,} @ 네

10322 @ 그레가지고 나달 다: 터러네면 인자 고걸 어:트케 보:간합니까? {그레 가지고 날 알 다 떨어내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10322 #1 그러면 인자 나라글 보관 해:가꼬 인자 방에 찌:무끼도 하고 보:관하지요. 또 {그러면 이제 벼를 보관해 가지고 이제 방아 찧어 먹기도 하고 보관하지요, 또.}

10322 #1 사무끼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2 여여 나라게다 이러코 어리통아리 한다 거요? 요 어리통아리. 엔:나레가. {이 벼에다 이렇게 '어리통' 한다고 하요? 이 어리통, 옛날에.}

10322 #1 그랑께 엔:나레는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10322 @ 그랑께 엔:나레 엔:나레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1 나라글 홀타가꼬 어리통 해제. 마징게 타가꼬는 아네씨. {벼를 훑어 가지고 어리통 했지. 마징게 타 가지고는 안 했어.} @ 홀타가꼬 어터께 보:관하냐고? {훑어 가지고 어떻게 보관하느냐고?}

10322 @ 어리통아리를 만드려요? {어리통을 만들어요?} #2 어리통아리를 만드라요. {어리통을 만들어요.}

10322 #2 마당에다가 {마당에다.} @아 ~ #2 부:자드른 어리통아리를 {부자들은 어리통을,}

10322 #1 그라고도 어리통아리 어리통아리 안차며는 어리통아리다 또 부서가꼬 보:관 하고 그레썸요. {그리고도 어리통 어리통 차지 않으면은 또 부어 가지고 보관하고 그렸어요.} @ 예~

10322 @ 그거는 어리통아리는 지푸로 지부로 {그것은 어리통은 짚으로 짚으로,} #2 에 지비로 지브로도 하고 {예, 짚으로 짚으로도 하고,} #1 지브로 하자네 {짚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322 #1 엔:날 가마니 짜:가꼬도 하고 {옛날 가마니 짜 가지고도 하고,}

10322 @ 아 가마니요? {아, 가마니요?} #2 가마니 짜:가꼬 가마니를 마:떼가꼬 {가마니 짜 가지고 가마니를 맞대 가지고,} #1 가마니를 짜가꼐: {가마니를 짜 가지고}

10322 #1 시:게믄 시:게 니:게믄 니:게 딱 해:가꼬 도빠늘로 쥐:서 딱: 하며는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딱 해 가지고 돛바늘로 기워서 딱 하면은,}

10322 #1 거 한:나 나락 안 빠저요. {그 하나 벼 안 빠저요.} @ 아

10322 #1 미테 똥그라니 지블 구시를 까라가꼬 따룽 거를 또 {밑에 둥그렇게 짚을 **를 깔아 가지고 다른 것을 또,}

10322 #1 둥치 우게 암 미테 암 빠까께 따룽 거슬 또 깔:고 그레야꼬 부서야제. {둥치 위에 밑에 안 빠지게 다른 것을 또 깔고 그레 가지고 부어야지.}

10322 #1 거시기 안 하거쑈? {거시기 하잖쑈?}

10322 #2 그레가꼐 그러케 어리통아리 해:나따가 인자 나락 사고 {그레 가지고 그렇게 어리통 해 났다가 이제 벼 사고,}

10322 #2 머시기할라믄 인자 고놈 어리통아리 허러가꼬 {뭐 하려면 이제 그것 어리통 헐어 가지고,} #1 거그서 인잔 거그서 퍼서 인자 또 삼 {거기서 이제 거기서 퍼서 이제 또 삼,} #2 퍼서 짜:키도 허고 {퍼서 쪼기도 하고,}

10322 @ 음 #2 나락 사기도 허고 {벼 사기도 하고,}

10322 #1 그라믄 뭘 생:전 뭘 뜨:그나 머:다거나 그라 아네. {그러면 뭘 생전 뭘 뜨거나 뭘 하거나 그러지 않아.} @ 쥐는 안 다 안달라드나요? {쥐는 안 달려드나요?}

10322 #1 아니 쥐가 인자 범: 안 하거꺼 해:야제.(웃음) {아니, 쥐가 이제 범하지 않도록 해야지.}

10322 @ 음 보통 무슨 고까니나 이런 데다 나:두는데 그냥 그러케 해:가지고 마당에다 나:둡니까? {음, 보통 무슨 곳간이나 이런 데에다 놔 두는데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마당에 놔둡니까?} #2 예.

10322 #2 예. 엔:나레 그레썸요. {예, 옛날에 그렸지요.} #1 엔:나레는 마:니 그레썸요. {옛날에는 많이 그렸어요.} #2 지그믄 이러고 고간 지서서 머꼬 고까네 당:꼬 헨넌디 엔:나레는 다:: 마당에다 부:자들 어리통아리 시:게도 해노코 막 크::게 그레썸요. {지금은 이렇게 곳간 지어서 먹고 곳간에 담고 했는데 옛날에는 다 마당에다 부자들 어리통 세 개도 해 놓고 막 크게 그렸지요.}

10322 #1 시방은: 엔:나렇게 그라제 엔:나레는 {지금은 옛날이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10322 #1 창고에다 텅인다고 쟁엔넌디 창고보듬도 거 마당에 나:둔 노미 더 나:꼬 여 이런

디 토방에 나:둔 노미 더 쥐 암 무꼬 그래요. {창고에다 쟁인다고 쟁었는데 창고보다도 그 마당에 놔 둔 것이 더 낫고 이 이런 데 토방에 놔 둔 것은 더 쥐 안 먹고 그래요.}

10318 @ 그러지요 어짜피이~. 그러면 예:: 보리나 미:른 어트케 타:자글 합니까? 보리 타자근 어트케 하나요? {그러지요 어차피. 그러면 예 보리나 밀은 어떻게 타작을 합니까? 보리 타작은 어떻게 하나요?}

10318 #1 도리께질 합니다. 보리도 홀타가꼬 {도리께질 합니다. 보리도 훑어 가지고.} @ 예.

10318 #1 떼야벼데 너러가꼬 {떠약별에 넣어 가지고,}

10318 #1 한:나제 뚜두러야제 그거시 잘 뚜둘리제 {한낮에 두들겨야지 그것이 잘 두들기지,}

10318 #1 그늘지고 거시하면 안 떠지요. {그늘지고 뭐 하면 안 떨어지지요.}

10318 @ 보리는 어트케 홀타요? {보리는 어떻게 훑어요?}

10318 #1 보린 보리도 손홀테로 홀뜬니다. {보리 보리도 그네로 훑습니다.}

10318 @ 아 #2 엔:나렌 그레썬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 소놀테로 홀타요? {그네로 훑어요?} #2 예

10318 #2 손홀테로도 홀타요. {그네로 훑어요.} #1 나락 홀트드끼 {벼 훑듯이,} #2 여페서 떠여주고 요로코 홀트고 {옆에서 떼어 주고 이렇게 훑고,}

10318 @ 그레가꼬 고노를 인젠 {그레 가지고 그것을 이제,}

10318 #1 그러면 모게가:: 그러면 모게가 다 떠러지머는 그놈 모타 가꼬 인잔 벼테따 몰려야 이:리 데제. {그러면 이삭이 그러면 이삭이 다 떨어지면은 그것 모아 가지고 이제 벌에 다 말려야 일이 되지.} @ 예 .

10318 #2 그레야꼬 인자 뚜둘제. {그레 가지고 이제 두들기지.} @ 예에

10318 #1 그러면 뚜둘면 제:미썬라. {그러면 두들기면 재미있어요.}

10318 @ (웃음) 도리께로요? {도리께로요?} #1 예

10318 #2 뚜두러가꼬 인자 그 아:네가 나오제. {두들겨 가지고 이제 그 안이 나오지.} #1 여러케 요세 한:참 더울 때 뚜든 파니여. {이렇게 요새 한창 더울 때 두들기는 판이야.}

10318 #1 땀 흘려도 벨 수가 업:썬. (웃음) {땀 흘려도 벨 수가 없어. (웃음)}

10318 #2 그레가꼬 인자 그거이 풍노질 하지라이~? 뚜드러가꼬이~. {그레 가지고 이제 그것이 풍구질 하지요? 두들겨 가지고?}

10318 #1 아이 그라고 엔:나레는 {아이, 그리고 옛날에는}

10318 이 놈 거더 네:고 얼맹이 아 인능가 데얼맹이 여러케 {이것 걷어 내고 어레미('얼맹이'는 '어레미'의 방언) 있잖는가? 대 어레미 이렇게}

10318 #1 그레가꼬 여러켄 부서가꼬 안 창:가? {그레 가지고 이렇게 부어 가지고 치잖는가?}

10318 #2 처가꼬이 {쳐 가지고} #1 그레가꼬 그너른 껍떠근 또 땀 디로 보 저 나:두고 또 고놈 거시기 하고 {그레 가지고 그것은 껍질은 또 다른 곳으로 저 놔 두고 또 그것 뒤편 하고}

10318 #1 그 미테치는 뜯 {그 밀의 것은 또}

10318 #1 바라메 디리던지 풍노질 하든지 그레야제. {바람에 날리든지('디리다'는 바람에 날려 검불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풍구질 하든지 그레야지.}

10318 @ 바라메 어트케요? {바람에 어떻게요?} #1 바라메 디레요. {바람에 날려요.}

@ 아

10318 #1 바라미 불:머는 여러케 슬슬 송쿠리에다 다마가꼬 그른 잘 나가고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슬슬 삼태기에다 담아 가지고 그러면 잘 나가고,} #2 바람에 인자 그거시 가봉께 그 {바람에 이제 그것이 가벼우니까 그,}

10318 #1 그라나면 저 엔:나레 인는 사람드른 풍노지를 해:가꼬 마:니 한디 언: 풍노 엄:는 사람드른 바람에 가서 마:니 디리고 그레쎌요. {그렇지 않으면 저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풍구질을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풍구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가서 많이 날리고 그랬어요.}

10318 @ 바람에 고걸 디린다 그레요이~? {바람에 그것을 '디린다' 그레요?} #1 예 #2 바람에 디린다. {바람에 '디린다'}

10318 @ 그러믄 그레가지고 그 그 보리가통 거슨 어:따가 다머 둬니 {그러면 그레 가지고 그그 보리 같은 것은 어디에다가 담아 둬니까?}

10318 #2 가마니에다 담 {가마니에다 담} #1 가마니에다 다머야지요 {가마니에다 담아야지요.} #2 거 엔:나레 지까니 지까마니 {그 옛날에 쥔 가마니, 쥔 가마니,} #1 지까마니에다 {쥔 가마니에다}

10318 #1 딱 그 양만 담제 마이. 그라고 보리가 무겁습니다. {딱 그 양만 담지, 많이. 그리고 보리가 무겁습니다.}

10318 #1 가:튼 거싰 {같은 것이}

10318 #1 베아고 저 보리아고 다머도 더 무거게 베:이요. {벼하고 저 보리하고 담아도 더 무겁게 보이오.} @ 나락뽀다 무거요? {벼보다 무거워요?} #2 예.

10318 #2 체: 무거게 보이고 {훨씬 무겁게 보이고} #1 여름처리라 길러기 업:췌께 그랑가 더더 무거게 베이고 {웃음} {여름철이라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지 더 무겁게 보이고,}

10318 @ 어:: 미:른 미:른 어뜨케 헤췌니까? 다 {어 밀은 밀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10318 #1 밀:도 그르케 저 {밀도 그렇게 저} @ 그레도 단 소느로? {그레도 다 손으로?} #1 미:른 소느로 잘 안 흘뜬니다. 흘트기도 한디 {밀은 손으로 잘 안 흘뜬니다. 흘기도 하는데,}

10318 #1 미:른 그르케 비여다가 {밀은 그렇게 베여다가}

10318 #1 증 마라자면 미:리 여 여 모가지 아니췌? {즉 말하자면 밀이 이 이삭 있잖소?}

@ 예

10318 #1 그러면 여러케 노:머는 또 그 우:게다가 툇 여 모가지 다:메 여러케 툇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또 그 위에다가 또 이 이삭 다음에 이렇게 또,}

10318 #1 영거 {엷어.} @ 예 #1 조르라니 {줄줄이('조르라니'는 '줄줄이'의 뜻)}

10318 #1 그레가꼬 도리께질 하며는 {그레 가지고 도리께질 하면은}

10318 #1 함불 딱:: 뚜들며는 {한 벌 딱 두들기면은}

10318 #1 또 이러케 반:데로 뒤깁니다. {또 이렇게 반대로 뒤집습니다.}

10318 @ 예 #1 그레가꼬 뚜두러요. {그레 가지고 두들겨요.} @ 아

10318 #1 그레가꼬 또 안 떠러지면 또 함번 더 뒤께 야꼬 세:불 네:불까지도 뒤께 야꼬 뚜두러요. {그레 가지고 또 떨어지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뒤집어 가지고 세 벌 네 벌까지도 뒤집어 가지고 두들겨요.}

10318 @ 아, 그 모가지 이르게 흘트도 양코 {아, 그 이삭 이렇게 흘지도 않고,} #1예 @ 그테로 나:두고 그냥 도리께질 해:버려요. {그대로 놔 두고 그냥 도리께질 해 버려요.}

10318 #1 그레가꼬 {그레 가지고} @ 음

10318 #1 그러를 또 어:디 도리깨질 하면 뇌인다고 뇌이며는 {그것을 또 어디 도리깨질 하면 '뇌인다'고 '뇌이면'은}

10318 #1 도리깨로 썬::리 {도리깨로 저리}

10318 #1 글 상:모시미 이러케 까라조요. {그 상머슴이 이렇게 깔아 줘요.}

10318 @ 음 #1 그럼 그 놈 뚜덕뚜덕 뚜두러야제, 안: 뚜두면 안 데제. 거 모가지 한나도 {그럼 그것 투덕투덕 두들겨야지 안 두들기면 안 되지. 그 이삭 하나도}

10318 #1 열 다: 뚜두러지게 할랑께. {다 두들겨지게 하려니까,} @ 음.

10318 #1 그레가꼐 다 두들며는 글거넌:시로 {그레 가지고 다 두들기면은 굵어내면서}

10318 #1 또 두들고 두들고 하제. {또 두들기고 두들기고 하지.} @ 예

10318 #1 그레션 밀타작 합니다. 미 미:리 또 잘 빠저요. {그렇게 밀타작합니다. 밀이 또 잘 빠저요.}

10318 #2 인자 풍노질 하지요. ** {이제 풍구질 하지요 **.) #1 딱: 글거 네:고 또 {딱 굵어 내고 또}

10318 #1 거시기 하제. 열메이질 헤:가꼬 풍노질 하지라우. {뭐 하지. 어레미질 해 가지고 풍구질 하지요.} #2 처징 거슨 인자 치로 까:불고 {처진 것은 이제 키로 까부르고}

10318 #1 거시기인 검불 가통 거슨 따로 나오면 거시기 하고 {거시기 검불 같은 것은 따로 나오면 뭐 하고,}

10318 #1 어 미:른 또 유드끼 또 잘 빠썩니다. {어 밀은 또 유독 또 잘 빠집니다.}

10318 @ 아: 그레요? {아, 그레요?} #2 밀:타자기나 {밀 타작이나} #1 보리도 그라고 {보리도 그렇고} #2 알맹이가 얼릉 빠저요. {알맹이가 얼른 빠저요.}

10318 @ 그 다메:: 쿵: 가통 거슨 어뜨케 합니까? {그 다음에 쿵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1 쿵도 거식 하제라이~. {쿵도 뭐 하지요.}

10322 @ 쿵은 {쿵은} #1 예:: @ 비여다가 그냥 {베어다가 그냥} #1 엔? #2 비여다가 고거또 뚜두러요. {베어다가 그것도 두들겨요.} #1 핀피 @ 마 말려 말려 가꼬? #{말려 말려 가지고?} #2 예예 말려가 {예예, 말려 가지고}

10322 #1 말려가꼬 저: 엔:나레는 주로 어:짤 수가 인능고니 {말려 가지고 저 옛날에는 주로 어떤 수가 있는고 하니,}

10322 #1 어제도 예:기 헤:제마넌 {어제도 얘기했지마는}

10322 #1 엔:나른 쉼씨떼 아니쑈? {옛날은 수숫대 있잖소?}

10322 @ 예 #1 인잔 허무러정께 인잔 사네키 시:게 노코 {이제 허무러지니까 이제 새끼 세 개 놓고,}

10322 #1 여 쭈시떼 딱 모가지 처불고 바다게 깔문 {여 수숫대 딱 이삭 쳐 버리고 바닥에 깔면,}

10322 #1 거리 노면 딱 끼:메도 암 빠지 꺾 아니요? {그렇게 놓으면 딱 *** 안 빠질 것 아니요?}

10322 #1 동치 지:머는 {동('동치'는 '동'의 뜻) 지으면은} @ 음 #1 그레가꼐 {그레 가지고}

10322 #1 저다간 쥔 농노까에나 {저다가 저 농로 가에나}

10322 #1 사네다가 탁 나:두면 그넌 주르라니 나:도요. {산에다가 탁 놔 두면 그것 줄줄이 놔 뒤요.}

10322 #1 그에 우제지 헤:노코 거 바빠서 모:다머는 인잔 {그렇게 의지해 놓고 거 바빠서}

못 하면은 이제}

10322 #1 동지 서:파레도 두들고 (웃음) {동지 선달에도 두들기고 (웃음)}

10322 #1 그레썸요 {그랬어요.} #2 잘 가라저가꼬 잘 두들려저요. {잘 갈아져 가지고 잘 두들겨저요.}

10322 #2 거그서 가라저가꼬 {거기서 갈아져 가지고} @ 아 #2 거기서 말:르제 인자. {거기서 마르지 이제.} @ 에

10322 #2 마:라자면 여그다 만 말링 건 마냥 요로고 동치 지여노면 그 소:게도 물리고 말 룡갑떼요. 그레가꼬 두들고 {말하자면 여기에다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동 지어 놓으면 그 속도 말리고 마르나 보테요. 그레 가지고 두들기고.}

10322 #2 그른 인자 잘 두들려지제. {그러면 이제 잘 두들겨지지.}

10322 @ 음 #2 아 그거또 인자 이려고 쿵 두들레가꼬 처징 거슨 {아, 그것도 이제 이렇게 쿵 두들겨 가지고 처진 것은,}

10322 #1 그란디 건 제:미썸라, 또 두들면, 시야네는 유드끼. {그런데 그것 재미있어요, 또 두들기면, 겨울에는 유독.}

10322 #1 또 운동 데고 (웃음) 요러케 더울 때는 할락 하면 거 힘드려요. {또 운동 되고 (웃음) 이렇게 더울 때는 하려고 하면 그 힘들어요.}

10322 #2 지그른 동치도 안 지서요. 막 시러다 두들러봉게 {지금은 동도 안 지어요. 막 실 어다 두들겨 버리니까.} @2 아

10322 #1 시방 엔:나링게 {시방 옛날이니까} #2 엔:나링가 동치 지여다 막 둘::냥 {옛날이니까 동 지여다 막 } #1 동치 지여다가 {동 지여다가} #2 쟁에노코 시야네 두들 한디 지그 른 {쟁여 놓고 겨울 내내 두들기고 하는데 지금은} #1 썸 눈: 누나 눈 영처가꼬 그넵 딱 미크러불고 {저 눈 눈 와 눈 없어 가지고 그것 딱 밀어 버리고}

10322 #1 동 쿵팡만 저다가 인자 마당에다 딱 까라서 뉘여놔 썸 뉘벼노코 두들기 시자가 먼 제:미썸라우. {동 쿵, 팔만 저다가 이제 마당에다 딱 깔아서 뉘여 놓고 두들기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요.}

10322 #2 그란디 지그른 막: 꺼더다 막 두들러봉게. {그런데 지금은 막 걷어다가 막 두들 겨 버리니까} @ 그레가지고 그냥 건조 건조장으로 보내버리나요? 어뜨게? {그레 가지고 그냥 건조 건조장으로 보내 버리나요? 어떻게?}

10322 #2 그레가꼬 인자 이너기 인자 머글라면 깍깍 물리고 {그레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먹으려면 팡팡 말리고}

10322 @ 물리고 {말리고} #1 거 장:테 하고 {그 '장태'하고} #2 또 사,살 노른 깡깡 물리고 {또 팔 것은 팡팡 말리고} @ 에에

10322 #1 사무글 놔 사 무꼬 {팔아 먹을 것 팔아 먹고} #2 사기도 허고 장도 쭈고 {팔기도 하고 장도 쭈고}

10322 #1 사무글 놔 사 무꼬 나르면 {팔아 먹을 것 팔아 먹고 남으면} @2 에

10318 #1 엔:나레 제:미썸. 뭇 두:리 불바서 거시기하면 한나는 갈퀴질하고 그 똑빠리 시: 머는 또 한나는 짐 무꼬고 {옛날에 재미있어. 뭇 둘이 밟아서 뭇 하면 하나는 갈퀴질 하고 그 쪽 발이 쉬면은 또 하나는 짐 묶고}

10318 #1 갈퀴질 또 하고 (웃음) {갈퀴질 또 하고 (웃음)}

10318 #1 마징게 또 글거네:면. {'마징게' 또 굵어 내면,} @ 나라가통 거슨 그:: {벼 같은 것은 그}

10318 @ 저기 노네서 가꼬와 가지고 그러케 싸:두나요? 인제 타:자카기 저네 {저기 논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쌓아 두나요? 이제 타작하기 전에?}

10318 #1 엔:나레는 베늘 눌러써요. 뽕:뽕 둘러서 {옛날에는 가리 쌓았어요, 빙빙 둘러서.}

10318 @ 에:: #1 중 마라자면 여기다가 인자 늘:치카니 지블 잔 까라. {즉 말하자면 여기다가 이제 넓게('늘치카니'는 '늘적하게'의 방언) 짚을 조금 깔아.}

10318 #1 그 발로 요 요:러케 켜:까냥 거시 해마넌 {그 발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하면은} @ 에

10318 #1 함 바꾸 또 돌:리며는 그 여페는 또 더 네:그서. {한 바퀴 또 돌리면은 그 옆은 또 더 내그어.}

10318 #1 뽕: 둘러서. 그레가꼬 그 다:으메 또 누가 올려주며는 {빙 둘러서. 그레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올려 주면은}

10318 #1 해끝 열: 뽕: 데:서 딱 거 눌러요. {** 열 바짝 대어서 딱 그 눌러요.}

10318 #1 나도 벨 지끝 다 해쏘. {웃음} {나도 벨 짓거리 다 했소.} @ 아아

10318 @ 그레가지고 베늘 다: 눌러서 {그레 가지고 가리 다 쌓아서} #1 베늘 다: 눌러서 유제지해:서 거 {가리 다 쌓아서 의지해서} #2 노피 해:가꼬 베누리 눌러서 {높이 해서 가리 쌓아서}

10318 #1 그라면 지금 나락 그 함모기라면 차말론 {그러면 지금 벼 그 한 '목'이라면 그 정말로}

10318 #1 함목 높르면 상당이 큼니다. {한 '목' 쌓으면 상당히 큼니다.} @에

10318 #2 그레가꼬 인자 그 놈 인자 노버더서 인자 거 기계홀테 {그레 가지고 이제 그것 이제 놈 얻어서 이제 그 탈곡기} #1 노버드면 또 마라미로 여꺼서 딱:: 눌러노며는 뽕 {놉 얻으면 또 이영으로 엮어서 딱 눌러 놓으면은 또,}

10318 #1 시야네 노버더가꼐 그놈 우게 마람 딱 거더서 {거울에 놉 얻어 가지고 그것 위에 이영 딱 겹어서,}

10318 #1 딱 해:서 짤 내려서 인잔 딱 눌러가꼬 인자 사:람 마:니 어더야지요이~. {딱 해서 이제 내려서 이제 딱 눌러 가지고 이제 사람 많이 얻어야지요.}

10318 #1 너:인 자우튼 두:리 홀트면 양:쪼게서 띠여 주고 갈퀴질 한 사:람 이꼬. {넛, 좌우간('자우튼'은 '좌우간'과 '하여튼'의 혼태어) 둘이 훑으면 양 쪽에서 떼어 주고 갈퀴질 하는 사람 있고,}

10318 #1 집 두:린 무꺼야데야 안데요. {짚 둘은 묶어야 돼요.} @에.

10318 #1 나 벨 건 다: 해쏘 거. {나 별 것 다 했소 그.}

10318 #1 집베늘도 그러케 몬:눈던디 집베늘도 놀들찌 알:고. {짚가리도 그렇게 못 쌓았는데 짚가리도 쌓을 줄 알고}

10318 #1 해:봉께 다 땀따다. {해 보니까 다 땀이다.}

10318 @ 그니까 그 노:네서 가꼬웅 거슬 항꺼버네 다 타:자글 안 하고 고로케 베늘 눌러 나따가 {그러니까 그 논에서 가지고 온 것을 한꺼번에 다 타작을 안 하고 그렇게 가리 쌓아 놓았다가} #1 엔:나레는 베누를 다 눌러켜. {옛날에는 가리를 다 쌓았지.}

10318 @ 여러번 나뉘서 타:자글 하고 그레써요? {여러 번 나뉘서 타작을 하고 그랬어요?}

#2 예 #1 그라게 {그러니까}

10318 #1 엔:나레 등지미 하며는 쌓아쏘리 해:감시로도 {옛날에 등짐을 하면은 상여소리 해 가면서,}

10318 #1 걷 와라우. 머나 먼디서 {걷 와요, 머나 먼 곳에서,}

10318 #1 그러면 심 조은 사라문 {그러면 힘 좋은 사람은}

10318 #1 거 한 짐 지고 오며는 {거 한 짐 지고 오면은}

10318 #1 심 존: 사라문 두: 짐 차고 와부러. 두: 번 앙 갈라고. {힘 좋은 사람은 두 짐 차고 와 버려, 두 번 안 가려고.}

10318 #1 그람 그 사람드른 또 가. 엔:나레는 그러케 풍소기 어메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가. 옛날에는 그렇게 풍속이 업했어요.}

10318 #1 시바잉께 인자 저:께지나 마:니 지나 헨:넌디 저 무쭈로 따:징께. {지금이니까 이제 적게 지나 많이 지나 했는데 저 못 수로 따지니까,} @ 아

10318 #1 거그는 인잔 힘 준 사라문 두 짐도 차불고 석:찜도 차분디, {거기는 이제 힘 좋은 사람은 두 짐도 차 버리고 석 짐도 차 버리는데,}

10318 #1 거 심 야간 사라문 얼릉 빨리빨리 텅일라고 예:를 쓰고 간디, {거 힘 약한 사람은 얼른 빨리빨리 다니려고 애를 쓰고 가는데,}

10318 #1 힘 존 사라문 칸닥::까닥 짐 싸가꼬 오면 그거이 더 소:라와. 나도 솔차니 해:바찌마는 지를 잘 싸야씨, 소 처제. {힘 좋은 사람은 느릿느릿('칸닥칸닥'은 서두르지 않는 모양을 가리킨다.) 짐 싸 가지고 오면 그것이 더 수월해. 나도 상당히 해 봤지마는 짐을 잘 싸야 돼, 첫제.}

10318 #1 석: 썸 쏘:라며는 {석, 힘 쓰려면은}

10318 #1 지게까지에다가 지게까지가 시방 증 마라자면 여그 꼬작 아납니까? {지게 가지에다가 지게 가지가 지금 즉 말하자면 여기 '꼬작' 아납니까?}

10318 #1 여그 여기다 시:게 여그다 시:게 여기다 시:게 여그다 그러문 여서께 아님 여여 여서께 안 여서께. {여기 여기다 세 개 여기다 세 개 여기에다 세 개 여기다 그러면 여섯 개 아니면 여 여 여섯 개 안 여섯 개}

10318 #1 시:게 시:게 여서께에다가 열 뚜게 안템니까? {세 개, 세 개, 여섯 개에다가 열두 개 안 됩니까?}

10318 #1 그 우그로 올라가서는 두: 게씩 싸 또. {그 위로 올라가서는 두 개씩 싸, 또.}

10318 #1 올라갈쭈록 하나를 싸:고 지를 잘 싸야 씨. {올라갈수록 하나를 싸고 짐을 잘 싸야 돼.} @ 아오께. {아흠 개}

10318 #1 (웃음) 삼사문 구 {삼삼은 구} @ 아

10318 #1 그러면 또 두: 게씩 올라가면 똥 양:쪼게 두: 게씩 올라가면 (웃음) 그레가꼬 {그러면 또 두 개씩 올라가면 또 양 쪽에 두 개씩 올라가면 (웃음) 그레 가지고,}

10318 #1 두: 게씩 올라가꼬 하나씩 딱:: 해:가꼬 가면 지미 게:오끄등. {두 개씩 올라 가지고 하나씩 딱 해 가지고 가면 짐이 가볍거든.}

10318 @ (웃음) #1 그거시 요:렝이제. {그것이 요령이지.} @ (웃음) 규녕을 마쳐 가지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10318 #1 두: 짐 쏘라면 {두 짐 '쏘려면'}

10318 #1 나늬 저: 엔:나레는 {나는 저 옛날에는}

10318 #1 지게 막 바쳐노코 놔드릉 {지게 막 바쳐 놓고 남들은}

10318 #1 지게까지에다 낀:디 나는 앙 끼고도 막 차곧 항켄, {지게 가지에다 끼는데 나는 안 끼고도 막 차고 하니까}

10318 #1 그 키가 커야 머기든지 지를 쏘:끼가 조:코 그랍따. {그 키가 커야 뭐든지 짐을 '}

쫓기가' 좋고 그림디다.} @ 예예.

10318 #1 그레가꼬 나는 우리 자그나부진 네야를 머나 싸:나알체. {그레 가지고 나는 우리 작은아버지네 것을('야'는 '것'의 뜻) 먼저 쌓아 놓았지.}

10318 @ 네 #1 그레야 네:가 따라가제. 그라고 자그나부지 거슨 딱 네야 싸:노코 자그나 부지 가시라 하고 {그레야 내가 따라가지. 그리고 작은아버지 것은 딱 내 것 쌓아 놓고 작은아버지 것이랑 하고,}

10318 #1 싸:주고 오고 가시오 따라가라고 네안 뒤에 따라가도 충:부니 따라가 그렇게.(웃음) {쌓아 주고 오고 가시오 따라가라고 내 것은 뒤에 따라가도 충분히 따라가, 그러니까.}

10318 #1 그라고 나는 푸마시혜쑈. {그렇게 나는 품앗이 했소.} @ (웃음) #1 자그나부지 모:시고도. {작은아버지 모시고도,} @ 네

10318 @ 그 다으멘: {그 다음에는}

10319 @ 예 그 다으메 이자 이루켄 타:작 현노문 인자 방아 찌여야 테지 앙커쑤니까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타작한 것은 이제 방아 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그라지요. {그렇지요.} @ 방에르리~. {방아를}

10319 @ 기계도 이꼬 {기계도 있고}

10319 @ 저네는 기계 아니고 또 그냥 지베서 {전에는 기계 아니고 또 그냥 집에서} #2 조:작빵에다 찌여쑈. {'조작방아'에다 찼었지요.} @ 예? #2 조:작빵에라고 이쑈. {'조작방아'라고 있어.} #1 조:작빵에라고. {'조작방아라고.} @ 조:작빵에가 머예요? {'조작방아'가 뭐예요?}

10319 #2(웃음) #1 디들빵아 {디딜방아} #2 디들빵아 {디딜방아} @ 아

10319 #1 발로 밟아서 (웃음) 그 떨그덩 떨그덩 {발로 밟아서 (웃음) 그 떨그덩 떨그덩}

10319 #1 그랑께 남자드리 저 어어 여으서 볼부면 또 사:라미 한나 이기 느:코 그레가꼬 {그러니까 남자들이 저 어어 여기서 밟으면 또 사람이 하나 이겨 넣고 그레 가지고,}

10319 #1 발로 밟아서 마:니 찌야쑈. {발로 밟아서 많이 찼었지요.}

10319 @ 그 #1 디들빵아. {디딜방아.} @ 예 조:작빵아는 멀: 멀: 찌쑤니까? {'조작방아'는 멀 멀 찼습니까?}

10319 #1 아 머:이든지 보리방아도 찌:꼬 {아, 뭐든지 보리방아도 찼고,} #2 보리방에도 {보리방아도} #1 저 건 나락빵아도 찌:꼬 {저 건 벼방아도 찼고,} @ 아

10319 #1 그레요. 서:숙빵아도 찌:꼬. {그레요. 조 방아도 찼고.}

10319 #2 다 그레쑈요, 엔:나레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1 꼬:치방아도 찌:꼬. {고추방아도 찼고}

10319 #2 그: 방에를 찌여서 쌀도 ** 보리 방에도 ** 거 기계 아나쑈제는. {그 방아를 찼어서 쌀도 ** 보리 방아도 ** 거 기계 하지 않았을 때는} @ 아

10320 #2 궁께 저:네 어:런더리 우덜 에레서 어:런더리 여 이려고 {그러니까 전에 어른들이 우리들 어려서 어른들이 여 이렇게}

10320 #2 게론 안 헤쑈 차메 어:런더리 인제 저니게면 보리방에 찌:로 가시드만. 보리방에 찌:로가면 {결혼 안 했을 때에 어른들이 이제 저녁이면 보리방아 찼으러 가시더구면. 보리방아 찼으러 가면,}

10320 #2 그노를 인자 함 불 찌여. 함 불 찌여가고 땅 너리가꼬 또 인자 고놈 또 떼끼로 가. {그것을 이제 한 벌 찼어. 한 벌 찼어 가지고 딱 넣어 가지고 또 이제 그것 또 곱게 다시 찼으러 가.}

10320 #1 저 인자 모르면 인자 또 껌:끼로 간다고 또 {저 이제 마르면 이제 또 곱게 다시 찢으러 간다고 또} #2 떼끼로 가. 떼끼야 인자 바블 헤:목째. {곱게 다시 찢으러 가. 곱게 다시 찢어야 이제 밥을 해 먹지.}

10320 #2 인자 고와야 고와야 {이제 고와야, 고와야,} @ 떼:긴단 마리 무슨 마리에요? {'떼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 조:케 까꿍다 그 마리어 싹. {종게 깎는다 그 말이야 싹.}

10320 #1 야야. 까:꺼서 바베 뭉는다. {예, 깎아서 밥해 먹는다.} @ 머:스로 까껴요? {무엇으로 깎아요?}

10320 #2 거거거 방에에다가 {거기에다 방에에다가} #1 방에에다가 찢여야 인자 또 (웃음) {방에에다가 찢어야 이제 또} @ 도:구통에다? {절구에다} #1 베끼지요. {벗기지요.}

10320 #2 아니 #1 방에 디들뽕에다가. {방아 디딜방아에다}

10320 #2 디들뽕에라고. {디딜방아라고?} @ 아 디들뽕으로 함 번 더 찢거요? {아, 디딜방아로 한 번 더 찢어요?}

10320 #1 더 찢여. 두: 불 찢여야제. 함 불 찢여 가꼬는 안 데여. {더 찢어. 두 벌 찢어야지 한 벌 찢어 가지고는 안 돼.} @ 어

10320 #2 그레가꼬 인자 거 거저 거거서 떼킨다고 그레요 그람. {그레 가지고 이제 그 그저 거기서 '떼킨다'고 그레요, 그러면,}

10321 #2 고 늬 찢여가꼬 엔:나레는 어:런더리 오레::텐 디 그 방에 찢여가꼬도 또 고늬가꼬도 밀:개떡 해 저거 보리개떡도 해무거요이~. {그것 찢어 가지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오래된 것 그 방아 찢어 가지고도 또 그것 가지고도 밀개떡 해 저거 보리개떡도 해 먹어요.}

10321 #1 거저 두: 불 찢노른 인자 조으니까. {그저 두 벌 찢은 것은 이제 좋으니까.} #2 두: 불 찢 노른 몽글 몽글 {두 벌 찢은 것은 몽글몽글,} @ 아

10321 #2 그레가꼬 그 그거까꼬 보리싸를 또 {그레 가지고 그 그것 가지고 보리쌀을 또}

10321 #2 보리싸를 저기 보리바발: 떼 그 뜸무를 또 탐타:반 노물 바다요. {보리쌀을 저기 보리밥 할 때 그 뜸물을 또 탐탐한 것을 받아요.}

10321 #2 우리 어:런더른. 그레가꼬 그 뜸물가꼬 뜯 {우리 어른들은. 그레 가지고 그 뜸물 가지고 또}

10321 #2 여 지금 단술끼레 목명끼 끼레무거. {이 지금 단술 끓여 먹듯이 끓여 먹어.}

10321 #2 술 끼레 목떼끼. 설탕 설탕 아이 설탕 안 치고 그 떼는 머 {술 끓여 먹듯이. 설탕 설탕 아니 설탕 안 치고 그때는 뭐,} @ 에

10321 #2 사까리 처쓰까? (웃음) {사카린 컸을까?} @ 에

10321 #2 그랑게 어:른드른 벨 거슬 다 잡싸씨. {그러니까 어른들은 벨 것을 다 잡쌌어.} @ 함 번 함 번 찢면 몸: 명나요? {한 번 한 번 찢으면 못 먹나요?} #2 몸: 무거. {못 먹어.}

10321 #2 함 번찌면 몸: 무거. {한 번 찢으면 못 먹어.} #1 보리는 꺼벌 찢여가꼬는 절:떼 몸: 무그니까. {보리는 껍질 찢어 가지고는 절대 못 먹으니까.} #2 두: 불 찢여가고 목째. {두 벌 찢어 가지고 먹지.} @2 두: 불 찢은 저히 지금 명는 거처럼 그러케 {두 벌 찢으면 저희 지금 먹는 것처럼 그렇게,} #1 그, 그레야 보리가 흐:가니 익찌 인자. {그레야 보리가 하얗게}'호가니'는 '하얗게'의 방언) 익지 이제.}

10320 @2 싸:른 싸:른 머 뽕 찢나요? {쌀은 쌀은 몇 번 찢나요?} #2 싸:른 쌀: 함 불 찢체. {쌀은 쌀 한 벌 찢지.} @ 싸:른 함 벌 찢여. {쌀은 한 벌 찢어.}

10320 #1 싸:른 함 번 찌고 인자 거시기 메야 {쌀은 한 번 찜고 이제 거시기 메야} @2
 쌀은 한 번씩 찌는데 보리는 두 번씩 {쌀은 한 번씩 찜는데 보리는 두 번씩} #1 요 기계에
 다 찌며는 쌀:도 {요 기계에다 찜으면은 쌀도}

10320 #1 요 요 기계 나와가꼬는 아 데버네 찌여분디. {요요 기계 나와 가지고는 아 대번
 에 찜어 버리는데,}

10320 #1 엔:나레 발통기에다 떨: 때는 {옛날에 발통기에다 찜을 때는}

10320 #1 요:리 요:리 요리 가따 요리 가따 요리가따 에일고 야라빨 찌여씨. {이리 이리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여닐곱 여덟 벌 찜었어.}

10320 #1 시방 여그:: 시방 헨:제 기계 찌:며는 시방도 찌여보면 {지금 여기 지금 현재 기
 계 찜으면은 지금도 찜어 보면,}

10320 #1 나라그로 망 너먼 데버네 찌 쌀로 나와분디. {벼로 막 넣으면 대번에 저 쌀로 나
 와 버리는데,} #2 예

10320 #1 엔:나레는 여 발통기라고 이씨. {옛날에는 이 발통기라고 있어.}

10320 #1 그러면 그놈 도라가면 요 함 불 느:썰 두: 불 느:썰 시:불 느:썰 나:불 다서 여서
 빨 가차이 드 드러가고 {그러면 그것 돌아가면 이 한 벌 넣지 두 벌 넣지 세 벌 넣지 네 벌
 다섯 여섯 벌 가깝게 드 드러가고}

10320 #1 그런 그레야 싸:리데제 그라나면 안테 안테고. {그랬 그레야 쌀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안 되고,}

10320 #1 기계 여기서는 주로 그런 디들뽕아를 마:니 사용헤꾸뇨? {그레 여기서는 주로
 그런 디딜방아를 많이 사용했군요?} #2 예

10320 #1 엔나레는 디들뽕아를 마:니 사용헤췌 어제땅가? {옛날에는 디딜방아를 많이 사
 용했지 어찌했단가?} @ 음

10320 #1 그라고 엔:나레는 저:니 푸마시를 마:니 하고 노 췌: {그리고 옛날에는 완전히('
 전히'는 '완전히'의 뜻) 품앗이를 많이 하고 노 췌}

10320 #1 노:인드리 저너기면 자물 모짜고 {노인들이 저녁이면 잠을 못 자고,} #2 나:제도
 이러고 잠: 모:씨여요. {낮에도 이렇게 잠 못 쉬어요.}

10320 #2 거 나:제면 인자 또 그 놈 또 방에 찜:때. {그 낮이면 이제 또 그것 또 방아 찜
 을 때} @ 아 #2 그레노코 인자 방에 찌여노코 또 밤메로 가제. {그레 가지고 이제 방아 찜
 어 놓고 또 밭 매러 가지.}

10320 #1 쉬도 모:데씨. 엔:나레는. {쉬지도 못 했어, 옛날에는} @ 췌: 트미 업네요. {췌
 틈이 없네요.}

10319 @ 그 디들뽕아도 미테가 요로코 움푹 파져췌요? {그 디딜방아도 밑이 이렇게 움푹
 파졌지요?} #2 예, 요로코 요로코 {예, 이렇게 이렇게} #1 거 파져 파져가꼬 이제. {그 파
 져 파져 가지고 있지.} @ 고 머:라고 합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2 그거뿐다 하:기라게
 요. 학:. {그것보고 확이라고 해요 확.} #1 확: {확} @ 어? #1 학: {확 @ 학:. {확}}

10319 #1 하:기꼬 도구때 저: 방에 고. {확이고 절굿공이 저 방아 공이('고'는 '공이'이 옛
 말)} #2 방에 방에 학: {방아 방아 학}

10319 @ 음 방에고이꼬. {음 방아 공이 있고.} #1 방에고이꼬. {방아 공이 있고.} #2 방
 에고 {방아 공이}

10319 #2 거가 거: 하:게로 탁탁 찌여지제. {거기가 그 확으로 탁탁 찜어지지.} #1 그레야
 그레야 캉캉 찌여야 거시하제. {그레야 그레야 팡팡 찜어야 뭐 하지.} @ 하:근 그먼 도:그

로 데어썩요? {확은 그러면 돌로 되었어요?} #2 예.

10319 #1 학또 도:그로 데야가꼬 다 거시간디. {확도 돌로 되어 가지고 다 뭐하는데}

10319 #1 시방은 저 어지께 안 바게썩게 근디 그 학:또 이꼬 {지금은 저 어저께 안 봤으니까 그런데 그 확도 있고,} @ 음

10319 #1 도곤 도구떼로 방에고도 이꼬. {절구 절긋공이도, 방아 공이도 있고,}

10319 #1 어이께 찬 자세이 안 바게꾸만. {어저께 자세히 안 보셨구만.} @ (웃음) 아니예요. 예

10319 #1 그 다 이썩요. {다 있어요.} @ 예 #1 아 하:근 업:썩 업. {아 확은 없어 없.}

10319 #2 하:근 업:썩이~. {확은 없지.}

10319 #1 그란디 방에고는 이때. {그런데 방아 공이는 있데.}

10319 #2 고는 고는 우리 우리 걸 가따가. {공이는 공이는 우리 우리 것 가져다가,} #1 으~ 마저. {응, 맞아.}

10319 #1 엔:날 우리 걸. {옛날 우리 것}

10319 @ 그러머는 인제 고로케 찌기도 하고 그믄 도:구 도:구통 도:구지른 얻 얻:썩 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찜기도 하고 그러면 절구 절구통 절구질은 언제 썩니까?}

10319 #2 인자 도곤 도:구지른 인자 또 이 {이제 절구 절구질은 이제 또 이}

10319 #2 먼: 썩:썩 할 때는 인자 또 도:구질 해. {무슨 조금 할 때는 이제 또 절구질 해.}

10319 #1 나무도:구통인는디다가 또 나:무로 저 도:구떼 만드라서 꺾:꺾 찌꼬 머 그러기도 하고 {나무 절구통 있는 데다가 또 나무로 저 절긋공이 만들어서 꺾꺾 찜고 뭐 그러기도 하고} @ 쪼그만 할 때 {조그마할 때} #2 예예

10319 #2 또 먼: 할 때 거그다가 인자 찌:꼬 그라고. {또 뭐할 때 거기다가 이제 찜고 그러고,}

10319 @ 마:니 헐라머는? {많이 하려면은} #2 예 마:니 할라머 {예, 많이 하려면은} #1 그렇게 사:라미 {그러니까 사람이}

10319 #1 마:니 피로 아나니까 한자 그거슨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혼자 그것은}

10319 #1 여 도:구또게다 부서가꼬 나뭇 콩콩 찌:끼도 하고 그러케 헐:넌디. {이 절구통에다 부어 가지고 나뭇 콩콩 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10319 #1 인자 아깁 방아찜 때는 사:라미 {이제 아까 방아 찜을 때는 사람이}

10319 #1 너:이 볼바야 썩고 {넋이 밝아야 되고}

10319 #1 또 학 썩러 는: 사람 이꼬 {또 확 썩어 넣는 사람 있고}

10319 #1 그러켄 해:야 인자 데제 그라나머 안데. {그렇게 해야 이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10319 @ 보:통 그러면 함 메, 메 뻔이나 쥘나요? 엔:날 디들뻥아로는? {보통 그러면 한 몇 번이나 쥘나요?}

10319 @ 두: 번? 세: 번? 메 뻔이나 찌{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쥘} #1 거시기 {거시기} @ 나락뻥에 가툼 거슨? {벼 방아 같은 것은?}

10320 #1 나락뻥에는 거시헤썩. {벼 방아는 뭐 했지.}

10320 #2 나락뻥에는 막 찌:끼시요. 예. {벼 방아는 막 찜을 것이요. 예.}

10320 #1 거 방에 벼툼 여 보:끼 시자가머 막 시러서 가져올가? {그 방아부터 여 밝기 시작하면 막 썩어서 가져 오나?}

10320 #2 시러서 가져 와 {썩어서 가져와.} #1 먼: 머:할 때는 거시가드만. 막 안 시러서

도 가져올끼도 하고. {무슨 뭐 할 때는 뭐하더구먼. 막 안 씹었어도 가져오기도 하고.}

10320 #2 몰라 난 막 시러서 {몰라, 난 막 씹어서} #1 막 찌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레썸.
{막 찹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어.}

10320 #1 엔:나레 나 보기는 저:장 헤:나따가 또 그 놈 가따가 또 {옛날에 나 보기에 저장
해 났다가 또 그것 가져다가 또}

10320 #1 시른다고 시르데. {씹는다고 씹데.}

10320 @ 시른다는 마리 먼: 마리? {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

10320 #1 거 뉘: 뉘: 업:씨 인자 고:께 실 시른다고. {그 뉘 뉘 없이 이제 곱게 씹 씹는다
고,}

10320 #2 나라기 거가 한나씩 {벼가 거기에 하나씩} #1 한나씩 이쓰니까 {하나씩 있으
니까} #2 잘 안 찌여지면 나라기 한나씩 이쓰니 고 놈 {잘 안 찹어지면 벼가 하나씩 있으
니 그것}

10320 #2 인자 찼:닥 헤:서 시르 {이제 찹는다고 해서 씹} #1 그러면 인자 시러서 멍는다
고. {그러면 이제 씹어서 먹는다고,} #2 그러면 인자 싸:리 고:께 {그러면 이제 쌀이 곱게,}

10320 #2 흐:가니 {하얏게} @ 아 곱게 안 찌여진 놈 업:께 다 찼:는다고? {아, 그러니까
안 찹어진 것 없게 다 찹는다고,} #2 예예 다 찼은다고 그 마리제 인자. {예예, 다 찹는다
고 그 말이지 이제,} #1 예

10320 @ 보리::방아 보리는 어:뜨케 찼:씀니까? {보리 방아, 보리는 어떻게 찹습니까?}

10320 #1 보리는 그거시 물 부서야 찌여지제 물 안 부수면 안 찌여져요 또. {보리는 그
것 이 물 부어야 찹어지지 물 안 부으면 안 찹어져요 또.}

10320 @ 아 #1 {웃음} #2 디들뽕에다 찼:서 물 부서요. {디딜방아에다 찹으면서 물 부어
요.}

10320 #1 물 부서야 찌여지제. {웃음} {물 부어야 찹어지지, {웃음}} #2 물 부서야 찌여져.
{물 부어야 찹어져.} #1 그 부러야 찌여지젠. 기양 건더꾸론 {그 불어야 찌어지지 그냥 대
충으로('건더꾸'은 '건성으로나 대충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10320 #1 그라나면 막 찌여부면 께:지그나 어짜그나 함께. {그렇지 않으면 막 찹어 버리면
깨지거나 어찌거나 하나까,}

10320 #2 무를 부서야 {물을 부어야} #1 무를 부서야 바로 {물을 부어야 바로} @ 아 껌
따기 껌따기 버서 {아, 껌질이 껌질이 벗어} #1 껌따기 베게지고 {껌질이 벗겨지고} #2
예, 딱 함 불 찌여다가 인자 그 놈 찌여가꼬 초불 찌여가꼬 마당에다 너러요. {예, 딱 한 벌
찹어다가 이제 그것 찹어 가지고 초벌 찹어 가지고 마당에다 널어요.}

10320 #2 거 너르른 깡깡 몰르른 인자 가서 인자 건 떼:께 또. {그 널면 깡깡 마르면 이제
가서 이제 그것은 곱게 찹어 또.}

10320 #2 떼:께야 인자 그거시 고:우제. {곱게 다시 찹어야 이제 그것이 곱지.} #1 그놈
인자 초불 찌여다가 인자 너러따가 또 몰려 가꼬 {그것 이제 초벌 찹어다가 이제 널었다가
또 말려 가지고}

10320 #2 몰려가꼬 또 물 쳐서 찌거요. {말려 가지고 또 물 쳐서 찹어요.} #1 또또또 찌여
요. {또또또 찹어요.} #1 그레가꼬 인자 {그레 가지고 이제} #1 물 처가꼬 또 {물 쳐 가
지고 또}

10320 #2 바베 무글라면 인자 이거 학:또게다 또 가라. {밥해 먹으려면 이제 이것이 돌
확에다 또 갈아.} @ 음 #2 꼬니면 {끼니면}

10320 # 또 제:끄미랑 바발라면 엔:나레는 학:또게다 가라쥬요. 요로고 요. {또 조금이라도 밥하려면 옛날에는 돌확에다 갈았지요. 이렇게 이.}

10320 #2 요로고 거 그르기 이썬. 학:또기라고 {이렇게 그 그릇이 있어.} #1 요:마넌 학:또기 {이만한 돌확이} #2 우드루드란 {우툴두툼한} #1 페에가꼬 이썬요. 그라고 {꽤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 도:기 또 이썬. {돌이 또 있어.}

10319 @ 고 머라 합니까? {그 뭐라 합니까? #1 여마난 건 학:독 독 {이만한 것 돌확 돌} #2 학:뚝 {돌확}

10319 @ 아니 여 소느로 자꼬 돈 {아니 이 손으로 잡고 도는} #2 그랑께 그거시 학뚝 {그러니까 그것이 돌확} #1 그 도기 학 도:기제. {그 돌이 돌확이지.}

10319 #1 그놈 자꼬 요러케 예: 증 마라자면 {그것 잡고 이렇게 예 증 말하자면}

10319 #1 요러케 생엔디 여 가운데는 거시아고 요러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는 뭐 하고 이렇게}

10319 #1 양:쪼게 가서 인잔 페여가꼬 이썬요. {양 쪽에 가서 이제 꽤여 가지고 있어요.}

10319 #1 양:쪼게가 {양 쪽에} #2 그놈 자꼬 인자 거그다 가라요. {그것 잡고 이제 거기 다 갈아요.} #1 그러면 근 여러케 여러케 들들들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들들들들}

10319 @ 요거 요거 인저 움푹 파진 거 고거시 고거시 학:뚝 아니예요? {이거 이거 이제 움푹 파진 것 그것이 그것이 돌확 아니예요?} #2 예에 그거시 학:뚝 {예예, 그것이 돌확.} #1 그거즈 아 하기 하기고 {그것은 아 확 확이고}

10319 @ 하:기고 고 자꼬 자꼬 동 {확이고 그 잡고 잡고 동} #1 그거시 항상 학:도기고 {그것이 항상 돌확이고} @ 학:뚝 {돌확}

10319 #2 요요: 방에 찢: 때는 여러코 제:꿈 해:요 학:또기 하:기. 방에 하:기 제:꿈 하고 {이이 방아 찢을 때는 이렇게 조그맣요. 돌확이 확이. 방아 확이 조그맣고}

10319 #2 여 보리쌀 가라 무글 때는 요로코 이렁 웅:구 그러기 이르크 칼:썩 커요. {이 보리쌀 갈아 먹을 때는 이렇게 이런 웅기 그릇이 이렇게 굉장히('칼썩'은 보통 '뿔썩'이라고 하는 말로서 굉장히 큰 모습을 강조하는 말) 커요.}

10319 @ 녀 녀쩍 허지요? {녀 녀쩍하지요.} #2 예 녀쩍 하니 거 소게가 우들우들 해:가꼬 그르느 요코 학:또기로 {예 녀쩍하게 그 속에 우툴두툼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돌확으로} #1 그랑께 들들들 여러켄 때야 지여쥬요. {그러니까 들들들 이렇게 ** 지었지요.}

10321 #2 그레가꼬 엔:나레 그놈 가라가꼬 엔:나레 어:런더른 또 그 뚝무를 {그레 가지고 옛날에 그것 갈아 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은 또 그 뜨물을}

10321 #2 탐타:반 놈 바더가꼬 거 지금 술 끼리데끼 {탐탐한 것 받아 가지고 그 지금 술 끓이듯이} @ 예 #2 끼레요. 끼레서 무거. {끓여요. 끓여서 먹어.}

10321 #1 술물 끼리데끼? {술물 끓이듯이} #2 사까리 처서 예 술물 끼리데끼 그레야 {사카린 처서 예 술물 끓이듯이 그레야}

10321 #1 탐타 탐타 방께 그랑가꾸만. {탐탐 탐탐하니까 그러는가 보구먼.} #2 탐타방께. 그레가꼬 어:런덜 잡쥬고 그라드만 {탐탐하니까. 그레 가지고 어른들 잡쥬고 그러더구먼.}

10321 #1 예 엔:나레 업:썰께 모도 그레제. {예 옛날에 없으니까 모두 그랬지.} #2 그랑께. 업:썰께 그레제.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랬지.}

10321 #2 골:관해썰께 글제, 지그른 누가 그릉 거 무꺼썬? {곤란했으니까 그러지, 지금은 누가 그런 것 먹쥬소?}

10321 #1 시방은 누가 무그라헤도 암:무꼬 (웃음) {지금은 누가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웃음)}

=1 @ 예 저나 와 썬네 예. {예 전화 왔었네.}

10321 @2 그거 그 밀: 어 보 벼하고 보리하고 미:라고 이러케 찌으면 가루 이러케 나오자 나요? {그것 그 밀 어 보 벼하고 보리하고 밀하고 이렇게 찼으면 가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2 그라제 {그러지.} @ 예 그걸로 아까 머 음식 만드러 머거따 {예, 그걸로 아까 뭐 음식 만들어 먹었다.}

10321 #1 밀까리 나오 나온다 {밀가루 나오 나온다} #2 밀:까리 {밀가루} @ 아 미:른 밀:까루 나와요? {아, 밀은 밀가루 나와요?} #2 그라제. 밀:까루 {그렇지. 밀가루.}

10321 #1 갈:른 나오제. {갈면 나오지.} #2 밀: 가라가꼬 국쭈도 빼:고 저런 죽도 썬 무꼬. {밀 갈아 가지고 국수도 빼고 저런 죽도 썬 먹고,}

10321 #1 겉 거시기 밀죽도 썬 무꼬. {거시기 밀죽도 썬 먹고} @ 밀:도 아까 디들빵아로 해요? {밀도 아까 디딜방아로 해요?}

10321 #1 미:른 디들빵아로 안 찌여요. {밀은 디딜방아로 안 찼어요.} #2 예, 안 찌거요. {예,, 안 찼어요.} @ 그래서 안 찌거요? {그래서 안 찼어요?} #2 예, 그거슨 기양 {그것은 그냥}

10321 #2 미:른 저:: {밀은 저} @ 가라 부러요? {갈아 버려요?} #2 기계로 가서 가라가꼬 {기계로 가서 갈아 가지고} #1 기계 가서 갈머는 겉 {기계 가서 갈면은 거} #2 그레가꼬 죽 썬 목제. {그래 가지고 죽 썬 먹지.}

10321 #1 갈:머는 껌떠근 껌떠끼리 나오고 또 아:레가서 호:가니 나와 가꼬 그거슨 또 별 또로 또 거시하고 그레요. {갈면은 껌질은 껌질끼리 나오고 또 아래에서 하얗게 나와 가지고 그것은 또 별도로 또 뭐하고 그레요.}

10321 #2 엔:나레 그레가꼬 그거가꼬 밀:쭈 썬: 무꼬 국쭈 빼: 무꼬 막 그레찌요이~. {옛날에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밀죽 썬 먹고 국수 빼 먹고 막 그랬지요.}

10321 #2 마::니 국쭈를 마:니 빼:무거제 밀:까리 밀:가꼬. 지그밍께 안 함께 그라제이~. {많이 국수를 많이 빼 먹었지, 밀가루 밀 가지고. 지금이니까 안 하니까 그러지.}

10321 #1 아 그레가꼬 그 껌떠까꼬는 {아, 그래 가지고 그 껌질 가지고는}

10321 #1 여: 누룩지서가꼬 술도 해: 무꼬, {이 누룩 만들어('짓다'는 여기서 '누룩을 만들다'의 뜻) 가지고 술도 해 먹고,}

10321 #2 마꺠리 해: 목제. 누룩 디더가꼬 그레가꼬 인자 누룩 모까가꼬. {막꺠리 해 먹지. 누룩 던어 가지고 이제 누룩 물을 쳐서 반죽해 가지고,}

10321 #2 *** 여만:씨가니 {이만큼씩 하게} #1 데:겐 **** 그거시 인자 누룩떼야. 누룩떼야면 소:게서 노오::라니 떠. {대개 **** 그것이 이제 누룩 돼. 누룩 되면 속에서 노랗게 떠.}

10321 #2 뜨면 인자 그노를 말:려가꼬 그 뇨가꼬 쭈 전 {뜨면 이제 그것을 말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썬.}

10321 #2 싸:라고 쌀 당가서 {쌀하고 쌀 담가서} #1 술밥 술밥 찌가꼬 {술밥 술밥 찌 가지고} #2 그 노마고 서꺼가꼬 수레는 {그것하고 섞어 가지고} #2 싸를 찌머는 인잔 저 바비 꼬독꼬도:가니 꼬:두밥 되여. {쌀을 찌면은 이제 저 밥이 꼬독꼬독하게 지에밥('꼬두밥'은 '지에밥'의 방언) 돼.} @ 예.

10321 #1 그레가꼬 인자 거 밀까리 껌떠가꼬 서꺼서 누룩지스믄 누루기 널메: 하니 뜸니다. 그레가꼬 그 누마고 딱 포사가꼬 서:꺼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밀가루 껌질하고 섞어

서 누룩 지으면 누룩이 노르스름하게('넬메하다'는 '노르스름하다'의 뜻)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하고 딱 뽀아 가지고 섞어요.}

10321 #1 그래가꼬 물 정도 마쳐가꼬 분,부서야제 그라나면 또 안테요. {그래 가지고 물 정도 맞춰 가지고 부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안 돼요.}

10321 #1(웃음) @ 안테 고 고 고:뽀다는 밀 껌떨보다는 머:라 감니까, 밀? {안 돼. 그것보고는 밀 껌질보고는 뭐라 합니까?}

10321 #1 지울? {기울?} #2 밀:찌우리요. {밀기울이오.} @ 예, 밀찌우리라가지요. 아 밀찌울 가꼬 누룩 한다하 {예, 밀기울이라 하지요. 아 밀기울 가지고 누룩 한다하,} #2 예 #1 누룩 지서요. {누룩 만들어요.}

10321 #1 그거이 밀찌울만 저니 가꼬도 안 데고 또 가리잔 드러가야 또 거시기 누루기 데 켜. {그것이 밀기울만 완전히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가루 좀 들어가야 또 뭐 누룩이 되지.}

10321 #2 머 그래? {뭐 그래?} #1 머어? 밀찌울만 가꼬 어찌게 다:: 하,항고? {뭐? 밀기울만 가지고 어떻게 다 하는고?}

10321 #2 밀찌울 가꼬 거시기 거 가리딘 {밀기울 가지고 뭐 가리 딛고}

10321 #1 그 그거 다 아니여. 가리 쪼간 너:야제. {그 그거 다 아니야. 가루 조금 넣어야지.} #2 들들들 타가꼬도 해. {들들들들 타 가지고도 해.} #1 그랑께 들들들 타가꼬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들들들 타 가지고 하면 몰라도}

10321 @ 밀찌울 가꼬는 주로 누루글 디찌 {밀기울 가지고는 주로 누룩을 딛지.} #2 예 그러지요이. {예, 그러지요.} @ 누루글 만등 거 뽀고는 요 우리 어르신들 누룩 지순다 그러고 {누룩을 만든 것보고는 이 우리 어르신들 누룩 '짓는다' 그러고}

10321 #2 누룩 디든다고 {누룩 딛는다고.} @ 또 인제 우리 할머니는 누룩 디든다 그러고 인제 마리 다르거드노. {또 이제 우리 할머니는 누룩 딛는다 그러고 이제 말이 다르거든요?} #1 그란디 {그런데} @ 누룩 디든단 마른 발로 이러쎌 하나요? {누룩 딛는다는 말은 발로 이렇게 하나요?} #1 아:녀. {아냐.}

10321 #2 누룩 누룩 디든다고 그라테요 어:런더리. {누룩 누룩 딛는다고 그러테요, 어른들이.}

10321 #1 누룩 #2 그냥 말:로 {그냥 말로} @ 제가 알기로는 누룩 그 고지라 해:가꼬 {제가 알기로는 누룩 그 고지라 해 가지고} #1 누룩 여 누룩 만든다 해:서 저 {누룩 이 누룩 만든다 해서 저} @ 발로 이러께 한다고 {발로 이렇게 한다고,}

10321 #1 디든다고 머:한 사람드런 {딛는다고 뭐한 사람들은}

10321 #1 여런 저 거시기 {이런 저 거시기}

10321 #1 데나 머시나 하꼬짜게다가 딱 발로 보:끼도 하고 {되나 뭐나 상자에다가('하꼬'는 상자의 일본말) 딱 발로 밟기도 하고,} #2 발로

10321 #1 이게가꼬 그러케도 해:요. (웃음) {이겨 가지고 그렇게도 해요. (웃음)} @ 아아 #1 인자 아라게꾸만. {이제 알았겠구먼.} #2 누룩 디든다고 그러테요. {누룩 딛는다고 그러테요.}

10321 #1 그래가꼬 누루글 디든다. {그래 가지고 누룩을 딛는데} @ 만드려 보시지는 아나 셔쎌요? {만들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2 만드려 바쎌요이~. {만들어 봤지요.}

10321 @ 어 #2 이런 사람드런 {이런 사람들은} #1 머단 사람드런 {어떤 사람들은} @ 발로 아나셔쎌? 소느로 하셔쎌요? {발로 안 하셨어? 손으로 하셨어요?} #1 소느로도 아니요 발로도 {손으로도 아니고 발로도} #2 소니로도 허다가 이러고 어따 다머서 발로 {손으로

하다가 이렇게 어디에다 담아서 발로}

10321 #1 그라고 {그리고} #2 놀르고 그렌는디 {누르고 그랬는데} #1 머 그럭 아니쑈?
{뭐 그릇 있잖소?} @ 에 #1 오막바끄르기라 거시 하면 {'오막밥그릇'이나 뭐 하면}

10321 #1 일탄 다머가꼬 소니로 따둑따웁따둑 헤:가꼬 거 탁 어퍼서 또 멘듭떠다.(웃음)
{일탄 담아 가지고 손으로 다둑거려 가지고 그 탁 얹어서 또 만듭니다. (웃음)}

10321 #2 그레가꼬 술 마:니 헤: 무거쨌 우리들또. 엔:나레는 술 헤:가꼬 막 감추로텅이고
그레쨌라. {그레 가지고 술 많이 해 먹었지 우리들도. 옛날에는 술 해 가지고 막 감추러 다
니고 그랬어요.} @ 에에에 #2 지그밍게 함부로 수를 지그른 누가 수를 헤: 묵또 아나제마
년. {지금이니가 함부로 술을 지금은 누가 술을 해 먹지도 않지마는} #1 엔:나레는 쨌:그
절 {옛날에는 저기 저}

10321 #1 여름쳐레 가머는 저 데삽 쑈:기나 가보면 {여름철에 가면은 저 대숲('데삽'은 '대
숲'의 방언) 속에나 가 보면은} @ 에에 #1 그눔 (웃음) 헤:노먼 {그것 (웃음) 해 놓으면}

10321 #1 거시간 사람들 머단 사람드른 {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2 술동우가 깝 차
쨌. {술동이가 깝 찼어.} #1 거 데로 {그 대로} @ 승켜나쨌(웃음) {숨겨 놓았어.} #1 데로
깰라가꼬 {대로 갈라 가지고}

10321 #1 소:게다 느코 쪽쪽 뽀라머코 그레쨌요. {속에다 넣고 쪽쪽 빨아 먹고 그랬어요.}
@ 땅미 땅미테다가 {땅밀 땅밀에다가}

10321 #2 예 땅미테 파서 거그다 동우로 헤:서 {예, 땅 밀에 파서 거기다 동이로 해서} @
그라고 머단 사람드른 게양 너:노키도 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넣어 놓기도 하
고}

10321 #2 그라든 지양시룬 사:름드른 노무 술 너:나두면 다 무거분다 헤쨌. 떠다가 {그리
면 짓곳은('제양시롭다'는 '짓곳다'의 뜻) 사람들은 남의 술 넣어 놔 두면 다 먹어 버린다 했
어, 떠다가.}

10321 @ (웃음) #1 떠다가 무끼도 하고 그라고 거시기 한다니까 저 텔 데 요마:큼씩 헤:
가꼬 너:가꼬 쪽쪽 빨은 {떠다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다니까, 저 대 대 이만큼씩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쪽쪽 빨면.}

10321 #1 마인눔 다 포라머거볼라.(웃음) {맛있는 것 다 빨아 먹어 버릴라.} #2 헤: 바꾸
만. (웃음) {해 봤구먼.} #1 난 암 무거반는디: {난 안 먹어 봤는데,}

10321 #1 그레따고 모도 그레쨌. {그랬다고 모두 그레.}

10321 #1 쨌 안:사네 순전 저 그저네 안사네 거 술 감추는 고자기여쨌. {저 안산에 순전
저 그전에 그 술 감추는 고장이었어.('고작'은 어떤 물건이 많이 생산되는 곳 또는 어떤 일
이 잘 일어나는 곳'을 가리킨다.)} #2 무서웁게 수를 모:데 무거요. {무서우니까 술을 못 해
먹어요.}

10321 #1 엔:나레는 감치니라고 정시니 업쨌. 엔:나렌 세:무소 와가꼬 들켜따 하면 벌그비
상당이 마:네요. {옛날에는 감추느라고 정신이 없어. 옛날엔 세무소 와 가지고 들켰다 하면
벌금이 상당히 많아요.}

10321 @ 밀찌우른 그러케 누룽 만드 술도 만들고 그러고 쨌:른 쨌:른 인제 쨌:먼 그 껌질
고건 머:가 나옵니까? {밀기울은 그렇게 누룽 만들 술도 만들고 그러고 쌀은 쌀은 이제 쨌
으면 그 껌질 그건 뭐가 나옵니까?}

10321 #1 쨌:른 쨌:먼 저:: 왕:게가 나오제. {쌀은 쨌으면 저 왕겨가 나오지.}

10321 #1 왕:게요? {왕겨요?} #1 왕:제가 껌떠기제. {왕겨가 껌질이지.} @ 왕:제 예 왕:

제. {왕겨, 예 왕겨.} #1 왕:제 그거시 {왕겨 그것이}

10321 #1 쌀껍떡뽀다가 양:제라고 하요. {쌀껍질보고 왕겨라 하요.} #2 그라가꼬 또 뎌 더:찌:머는 또 누까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또 때 더 찢으면은 또 등겨가('누까'는 '등겨'의 방언) 나오고,}

10321 @ 누까가 나오 {등겨가 나오} #2 예, 그 공: 곤: 누까가 (예, 그 고운 등겨가) #1 싸래서 싸래서 누까가 베껴지제. {쌀에서 쌀에서 등겨가 벗겨지지.} @ 네

10321 #2 처:메는 양:제가 나아가꼬 그 거시기 헤선 다크메는 인자 누까가 나 {처음에는 왕겨가 나와 가지고 그 뭐 해서는 다음에는 이제 등겨가 나} #1 그 햄미 하며는 인자 찌 양:제가 나오고 이자 {그 현미 하면은 이제 저 왕겨가 나오고 이제}

{나와. @ 왕:제가꼬는 머: 합니까? {왕겨 가지고는 뭐 합니까?}

10321 #1 왕:제는 인자 머 모:데요. {왕겨는 이제 뭐 못해요.} #2 제 만들제. {거름('여기서 '제'는 '거름'의 뜻) 만들지} #1 거르미나 하고 그라고 거시기하제. {거름이나 하고 그리고 뭐 하지.} @ 불 불 때고? {불 불 때고?}

10321 #1 엔:나레 불도 마:니 때찌요. {옛날에 불도 많이 땀지요.} @ 때찌요? {땀지요?} #2 저저 불모로 마:니 때찌요. {저 풀무로('불무'는 '풀무'의 방언) 많이 땀지요.} #1 저저 돌려감시로 요러케 핑겨감시로 요:러케 마이 불 마이 때:수요. 따수야요. {저저 돌려가면서 이렇게 풍겨 가면서 이렇게 많이 불 많이 땀어요. 따뜻해요.}

10321 @ 음 왕:제 {음, 왕겨} #2 그란디 지그른 글: 안 항께 지그른 다 제 멘드라 봉께.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은 다 거름 만들어 버리니까} #1 그라고 그 {그리고 그}

10321 #1 그 제가꼬도 또 암 버리고 {그 거름 가지고도 또 안 버리고}

10321 #1 찌 제에다 딱 버리고 {저 거름에다 딱 버리고} @ 왕:제 그 비:게 속 느:찌도 아 나요? {왕겨 그 베갯속 넣지 않나요?} #1 엔 그 너:요. {예, 그 넣어요.} #2 예 그 소:게다 너찌요. {예, 그 속에다 넣지요.} @ 그러 그러기도 헤:찌요? {그러 그러기도 했지요?} #@@ 예, 너 너:찌요. {예, 넣지요.}

10321 @ 저가 엔:날 기여그로는(웃음)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웃음)} #1 포깅 폭싹폭싹 폭싹폭싹 하고 {폭싹폭싹폭싹폭싹하고, ('폭싹하다'는 '폭신하다'의 방언)}

10321 #2 비:게다 느코 (웃음) {베개에다 넣고} @ 그문 누까느뇨? 누까는 머 머: 합니까? {그러면 등겨는요? 등겨는 뭐 뭐 합니까?} #1 누까는 {등겨는} #2 짐승들 주조. {짐승들 주지요.} @ 아 #2 소나 돼야지나 인자 (웃음) {소나 돼지나 이제}

10321 #1 소나 돼야지나 마:니 주면 잘 멩는다 사람도 무거보면 데레요 데레. {소나 돼지나 많이 주면 잘 먹는데 사람도 먹어 보면 '달여요' '달여' ('달이다'는 너무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여 속이 불편한 상태를 가리킨다)}

10321 #1 그 영양 까치가 무:자게 인능거 가타요. {그 영양 가치가 무지하게 있는 것 같아요.} @ 예 ,아 #2 그라제 찌리 찌리 떼껴져서 그 그 뽀사져서 {그렇지. 쌀이 쌀이 곱게 찢어져서 그 그 빵아져서}

10321 #1 데레. {달여} @ 데린단 마른 무리 무리 차꼬 쓰여요? 데린단 마른? {'달인다'는 말은 물이 자꾸 쪼여요?('쓰이다'는 '쪼이다'의 방언) '달인다'는 말은?}

10321 #1 데린다능 거시 아니라 그거 무그며는 데레가꼐 {달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먹으면은 달여 가지고}

10321 #1 그 마:니 몸: 멩는다 헤서 인자 그랑게입따. {그 많이 못 먹는다 헤서 이제 그}

런 것입시다.) @ 아 그니깐 {아, 그러니까는}

10321 @ 지금가트며는 험:미 아 이퍼징 거 {지금 같으면은 현미 입혀진 것} #2 예예 @ 고거 고거 이딴 마리지요. 오이려 영양이 더 마:능 거신데. {그것 그것 있다는 말이지요. 오이려 영양이 더 많은 것인데.} #1 그라지요. {그렇지요.} @ 예, 누까에 {예, 등겨에}

#1 그랑께 마:니 몸: 무근다 헤:서 데린다고 {그러니까 많이 못 먹는다 해서 달인다고} @2 소기 안 조은타이 {숙이 안 좋다} #1 그 데리 마:이 몸: 무근다 헤:서 데린다고 {그 달이 많이 못 먹는다 해서 달인다고} @2 판 까통 거 머그면 여기 좀 뜨겁꼬 데린다고 {팔 같은 것 먹으면 여기 좀 뜨겁고 달인다고} #2 예 그라테끼 으! 그라테끼 인자 그랑갑제. {예, 그렇듯이 으 그렇듯이 이제 그러나 보지.}

10321 @ 누까가꼬 누까로 허나요? 비누가통 거또 만들지 아난나요? {등겨 가지고 등겨로 하나요? 비누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나요?} #1 거신 {뭐} @ 빨레빠누 가통 거 엔:나레 {빨랫비누 같은 것 옛날에}

10321 #1 나는 그거슨 모른디 먼 비누도 만드라쓰까? {나는 그것은 모르는데 뭐 비누도 만들었을까?}

10321 #2 엔:날 누까 가꼬도 먼: 비누 만드러 {옛날 등겨 가지고도 무슨 비누 만들어} #1 비누 만드러따고 항꺼 가튼디 {비누 만들었다고 한 것 같은데} #2 이른 사라븐 안 만드라 받는다 {우리는 안 만들어 봤는데} @ 예

10321 #1 우른 안 만드라 바썩께. {우리들은 안 만들어 봤으니까} #2 누까로 비누 만든다고 엔:나레 그레썩. {등겨로 비누 만든다고 옛날에 그랬어.} @ 예 저도 {예, 저도}

10321 #1 그람 아드른 머:까꼬 시방도 멩궁고 비누를 잘 만들제? {그러면 아들은 뭐 가지고 지금도 만드나? 비누를 잘 만들지?}

10321 #1 시방도 엔제 만드라놓 거이 빨레빠누, 거 멘드라가꼬 이썩요 시방. {지금도 만들어 놓은 것이 빨랫비누, 그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10321 #1 아드리 멘들고 이썩요. {아들이 만들고 있어요.} #@ 우리 부어게 영거징 거시 그거 만등 거시여. {우리 부엌에 얹혀진 것이 그것 만든 것이야.} @2 아 그거는 기름 시공유 {아, 그것은 기름 식용유} @ 시공유 걸 쓰고 나뭇 거 {식용유 그것 쓰고 남은 것} #2 예 거 닥티기마고 {예, 그 닭튀김이고}

10321 @ 티김 하고 나쁜 기름 페:유 페:유. {튀김 하고 남은 기름 폐유 폐유} #1 아::

10321 #1 페:유? {폐유?} #2 글로 아나쁜 절때 안텐다예썩. {그것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 예 #2 그냥 막 기르쁜 안 텐닥 하드만. {그냥 막 기름은 안 된다고 하더구먼.} @ 예

10321 #2 티기마고 머:이던지 티김항: 지르미야야 처:진 지르미라 데제 그라먼 안 텐다고. 그레가꼬 쥔무라고 사서 어:뜨케 항갑떼. {튀김하고 뭐든지 튀김한 기름이라야 처진 기름이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레 가지고 쟁물하고 사서 어떻게 하나 보데.} @ 예

10321 @ 보리제 가꼬 보리제 보리제라고 그러나요? 보리껍질 보리항 {보릿겨 가지고 보릿겨 보릿겨라고 그러나요? 보리껍질 보리하} #1 마썩. {맞소.} @ 보리제 가꼬는 뭇: 하나요? {보릿겨 가지고는 뭇 하나요?}

10321 #1 그거또 먼: 헤:무거제? {그것도 뭐 해 먹었지?} #2 보리제? {보릿겨}

10321 #2 보리 저저 찌궁 거이요? {보리 저저 찢는 것이요?} @ 예예 보리 찌궁 거 {예예, 보리 찢는 것} #2 찌궁 거 그랑께 {찢는 것 그러니까} #1 껍떡 가꼬 머 {껍질 가지고 뭐} #2 그거슨 네 버려볼제요. {그것은 내버려 버리지요.}

10321 @ 그뎨 안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뎨 안 쓰고 그냥 버려 버리는} #2 예, 초불
찢 놔 버려불고 {예, 초벌 찢은 것 버려 버리고} #1 두: 불 찢놔는 머: 해:무꼬 {두 벌 찢은
것은 뭐 해 먹고} #2 고:께 떼깁 거슨 인자 거 엔:날 게:떡또 해:무꼬 막 그러데요. {곱게
찢은 것은 이제 그 옛날 개떡도 해 먹고 막 그러데요.}

10321 @ 아 게:떡글: {아, 개떡을} #2 그라고 짐승주고 {그리고 짐승 주고} #1 그 그거가
꼬 여 이따가뎨 포실포실하니 멩그라가고 머끼도 하고 그러더뎨. {그 그것 가지고 여 이따
금 포슬포슬하게 만들어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더구뎨.} #2 그레 {그레.} #1 두: 불 찢은
놔. {두 벌 찢은 것.}

10321 @ 아 두:불 찢은 놔. {아, 두 벌 찢은 것.} #2 예 두: 불 찢: 놔 가꼬. {예, 두 벌
찢은 것 가지고.} @ 고 이르미 다 (헛기침) 엄는, 구벌, 초부라고 두:부라고 이르미 엄:나
요? {그 이름이 다 (헛기침) 없는 구벌, 초벌하고 두벌하고 이름이 없나요?}

10321 #1 인자 그거슨 초불 찢: 노른 깡까아니 몸: 무그니까. {이제 그것은 초벌 찢은 것
은 단단해서('깡깡하니'는 '단단하게'의 뜻) 못 먹으니까.} @ 아

10321 #1 거시가고 두: 불찢 노른 인자 자 머거도 겐찬하고 (뭐하고 두 벌 찢은 것은 이제
이제 먹어도 괜찮고) @ 다 보리짱가요 이르미? {다 보릿겨인가요? 이름이?} #2 여 초불
짱:거슨 썩찢다 하고 {이 초벌 찢은 것은 '썩 찢는다'고 하고}

10321 #2 두:불 찢 거슨 떼깁다 하고 그러데요. {두 벌 찢는 것은 '떼깁다'고 그러데요.}
@ 썩찢다고 ? {'썩 찢는다'고} #2 예

10321 #2 썩찢다고 {썩 찢는다고} #1 썩찢다고 {썩 찢는다고} @ 썩찢다고 고거슨 초불
썩찢 베게넨거쁘다 썩찢다고? {'썩 찢는다'고 그것은 초벌 썩찢 벗겨넨 것보고 '썩 찢는다'
고.} #2 예 썩찢다 항거 가테요. {예, '썩 찢는다' 하는 것 같아요.}

10321 @ 아~ #2 그라고 두:불분 두:불찢다가고 {그리고 두 벌 두 벌 찢는다고 하고} @
고건 떼깁다 그러고이~? {그것은 '떼깁다' 그러고} #2 예 떼깁다 그라고 {예, '떼깁다' 그러
고}

10321 @ 아 머 또 고:께 만든다고 {아, 뭐 또 곱게 만든다고} #1 고:께 만든다 해서 {곱
게 만든다 해서} #2 예, 고:께 만든다 해:서 {예, 곱게 만든다고 해서}

10321 @ 떼깁단 마른 나라게도 쓰고 머 보리에도 쓰고 다: 쓰네요 {'떼깁다'는 말은 벼에
도 쓰고 뭐 보리에도 쓰고 다 쓰네요.} #2 (웃음)그라 {그레}

10321 @ 고:께 만든다고? {곱게 만든다고?} #2 고:께 만든다고 {곱게 만든다고.} @ 썩찢
단 마른 채민는 마리네요. (웃음) {썩 찢는다는 말은 재미있는 말이네요.}

10321 #1 보리를 이러케 까:꺼불뎨 또 골:지고 (웃음) {보리를 이렇게 깎아 버리뎨 또 골
이 생기고 (웃음)}

@ 떼깁다는 마리오이~. {'떼깁다'는 말이요.} #1 썩떼깁다 그라고 엔:나레는. {'썩떼깁다'
그러고 옛날에는}

10321 #2 여 보리쌀 썩떼깁다고 그라등가 그레끄등 어:런더리 {이 보리쌀 썩떼깁다고 그
러등가 그렸거든 어른들이.} @ 뎨 뎨: 찢다고요? {무슨 무슨 찢는다고요?} #2 썩 썩 썩찢
다고 그 마른 썩떼깁다고 그레썩. {썩 썩 썩찢는다고 그 말은 썩떼깁다고 그렸어.} @ 썩
떼깁다고? {썩떼깁다고?}

10321 #2 (웃음) 게끄시 안자 떼깁다고 {(웃음) 깨끗이 이제 떼깁다고} @ 음: 꼬비라고.
{음, 썩이라고} #2 예

10321 @ 음 농:꼬바고 그거다 가통 거싱감네. {음, 눈곱하고 그것하고 같은 것인가 보네.}

#1 각 지방마당 또 그거또 틀링께 또 {각 지방마다 또 그것도 다르니까 또}

10322 @ 스: 그 다으메 {그 다음에}

10322 @ 이제 이제 {이제 이제}

10322 @ 싸: 아까 다 현 이야기지마는 나라가통 거 인자 다 타:작 해:가지고 {아까 다 현 이야기지마는 벼 같은 것 이제 다 타작해 가지고}

10322 @ 어뜨케 저장하냐 보:관하냐 즉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장하느냐 보관하느냐 즉 그런 이야기입니다.}

10322 @ 아까 마란 싸:른 나라근 나라근 어리통에다가 보:간한다고 그래쥬요. {아까 말한 쌀은 벼는 벼는 '어리통'에다 보관한다고 그랬쥬요.} #1 에에 @ 그래가지고 거그서 인제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10322 @ 쪼끔씩 가따가 찌근 찌글 수도 인 {조금씩 가져다가 찹을 찹을 수도 있고} #2 찌거서 머끼도 하고 {찹어서 먹기도 하고} #1 그라지요 그라지요. {그러지요, 그러지요.}

@ 싸:른 그러면 어:따 보:가네요? {쌀은 그러면 어디에다 보관해요?}

10322 #2 싸: 인자 {이제} #1 싸:른 마:니 안 치치요 인자. {쌀은 많이 안 찹지요, 이제.}

#2 엔:나레는 글 안해쥬. 엔:나레는 마::이 찌여가고 통 요러 떼::락 큰 놈 통 이쭈뼌여 지금 고:무통?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옛날에는 많이 찹어 가지고 통 이렇게 굉장히 큰 것 통 있습디까? 지금 고무통?}

10322 #1 아 #2 고론 노메다가 우리는 쌀 찌:머는 그 고:무통에다 한::나썩 고:무통 그놈 시:깁가 니:깁가 사가꼬 엔:나레는 다:: 그 항에다 당꼬 그렌 {그런 것에다가 우리는 쌀 찹 으면은 그 고무통에다 하나썩 고무통 그것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사 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 항아리에다 담고 그랬}

10322 #1 엔:나레는 항에다 마:니 주로 마:니 다머쥬. {옛날에는 항아리에다 많이 주로 많이 담았지.} #2 항에다 당:꼬. {항아리에다 담고} @ 항에다 당:꼬 {항아리에다 담고} #1 항에다가 {항아리에다가}

10322 #1 땅굴 굴 파가꼬 딱 거 해야꼬 {땅굴 굴 파 가지고 딱 그 해 가지고} @ 아 #1 딱 더푸고 {딱 덮고}

10322 #1 또 머 더푸면 잘 모:르고 그라드마. {또 뭐 덮으면 잘 모르고 그러더구먼.} #2 우리는 중가네 거시기 저 그 {우리는 중간에 뭐 저 그}

10322 #2 고:무통을 마:니 사 가꼬 쌀 찌:머는 거그따 썩:: 다머서 줄주:라니 더퍼 나두고 그래쥬요. {고무통을 많이 사 가지고 쌀 찹 으면은 거기다 썩 담아서 줄줄이 덮어 놔 두고 그랬어요.} @ 음

10322 #2 그란디 지그른 누가 그때 그때 해:무거 불제.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때 그때 해 먹어 버리지.} #1 지그른 인자 마:니 안 찹라게요. 엔:나레는 그렌는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찹으려고 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10322 #1 엔:나레는 누가 거시하면 쌀로 찌여다가 {옛날에는 누가 뭐 하면 쌀로 찹어다가}

10322 #1 제 멀리 가따간 거 가따간 {저 멀리 갔다가 거 갔다가}

10322 #1 저: 땅 굴 여 파가꼬 항 항 무들만치 해:가꼬 {저 땅굴 여 파 가지고 항아리 문을 만큼 해 가지고}

10322 #1 탁 더퍼서 뚜겅 딱: 더퍼서 먼: 깔:고 딱 더퍼불면 {딱 덮어서 뚜겅 딱 덮어서 뭐 깔고 딱 덮어 버리면}

10322 #1 모:르드마. {모르더구먼.} #2 모:르제 {모르지} #1 엔나렌 그르케 마:니 헤써.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어.} @ 승길라고 땅소게다 무더쓰까요? {숨기려고 땅속에다 묻었을까요?} #2 예.

#2 공:출네고 그랄 때는 {공출 내고 그랄 때는} #1 아::니여. 엔:나레는 (기침) 쌀로 찌여서 그러케 저:장해야제. {아니야. 옛날에는 쌀로 (기침) 쌀로 찼어서 그렇게 저장해야지.}

10322 #1 나라글 마:니 주먼 다 빼서가부니까. {벼를 많이 주면 다 빼앗아 가 버리니까}

#2 아 #2 그랑께 공:출 낼: 때 그레따거등만. {그러니까 공출 낼 때 그랬다고 하더구먼.}

#1 그랑께 공:추레기 공:출 낼: 때 그레써. {그러니까 공출 내기 공출 낼 때 그랬어.}

10322 #2 고로코 땅소게다가 쌀:랑 찌거가꼬 {그렇게 땅속에다가 쌀이랑 찼어 가지고} #1 그랑께 나도 모:른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10322 #1 아버니 하시는 말쓰미 그라더라고. 거 사:장 바다긴능가 거그다가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그 모래사장 바닥이던가 거기다가}

10322 #1 방애를 찌여서 거그다 감치고 감치고 모:르게 헤:따가드만 저니게. {방아를 찼어서 거기다 감추고 감추고 모르게 했다고 하더구먼 저녁에.}

10322 #1 그레가꼬 또 모:르게 찌 양식 업:쓰른 퍼다가 또 아버지가 가따주고 그레따 하드만. {그레 가지고 또 모르게 저 양식 없으면 퍼다가 또 아버지가 가져다 주고 그랬다 하더구먼.}

10322 #1 하나부지 때 또 그라고 {할아버지 때 또 그러고} #2 그라나면 공:출 네:가고 막 다 빼게봉께 그란당만. {그러지 않으면 공출 내 가고 막 다 뺏겨 보리니까 그런다고 하더구먼.}

10322 #1 ** 또 엔:나레는 마징게도 우리 에레서 달 떠러가불고 그러드라고 공:출네라고. {** 또 옛날에는 '마징게'도 우리 어려서 다 떨어가 버리고 그러더라고 공출내라고.} @ (웃음) 머: 무꼬 사라라고. 싸른 구경도 모타건네. (웃음) {(웃음) 뭐 먹고 살라고. 쌀은 구경도 못하겠네. (웃음)}

10322 #1 그라니까 마을써도 엔:나레는 농노도 어:꼬 현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옛날에는 농로도 없고 하는데}

10322 #1 여그서 찌 저 점:보때 찌:: 저 건네 아니십니까? {여기서 저 저 전봇대 저 건너 있잖습니까?} @ 예예 #1 거가 바시 이써써요. 그라고 거시기 헤써라. {거기에 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10322 #1 거 엔:나레는 또 거시기 헤써요. 저 헤:간 아페 바로 웨:가니 우리 노니여쑤. {그 옛날에는 또 뭐 했어요. 저 회관 앞에 바로 회관이 우리 논이었소.}

10322 @ 아 #1 그럼 뜯 찢 바빠 거시 하먼 요세 세: 보고 머:다고 하먼 {그럼 또 저 바빠 뭐 하먼 요새 새보고 뭐 하고 하먼}

10322 #1 쥐도 마:니 무거불제 그놈 뜯 비여다가 {쥐도 많이 먹어 버리지 그것 또 베어다가}

10322 #1 뜯 거시 허기가 바빠. (웃음) {또 그것이 하기가 바빠.} @ 예 #1 헤: 무끼가 바빠. {해 먹기가 바빠.}

10322 @ 싸:른 향아리에다 그먼 가마니는 그 뒤로 나완나요? 향:에다 논 논 뒤:예? {쌀은 향아리에다 그러면 가마니는 그 뒤로 나왔나요? 향아리에다 넣은 뒤에?}

10322 #1 가마니도 {가마니도} @ 쌀 까마니 쌀 {쌀 가마니 쌀} #2 쌀 가마니다 다머 쓰거요. {쌀 가마니에다 담았을 것이요.}

10322 @ 가마니다가 {가마니에다} #1 엔:나레는 {옛날에는} @ 에 #1 지부로 거시긴 {짚으로 거시기}

10322 #1 멘드라서 그 쌀 찌 나락까마이 나락 담:때끼 다마가꼬 곡쭈도 마:니 네고 그레썬요. {만들어서 그 쌀 저 벼가마니 벼 담듯이 담아 가지고 곡수도 많이 내고 그렸어요.}

10322 @ 그레썬요이~, {그랬지요.} #2 가마니 {가마니} #1 그 그 후:로 그레가꼬 가마니 짜: 가꼬 {그 후로 그레 가지고 가마니 짜 가지고}

10322 #1 외정 때 가마니가 짜저쓰꺼시오. {왜정 때 가마니가 짜졌을 것이요.} @ 그러지요. 가마니. {그렇지요. 가마니.}

10322 #1 그레가지고 가마니가 퍼저썬요.{그레 가지고 가마니가 퍼졌어요.} @ 그 저네는 가마니가 엮:썬썬요? {그 전에는 가마니가 없었지요?} #1 그레썬요. {그랬지요.}

10322 #1 지비로 만드러썬 요리케 지부로 여끄면:잔 {짚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짚으로 엮으면}

10322 #1 서물 만드랴요. {섬을 만들어요} @ 아 서물 만드랴 가지고, 예. {아 섬을 만들어 가지고 예.}

10322 #2 그레 나는 그렇 거슨 안 해바썬. {그레 나는 그런 것은 안 해 봤어.} @ 오래된 이야기조. 그 저 서미라고 {오래 된 이야기지요. 그 저 섬이라고.} #2 예 서미라고 이썬. 마:른 드러바썬. {예, 섬이라고 있어. 말은 들어 봤어.} @ 예예 그르고 {예예, 그리고} #1 언 지부로 만든당께 가마니 멘들테끼. {짚으로 만든다니까, 가마니 만들듯이.}

10322 @ 가마니보다 더 큼니:까? 크지요이~? {가마니보다 더 큼니까? 크지요?}

10322 #1 그 정도 데거께 해 하지요. 한 섬나가가께 할라면 한 섬 나거가께 하고 {그 정도 될 정도로 해 하지요. 한 섬 나갈 정도로 하려면 한 섬 나갈 정도로 하고}

10322 #1 한 가마니 나거가께 할라면 더 저:께 멘들고. {한 가마니 나갈 정도로 하려면 더 적게 만들고} @ 한 서물 들고 어:쭈고 더 든다우? {한 섬을 들고 어떻게 더 든대요?}

10322 #2 향가마니에다가 {한 가마니에다가} #1 어이 엔:나레는 쥬 나락 길력 신: 사람드른 한 삼썬 지고 텡엔넌디. {어이, 옛날에는 저 벼 근력 썬 사람들은 한 삼썬 지고 다녔는데.}

10322 #1 아 열 엔:나레는 공팡장 시:게도 지고 텡이고 텡엔넌디. {아 여 옛날에는 공팡장 세 개도 지고 다니고 다녔는데.}

10322 #1 알구싰. 나도 시: 게도 지고 가반:네. {***. 나도 세 개도 지고 가 봤네.}

10322 #1 가마이로 {가마니로} @ 서문 서문 이견 쌀: 담:찌 양코 그냥 고 저 {섬은 섬은 이것은 쌀 담지 않고 그냥 고 저}

10322 #1 나락 공판 넬: 때는 그때는 {벼 공판 낼 때는 그때는} @ 나락 나라글 담쭈 나라글. {벼 벼를 담지요 벼를.} #1 일본 시테 때에 {일본 시대 때에}

10322 #1 큰 나락 저 가마이로 땅 뭉꺼서 그 시: 군데 땅 무꺼가꼬 염메를 헤. {그 벼 저 가마니로 딱 묶어서 그 세 군데 딱 묶어 가지고 **를 해.}

10322 #1 그레가꼬 그 노를 딱 뉘여서 시: 게를 딱 지고 간당께. {그레 가지고 그것을 딱 뉘여서 세 개를 딱 지고 간다니까.} @ (웃음)

10322 #1 두: 게는 문제 아니고. {두 개는 문제 아니고} @ (웃음) #2 몰라. 나는 그렇 거슨 아네바썬. {몰라. 나는 그런 것은 안 해 봤어.}

10322 @ 그 다옴에 인자 아까 향아 향아 향에다가도 너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향아 향아 향아리에다가도 넣어 두고요.}

10322 @ 그 저 부:자찌븐 나무로 딱 이러케 머 만든다등가이~. 머 두지 가통 거 이렇 거
 {그 저 부잣집은 나무로 딱 이렇게 뒀 만든다든가. 뒀 뒀주 같은 것 이런 것.} #2 두지 {뒀
 주} #1 구시 구시 {구유 구유} #2 딸: 딸 {쌀 쌀}

10322 #2 쌀 쌀 두지 {쌀 쌀 뒀주} #1 쌀 단 다라 {쌀 다 다라} #2 두지 두지 {뒀주 뒀
 주} #1 두지 두지 {뒀주 뒀주}

10322 #2 부:자찢뜨른 두지라고 이씨요. {부잣집들은 뒀주라고 있어요.} #1 어~ 두지제.
 {어, 뒀주지.} #1 농마니로 생게 가꼬 {농처럼 생겨 가지고} @ 에에 #2 문 한 짜기여가꼬
 널:고 다꼬 그렌넌디 {문 한 짝이어 가지고 열고 닫고 그랬는데,} @ 아~ #2 거그다 다머
 노코 무꼬. {거기다가 담아 놓고 먹고.}

10322 @ 부자 부:잔찢뜨리 하는 두지가이~. {부자 부잣집들이 하는 뒀주가} #2 두지가
 이씨. {뒀주가 있어.} @ 네에

10322 @ 그 다으메 그 씨나라크 까통 거는 딱 어디다 다마 둬니까? 어똥 그르세다가 {그 다
 음에 그 뽕씨 같은 것은 딱 어디에다 담아 둬니까? 어떤 그릇에다가?}

10322 #1 인자 썬나라근 별또로이 어:따가 보:간 하지요이~ 인자. {이제 뽕씨는 별도로 어
 디에다가 보관하지요 이제.} @ 그그 #2 향아리에다 다머노:떼, 엔:나레는 향아리에다 {향아
 리에다 담아 놓데, 옛날에는 향아리에다.}

10322 #1 엔:나레는 안 향아리다 마:니 다머 두고 {옛날에는 향아리에다 많이 담아 두고}
 @ 향아리에다가 {향아리에다가} #2 에에

10322 #2 에에 지그밍께 저런 푸테에다 다머서 나:두제. {에에, 지금이니까 저런 자루에다
 ('푸테'는 '자루'의 방언) 담아서 놔 두지.}

10322 #2 엔:나레는 모다 향아리다 다머나. {옛날에는 모두 향아리에다 담아 놔.} @ 썬나
 라근 그러케 마:니 담찌는 안 {뽕씨는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안} #1 그릉께 엔:나레는 푸테
 가:: 거시기 항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루가 뒀 하니까}

10322 #2 엔:나레 지금마이로 농사들 마:니 안 징께 쪼금씩 다머 노코 그레찌요. {옛날에
 지금처럼 농사들 많이 안 지니까 쪼금씩 담아 놓고 그랬지요.} @ 네

10322 @ 자 그 다으메 이러케 곡씩 타:작 다:하고 인자 겨우리면 인자 항가하잔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 타작 다하고 이제 겨울이면 이제 한가하잔씀니까?}

10323 @ 그러면 인제 지부로 인자 만드려야 데자나요? 어제 말씀 하셔찌마는. {그러면 이
 제 짚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2 그라지요. {그렇지요.} #2 지부로 마:뽕 만든다고
 인제 만등 게 하나는 우선 덕씩 가통 거 짜야셔야데고이~ {짚으로 뽕을 만든다고 이제 만
 드는 것이 하나는 우선 명석 같은 것 짜셔야 되고,} #1 그라지요. {그러지요.} @ 에

10323 #1 안 덜: 세끼를 마:니 까야제 도로 {아, 더 새끼를 많이 꺾야지 도로.} @ 에 #1
 덕씩 만들라면 {명석 만들려면}

10323 @ 에 #1 한 이:뽕 빨 더 드려가야 합니다. {한 이:뽕 빨 더 들어가야 합니다.} @
 아 덕씩 {아 명석} #1 덕씩 한나 절:라면 이:뽕빨 더 드려가요. 이:뽕 한 오십빨 {명석 하나
 결으려면 이:뽕 빨 더 들어가요. 이:뽕 한 오십 빨}

10323 @ 아 #1 해야 날 딱 나라. {해야 딱 날아.} @ 아 #1 그레가꼐 나라가꼐 {그레 가
 지고 날아 가지고}

10323 #1 그 그 사네끼로 그 영:꺼요. 영:꺼가꼬 {그 그 새끼로 그 엮어요. 엮어 가지고}

10323 #1 가:예는 주로 니: 개씩 {가장자리에는 주로 네 개씩}

10323 #1 네: 개씩 양:쪼개 네: 개씩 딱 영:커 해:가꼬 {네 개씩 양 쪽에 네 개씩 딱 엮어

해 가지고}

10323 #1 절:키 시자감 뻘드시 올라가야제 또 뻘뻘 올라가든 또 안테고:. {결기 시작 하면 반듯이 올라가야지 또 뻘뻘 올라가면 또 안 되고.} @ 네

10323 #1 그거또 자란 사라면 일쭤이리면 끝나고 {그것도 잘한 사람은 일주일이면 끝나고}

10323 #1 머단 사라든 한 이:시빌도 거등 거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이십 일도 뭐하고} @ 아 한 장 (웃음) {아 한 장(웃음)}

10323 #1 주야로: {주야로} @ 아 #1 우리 가튼 사라든 주야로 하려는 한 일쭤일 아:네 아:: 일쭤이리면 끝나거습따. {우리 같은 사람은 주야로 하려는 한 일주일 안에 아 일주일이면 끝나겠습다.} @ 아

10323 #1 거 안 자고 자만자고 하려는 {그 안 자고 잠 안 자고 하려면}

10323 #1 하로 하로 한 뻘 절: 절:머는 {하루 하루 한 뻘 걸으면은}

10323 #1 예 저 바메 하려는 여 반:툼 절:다가도 {예, 저 밤에 하려면 여 반 걸다가도}

10323 #1 툼 이틀 절:면 한 여 여 정도 올라와부려요. {또 이틀 걸으면 한 이 이 정도 올라와 버렸어요.} @ 으음

10323 #1 그러면 한 일쭤이리면 끝나요. 열 네뻘이면 충분 하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열 네 뻘이면 충분하니까.} #2 그런:째 또 도리방석 절:제. {그랬지. 또 도래방석 견지.}

10323 #1 도리방석? {도래방석?} #2 응 #1 도리방석또 {도래방석도} #2 송 송쿠리 절:제. {삼태기 견지.} #1 쫄 {저}

10323 #1 사네키만 까:노면 날 디다 판냥께 날 날만 데:부면 번쩍번쩍 해. {새끼만 파 놓으면 날 대다 판나니까 날 날만 데 버리면 번쩍번쩍해.}

10323 @ 음 #1 날 데:가꼬 갈르라 어쨌라 {날 데 가지고 가르라 어쨌라} #2 엔:나레 도리방석 쫄:고 {옛날에 도래방석 견고}

10323 #2 제송쿠리도 절:고 {재삼태기도 견고} #1 제송쿠리? 어이께다 다 바:게따네. {재삼태기? 어저께 다 다 보셨다네.} #2 골망테 절:고 글드만. 그랑께 그릉 거 말씀 하시라고요. {떡동구미 견고 그러더구면. 그러니까 그런 것 말씀 하시라고 하오.}

10323 #1 그랑께 그러케 해:따고 인자 그러케 하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지.} #2 덕썩 절:고 골망테 절:고 제송쿠리 절:고 그릉 거 말씀 하시라거 {멍석 견고 떡동구미 견고 재삼태기 견고 그런 것 말씀 하시라고} @ 음

10323 #1 그랑께 짐니른 어제도 예:기 해:째마는 제송쿠리 하려는 짐니른 다 배와. {그러니까 쥘 일은 어제도 얘기 했지마는 재삼태기 하려면 쥘 일은 다 배워.}

10323 @ 예 #1 이 짐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송쿠리가. {이 쥘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삼태기가.} @ 예

10323 #1 그레 골망테는 날만 네:머는 또 거시하고: {그레 떡동구미는 날만 내면은 또 뭐하고} @ 음

10323 #1 또 @ 골망테는 먼 어:디다 써요? {떡동구미는 뭐 어디에다 써요?}

10323 #1 그거가쫄 썩 쌀도 당:꼬. {그것 가지고 저 쌀도 담고} #2 쌀:도 당:꼬. {쌀도 담고}

10323 #1 나락또 당:꼬 그러지요. {벼도 담고 그러지요.}

10323 #2 보리도 {보리도} #1 머이든지 당:꼬 {뭐든지 담고} @ 골망테이~ {떡동구미}

#2 콩도 당:꼬 {콩도 담고} #1 콩도 당:꼬 {콩도 담고}

10323 @ 도래방서그뇨? {도래방석은요?} #2 도리방석에다는 {도래방석에다는} @ 도리방서근 머:따 써요? 거거는 딸: {도래방석은 어디에다 써요? 그것은 뭘?}

10323 #1 도래방서근 딸: 널:기:: {도래방석은 뭐 널기} @ 쪼끄망 거 널: 때 {조그마한 것 널 때} #2 예 쪼끄망거 널:때 {예, 조그마한 것 널 때} #1 예 널:고 {예, 널고}

10323 #1 어지께 거 마칭 거슨 거 차: 널:라고 {어제 그 마친 것은 그 차 널려고} @ 예 #1 거 열 다서께 멩그라썬니다. {그 열 다섯 개 만들었습니다.}

10323 @ 또 이러케 도리방서까치 생겼는데 위:로 올라올거시 이뜨마뇨 그게. {또 이렇게 도래방석같이 생겼는데 위로 올라온 것이 있더구먼요 그게.}

10323 #1 그거이 거 멘빵석 {그것이 멧방석} @ 예 #1 여 가운데다 노코 메를 나:두고 {여 이 가운데다 놓고 멧돌을 놔 두고}

10323 #1 머 갈:머는 {뭐 갈면은} @ 아 메뚝: {아, 멧돌} #1 {웃음} 메떡 {(웃음) 멧돌}

10323 #2 그거뽀다 멘빵석. {그것보고 멧방석} #1 그거이 멘빵석. {그것이 멧방석} @ 그 거 인자 바까트로 안 나가게 {그것 이제 밖으로 안 나가게} #1 어지께 바:게썬께 인자 예:기 하신다: {어저께 보셨으니까 이제 얘기하시는데} #2 안 튀어나가라고. {튀어 나가지 않도록}

10323 @ 응 #2 그거뽀다 멘빵서기라게. {그것보고 멧방석이라고 해.} @ 네

10323 @ 덕썬 자주 절:지는 안 치요? 고거슨? {멍석은 자주 곁지는 않지요? 그것은?}

10323 #1 인자 자 자 자주 할라면 데:니까 쉬여따가도 하고 하제. {이제 자주 하려면 힘드니까 쉬었다가도 하고 하지.} @ 아니 고거슨 메 해년마다 허지는 안 차나요? {아니, 그것은 매 해마다('해년마다'는 '해마다'의 뜻) 하지는 않잖아요?}

10323 @ 덕썬 {멍석} #1 아니요 거 엔:날 엔:날 일꾼더런 덕썬글 해:주고 마:니 나갑니다. {아니요, 그 옛날 옛날 일꾼들은 멍석을 해 주고 많이 나갑니다.}

1032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 그랑게 일너네 함 번썬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일년에 한 번썬 보통 해요.} #1 하네 시야네 {한 해 겨울에} #2 엔:나레는 {옛날에는} @ 오~ 아니 그러케 그거시 다빠 별로 그러케 다라질꺼 가짜 안는데. {오, 아니 그렇게 그것이 다 빠 그렇게 닳아질 것 같지 않는데.}

10323 #2 아 그라니라고 그래야 나라글 여러:: 덕썬게다 널:제. 덕썬게다 널:제. {아, 그러느라고 그래야 벼를 여러 멍석에다 널지. 멍석에다 널지.} #1 나락 덕썬 마당에다 쪽: 피고 다 널:고 그래요. {벼 멍석 마당에다 쪽 피고 다 널고 그래요.}

10323 #2 거그다 나락 *** {거기다 벼 ***} #1 기도 누 노면 눈 썰:고 날부 조음면 덕썬 깔:고 그라곤 {그래도 눈 오면 눈 썰고 날 좋으면 멍석 깔고 그리고} #1 나락 널:고 그래요. {벼 널고 그래요.}

#2 지그면 인자 저런 포장이썬께 포랑 사다 하제마는 그 때는 그렇거시 업:썬께 {지금은 이제 저런 포장 있으니까 포장 사다 하지마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1 그랑게 엔:나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323 #2 주루 덕썬게다가 나라글 너러요. {주로 멍석에다가 벼를 넣어요.} #1 그거시 엔:나레는 그거시 임:무고 덕썬 정:거시 {그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임무고 멍석 곁는 것이}

10323 @ 네. 그 담 그 다으메 인썬 저기도 집썬도 신도 저러썬니까? {네, 그 담 그 다음에 이제 저기도 쥔신도 신도 곁었습니다?}

10323 #1 아 그러지요. 안 항게 그라제. {아 그러지요. 안 하니까 그러지.} @ 엔:나레 엔:

나레도 다 해:보셔썌요, 지브로? {옛날에 옛날에도 다 해 보셨어요, 짚으로?}

10323 #1 그레썌요. {그랬지요.} @ 예 #1 전 시방 엔:나레 사:람 도라가시머는 {저 지금 옛날에 사람 돌아가시머는}

10323 #1 사자:신 삼는다고 {사자신 삼는다고,} @ 예

10323 #1 인자 그작저작 사머도 인자 데:락 얼칙 떼로 하고 {이제 그럭저럭 삼아도 이제 대략 원칙대로 하고}

10323 @ 아

10323 #1 상기도 하고 {삼기도 하고} @ 사:자신 {사자신} #1 인자 조케 시야 사물라만 하루 한나저레 항 커리 사물랑가 두: 커리 모: 싸머요. {이제 좋게 삼으려면 하루 한나절에 한 켄레 삼으려나, 두 켄레 못 삼아요.}

10323 #1 그거또 조:케 사물라만. {그것도 좋게 삼으려면} @ 오

10323 #1 그랑께 나문 양반드리 항:께 나는 따 따릉 거 절:고 그라제.(웃음) {그러니까 다른('나문'은 '다른'의 뜻) 양반들이 하니까 나는 다른 것 겠고 그러지. (웃음)} @ 네

10323 @ 그 다크 또 지붕도 이어야지요. {그 다음에 또 지붕도 이어야지요.} #1 그라지요. {그러지요.} #2 지붕 이어야제. {지붕 이어야지.} @ 지붕 지붕 인자 가을 다 끝나머 이~. {지붕 지붕 이제 가을 다 끝나면.}

10323 #1 인잔 그라머는 마람 저 지부로 마라를 영꺼야지요. {이제 그러머는 이영 저 짚으로 이영을 엮어야지요.} @ 예

10323 #1 마람 영끈 잘 영끈 사라미 하로 열 다섯께 {이영 엮는 잘 엮는 사람이 하루 열 다섯 개}

10323 @ 음 #1 열 다섯짱 영끄요. 그라나면 열 석: 짱 열 두: 장 {열다섯 장 엮으요. 그렇지 않으면 열석 장 열두 장}

10323 #1 (웃음) 또 몬: 녕끈 사라만 열 짱 영끌라만 심:드러요. 그거또 {또 못 엮는 사람은 열 장 엮으려면 힘들어요, 그것도.} @ 예

10323 #1 그또 늘가게 영끌라만 영끄고 마:니 자바서 영끄기도 하고 그란디 우리는 마:니 {그것도 늘려서('늘가다'는 원래 '늘리게 만들다'의 뜻) 엮으려면 엮고 많이 잡아서 엮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이}

10323 #1 자꼬 안자꼬 열 떼 짱은 보도시 영끄거썌따마는 {잡고 안 잡고 상관없이 열댓 장은 겨우('보도시'는 '겨우'의 방언) 엮썌습디다.} @ 예

10323 @ 그러머 한 집 하나 이올라만 메 짱이나 피로한 {그러면 한 집 하나 이으려면 몇 장이나 필요한}

10323 #1 그랑께 집 나라미지요. 삼 간 집 상간짱 이꼬 저 이:간짱 이꼬 하머는 틀려요. {그러니까 집 나름이지요. 삼간집 삼간집 있고 저 이간집 있고 하머는 다르지요.}

10323 @ 음 #1 이:간짱 이올라만 한 포도시 한 열 텐: 짱 시께마래서 한 상간짱 지슬라만 한 삼십짱 가차이 드러갑니다. {이간집 이으려면 한 겨우 한 열댓 장 쉽게 말해서 한 삼간집 지으려면 한 삼십 장 가까이 들어갑니다.} @ 음 한 이틀 이틀 하면 {음, 한 이틀 이틀 하면}

10323 #1 저 한자 영끌라만 힘들지요 그레도. {저 혼자 엮으려면 힘들지요, 그레도.} #2 다 노버더서 영꺼. {다 일꾼 얻어서 엮어.} #1 노버더서 마:니 푸마시해서 마:니 하고 {일꾼 얻어서 많이 품앗이해서 많이 하고}

10323 #2 줄주:라니 앙거서 막 해:가꼬 줌니고 {줄줄이 앉아서 막 해 가지고 짚 이고} #1

그라면 {그러면}

10323 #1 찌:그 찌:그서 영꺼 거시기하면 요로게 줄주:리 영 뽕: 둘러서 마자해. 그레가꼬는 {저기 저기서 엮어 뭐 하면 이렇게 줄줄이 영 빙 둘러서 마저 해. 그레 가지고는}

10323 #1 딱 네일 인:닥 하면 오늘 모도 노버더서 영꺼요. {딱 내일 인다고 하면 오늘 모두 일꾼 얻어서 엮어요.}

10323 #1 그라고 한나는 또 용마름 트러야제, 우게. {그리고 하나는 또 용마름 틀어야지 위에.} @ 음

10323 #1 다: 거시기해도 소양업꼬 용마르미: 거시기항께. {다 뭐해도 소용없고 용마름이 뭐하니까.}

10323 @ (웃음) #1 그 이튼날 또 짐: 니은다고 짐 닌: 냥반 또 따로 어더야제. {그 이튼날 또 짚 인다고 짚 이는 양반 또 따로 얻어야지.}

10323 #1 또 지시락 켜:메야제. 그레도 짐 니은 양바는 또 여 당까가 만:한디 {또 기스락 잡아매야지. 그레도 짚 이는 양반은 또 여 단가가 많은데,}

10323 #1 지시락 켜:네 사라믄 또 그르케 데야도 당까가 더 저:거요. {기스락 짚 때는 사람은 또 그렇게 힘들어도 단가가 더 적어요.} @ 아 그레요? (웃음) 아. {아, 그레요? (웃음) 아.}

10323 #1 열그비 저:거 (웃음) 그라고 지시락 켜:미기가 힘드려요. {월급이 적어. (웃음) 그리고 기스락 잡아매기가 힘들어요.}

10323 #1 그라고 짐 닌: 냥반도 위어마고 꺼꼴로 이:니까. {그리고 짚 이는 양반도 위험하고 거꾸로 이니까.}

10323 #1 처:메 둘째가 길: 위염다드만. {처음에 둘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구먼.} @ 아 나춘 나잔 나즌데서부터 위로 올라가지요 이리케이~ {아, 낮은 데서부터 위로 올라가지요 이렇게?} #1 그러게요. {그러게요.} @ 떠러지게 생겐네. {떨어지게 생겼네.}

10323 #1 그러니까: {그러니까} #2 그러지요. 잔딱 하머는 {그러지요. 잔딱 하면은} #1 마라미 처:메 일: 때는 {이영이 처음에 일 때는}

10323 #1 거 집 데고리가 지시락 아:니로 올라가갸꼬 거시기한디 {거 짚 머리가 기스락 안으로 올라가 가지고 뭐 하는데}

10323 #1 인잔 지시락 까:민 사라미 그거슬 여러켄 빼:감시로 {이제 기스락 꾸미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빼 가면서}

10323 #1 또까치 마쳐서 인잔 켜:메야제. 그거시 안 되야. {똑같이 맞춰서 이제 잡아매야지, 그것이 안 돼.} #2 보기 조:케 영꺼 고놈 켜:밀랑께. {보기 좋게 엮어 그것 잡아매려니까}

10323 @ 음 #2 데 줄::라니 데:감스로 인자 사네키로 {대 조르르하게 대 가면서 이제 새끼로}

10323 #2 거시기 봉노로 인자 고놈 켜:밀랑께 보기조케 해:야제. 궁께 밀 갈쳐서 {뭐 **로 이제 그것 잡아매려니까 보기 좋게 해야지. 그러니까 ***}

10323 #1 그랑께 지시락 데도 뽕들: 해:야꼬. {그러니까 기스락 대도 반듯하게 해 가지고}

10323 #1 지러야마니 향: 가운데 딱 켜:미고 또 찌: 머리로 감니다. {길어야만 한 가운데 딱 잡아매고 또 저 머리로 감니다.}

10323 #1 그레가꼬 차근차근 켜:메고 여그 꼬터리 가서는 뜯 또 텔:라머는 거 진:놈물 가따가 가:치 이리케 데:고 {그레 가지고 차근차근 잡아매고 여기 꼬트머리 가서는 또 또 대

려면은 그 긴 것을 가져다가 같이 이렇게 대고}

10323 #1 켜:미고 그러케 요:령테로 해:야제 그라나면 {잡아매고 그렇게 요령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0323 #1 그거또 안데요. {그것도 안 돼요.} @ 예 (웃음)

10323 #1 나도 일 서리 해쑤. 켜:미기도 하고 집또 이어붙고 {나도 일 무척('서리'는 '무척'의 뜻) 했쑤. 잡아매기도 하고 집도 이어 버리고} @ 예

10323 #1 그란디 짐니기가 위허메요. 꺼꾸로 떠러자따면 안 데제. {그런데 집 이기가 위험해요. 거꾸로 떨어졌다 하면 안 되지.}

10323 @ 네 #1 그랑께 미리서 그 지비 이따 하면 여러켄 {그러니까 미리서 그 짚이 있다 하면 이렇게}

10323 #1 사네키를 침니다. {새끼를 침니다.} @ 예 #1 그레가꼬 도라감시로 {그레 가지고 돌아가면서}

10323 #1 저 사네키에단 마라물 꼬굴쳐가꼬 딱 쟁게 너:코 너:코 그라고 또 도라나고 {저 새끼에다 이영을 구부려 가지고 딱 끼워 넣고 넣고 그리고 또 돌아나가고}

10323 @ 제 어려쑤 때는 요 다메다도 마라물 {저 어렸을 때는 이 담에다가도 이영을} #2 예 @ 이러케 씨워쑤요. {이렇게 썩웠어요.} #2 예 거그 용 {예, 거기 용}

10323 #1 그거이 땀농 {그것이 담용} #2 땀 {담} @ 어? #1 땀농 {담용} @ 땀:노라 그럼 니까? {담용이라 그럼니까?} #1 (웃음) @ 아 #2 땀:농이라가요? {담용이라고 하오?}

10323 #1 큰 그거또 용마라미여. 용마람시기랑께. {그 그것도 용마람이야. 용마람식이라니까.} @ 아 땀:농이라고? {아, 담용이라고?} #1 예 @ 아

10323 #1 그 땀우게다 우히다 올칭께 땀농이라가제 넌::장 {그 담 위에다 위에다 올리니까 담용이라고 하지 쟁장.} @ 어

10323 @ 땀농 {담용} #1 알 저 나 여으 와서 여이 이사가가꼬 땀농 무지야게 안 트런능가? {아 저 나 여기 와서 여기 이사가 가지고 담용 무지하게 틀었잖는가?} @ 그레. {그레} @ 아

10323 @ 땀농 {담용} #1 한:자 다 해:서 그레가꼐 {혼자 다 해서 그레 가지고} #2 그거시 이르미 땀:농이요? {그것이 이름이 담용이오?} #1 그거여. {그거야.}

10323 #1 그거이 용마라미여 쟁야 용마람. {그것이 용마람이야 내나 용마람.} @ 예 용마람 가툽 거시조. {예, 용마람 같은 것이지요.} #1 거야 또까따니까 {그것이야 똑 같다니까.}

10323 #1 요거슨 마라므로 영꺼가꼬 땀:농을 틀:고 요거슨 바로 텅: 거슨 거 용 여 용마라미고. {이것은 이영으로 엮어 가지고 담용을 틀고 이것은 바로 트는 것은 그 용 이 용마람이고}

10323 #1 지비다 더풍 거슨. 거 따:메다 올릴 때는 거시긴 {집에다 덮는 것은. 그 담에다 올릴 때는 거시기}

10323 #1 마라물 영꺼가꼬 양:쫄그로 저쳐서 이러켄 {이영을 엮어 가지고 양쪽으로 젖혀서 이렇게}

10323 #1 틀고 요:리 틀고 그레서 땀 땀 땀농을 텅 거시제. {틀고 이리 틀고 그레서 담 담담용을 트는 것이지.} @ (웃음)

10323 @ 예, 데쑤니다. {예, 됐쑤니다.}

10323 #1 그랑께 먼: 데해 나가서 거놈 나보다 트러라 하텡가. 그란딘 큰 나보다도 잘 트룬디 {그러니까 무슨 대회 나가서 그것 나보고 틀어라 하텡가.}

10323 #1 거 헨:장 언 절믄 사라미 더 자라드만. {그 현장 어 젊은 사람이 더 잘하더구면.}

10323 #2 그레가꼬 여그는 저저 찌:이 시리서 사네키를 잘 몬: 까가꼬 꼴:똥 나부따게. {그래 가지고 여기는 저저 저기 **에서 새끼를 잘못 파 가지고 꼴등 나 버렸다고 해.} @ (웃음)

10323 #1 그 사네키가 즈 아 거 거근 싸람드른 사네키를 다 까아꼬 와떼. {그 새끼가 거기 사람들은 새끼를 다 파 가지고 왔데.}

10323 #1 난 모:르고이~ 가뜨니 {난 모르고 갔더니} @ 아 #1 튼디 튼긴 튼디 튼기는 네가 잘 트러써. {트는데 튼긴 트는데 튼기는 내가 잘 틀었어.}

10323 @ 예 #2 그랑께 튼기는 잘 트러는디 사네키가 툅 떠러저부(웃음) {그러니까 튼기는 잘 틀었는데 새끼가 툅 떨어져버렸} #1, @ (웃음)

10323 #2 곱방 바뽕께 사네키 *** {곱방 바쁘니까 새끼 ***} #1 그 때 막: 사네키를 그적저적 까:가꼬 그 툅께 인자 {그때 막 새끼를 그럭저럭 파 가지고 그 트니까 이제}

10323 #1 자부텅잉께 떠러지제, 잘 모:당께. {잡아다니니까 떨어지지, 잘 못하니까.} #2 여자드리 게양 여페서 도와줍시로 그냥 그작짜작 까:논께 자버텅잉께 툅 떠러저붕께 여가 유유애가 저부러써. {여자들이 그냥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냥 그럭저럭 파 놓으니까 잡아 다니니까 툅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 ***가 저 버렸어.} @ (웃음)

10323 #1 그레듬 그거또 고:께 트러야제 잘 안테야. {그래 또 그것도 곱게 틀어야지 잘 안돼.}

10323 #2 아 그란디 그레, 위:메 아저씨는 잘 헨넌디 가따가 사네키가 떠러저불기에 꼴:똥 나따(웃음) {아, 그런데 그레. 아이고 아저씨는 잘 했는데 *** 새끼가 떨어져 버리기에 꼴등났다. (웃음)} @ (웃음)

10323 @ 아 무슨 똥해가 이써써요? {아, 무슨 대회가 있었어요?} #2 예 똥해 나가면 그러거또 해:요. 그라믄 {예, 대회 나가면 그런 것도 해:요. 그러면} @ 아

10323 #1 아이 그 해:필 늘근 사람보다 하라가니 (웃음) {아이 그 하필 늙은 사람보고 하라고 하니 (웃음)} @ (웃음)

10323 @ 그러지요. 절믄 사람드리 해 {그러지요. 젊은 사람들이 해.} #1 머이든지 하기는 네가 잘 해:라. 안 항:께 그라제. {뭇든지 하기는 내가 잘 해:요. 안 하니까 그러지.}

10324 @ 그 다으메 인제 겨우레 겨우레는 요 나:무 나:무도 해:놔야 데지요이~?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겨울에 이 나무 나무도 해 놔야 되지요?}

10324 #2 그러지요 {그러지요.} #1 그러지요. {그러지요.} #2 나:무도 해:나야 데. {나무도 해 놔야 돼.} @ 그거슨 어:서 나:무 해:서 {그것은 어디에서 나무 해:서} #1 사느로 가야지요. {산으로 가야지요.}

10324 @ 여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1 갈퀴 땅 메:서 {갈퀴 딱 메서} @ 어:디 사니 이썸니까? 이 근처에 {어디 산이 있습니까 이 근처에?}

10324 #1 아 찌: 절 사네 가면 야지에 인작 {아 저 저 산에 가면 야지에 이제}

10324 #1 개발 저 거시기 개발 단지가 데야썸께 그라제 사 저 {개발 저 뭇 개발단지가 되었으니까 그러지 사 저}

10324 #1 순전 산판니여쑤. {순전 산판이었소.} @ 아 그레써요? {아, 그랬어요?} #2 예 여그만 여그만 나가면 전:수 사니지요이~. {예, 여기만 여기만 나가면 완전히('전수'는 '완전히' 뜻) 산이지요.}

10324 @ 아 #2 지그른 다 인자 밤 바치여불고 그랑께 그라제, {지금은 다 이제 밤밭이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지} #1 끝 때 푸 풀나무 때는 나시로 마:니 하고 {풀 줄기는 낮으로 많이 하고}

10324 @ 네 #1 저 시야네는 나다고 갈쿠하고 질머지고 갑니다. {저 겨울에는 낮하고 갈퀴하고 째어지고 갑니다.} @ 아

10324 #1 그람 단풍 들머년 그놈 똥 {그러면 단풍 들머는 그것 또}

10324 #1 지게에 딱 질머지고 그라나면 망태하고 {지게에 딱 째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망태하고}

10324 #1 또 갈쿠하고 질머지고 나가고 {또 갈퀴하고 째어지고 나가고}

10324 #1 나:무도 억:씨게 해쑈. {나무도 억세게 했소.} #2 저런 저런 나:무가 아조 단풍이 노::라이 들면 {저런 저런 나무가 아주 단풍이 노랗게 들면}

10324 #2 이라고 시야네면 거 서리오면 우쭈쭈쭈 떠러저쑈. 누::라니 떠러지면 그 놈 그 {이렇게 겨울이면 거 서리 오면 우수수수 떨어졌소. 누렇게 떨어지면 그것 그}

10324 #1 그거또 보지라난 사라미 극제 {그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굵지.} @ 네

10324 #1 또 게우룬 사라문 극또 모:데. 모나 해:가봉께. {또 게으른 사람은 굵지도 못해. 먼저 해 가 버리니까} @ 음

10324 @ 아 입씩 널븐 거또 허고 {아 잎사귀 넓은 것도 하고} #2 예 그러지라. {예, 그러지요.} @ 또 술술 술나무 그 술가리도 글거야데고 {또 소나무 그 술가리도 굵어야 되고} #2 예 #1 그러지라. {예, 그렇지요.}

10324 @ 음 #2 술나무 그거이 질: 조:아라. 그거이 단풍이 {소나무 그것이 제일 좋아요. 그것이 단풍이}

10324 #1 전 #2 그레가꼬 {그래 가지고} #1 갈쿠나무가 {가리나무가('갈쿠나무'는 '가리나무'의 방언)}

10324 @ 갈쿠나무 {가리나무} #2 지비다 쟁에 노코 때:요. {집에다 쟁여 놓고 때요.} #1 갈쿠나무가 여 단풍 저 단풍 드러서 글그른 그거시 모꼬 조:치. 때:기도 조:코. {갈퀴나무가 이 단풍 저 단풍 들어서 굵으면 그것이 마디고('뭉다'는 '마디다'의 방언) 좋지. 때기도 좋고.}

10324 @ 예 #2 그놈 함::베닐씩 해:노코 눌러노코 인자 시야네면 누노문 {그것 한 가리씩 해 놓고 눌러 놓고 이제 겨울이면 눈 오면}

10324 #2 하다 때:면 을:메나 잘 타고 조:타고.(웃음) {해다가 때면 얼마나 잘 타고 좋다고.}

10324 #1 그라고도 눈 딱 씨러불고 나:무가 춘 성 부문 땅 너러따갈 때:면 잘:: 타요. {그리고도 눈 딱 쓸어 버리고 나무가 추운 것 같으면 딱 널었다가 때면 잘 타요.} @ 예

10324 @ 여기서 그게 땀: 땀:깎 걱정은 업쓰셔쑈요? 사네 나:무는 마:니 이씨쑈니까. {여기서 그것이 땀감 걱정은 업쓰셨어요? 산에 나무는 많이 있었습니까?} #2 예 마:니 이씨쑈요. {예, 많이 있었지요.}

10324 #2 나만 보지라나면 {나만 부지런하면} #1 아 그랑께 이녕만 보지라문 쓴디 {아, 그러니까 자기만 부지런하면 되는데}

10324 #1 그도저도 업:쓸 때는 하레 나무도 텅이고 그레쑈요. {그도저도 없을 때에는 하루 나무도 다니고 그랬어요.}

10324 @ 아 #1 밥 싸가꼬도 밥 업:써서 몬: 싸가꼬 간 테가 마:니쑈. {밥 싸 가지고도 밥

없어서 못 싸 가지고 가는 때가 많았어.} @ 오: 메 {아이고!}

10324 @ 그래서 {그래서} #1 그라고 쭉쭉 버무리기 쪼간 해:주면 그놈 가꼬 드 나:무하고는 {그리고 쭉버무리 조금 해 주면 그것 가지고 나무하고는}

10324 #1 나로다가 인잔 그놈 한 볼테기 지버무꼬 오 오고 지게지고 오고 {내려오다가 이제 그것 한 볼따구니 집어먹고 오고 지게 지고 오고} @ 네

10324 #1 그라고 사러쪼. {그러면서(여기서 '-고'는 '-면서'에 대응) 살았소.}@ (웃음)

10324 #1 그라고 사네서 모:찌고 나라웅께 {그리고 산에서 못 지고 내려오니까}

10324 #1 그테론 그테론 지게를 꼬:꼬 나라와부러. {그대로 그대로 지게를 끌고 내려와 버려.}

10324 @ 아 #1 그레가꼬 네레와가꼬 지게를 딱 인나치가꼬 또 거시하고 {그래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지게를 딱 일으켜 가지고 또 뭐 하고}

10324 #2 사네는 등치로 뚜글뚜글 궁굴쳐분다가드만. {산에는 뭉치로('등치'는 '뭉치'의 뜻) 뽕굴뽕 굴려('궁굴치다'는 '굴리다'의 방언) 버린다고 하더구먼.} #1 궁굴치기도 하고 저 궁굴러 나오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저 굴러 나오기도 하고}

10324 #1 짹짹 끄스면 그테로 또 따라온다이~까. {질질('짹짹'은 질질 끄는 모양) 끌면 그대로 또 따라온다니까.} @ 아

10324 @ 네, 등치가 크니까 {네, 뭉치가 크니까} #2 예

10324 #1 그랑께 요:령 인는 사람드른 {그러니까 요령 있는 사람들은}

10324 #1 거그다가 먼: 노끈테기나 가꼬와가꼬 딱 영꺼가꼬 {거기다가 무슨 노끈이나 가져와 가지고 딱 엮어 가지고}

10324 #1 나:무를 뉘페. 그레가꼬 지리 이쓰니까 졸졸졸졸 끄스면 나로와져. {나무를 눕혀. 그래 가지고 길이 있으니까 졸졸졸졸 끌면 내려와져.}

10324 #1 지로 나를라면 고야가제이~. {지고 내려오려면 고약하지.} #2 그라제. 노푼 사네 올라가면. {그렇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10324 #1 오:두제 데:엘라먼 다:: 카말로 쓰 {오두재(지명) 다니려면 다 정말로 }

10324 #1 찌:: 너머가설 거 비서리텔 마:니 하먼 너: 문 {저 넘어가서 거 싸릿대('비서리'는 '싸리'의 방언) 많이 하먼 네 못}

10324 #2 비서리텔가 모:따 해서 그라고 {싸릿대가 마디다 해서 그러고}

10324 #1 따른 나무도 그라고. 엔:나레는 술쩍떡또 마:니 주서서 가져오고 {다른 나무도 그러고. 옛날에는 소나무 꺾질도 많이 주워서 가져오고.}

10324 #1 처:메는 {처음에는} #2 네, 비서리텔요? {예, 싸릿대요?}

10324 #1 예 비서리텔가. {예, 싸릿대가.} {@ 예 #1 예, 씨 썩모근 모든 디 불란 노먼 {예, 생나무는 마딘데 불에 탄 것은}

10324 #1 더 가직 여 가구와요. {더 가벼워요.}

10324 @ 예 #1 딱 너: 문 무꺼서 딱 해:노면 {딱 넣으면 묶어서 딱 해 놓으면}

10324 #1 한: 짐 데야요. 예골로 딱 질머노면. {한 짐 돼요. 외골(?)로 딱 짊어 놓으면}

10324 #1 보기도 조:코 그랑께 무시 이러케 국:찌요.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못이 이렇게 굵지요.}

10324 #1 너: 문 영끄면 {네 못 엮으면}

10324 #1 그저네 두루메 아제 그러케 해:가꼬 잘 텅이고 나도 그라고 {그전에 '두루메 아제'(고유명사)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다니고 나도 그러고}

10324 @ 혼자 다니셔썬요? 가:치랑 누구랑 가치 다녀 {혼자 다니셨어요? 같이 누구랑 같이 다녀?} #1 가:치:: 마:니 텅이썬요. {같이 많이 다녔지요.} @ 그러지요. 예. {그러지요. 예.}

10324 #1 엔:나레는 {옛날에는} @ 에 #1 소:구 {소고}

10324 #1 여 압:썰비가 소:구 치고 텅이고 거 딱 하며는 {이 앞잡이가 소고 치고 다니고 그 딱 하면은}

10324 #1 인자 가자고 둥글둥글둥글두 소:구를 치요. {이제 가자고 둥글둥글둥글 소고를 치요.}

10324 @ 아~ #1 인자 가자 인자 {이제 가자 이제} @ 여러 명이 가면서 시노를 {여러 명이 가면서 신호를}

10324 #1 시노를 해:요. {신호를 해요.} @ 가가지고는 호터지지요 인자, 사네 가서 각짜 아라서 {가 가지는 흘어지지요. 산에 가서 각자 알아서.} #2 그라지요. {그러지요.} #1 그 그레가꼬 {그 그레 가지고} @ 응

10324 #1 그 그 사라미 스 선수를 하제. {그 그 사람이 선수를 하지.}

10324 #1 압:썰비를 해:가꼬 인자 올 때도 인자 치면서 와요. {압잡이를 해 가지고 이제 올 때도 이제 치면서 와요.} @ 아 소구로 시노를 {아, 소고로 신호를}

10324 #1 그 뒤:여 온 사라믄 압:썰리 하 하며는 또 뒤:에 온 사람들도 소리도 하고 엔:나레는 마:니 그레썬요. {그 뒤에 온 사람은 앞소리 하면은 또 뒤에 오는 사람들도 소리도 하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10324 #2 네, 지그믄 나:무를 아나니까 사네 그냥 {예, 지금은 나무를 안 하니까 산에 그냥} #1 인자 인자는 {이제 이제는}

10324 #1 아나니까 인자 사네 갈 피료도 업:꼬. {안 하니까 이제 산에 갈 필요도 없고.} @ 사네 사네 기양 수피 우거져 가꼬 {산에 산에 그냥 숲이 우거져 가지고} #2 수피 우거져가꼬 얼척 업썬요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어처구니('얼척'은 '어처구니'의 방언) 없지요.}

10324 #1 순저니 저 우리는 금:정며느로 마:니 텅에썬요. {순전히 저 우리는 금정면(고유명사)으로 많이 다녔어요.}

10324 @ 아 금:정며느로요. 여기서 먼:데. {아, 금정면으로요. 여기서 먼데.}

10324 #1 금정면 데이며는 거기서도 오:두제 너머가면 거그서도 업::마나 네레가가꼬 {금정면 다니면은 거기서도 오두재 넘어가면 거기서도 얼마나 내려가 가지고,}

10324 #1 비서리라고 인넌디 거 안 비서리는 {비서리라고(고유명사) 있는데 그 안 비서리는}

10324 #1 비서리떼가 마:니 이딱 해서 비서리. 비서리: 불 나 불머는 {싸릿대 많이 있다고 '비서리'. '비서리' 불 나 버리면은,}

10324 #1 쥘 비서리 떼를 마니 비:고 {저 싸릿대를 많이 베고}

10324 #1 비서리떼 불 안난 노믄 썩:썩해가꼬 무:지하게 무고끼도 하고 {싸릿대를 불에 타지 않은 것은 생생해('썩썩하다'는 여기서 '생생하다'의 뜻) 가지고 무지하고 무겁기도 하고}

10324 #1 그라고 비서리가 메:끈미끈 해가꼬 또 우계선 거시기하고 {그리고 싸리가 매끈 매끈해 가지고 또 위에선 뭐하고}

10324 #2 뻘비썰마이로 썰: 거시 비서리떼지라이~? {뻘기썰처럼('뻘비'는 '뻘기'의 방언) 내나 그것이 싸릿대지요?}

10324 #1 음 여우 비서리떼 안 나드라고 안. {음, 여기 싸릿대 났었잖아?('나드라고 안'은 '났었잖아'로 번역 가능)} #2 그랑께. {그러니까}

10324 #1 비서리떼가꼬 그때 비찌락또 메:고 다 그란디. {싸릿대 가지고 그때 빗자루 매고 다 그런데} #2 공:께 그건 {그러니까 그것}

10324 #2 그거슨 무자:게 모쨌. {그것은 무지하게 마디지.}

10325 #2 (하품) @ 자 그러며는 그 다으메느뇨.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10325 @ 겨우레는 인자 짐장가통 거또 인자 반창 가통 거 미리 헤: 뒤:야 될 꺼시고 {겨울에는 이제 짐장 같은 것도 이제 반창 같은 것 미리 해 뒤야 될 것이고,} #2 그러지요. {그렇지요.}

10325 @ 겨우레 에 인제 머 준:비헤는 그런 반창 가통 거 머:가 이쓸까요? {겨울에 이제 뭐 준비해 놓은 그런 반창 같은 것 뭐가 있을까요?}

10325 #2 베:차지 {배추김치} @ 베:차지 만들고 {배추 김치 만들고} #1 무수지 {무김치('무수'는 '무'의 방언)} @ 무수지 만들고 에 {무김치 만들고, 에}

10325 #2 꼬:치도 따서 꼬:치도 당구고 {고추도 따서 고추도 담그고} @ 음 #2 꼬:친넙또 당구고 {고춧잎도 담그고} @ 음 :

10325 #2 인자 그런 모도 그렁 거시 주로 시얀 반찬이지요. {이제 그런 모두 그런 것이 주로 겨울 반찬이지요.} @ 네

10325 #2 베:차지 당:꼬, 무수지 당:꼬 {배추김치 담그고, 무김치 담그고} #1 주로 주로 {주로 주로} #2 꼬:치 꼬:치 당:꼬 {고추 고추 담그고}

10325 #1 엔:나레는 짐닐 떼 수,순전 짐장을 마니 합니다. (웃음) {옛날에는 쥘 이을 때 수순전히 짐장을 많이 합니다.} @ 아하

10325 #2 엔:나레는 짐장도 요리고 여 시야메서 안 히쳐썬요. 썬 들씨야메가서 {옛날에는 짐장도 이렇게 이 우물에서('시암'은 '우물'의 방언) 안 썬었어요('히치다'는 '썬다'의 방언), 저 들샘에 가서.}

10325 @ 아 #2 들씨야메가서 바:자게다 노코 바:자기라고 이썬요. 지게에다 바칭 거 {들샘에 가서 발채에다 놓고, 발채라고 있어요. 지게에다 바치는 것.} @ 에

10325 #2 그거 가꼬 와서 그 놈 {그것 가지고 와서 그것} @ 바:저 바:작 나:두고 {발채 발채 놔 두고} #2 끈타불 딱 여그 바레다가 이려고 {끄나폴('끈타불'은 '끄나폴'의 방언) 딱 여그 발에다가 이렇게}

10325 #2 딱 #1 물 쪼게 너:코 {물 속에 넣고} #2 양거서 물쪼게다가 시암 쪼:게다 느:코 거그서 이려고 시치드만. 엔:날 어:런덜 보몬. {얹아서 물 속에다가 샘 속에다 넣고 거기서 이렇게 썬더구면. 옛날 어른들 보면}

10325 @ 아 #2 그레가꼬 짐장헤요. 여런 여 무 무레서 다 모:당께. 수꾸가 {그래 가지고 짐장헤요. 이런 이 무 물에서 다 못하니까 식구가} #1 아 여그도 여 여그 시야밍니다여. {아, 여기도 여 여기 우물입니다요.}

10325 @ 예 예 #2 그레가꼬 {그래 가지고} #1 여그 시야민디 엔:나레는 저 니:모 뵤드데 가꼬 {여기 우물인데 옛날에는 저 네모 반듯해 가지고}

10325 #1 여 여그서도 짐장 마:니 헤썬요. {여 여기서도 짐장 많이 했어요.} @ 아 여기서도 하고 들씨야메서도 마:니 {아, 여기서도 하고 들샘에서도 많이} #2 예 들씨야메서도 마:니 헤썬요. {예, 들샘에서도 많이 했어요.}

10325 #1 시방도 요요 네리다보며는 가운데는 시:뿌란디 {지금도 이이 내려다 보면은 가

운데는 새과란데} #2 무리 인자 주거부러다가데. {물이 이제 죽어 버렸다고 하데.} #1 인자 이:끼 찌:가꼬. {이제 이끼 찌 가지고}

10325 #2 다 잉:끼 **** {다 이끼('잉끼'는 '이끼'의 방언) ****} #1 아니 여 가운데는 시뿌라더라니까 {아니, 이 가운데는 새과랑더라니까.} #2 으~.

10325 #1 너머다 바:도 {들여다 봐도('넘어다보다'는 여기서 '들여다보다'의 뜻으로 쓰였다.)) @ 무를 차꼬 퍼네야 데능 거 아니예요? {물을 자꾸 퍼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1 야 #2 퍼네야데지요. {퍼내야 되지요.}

10325 @ 안 퍼넵게. {안 퍼내니까} #1 그랑게 절문 사람드른 모:릉게 여 묘은 거시한다한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묘한 것이라고 하는데}

10325 #1 몸: 미게헤썬. 여 미:문 안 덴다고 {못 메우게 했어. 이 메우면 안 된다고.} #2 미:문 모:쓰제. {메우면 안 되지.} @ 비상용으로라도 나두면 조:초. {비상용으로라도 놔 두면 좋지요.} #2 예 #1 아이 그라고 엔:날부터서 우리 저 {아니, 그리고 옛날부터서 우리 저}

10325 #1 시조때부터 아유 낭남 헤:가꼬 온 때부터 판 시야민디 {시조때부터 낙남해 가지고 온 때부터 판 우물인데.}

10325 #1 낭남 하신 낭바닌드리 다 팡 거신디. {낙남하신 양반님들이 다 판 것인데}

10326 @ 그 님메 정:기 업:뎌 때도 사서썬요? {그 다음에 전기 없던 때도 사셨지요?} #1 그러지요. {그렇지요.} @ 머:머:로 불켜썬니까? {뭐 뭐로 불 켜썬니까?}

10326 @ 불 앙 켜고 사썬 {불 안 켜고 사썬} #1 엔:나레는 숨: 참지름가통 걷 나:두고 숨: {옛날에는 숨 참기름 같은 것 놔 두고 숨}

10326 #1 비벼서 거기다 키:고 거 살:기도 하고 {비벼서 거기다 켜고 그 살기도 하고} @ 소:메다가요? {숨에다가요?} #1 그레썬. {그랬지요.}

10326 @ 오:: 참기르 참기름 {오, 참기름 참기름} #1 숨: 비벼부서 저 그라면 초꼇 썬 {숨 비벼서 저 그러면 초꽃 저}

10326 #1 초꼬지 멩인드라:꼬 그라면 소:메단 {초꽃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숨에다는}

10326 #1 그 지름 무쳐 가꼬 하머는 여근 미테는 쟁기저가꼬 이썬께 썬: 올리고 함께 {그 기름 묻혀 가지고 하면은 여기 밑은 잡겨져 가지고}

10326 #1 그 창오지로 멘드라가꼬 여기다 키:뎌 {그 창호지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켜면}

10326 #1 그르켄 그르케도 살:고 {그렇게 그렇게도 살고} @ 초꼬지예요? {초꽃이예요?} #1 그러지요. {그렇지요.} @ 아

10326 #2 그라고 또 {그리고 또} #1 그거시 인자 웬: 부리고 {그것이 이제 원래 불이고}

#2 깍:쟁이 초꼬지 그 그 {종지('깍쟁이'는 '종지'의 뜻) 초꽃이 그 그}

10326 #1 깍:쟁이 초꼬지는 넌:장 저 세규 세규 지르므로 마:니 썬썬. {종지 초꽃이는 쟁장 저 석유 석유 기름으로 많이 썬지.}

10326 #1 그랑게 엔:나레는 자네는 모릉게 인자 창오지로 멘드러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네는 모르니까 이제 창호지로 만들어서} @(웃음)

10326 #1 걷 거시기 지름가통 거슬 어:따 접씨에다 부서. {거 거시기 기름 같은 것을 접씨에다 부어.}

10326 #1 그레가꼬 창오지도 여여 미테 니:모 뵤드다게 헤:가꼬 {그래 가지고 창호지도 이 이 밑에 네모 반듯하게 해 가지고}

10326 #1 여러케 해:가꼬 여그다가 해:가꼬 불 키고 사라썬.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해 가지고 불 켜고 살았어.}

10326 #2 아 그라몬 중가네 가다가 거 거시기 저 {아, 그러면 근년에 와서 저 뭐 저} @ 깍:쟁이가 나 {종지가 나} #2 깍:쟁이에다 초뿔 {종지에다 촛불} @ 중가네 나옴 거슨 {근년에 나온 것은} #1 예 또

10326 #1 그라고 요 세규 지름 나옴 거슨 인자 {그리고 이 석유 기름 나온 것은 이제} #2 깍:쟁이에다가이~? {종지에다가?}

10326 #1 그거시 깍:쟁이에다 저 지름 다머가꼬 {그것이 종지에다 저 기름 담아 가지고} #@ 초꼬지 {초꽃이} #1 심지 멩그라서 그거시 썬올려서 또 스 켜:지고 {심지 만들어서 그것이 켜 올려서 또 켜지고}

10326 @ 음 #2 정:기뿔 업:쓸 때 차말로 으:찌게 사라똥가? {전깃불 없을 때 정말로 어떻게 살았던가?} #1 그란디다 또 걷 {그런 데다 또 거}

10326 @(웃음) #1 또 딱 크게 해:노면 영기가 무지허게 나 저 서규도. {또 딱 크게 해 놓으면 영기가 무지하게 나 저 석유도.} #2 방 다 꼬실러부러. {방 다 그을려 버려.} @ 에 #2 코가 코꼬기 꺼::메 불고 어린덜까지. {코가 콧속이 까매 버리고 어른들까지}

10326 @ 그러िका 일찍 자는 자는 수바께 업:썬요.(웃음) {그러니까 일찍 자는 자는 수바께 없지요.} #1 (웃음)

10326 @ 지금 사람들 열 두시까지 이찌만 엔:날 사람들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머 불도 쪼:꿈 켜고 {지금 사람들 열두 시까지 있지만 옛날 사람들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뭐 불도 조금 켜고} #2 그러지요. 데:고 그랑께 {그렇지요. 힘들고 그러니까} @(웃음)

10326 #1 그라고도 우리 에레서는 우리 지배 놀:로 가며는 {그리고도 우리 어려서는 우리 집에 놀러 가면은}

10326 #1 그 소:게서도 깍:쟁이 불 키 노코도 하토가꼬 논:다고 모도 놀:고 {그 속에서도 종지 불 켜 놓고도 화토 가지고 논다고 모두 놀고}

10326 #1 나는 인잔 그렁 거슨 아네바썰마는 귀:경만 하고 이쓰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은 안 해 봤지마는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10326 @ 바메 탄 마으레 간다 그러면 카캉헌디 머 불 쓰고 땡기거나 그렁 걷 이썬썬니까? {밤에 탄 마을에 간다 그러면 캉캉헌데 뭐 불 켜고 다니거나 그런 것 있었습니까?}

10326 #1 불 쭈고는 안 다니고 {불 켜고는 안 다니고} @ 아니면 그냥 다니능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니는 것이예요.} #1 게양 가가꼬 거그가서 놀:고 거시기 하고 노:름판이나 이쓰며는 인잔 {그냥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놀고 뭐 하고 노름판이나 있으면은 이제}

10326 #1 마:니 네:기 안 하며는 그라고 또 하투가꼬 노라가꼬 따:기도 하고 이른 사라몬 일코 {많이 내가 안 하면은 그리고 또 화토 가지고 놀아 가지고 따기도 하고 잃은 사람은 잃고}

10326 #1 그레썬요. 그때 엔:나레는 쿵 거시기하머던 마:니 인는 사람들 마:니 일코 그레따 갑디다마는 {그랬어요. 그때 옛날에는 큰 뭐 하면은 많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잃고 그랬다고 합디다마는}

10326 @ 데썬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1 우리 놀: 때는 그 마:니 놀던 아나고 그레썬요. {우리 놀 때는 그 많이 놀지는 않고 그랬어요.} @ (웃음)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7 @ 소 키워 보셔쎄요? {소 키워 보셨어요?} #2 소도 키워쎄요. {소도 키워어요.}

10327 @ 허 에 #2 제: 칸 소 한 마령가 두 마령가 금방 키여 쪼칸 {조그마한 소 한 마린 지 두 마린지 금방 키워 조금} #1 송아지 사다가 {송아지 사다가}

10327 1 그래도 거시기합디다. {그래도 뭐 합디다.}

10327 #1 가:치 한 날 짱에 사가꼬 {같이 한 날 장에 사 가지고}

10327 #1 우리야는 그때 쪼안 돈: 한 그때마네도 오:배권 차이라도 차이가 이제이~. {우리 것은 그때 조금 돈 한 그때만 해도 오백 원 차이라도 차이가 있지.} @ 아

10327 #1 거 양옥떼기는 더 주고 사고 우리는 덜: 주고 사고 그레제. 한 날 짱에 사쎄도 {그 양옥택은(고유명사) 더 주고 사고 우리는 덜 주고 사고 그랬지. 한 날 장에 샀어도.} @ 어

10327 #1 그래서 풀:때는 {그래서 팔 때는} @2 에 #1 더 가 가져근 더: 바더쎄요. 우리, 네가 {더 가 가격은 더 받았어요. 우리 내가} @ 아

10327 #1 그 소가 빼메드비 조아야제. 세끼때도 조아야 {그 소가 빼 마디가('메듭'은 원래 '메듭'의 방언이지만 여기서는 '마디'의 뜻) 좋아야지.}

10327 #1 잘 커 주고 {잘 커 주고} @ 네 #1 보기만 조:타해서 {보기만 좋다고 해서}

10327 #1 저 세끼때 중: 거시 아니라 저 빼빼 몰라도 빼메드비 조아가꼬 클 쏘글 바야제. {저 새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저 빼빼 말라도 빼 마디가 좋아 가지고 클 가능성을('숙'은 여기서는 '가능성'의 뜻) 봐야지.} @ 네

10327 @ 그럼 송아지 살, 사실 때는 장에 가서 직접 골르셔쎄요? 빼메듭 조:은 노프로 {그럼 송아지 살 사실 때는 장에 가서 직접 고르셨어요? 빼마디 좋은 것으로?}

10327 #1 그러제. 저 빼메듭 조:은 놈 그 때 사:가꼭 {그러지. 저 빼마디 좋은 것 그때 사 가지고}

10327 #1 가:치 포다시피 헨:넌디 거그는 덜: 바꼬 우리는 더 바꼬 그레습디다. {같이 팔다 시피 했는데 거기는 덜 받고 우리는 더 받고 그랬습디다.} @ 네

10327 @ 또 잘 미기싱게 또 그러지. {또 잘 먹이니까 또 그러지.} #1 예 #2 그러지요 인자. {그렇지요 이제.}

10327 #2 미기기에 메에제. {먹이기에 달렸지.} #1 아 여물 미기라도 또 거그서 또 자문 수가 이꼬 {웃음} {아, 여물 먹이기라도 또 거기서 또 잘못 하는 수가 있고.} @ 네

10328 @ 소 키울라머는 저게 이씨야데자나요? 소 지비 이씨야텔 꺼 아니예요? {소 키우려 면은 저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 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10328 #1 찌기 이씨, 이씨, 이씨요. {저기 있어. 있어. 있어요.}

10328 @ 에 #1 그레가꼬 거그서 또 마:니 키우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또 많이 키우고} @ 예, 머:라고 그러지요? 여기서는 ? {예, 뭐라고 그러지요?}

10328 @ 소 허청? {소 헛간?} #1 마구청 {'마구청'} #2 마구청 {'마구청'} @ 마구청 소마 구청 이씨 가지고이~ {'마구청', '소마구 청' 있어 가지고} #2 소마구청 {'소마구청'}

10328 @ 그 다음에 소 밥 주는 데 {그 다음에 소 밥 주는 데} #2 구시 {구유} #1 구시 {구유} @ 구시도 만드러야데고 {구유도 만들어야 되고} #2 네

10328 #1 구시도 이쎄요. {구유도 있지요.} #2 구시도 만드러져가꼬 이쎄요. {구유도 만들

어저 가지고} @ 아 #1 그라고 거그 거 소짜리도 다 이꼬 {그리고 거기 그 술 자리도 다 있고} #1 찌그 찌그 방 찌그 저 방이 또 이썬요. {저기 저기 방 저기 저 방이 또 있어요.}

@ 방이요? {방이요?}

10328 #1 에 #2 소죽 쏜? {쇠죽 쑤는} #2 에

10328 @ 아 #2 그저네 세죽 쏜 찌 지금 문 다라진 디가 방이여썬요. {그전에 쇠죽 쏜 저 지금 문 달아진 곳이 방이었어요.} #1 거 엔:나레 방이여썬. {그 옛날에 방이었소.} #2 찌: 간하게 세죽 쑤고 {조그맣게 쇠죽 쑤고}

10328 @ 방은 누 그 누가 거:처 허든 아늘 꺼 가튼데 {방은 누 그 누가 거처하지는 았을 것 같은데}

10328 #1 아 그때도 거:치하고 {아, 그때도 거처하고} @ 헤:썬요? {했어요?} #1 여그 성주할 때도 {여기 성주할 때도} #2 우리 성주할 때 거그서 {우리 성주할 때 거기서} #1 거 그서 잠자고 그레썬요. {거기서 잠 자고 그랬어요.}

10328 @ 아 어차피 소죽 쏠라면 방에 불 드리가니까 {아, 어차피 쇠죽 쓰려면 방에 불 들어 가야 하니까} #1 아 거그서 또 바베 무꼬 소 안 키니까 바베 무꼬 {아, 거기서 또 밥 해 먹고 소 안 키우니까 밥 해 먹고}

10328 @ 아 #1 거그서 살리마데끼 헤:썬. {거기서 살림하듯이 했소.} @ 아 #1 에 성주하고 {예, 성주하고} #2 거그서 성주 두, 두: 집 헤썬. {거기서 성주 둘 두 집 했소.} #1 두: 집 헤썬. 또 {두 집 했어. 또} #2 우리야아고 **** {우리 것하고} #1 여 찌: 아페 {이 저 앞에}

10328 #1 여 아페 여그서 전: 낭구 다 까껴서 {이 앞에 여기서 저 나무 다 깎아서}

10327 @ 네, 소를 쪽 게:속 앙 키우셔썬요? {예, 소를 쪽 계속 안 키우셨어요?} #2 예 게:속 안 {예, 계속 안} #1 거 전 중간네 키:다가 안 키워썬요. {그 중간에 키우다가 안 키웠어요.}

10327 @ 별로 그거이 도우미 안 땡가요? {별로 그것이 도움이 안 되나요?} #2 아니 소 키워가꼬는 심 흘차니 반:넌디 {아니, 소 키워 가지고는 힘 꽤 봤는데} #1 심 도우믄 바:썬요. {힘 도움은 봤어요.} #2 그레. 그렌는디 어제 앙키 앙키고 마려썬요. {그레. 그렸는데 어찌다가 안 키우고 말았어요.}

10327 #2 기차나다고 그레땡가 어제땡가. {귀찮다고 그랬던가 어쨌던가} @ 기차 #1 거거 하:나고 이 또 농사질라 머:달라 소 히를라 모:다거썬따다. {그그 계속해서 이 또 농사지라 뭐 하라 소 기르라 못 하겠습디다.} #2 이:리 마:네. {일이 많아.}

10327 #2 그랑께 기양 중간네 좀 키:다가 안 키여썬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좀 키우다가 안 키웠어.} #1 그 소는 가따 메:면 풀 뜨더 무꼬 {그 소는 가져다 매면 풀 뜯어 먹고} @ 네

10327 #1 땡 땡 다른 일하고 또, 깔: 빌라믄 또 성가시고 깔: 빈 사라미나 이쓰믄 쓴디 깔:도 안 비여다 주고 {또또 다른 일하고 또 풀 베려면 또 성가시고, 풀 베는 사람이나 있으면 되는데 꼴도 안 베어다 주고}

10327 @ 에 #1 엔:나레는 소 까:리라고간디 {옛날에는 소 꼴이라고 하는데} @ 예

10327 #1 풀, 풀보다가 인자 깔: 비여가꼬 와야제. {풀 풀보고 이제 풀 베어 가지고 와야지.} @ 또 누가 저 예:기라도 이쓰면 사네 가따가 인자 {또 누가 저 아이라도 있으면 산에 갔다가 이제} #1 그러지요. {그렇지요.} @ 데꼬 와야데는데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10327 #1 그라 또 소 메:노코 또 꼬지버 올라도 거시아고 들 또라볼라 머:달라 바뿌고 {그

리고 또 소 매어 놓고 또 끌어('끄집다'는 '끌다'의 방언) 올려도 뭐하고 들 돌보랴 뭐 하라 바쁘고} @ 네

10327 #1 거시이 해:쓰까? 소 함: 번 키여쓰까? 두: 번 키여제? {뭐 했을까? 소 한 번 키웠을까? 두 번 키웠지.} #2 아니여. {아니야.}

10327 #2 한 서너번 나머 키여써. {한 서너 번 남짓 키웠어.} #1 서 서너 서너 번 나뉘 키여제. {서 서너 서너 번 남짓 키웠지.} #2 그레가꼬 소가꼬 홀차니 거시기혜제. {그레 가지고 소 가지고 상당히 뭐 했지.} #1 그레가꼬 그레도 소도 키여보고 벨 건 다 해쏘. {그레 가지고 소도 키워 보고 별것 다 했소.}

10327 @ 송아지도 나: 바썰요? {송아지도 낳아 보셨어요?}

10327 #1 송아지는 안 네 바썰요. {송아지는 낳게 해 보지 않았어요.('네다'는 '낳게 하다'의 뜻)} @ 암놈 아니여썰요? {암컷 아니었어요?}

10327 #1 개:는 키여가꼬 세끼도 네:보고 그렌넌디 {개는 키워 가지고 새끼도 낳게 해 보고 그랬는데} @ 송아지 나오면 더 이이기 조을텐데. {송아지 낳으면 더 이익이 좋을 텐데} #1 그렇께요. {그러니까요.}

10327 #1 아이 그라고 암소는 양 키여보고 부사리 {아니, 그리고 암소는 안 키워 보고 '부사리'}

10327 @ 부사리 {'부사리'} #1 송아지 키여도 쏙놈 키:머는 더 잘 크고 그랑께. {송아지 키워도 수컷 키우면은 더 잘 크고 그러니까.}

10327 @ 아 빨리 키여가지고 네:노케. {아, 빨리 키워 가지고 내 놓게.} #1 암소는 모지 크고 {암소는 마디게 크고} @ 예. 엔:나레느노. {옛날에는요.}

10330 @ 그: 엄:는 사람드른 너무집 소를 키워 주고 {그 없는 사람들은 남의 집 소를 키워 주고} #2 예 그레썰요. {예, 그랬지요.} #2 저기도 한다고 그레썰요. {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10330 #1 그라면 썩: 썩 키여주고 세:끼 나오면 {그러면 새 저 키워 주고 새끼 나오면}

10330 #1 네가 가져오고 {내가 가져오고} @ 예 #1 에미는 거시아고 {어미는 뭐 하고} #2 그거뽀다 도지썰라 그레썰이~? {그것보다 '도지소'라고 그랬어.} #1 마저, 응? {맞아, 응?} #2 도지썰 {'도지소'}

10330 #1 도지썰가 아니라 {'도지소'가 아니라} @ 그거 머:라고 그레요? {그것 뭐라고 그레요?} #1 그거시 {그것이}

10330 #1 예, 엔:날가트머는 소 키여주고 하면 세:끼나면 거슬 킨: 사라미 세:끼나머는 메년 {예, 옛날 같으면은 소 키워 주고 하면 새끼 낳으면 뭐 키운 사람이 새끼 낳으면은 매년}

10330 #1 세:끼는 인자 네 거시고 또 함 베 나머는 {새끼는 이제 내 것이고 또 한 배 낳으면은}

10330 #1 그 사라미 또 가지가고 임자가 {그 사람이 또 가져가고 임자가} @ 그랑께 그거뽀다 도지썰라고 {그러니까 그것보고 '도지소'라고.} #1 그레 그레. {그레, 그레.}

10330 #1 걸 나누먹기 {그것 나눠먹기.} #2 나누먹기 그거뽀다 도지썰라고 그라드만. {나눠먹기 그것보고 '도지소'라고 그러더구먼.} #1 도지 도지썰 {도지, 도지소} @ 도지썰요? 아. {도지소요? 아.}

10330 #2 도지썰 킨:다고 {도지소 키운다고} @ 그니까 세끼가따가 키워주고 {그러니까 새끼 가져다가 키워 주고}

10330 @ 고놈 어미 에미소는 쥐:난테 주고 {그것 어미 어미소는 주인한테 주고} #2 에, 주고 {예, 주고} #1 에미소는 또 저 임:자가 가지가요. {어미소는 또 저 임자가 가져가요.} @ 세끼나:면 고놈 자기가 가꼬 가니까이~ {새끼 낳으면 그것 자기가 가지고 가니까} #2 예예 함 마리 가져요 인자. {예예, 한 마리 가지지요, 이제.} @ 에

10330 @ 얼마나 키워 주나요? 멘 녀가니나? {얼마나 키워 주나요? 몇 년간이나?} #1 할 켜:: 저 소: 기루머는 {저 저 소 기르머는}

10330 #1 저 소게 메여쎄. 일녀니면 수: 부처가꼬 {저 소에게 달렸지. 일 년이면 씨받이해 ('수불이다'는 씨소에게 교미를 시켜 새끼를 배게 하다는 뜻) 가지고} @ 에

10330 #1 네:게 메여쎄. 딱 이: 년 마네도 나:코 {새끼를 낳게 하는 것에 달렸지. 딱 이 년 만에도 낳고}

10330 #1 수: 부치머는 일 녀네 꼭 납니다. 열두 달 {씨받이하면 일 년에 꼭 납니다.} @ 에 #1 사라마고 또가튼게. {사람하고 똑 같으니까} @ 에 도지썰라구요이~ {예, 도지소라고요.} #2 에. @ 에.

10330 @ 도지썰라고. {도지소라고}

10330 @ 그러면 어:: 고 세끼소보다는 이르미 이썸니까? 나머집 길러다주고 길러다주고 난 세끼소보다는 이르미 머 인나요? {그러면 어 그 세끼소보다는 이름이 있습니까? 남의 집 길러다 주고 길러다 주고 낳은 새끼소보고는 이름이 뭐 있나요?}

10330 #1 송아지제 페냐 {송아지지 내나.} @ 그냥 송아지나 허조이~, 예. {그냥 송아지라고 하지요, 예.}

10331 @ 소::를 키워가지고 바로 그냥 파서썰요? 아니면 쟁기질도 시켜보고 그러서썰요? {소를 키워 가지고 바로 그냥 파셨어요? 아니면 쟁기질도 시켜 보고 그러셨어요?}

10331 #2 쟁기지른 {쟁기질은} #1 그놈 키여가꼬 인자 지를 갈쳐야지라이~ {그것 키워 가지고 이제 길을 가르쳐야지요.} @ 지를 갈쳐야데요? {길을 가르쳐야 돼요.} #2 에

10331 #1 질 갈쳐야제 질 앙 갈치면 안뎡니다. {길을 가르쳐야지 길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 아

10331 #1 그냥 우리는 지를 갈쳐보들 아나고 놈들 봉께 질 갈치고 {그냥 우리는 길을 가르쳐 보지를 앓고 남들 보니까 길 가르치고} #2 쪼깐 키여가꼬 파라마꼬 또 사고 그레썰요. {조금 키워 가지고 팔아 먹고 또 사고 그랬어요.} #1 그레 그레케나 헤:쎄. {그레 그렇게나 했지.} @ 에

10331 #1 네가 질 갈치고 그거슨 아네바썰요. {내가 길 가르치고 그것은 안 해 봤어요.} @ 어트케 질 나메집 남들 어트케 지를 갈치덩가요? {어떻게 길 남의 집 남들 어떻게 길을 가르치던가요?}

10331 #1 남더른 보면: 그 그 꼬썰꼬라고 이썰요. {남들은 보면 그 그 '꼬실꼬'라고 있어요.} @ 아

10331 #1 그기다가 떤: 무고웅 거슬 올리가꼬 {거기다가 뭐 무거운 것을 올려 가지고} @ 에

10331 #1 줄 다라가꼬 소가 꼬꼬가기도 하고 도:로에서 {줄 달아 가지고 소가 끌고 가기도 하고 도로에서} @ 아

10331 #1 그러케도 하고 또 따룽 거또 땀 디셔도 머:슬하며는 {그렇게도 하고 또 다른 것도 땀 곳에서도 뭐를 하면은}

10331 #1 머:슬 무거웅 걷 거식하고 또 꼬고 가기도 하고 그랍떠다. {뭐를 무거운 것 뭐

하고 또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디다.) @ 네

10331 #1 여:: 자전거 바퀴나 머:시나 먼 그렇 걸 올라가꼬. {이 자전거 바퀴나 뭐나 뭐 그런 것 올려 가지고} @ 네 쟁기 {예, 쟁기}

10331 #1 자동차 {자동차} @ 쟁기 채우기 저네 {쟁기 채우기 전에} #2 예 #1 머 자동차 바꾸에다가 예 가운데 해:가꼬 머:슬 마:니 또 올라가꼬 끄기도 하고 그러디다. {뭐 자동차 바꾸에다가 예 가운데 해 가지고 뭐를 많이 또 올려 가지고 끌기도 하고 그러디다.} @ 네

10332 @ 자: 저 지난 버네 하선는데 소 물: 떼는 소 이러케 쟁기질 할 때는 머이 소한테 인제 마:를 할 꺼 아닙니까이~? {이제 저 지난 번에 하셨는데 소 물 떼는 이렇게 쟁기질 할 때는 뭐야 소한테 이제 말을 할 것 아닙니까?} #1 그러지요. {그렇지요.}

10332 @ 가라고 허거나 오라고 머 도라라거나 오라고 어트게 하지요? {가라고 하거나 뭐 돌아라 하거나 오라고 어떻게 하지요?}

10332 #1 거:이 소가 전 자 예약쪼그로 가면 이라 이리가자 {거의 소가 저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라 이리 가자'} @ 네

10332 #1 이라하머는 오른쪼그로 가고 자라 하면 예약쪼그로 가라 한 소리고. {'이라'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자라' 하면 왼쪽으로 가라 하는 소리고} @ 예

10332 #1 뻘드시 가면 그데로 놔:두고 {반듯이 가면 그대로 놔 두고} @ 예. #1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 카마니 서라 하믄 어트게? {가만히 서라 하면 어떻게}

10332 #1 와 {와} @ 와 {와} #1 머끄지요. {멈추지요.} @ 예, 머꺼. {예, 멈춰.}

10332 #1 소가 머꺼. {소가 멈춰.} @ 도라 도라라고 허는 말도 이릅니까? {돌아 돌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까?}

10332 #1 돌:떼는 암 마또 아나고 인자 쟁기 띠여가꼬 도 돌 소를 돌려야지요. {돌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쟁기 떼어 가지고 돌 소를 돌려야지요.}

10332 #2 이라이라이라 그라고 안 {이라이라이라 그리고 안} #1 이라이라 하고 돌리제. {이라이라 하고 돌리지.} #2 (웃음) #1 아 그렇께. {아, 그러니까}

10332 @ 예 #1 와:: 해:가꼬 이리이리 하면 쟁기를 딱 띠여가꼬 이리이리 해야꼬 돌리제. {와 해 가지고 이리이리 하면 쟁기를 딱 떼어 가지고 이리이리 해 가지고 돌리지.}

10333 @ 소도요이~ 인 여:러가지 종류가 이썬요? 세까리나 크기나 흑씨 소 그런 암놈 순놈 이르미 {소도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색깔이나 크기나 흑씨 소 그런 암컷 숫컷 이름이}

10333 #1 썩썩 암소 그라제 {수소 암소 그러지.} @ 썩썩 암소 {수소, 암소} #1 예 @ 썩썩보다는 아까 머:라고 하셔썬니까? {수소보고는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10333 #1 아까 썩썩이 크게 데면 뿌사리고 {아까 수소가 크게 되면 '뿌사리'고} @ 뿌사리. 큰놈보다는 썩썩 큰 놈보다는 뿌사리라 그러고. {뿌사리'. 큰 것보고는 수소 큰 것보고는 '뿌사리'라 그러고}

10333 #1 암소는 인자 세끼때는 인자 전 {암소는 이제 새끼 때는 이제 저}

10333 #1 송아진디 인자 암소라 허고 인자 {송아진데 이제 암소라 하고 이제} @ 예.

10333 #1 썰야 그러지요 암소. {내나 그러지요 암소.} @ 예예

10333 @ 또 소가 이러케 머 무슨 {또 소가 이렇게 뭐 무슨} #2 우짜꼬 아프건네. {아이고, 아프겠네.} @ 아나파요. {안 아파요.} @ 거 털 색깔이나 머 무니나 이렇 거에 따라서 이르미 흑씨 이썬요? {그 털 색깔이나 뭐 무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름이 흑씨 있어요?}

10333 #1 무늬는 벨:로 업쓰,업썬니다마는 세갈 틀린 놈도 더러 이썬요. {무늬는 별로 없

으 없습니다만 색깔 다른 것도 더러 있지요?) @ 예

10333 #1 엽:썩요 이거러걸. {없어요 이거.}

@ 엔:나레 보른 이러케 약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약} #2 검정소도 이꼬 {검정소도 있고} #1 엉?

10333 #2 검정소도 인 {검정소도 있} #1 검정소는 이썬, 이썬. {검정소는 있지.} #2 노랑소도 인 {노랑소도 있} @ 주리 주리 쪽쪽 난 소도 이꼬 그럼니까? {줄이 줄이 쪽쪽 난 소도 있고 그럼니까?} #2 그러지요. 거 줄 난 소도 이썬. {그렇지요. 그 줄 난 소도 있어.} #1 아 그런 그런 소도 이꼬 {아, 그런 소도 있고} @ 이르미 이썬니까?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무슨?}

10333 #2 모르건네요. {모르겠네요.} #1 우리는 인잔 {우리는 이제}

10333 #1 주른 인는 소는 안 바썬니다마는 거망소는 바:썬마는 {줄은 있는 소는 안 봤습니다마는 검정소는 봤지마는}

10334 @ 썬 소: 뿔 뿌리 이르케 나는 모양에 따라서 이름도 다를 썬가 이썬텐데 소:뿔. {저 소 뿔 뿔이 이렇게 나는 모양에 따라서 이름도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소뿔.}

10334 #1 뿌리:: 모양이 틀리기는 틀린디 {뿔이 모양이 다르기는 다른데} @ 예

10334 #1 여러케 난: 놔도 이꼬 {이렇게 난 것도 있고} @ 예

10334 #1 또 여러케 나:서 꼬구라진 놔도 이꼬 {또 이렇게 나서 구부러진 것도 있고} @ 예

10334 #1 여 아:푸로 여러케 한 난: 놔도 이꼬 {이 앞으로 이렇게 한 난 것도 있고} @ 예

10334 #1 뿌리 다 틀리요 각각. {뿔이 다 달라요 각각.} @ 예, 이르미 머 이썬니까? {예, 이름이 뭐 있습니까?}

10334 #1 이르른 저 어르신더런 데락 압:띠다마는 {이름은 저 어르신들이 대략 압디다마는} @ {웃음} #1 그썬 {그저}

10334 #1 우리는 잘 모르거썬. 그거썬. {우리는 잘 모르겠소, 그것은} @ 어:: 모양에 따라서이~. {어, 모양에 따라서}

10335 @ 소는 또 나이::에 따라서 {소는 또 나이에 따라서}

10335 @ 한 살 머근 소랄썬 두 살 머근 소랄썬 머 이름드리 이썬 썬 아닙니까? {한 살 먹은 소라든지 두 살 먹은 소라든지 뭐 이름들이 있을 썬 아닙니까?}

10335 #1 거 거시합띠다. 입 이빨 보고 모도 압띠다. {거 뭐 합디다. 입 이빨 보고 모두 압디다.} @ 예 ~ #1 시:살 무건네, 머 압턴네 먼 {세 살 먹었네, 뭐 앞 텃네 뭐}

10335 #1 인자 나이가 마:니 무건네 그랍띠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네 그랍디다.}

10335 @ 아: 압터따고요? 압터따는 마른 {아, 앞 텃다고요? 앞 텃다는 말은}

10335 #1 에헤 아:비 트며는 인자 소가 인자 커따 인자 그 마리제. {에헤 앞이 트면은 이제 소가 이제 컷다 이제 그 말이지.} @ 예

10335 #1 에레서는 아:비 안 트고 {어려서는 앞이 안 트고} @ 예. #1 그 커따해서 인자 압뚜고 인잔 {그 컷다 해서 이제 앞 두고 이제}

10335 #1 메 쌀 무건네 메 쌀 무건네 그르 어:런더런 그레썬띠다. {몇 살 먹었네 몇 살 먹었네 그르 어른들은 자꾸 그랍디다.} @ 메 갈 무거요이`. {몇 살 먹어요.}

10336 @ 존: 소 고를라몬 마:썬 보라고 허등가요? 소장 소: {좋은 소 고르려면 뿔 보라고 하던가요? 소장수} #1 존: 소 골를라면 뿔메드블 보기는 헌디 주로 {좋은 소 고르려면 뿔마디를 보기는 하는데 주로}

10336 #1 절물 놔 고를라며는 이빨 보고 다 압:니다. {젊은 것 고르려면은 이빨 보고 다 압니다.} @ 아 이빠레. {아, 이빨에}

10336 @ 이빠레 나이가 이쁘니 {이빨에 나이가 있으니} #1 인자 압:턴네 안턴네 전 늘건네. {이제 앞 텃네 저 늙었네.}

10336 #1 입입 이: 보고 압:따다. {입 입 이 보고 압디다.} @ 예~ 이빠를 바서요이~. {예, 이빨을 바서요.}

10337 @ 데썬니다. 그다메 엔:나레는 요 부:자드른 머스믈 두고 살지 아나썬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부자들은 머슴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1 그레쥬요. {그랬지요.}

10337 @ 머슴도 중:누가 이썬니까? 머 일 자라는 머슴도 이꼬 {머슴도 종류가 있습니까? 뭐 일 잘하는 머슴도 있고}

10337 #1 일 자라는 머스믈 상:모심 {일 잘하는 머슴은 상머슴.} @ 아

10337 #1 또 일 모:다고 또 그 감:살 떠 깔땀사리나 드러갈라든 꼬마둥이 {또 일 못하고 또 그 '깔땀사리'나('깔땀사리'는 꼴을 베는 일을 하는 작은 머슴) 들어가려면 꼬마둥이}

10337 @ 꼬마둥이요? {꼬마둥이요?} #1 {웃음} @ 아 고 까:리나 비:고 {그 꼴이나 베고} #1 야, 깔땀사리 헤:야텡께 꼬마둥이 {예, '깔땀사리' 해야 되니까 꼬마둥이}

10337 @ 머스믈 어떤 시그로 으르케 살:게 테나요? {머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살게 되나요?}

10337 #1 머스믈 폐냐 살며는 바비나 무꼬 소를 주로 마:니 {머슴은 내나 살면은 밥이나 먹고 소를 주로 많이}

10337 #1 농사질람 소:가꼬 마:니 움지기지요. {농사 지으려면 소 가지고 많이 움직이지요.}

10338 @ 예, 금게 머슴 살: 떼 고 어뜨게 그 사람 저 사람을 우리집 머스므로 해야데거따 그러면 게:야글 허나요? {예, 그러니까 머슴 살 때 그 어떻게 그 사람 저 사람을 우리집 머슴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약을 하나요?}

10338 #1 거시이 {거시기} #2 일년 계약글 헤:제. {일 년 계약을 하지.} #1 쥔 일년 세경을 치지라우. {저 일 년 새경을 치지요.} @ 세겨을 딱 어 {새경을 딱 어}

10338 #1 아 일너네 네가 살:며는 메썸 바꼬 드러간다경걸 나타날 거시야지라. {아, 일 년에 내가 살면은 몇 섬 받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났 뭐하지요.}

10338 #1 아 여 썬미면 여썸 가:사 열썬미면 열썸 그르케 바꼬 인자 드러가요. {아, 옛 섬이면 옛 섬 가령 열 섬이면 열 섬 그렇게 받고 이제 들어가요.} @ 음.

10338 #1 그람 인자 서:팔 금:날 그눔 차자가꼬 오고 미리서 엄:는 사라믈 가따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선달 그믐날 그것 찾아 가지고 오고 미리서 없는 사람은 가져다 쓰기도 하고} @ 음

10338 #2 엄:는 사라믈 선세경이로 다 가따 {없는 사람은 선세경으로 다 가져다} #1 선세금 마:니 가따 썬쥬. {선세경 많이 가져다 썬지.}

10338 @ 선세경이라 그럼니까? 미리 받능 거 {선세경이라 그럼니까? 미리 받는 것} #1 미리서 가져 웅 거이 선세경임다 {미리서 가져 온 것이 선세경입니다.} @ 아

10338 @ 다른 지방 제:가 조:사 헤 보니 볼 때 이렇 거또 이따고 그레요. 우리 썬 여서 썬 바끼로 허자. {다른 지방 제가 조사해 보니 볼 때 이런 것도 있다고 그레요. 우리 저 여섯 섬 받기로 하자.} #2 예

10338 #1 야달 썸 {여덟 썸} @ 여서썸 바짜 근디 아이 너무 자가서 안 한다고 {여섯 썸 받자 그런데 아니 너무 작아서 안 한다고,} #2 에

10338 #1 아 일꾸니 인자 판:사람 {아, 일꾼이 이제 판 사람} @ 에~ 아넌다 그러무는 {예 안 한다 그러면은} #1 더 준 디도 이꼬. {더 주는 데 있고} @ 딴 남 모르게 {더 남모르게} #2 에 @ 머스미 여러 명 이쓰면 {머슴이 여러 명 있으면} #2 그라지라우. {그러지요.}

10338 #1 겐 놈 모르게 인자 {그래 남모르게 이제} @ 모르게 또 {모르게 또} #1 우에로 준다 이거시여 (웃음) {덤으로('우에로'는 '그밖으로'의 뜻) 준다 이것이야.} @ 그런거또 이따 그러데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데요.} #1 우에로 준다 {'우에로' 준다} @ 에 #1 비:미리제 그거슨(웃음) {비밀이지 그것은} @ 예 야튼 그렁 거 드리보셔썸요. 그런 {예, 하여튼 그런 것 들어 보셨어요?} #1 그런 그런 사:라미 수니 이썸요. {그런 그런 사람이 흔히 있어요.} @ 어

10338 #1 그랑께 마으레서는 이러케 준 데 네가 네가 이러케 드리고 산: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내가 내가 이렇게 들이고 산다.} @ 네

10338 #1 근디 인잔 거 일 썸 쥐:나고 일꾸나고만 알:제 인자, 가으레 인자 비밀로. {그런데 이제 그 일 저 주인하고 일꾼하고만 알지 이제, 가을에 이제 비밀로.} @ 네 #1 더 주궁 갑따 하고 인자 그라고 살:지요. {더 주나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요.} @ (웃음) #2 (웃음)

10338 @ 그런 그걸 머:라고 허드라. 수문 세경이라고 허등가 먼 생강난능가 이르믈 이르믈 부르드라고요. 어 {그런 그걸 뭐라고 하더라. 숨은 새경이라고 하던가? 무슨, 생각났는가? 이름을 이름을 부르드라고요. 어.} #2 선세경 선세깁 {선새경 선새경} #2 선 선세경은 미리 {선 선새경은 미리}

10338 #1 처:메 가지가며는 {처음에 가져가면은} #2 그거뽀다 선세경이라 {그것보고 선새경이라} @ 네 #1 선수 선수를 바다와따 해서 {선수 선수를 받아 왔다고 해서} @ 네 #1 선세경 {선새경}

10338 @ 여 썸미면 한 세:썸 미리 받는 {옛 썸이면 한 세 썸 미리 받는} #1 미리 미리서 가져 온다 그라면 인자 가으레는 인자 엄마 안 데고 인자 {미리 미리서 가져 온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는 이제 얼마 안 되고 이제} #2 더 허망하제. {더 허망하지.}

10338 @ 일만 해:주고이~ {일만 해 주고} #2 예 일만 해:주고 제:미가 업:썸라. {예, 일만 해 주고 재미가 없지요.} #1 인자 그라고 마:니 함빠네 몬:차자웅께 재미가 업:제. {이제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못 찾아오니까 재미가 없지.}

10338 @ 또 이렇 그 처:으메 이러케 머스를 살기로 딱 하며는 {또 이렇 그 처음에 이렇게 머슴을 살기로 딱 하면은}

10338 @ 처:메 일하 하기사 하기 저네 게:야글 헐 때 술도 한 잔씩 데:접하고 머 그르케 해서 한다고 그러데요. {처음에 일하기 전에 계약을 할 때 술도 한 잔씩 대접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데요.}

10338 #1 마:니레 인자 살:러 오며는 그거이 기약 썸리나 다름업:썸.(웃음) {만일에 이제 살러 오면은 그것이 계약 술이나 다름없소.} @ (웃음)

10338 #1 살:러 오며는 인자 술 네:노키가 마려니제. {살러 오면은 이제 술 내놓기가 마련이지.} @ 예.

10338 #1 머단 사람드른 안 네논디다 허고 네:논 사람도 이꼬 그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내놓기도 하고 내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10339 @ 자기 논 바시 이쓰면 조:은데 엔나레는 그게 업:쌈 너무집 을 벌자나요이~. {자기 논밭이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그제 없으면 남의 집을 부치잖아요?} #2 에 #1 그러지요. {그렇지요.}

10339 @ 그 인자 그 머:라고 험니까? 그라고 나눈 나:중에 인자 농사 지스머는 바:느로 나눅니까? 아니면 머 어트케 나눅니까? {그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농사 지으려면 반으로 나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나눅니까?}

10339 #1 그 바:느로 나나요. 노무걸 쩌 지:머는 {그 반으로 나뉘요. 남의 것 지으려면} @ 예 #1 짜 반자기제 그거시. {이제 반작이지 그것이.}

10339 #1 반:트로 나누니까. 아 네가 노무걸 가따 지:니까 나만 무글쑈 읍::꼬 그랑께 그제 {반으로('반툼'은 '절반'의 뜻) 나누니까. 아, 내가 남의 것 가져다 지으니까 나만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제}

10339 #1 반:트는 주인 주고 반:트는 네가 무꼬 그레야지요. {반은 주인 주고 반은 내가 먹고 그레야지요.} @ 그 머:라고 저네는 머:라고 그레쑈니까? 그거슬? {그 뭐라고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10339 #1 그 반자작 {반작} @ 반 반:자작? {반작?}

10339 #1 반:툼 무꼬 반:트는 주고 {반 먹고 반은 주고} @ 예

10339 #1 정 마라자면 한 섬 무그면 이 낭반 항 가마니 주고 나는 톨 {즉 말하자면 한 섬 먹으면 이 양반 한 가마니 주고 나는 톨}

10339 #1 베끈 인자 항 가 항 가마니 주머는 네가 베끈 무꼬 그런 시기여. {백근 이제 한 가마니 주면은 내가 백근 먹고 그런 식이야.} @ 그러지요이~. {그렇지요.}

10339 @ 그 제 #1 그랑께 그거시 나나무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눠먹기요.} @ 나나무끼지요. 나나무끼데 그런 게 농사를 지으면 타:자글 안 허고 {나눠먹기지요. 나눠먹기인데 그런 그레 농사를 지으면 타작을 안 하고}

10339 @ 저 한 물, 무스로 무꺼두자나요. {저 한 못 못으로 묶어 두잖아요?} #1 무칼 그, 그 그거슨 무칼림. {못갈 그 그 그것은 못갈림} @ 무칼림 무칼리미 {못갈림 못갈림이} #1 무시로 나눈다해서 무칼리미제. {못으로 나눈다 해서 못갈림이지.} @ 그러쥬. 그런 마리 이 쩌요이~. {그렇지요. 그런 말이 있지요.}

10339 @ 그리고 타:작 헤: 가지고 인자 저기로 쌀:로 나누믄 {그리고 타작해 가지고 이제 저기로 쌀로 나누면} #1 또:까치 나나야지요. {똑같이 나눠야지요.} @ 고거슨 머:라감니까? 고거슨. {그것은 뭐라 합니까? 그것은?}

10339 #1 그 폐냐 그거또 또:가치 나능께 인잔 {그 내나 그것도 똑같이 나누니까 이제} #2 무칼림 {못갈림} @ 무칼림? 아니 고건 {못갈림? 아니 그건}

10339 @ 나 어려쥬 때 {나 어렸을 때} #1 무칼림 아니고 또:까치 나눈다해서 {못갈림 아니고 똑같이 나눈다 해서} @ 알갈리미라고 안 헤쥬요? {알갈림이라고 하잖았어요?} #2 알갈림? {알갈림?} #1 예? @ 알갈림 그런 말 안 드려보써쥬요? 알갈림 {알갈림 그런 말 안 들어 보셨어요? 알갈림?} #1 알가리가 아니고:: 또:까치 나눈다 해서 {알갈이가 아니고 똑같이 나눈다 해서}

10339 @ 아 무칼리미란 마리 이쥬쥬요. {아, 못갈림이란 말이 있었어요.} @ 아: #1 그 읍 #2 나나무끼보다는 무칼리미라가테요. {나눠먹기보고는 못갈림이라고 하테요.}

10339 #1 나라근 또:가치 나나니께 무시로 나누면 무칼리미고. {벼는 똑같이 나누니까 못

으로 나누면 못갈림이고} @ 은

10339 #1 나락그로 나누면 또:까치 나난다 해서 낭:꼬 그래쎄. {벼로 나누면 똑같이 나누다 해서 나누고 그랬어.} #2 멍 그렌다? 거시기 나라기로 나누면 무 무시나 거시기 나나무 끼나 또:까치 무갈림이제 먼: {뭐 그랬대요? 거시기 벼로 나누면 못이나 거시기 나눠먹기나 똑같이 못갈림이지 뭐} #1 아이 이

10339 #1 무시로 하며는 무다고 틀, 무다고 틀리제. 무갈리미 {못으로 하면은 못하고 못하고 다르지 못갈림이.} #2 아이고인. {아이고} @ (웃음)

10339 #1 나라근 인자 나락떼로 나누님께 인자 또:까치 나나지제. {벼는 이제 벼대로 나누니까 이제 똑같이 나눠지지} #2 나라가고 나라가고 똑 {벼하고 벼하고 똑} #1 그거또 무갈리밍가? {그것도 못갈림인가?} #2 그거또 무갈리미여. {그것도 못갈림이야.} #1 아이고 #2 나락 나나 무궁 거또 무갈리미여. {벼 나눠 먹는 것이 못갈림이야.} #1 당시니 몰라요. {당신이 몰라요.} #2 아이고메. {아이고} #! (웃음) #2 다: 가서 무러 바. {다 가서 물어 봐.} @ 네~

10339 @ 아마 그렇 거 가테요. 처:으메는 그냥 무스로 나눴: 건만 무갈리미라고 헨:는데 나중에는 그냥 나라그로 나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못으로 나누는 것만 못갈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벼로 나눠도}

10339 #2 그 무갈리미 {그 못갈림이} @ 무갈리미라고 쓴 거 가테요. {못갈림이라고 쓴 것 같아요.} #1 아야 그러케도 하고 또:가치 나난다고 그라제. {아아, 그렇게도 하고 똑같이 나눈다고 그러지.}

10339 #2 또:가치 나눴 게 무갈리미라 그라제. {똑같이 나누는 것이 못갈림이라 그러지.} #1 무갈리미라 {못갈림이라} @ 제:가 드른 {제가 들은} #1 나나무근다게서 무갈리미: {나눠 먹는다 해서 못갈림이} #2 그래. {그래.} @ 드룽 거는 {듣는 것은} #1 밤바:니 {반반이} @ 무갈리미 이꼬 알갈리미꼬 그러드라구요. {못갈림이 있고 알갈림이 있고 그러더라고 요.}

10339 #2 여그서는 알갈리미라고는 안 드러바쎄요. {여기서는 알갈림이라고는 안 들어봤어요.} @ 그런 말 안드, 안 쓰조? {그런 말 안 들 안 쓰지요?} #1 예. 알갈리미라고는 안 드러 바쎄. {예, 알갈림이라고는 안 들어 봤소.} @ 보:통은 나라그로 나눴니까? 무스로 나눴니까? {보통은 벼로 나눴니까 못으로 나눴니까?} #2 나라기로 난:쨌요. {벼로 나누지요.} #1 나라기로 마:니 난쨌요이~. {벼로 많이 나누지요.}

10339 #2 무시로 {못으로} #1 옴:나레는 무시로 안 나르고 {옛날에는 못으로 안 나누고} @ 다 타:작까지 헤:가꼬 나나 {다 타작까지 헤 가지고 나눠.} #2 예에 #1 안 무시로 나누면 무시 정:하지 아나고 {못으로 나누면 못이 일정하지 않고}

10339 @ 예 그러젠네요. {예, 그러쥬네요.} #1 그거이 암마네도 더 무꺼진 노미꼬 텔: 무꺼진 노미꼬 여 정:하지 아나고 {그것이 아무래도 더 묶어진 것이 있고 텔 묶어진 것이 있고 이 일정하지 않고} @ 예

10339 #1 또 나라그로 홀타서 나난다면 정:학하고 {또 벼로 타작해서 나눴다면 정확하고} @ 그러젠네요. {그러쥬네요.}

10339 #1 그니로 떠서 향?까 {근으로 떠서 하니까} #2 그랑게 무갈리미여 나나 무근 거이. {그러니까 못갈림이야 나눠 먹는 것이.} @ 네 #2 밤바트른 {반 받은} #1 나락 나락 그 그 마리나 그 마리나 또:까테. {벼 벼 그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아.} @ 네 그러쥬니다. {예, 그렇습니다.}

10340 #1 그거이 무갈림 {그것이 못갈림} @ 푸마시 이야기를 쫓 하선는데 언:제 푸마시를 주로 마:니 합니까? 머: 머:할 때? {품앗이 이야기를 쫓 하셨는데 언제 품앗이를 주로 많이 합니까? 뭐 뭐 할 때?}

10340 #2 모숭굴 때 마:니 하지요. {모 심을 때 많이 하지요.} @ 모숭굴 때. {모 심을 때} #1 주로 모숭굴 때도 마:니 하고 모짜리할 때는 시방잉께 마:니 또 피료한디 {주로 모 심을 때도 많이 하고 못자리할 때는 지금이니까 많이 또 필요한데}

10340 #1 모짜리할 때는 벨로 거시기 아나요. 모짜리 한자 모:달테면 {못자리할 때는 별로 거시기 안 하오. 못자리 혼자 못 할 테면}

10340 #1 또 푸마시도 하고. 엔:나레는 양파를 마:니 헤:쓰니까 {또 품앗이도 하고. 옛날에는 못자리를 많이 했으니까.}

10340 #2 거시기헤:요. 모숭굴때가 질:로 푸마시 {뭐 해요. 모 심을 때가 제일 품앗이} #1 모숭굴 때가 질:로 마:니 드리가지요이~. {모 심을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2 노비 마:니 드리가 {일꾼이 많이 들어가.}

10340 #1 또 지심멜 때도 그라고 {또 김멜 때} #2 한 달:레:: 모숭거요. {한 달 내내 모 심어요.} @ 아 그러신다 그레찌요이~. {아, 그러신다 그랬지요.} #2 푸마시 해서 이너꼴 {품앗이 해서 자기 것}

10340 #1 엔:나레는 차말로 한 달 승군단 말 나:써. {옛날에는 정말로 한 달 심는다는 말 났어.} #2 한 달 승군다게써. {한 달 심는다고 했어.}

10340 @ 푸마시아 머 따로 돈 주능 거슨 업꼬 그냥 일:로 하니까이~ {품앗이야 뭐 따로 돈 주는 것은 없고 그냥 일로 하니까} #2 예예 #1 푸마시는 인자 서로 이잔 그 사람 데려다 부러쫌게 네:가 또 가실 가퍼야제. {품앗이는 이제 서로 이제 그 사람 데려다 부렸으니까 내가 또 가서 갚아야지.} @ 에

10340 @ 거 풍가푼다 그럼니까? {'품갚는다' 그럼니까?} #1 에 풍가푼다. {예, 품갚는다.} #2 풍가푼다 그러지요. {품갚는다 그러지요.} @ 에

10340 #2 엘:로 그 품: 나시를 주로 마:니 헤:써요. {오히려 그 품앗이를 주로 많이 했어요.} #1 그랑께 날짜를 다: 거시게야제. 썸 안 옥씨게 또 {그러니까 날짜를 다 뭐해야지. 저 안 겹치게 또} @ 근테 누구 꺼슬 먼저 헤:주고 나:중에 고거또 쫌 그러건네요. {그런데 누구 것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그것도 쫌 그러겠네요.}

10340 #1 아니 그라니까 안 강알치게 다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안 겹치게 다 하지요.} @ 먼저 헤:중 거시 조:코 {먼저 해 주는 것이 좋고} #2 그러지요. {그렇지요.} @ 한 달 먼저 그 동아네 마:니 커부러건넌디 여거이. {한 달 먼저 그 동안에 많이 커 버렸겠는데 이것 이.}

10340 #1 그러제이(웃음) {그렇지.} #2 그랑께 서로 먼저 바들라가지요 날짜를. {그러니까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하지요 날짜를.}

10340 @ 그러니까요이~ {그러니까요.} #1 날짜를 서로 머냐 바꼬 {날짜를 서로 먼저 받고} #2 그렇게 엔:나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1 네가 모냐 할라고 예:를 쓰제 또. {내가 먼저 하려고 애를 쓰지 또.} #2 저니게라고 두러노:쓰머는 막: 노버드러 텅이니라고 고:싸쓰기양 {저녁에 이렇게 들어누워 있으면 막 눕 얻으러 다니느라고 고살에서 그냥}

10340 #2 두신두신두신나고 야다니요 그라만, 얼릉 나가서 나를 바더야 이너기 나를 천:신 하제 그라나면 다: 바더부리요 몬저 나를. {두런두런두런하고('두신두신'은 '두런두런'의 뜻) 야단이요. 그러면 얼른 나가서 날을 받아야 자기가 날을 차지하지('천신하다'는 '자기 몫으로

차지를 하다'의 뜻) 그렇지 않으면 다 받아 버려요 먼저 날을.}

10340 @ 응: #1 그러면 느껴바꼬 그러니까 {그러면 늦게 받고 그러니까} #2 그러든 기양
성가시제 인자 노비 다 해갈려부러요. {그러면 그냥 성가시지 이제. 뎡이 다 헛갈려 버려
요.} @ 어 #2 거:리 몬저 다: 가불고 {그리 먼저 다 가 버리고} @ (웃음) #2 한 지베 하
래만 승글 쭈 업:쑹께요. {한 집에 하루만 심을 수 없으니까요.}

10340 #2 하래 두: 집또 승근 지비꼬 석: 쩌또 승근 지비꼬 그란디 {하루에 두 집도 심는
집이 있고 세 집도 심는 집이 있고 그러는데}

10340 #2 노비 몬저 기양 마쳐부먼 그 지비로 다 가불께 노비 자:거가꼬 {뎡이 먼저 그냥
맞춰 버리면 그 집으로 다 가 버리니까 뎡이 작아 가지고} @ 음 #2 막 해베고 텅기제. {막
해매고('해베다'는 '해매다'의 뜻) 다니지.} @ 음 #2 공께 얼릉 날도 바더야쑤요. {그러니까
얼른 날도 받아야 돼요.} @ 음

10340 #2 (웃음) 그래야 뎡 천:시늘 하제 고르게. {그래야 뎡 차지를 하지 고르게.}

10340 @ 노븐 푸마시가 아니고 노븐 싸글 주자나요? {뎡은 품앗이가 아니고 뎡은 싸을 주
잖아요?} #2 안 주지요. 페냐 {안 주지요, 내나.} #1 푸마시하며는 서로: {품앗이하면은 서
로} @ 푸마시 한 사람보고 노비라 그래요? {품앗이하는 사람보고 뎡이라 그래요?} #2 예
10340 @ 아 #2 그 푸마시 한 사람보다 노비라 해:요. {그 품앗이 하는 사람보고 뎡이라고
해요.}

10340 @ 아 #1 페야 노비제. 그 날 이자 {내나 뎡이지. 그 날 이제}

10340 #1 저 부리니까 노비제. {저 부리니까 뎡이지.}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40 @ 저:는 노버든다 그러든 줌 그 돈: 주고 사람 살 때 그 보듬 노버든다 우리 고향
에서는 그래똥 걸 까튼데 여기는 {저는 뎡 얻는다 그러면 줌 그 돈 주고 사람 살 때 그것보
고 뎡 얻는다 우리 고향에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1 아 여그도 그러기는 그래요.
또 {아, 여기도 그러기는 그래요 또.}

10340 #1 거 벨또로 벨또로 {그 별도로 별도로} #2 푸마시 항거이 {품앗이 하는 것이} @
푸마시 하는 {품앗이 하는} #1 푸마시도 하고 {품앗이도 하고}

10340 #2 그거뿐다도 노버든다가고 돈중 거또 노버든다가고 {그것보고도 뎡 얻는다고 하
고 돈 주는 것도 뎡 얻는다고 하고} @ 노버든다가고 아 다 쓰는구뇨. 예. {뎡 얻는다고.
아, 다 쓰는군요. 예.}

10340 #2 또 싸 썬다고 그러지요 거시기, 저 돈 준다능 거슨 {또 샀 샀 산다고 그러지요.
거시기 저 돈 준다는 것은} #1 그 인자 저: {그 이제 저} @ 싸 썬다고? {샀 산다고.} #1
벨또로 인자 싸 싸로 간다고 {별로로 이제 샀 사러 간다고.} @ 아 싸 썬다고이~ {아, 샀
산다고} #2 싸 산다고 {샀 산다고.}

10340 #1 도느로 주니까 {돈으로 주니까.} @ 그런 뜨스로 쓰이고 이꾸노이~. {그런 뜻으
로 쓰이고 있군요.} #2 예 #1 품싸 산다고 {품샀 산다고.} @ 음

10341 @ 그 다오메 푸마시를 허거나 머 싸글 사거나 사:람 세:끼 밥 주고 또 중간중가네
도 간식또 주고 그래야데자나요이~. {그 다음에 품앗이를 하거나 뭐 샀을 사거나 사람 세
끼니 밥 주고 또 중간 중간에도 간식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10340 #1 아 그러제. 저 오:저네 {아, 그러지. 저 오전에} @ 머슬 마:니 줍니까? 주로?
{뭘 많이 줍니까 주로.} #1 오:저네 세:꼐 쭈고 {오전에 곁두리 주고} @ 예 #2 오:저넨 밥
페냐 밥 쭈제. {오전엔 밥 내나 밥 주지.} #1 페냐 바비고 {내나 밥이고} #2 아치메 {아침
에} @ 예

10341 #2 아치메 세:꼐 밥 주고 {아침에 결두리 밥 주고} #1 아직세 세 {아침 때 세} #2 또 나:제도 밥 주고 정:때 세:도 인자 밥 쫄라면 밥 주고 다른 것 인자 간:식 해다 {또 낮에도 밥 주고 점심 때 사이에도 이제 밥 주려면 밥 주고 다른 것 이제 간식 해다} #1 주 주 주 죽 쏘다 주면 죽 쏘다 주고 {죽 썬다 주면 죽 썬다 주고} #2 죽쏘다 주면 죽쏘다 주고 {죽 썬다 주면 죽 썬다 주고}

10341 #2 글고 또 저녁까장 해:주지라. {그리고 또 저녁까지 해 주지요.} @ 네: 번? 아치른 자기 지베서 머꼬오고 {네 번? 아침은 자기집에서 먹고 오고?} #1 그러지요. {그러지요.} #2 아니요. 아침 안 무꼬 오고 {아니요. 아침 안 먹고 오고}

10341 #1 세:꺼시로 목제. {결두리로 먹지.} @ 아 세:꺼시로 {아, 결두리로.} #2 세:꺼시로 일찍 먹지요. {결두리로 일찍 먹지요.} #1 아 무꼬 온 사람도 이제 더러. {이 먹고 오는 사람도 있지 더러.} @ 세:꼐 먹찌 점심 무찌 또 세:꼐 먹찌 {결두리 먹찌 점심 먹찌 또 결두리 먹찌} #1 거 저녁 {그 저녁} @ 네: 번 체려 주네요이~ {네 번 차려 주네요.} #2 예 10341 @ 그러면 네: 버늘 다: 바브로 머글 쭈도 이꼬? {그러면 네 번을 다 밥으로 먹을 수도 있고} #1 그러지요. 어 인자 그러케 한 사 {그러지요. 어 이제 그렇게 한 사} #2 술, 주로 수리고 {술, 주로 술이고} @ 수리고 {술이고} #2 예

10341 #1 술 마:니 인제 술 잡쑤 낱반드른 수를 마:니 세:꼐 가따주고 {술 많이 이제 술 잡수는 분들은 술을 많이 결두리 가져다 주고} #1 쓰 암만해도 수를 마:니 자시고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고} @ 에

10341 @ 그 다음에 머 특빠라게 무슨 감자를 찢다등가 머 그런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무슨 고구마를 삶는다든지 뭐 그런} #2 그른 그릉 거슨 벨로 아네요. {그런 그런 것은 별로 안 해요.} @ 업:써썬요? {없었어요?} #2 예 @ 아

10341 @ 요세도 그릉 건 이썬니까? 세:꼐? {요세도 그런 것 있습니까 결두리?} #2 요세는 세:꼐 이썬요. {요세는 결두리 있지요.} #1 요세도 저 {요세도 저} #2 요세도 이:라든 국쑤가통 거 {요세도 일하면 국수 같은 것}

10341 #2 감자 가통 거. {감자 같은 것} #1 요세도 저 엔:날가트면 지심메로 가머는 세:꼐 다 해:주고 {요세도 저 옛날 같으면 김매러 가머는 결두리 다 해 주고}

10341 @ 예 #1 그라고 저녁게 요세는 풍장 한다고 또 풍장도 마:니 하고 {웃음} {그리고 저녁에 요세는 '풍장한다'고('풍장'은 '호미씻이'의 방언) 또 '풍장'도 많이 하고} @ 아

10341 @ 에 요세는 커:피도 마:니 타고 {예, 요세는 커피도 많이 타고} #2 예. 커:피도 마:니 타고. {예 커피도 많이 타고} @ 에 수리 술보다 {술 술보다} #1 아 시방잉게 그라제 그 때는 커:피가 어디가 이쏘? {아, 지금이니까 그러지 그때는 커피가 어디에 있소?} #2 지 그믄 커:피가 어:디 가도 처썰예요. {지금은 커피가 어디를 가도 처썰예요.} @ 그러치요이~. {그렇지요.} #1 아 시방은 커피가 인사인데 {지금은 커피가 인사인데}

10341 #2 해:가네** {회관에} #1 그때는 커피가 업썬요. {그때는 커피가 없어요.} @ 엔: 나레는 그러코 지금? {옛날에는 그렇고 지금?}

10341 #1 에 지그믄 {예, 지금은} @ 커:피드를 시고레서 다: 머꼬 {커피들을 시골에서 다 먹고} #1 그러지요. {그렇지요.} #2 이 우리 화:가네는 커:피를 커:피를 서름 멍이먼 서름 멍이 수무멍이먼 수무멍이 하레머는 {이 우리 회관에는 커피를 커피를 서름 멍이먼 서름 멍이 스무 멍이먼 스무 멍이 하루면은} @ 오:메 {아이고}

10341 #1 겹:또 안나요. {겹도 안 나요.} #2 커:피 아조 그랑께 여그 인자 이녁 거시기드리 {커피 아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기시기들이}

10341 #1 추:격뜨리 인자 게로네가꼬 산: 사람 쩌 객찌에 산: 사람드리 돈: 벌고 돈: 만: 썩 번:사람드리 요리 막 통이로 뽕쓰로 사 오지요. {'취객'들이('취객'은 결혼해서 객지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결혼해 가지고 사는 사람 저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돈 벌고 돈 많이썩 번 사람들이 이리 막 통으로 박스로 사 오지요.}

10341 #1 그 야달 야달 뽕쓰 된 노물 한 통이로 요로코 뽕쓰로 한나썩 사와요. {그 여덟 여덟 박스로 된 것을 한 통으로 이렇게 박스로 하나썩 사 와요.} #1 박쓰로 사와요. {박스로 사 와요.} #2 박쓰로 사와요. {박스로 사 와요.}

10341 #1 우리 마을 가치로 거시기 하는디가 업썩. {우리 마을같이 뭐 하는 곳 없소.} @ 아 공께 요거 커:피 믹쓰 텡 거 고걸 먹, 지금 말쓰마신 거 {아, 그러니까 이것 커피믹스 돼 있는 것 그걸 먹 지금 말씀하신 것} #2 예예 #1 장: 거. 이레용. {긴 것. 일회용.} #2 봉다리 텡 거 {봉지('봉다리'는 '봉지'의 방언) 돼 있는 것.}@ 아 고건 비싼디 또 {아, 그것 비싼데 또} #2 봉다리 텡거 그거 {봉지 돼 있는 것 그것} #2 그 이레용 {그 일회용} #2 베게 짜리 {백 개들이} @ 어

10341 #1 고놈 야달 {그것 여덟} #1 어어, 자모시아. {잠옷이야.} #2 야달 뽕쓰썩 사아덜 {여덟 박스썩 사 와들.} #2 그레노면 그레도 머 언:제 무근지 모르게 딱 무거부. 또 마으레서 또 돈 오:쳐닐썩 마:닐썩 거더가꼬 또 사서 무꼬. {그래 놓으면 그레도 뭐 언제 먹는지 모르게 딱 먹어 버려. 또 마을에서 또 돈 오천 원썩 만원 썩 걸어 가지고 또 사서 먹고.}@ 음.

10341 #1 수가 마:느니까 또 그 돈도 {수가 많으니까 또 그 돈도} #2 잠잔 자면 쓰건네. {잠만 자면 되겠네.} @(웃음) @ 자 여기까지 하시 쉬실 겐썩니다. 아이 수고 하셔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겠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1 쩌 쪼간 쉬:게라우? {저 조금 쉴까요?}

1.5. 식생활

1.5.1 채소 재배와 요리

10501 @2 에 선생님 여기서부터 해야 됴, {예 선생님, 여기서부터 해야 됴} @ 식생활 {식생활} @2 식생활부터? {식생활부터} @ 에

10501 @ 어디 인제 식생활: 전 에 {어디 이제 식생활 저 예}

10501 @ 요건 어:르신보다 해 한 한 {이것은 어르신보다 해 한 한} @2 저네 선생님 여기 쫓 하다가 마라썰,꺼드뇨? {전에 선생님 여기 쫓 하다가 말았습, 거든요?} @ 아 그러네. {아, 그러네.} @2 예 @ 어~. 다시 함 번 해. 시작 다시 시작 해 . {응, 다시 한 번 해. 시작 다시 시작해.} @2 예

10501 @2 예 여기 식생활인데요. 저:네 함 번 저이 이거 예:기 해:썬는데 {예, 여기 식생활인데요. 전에 한 번 저희 이것 얘기 했었는데.}

10501 @2 다시 예:기 좀 해볼려구요. {다시 얘기 좀 해 보려고요.} @ 그 때 저 어르신 하라버지 저기 테원 하셔썬 때. {그때 저 어르신 할아버지 저기 퇴원하셨을 때} #2 예에 @2 그날 {그 날}

10501 @2 그: 여기: 바테서 노네서는 벼 기르시고 {그 여기 밭에서 논에서는 벼 기르시고,} #2 응 @2 바테서는 어떤 채소 가꾸셔썬요? {밭에서는 어떤 채소 가꾸셨어요?}

10501 #2 페냐 베:추아고 {내나 배추하고} @ 예

10501 #2 저런 무이, 무:아고 {저런 무. 무하고,} @ 예

10501 #2 마늘 {마늘} @ 여그서는 지그른 무:라거지만 엔:나레는 머, 머이나면 {여기서는 지금은 '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뭐냐면} #2 무수라게제. 무수. {'무수'라고 했지. '무수'}

10501 @ 무수라고 해:썬니까? 예 {'무수'라고 했습니까? 예?} #2 무수아고 베:추아고 {무하고 배추하고} @ 예

10501 #2 또 거시기 마느라고 파아고 {또 뭐 마늘하고 파하고,} @2 예

10501 #2 겐 시금추아고 {그 시금치하고,} @ 시금추 {시금치} #2 상추아고 {상추하고} @2 예

10502 #2 그릉거슬 마:니 해:비제 여그는. {그런 것을 많이 했지 여기는.} @2 그 다으메 여르메 또? {그 다음에 여름에 또,}

10502 @2 머 하능 거 또 여르메 반차해 명는 겐 {뭐 하는 것 또 여름에 반찬해 먹는 것,} @ 채:소는 게저레 따라 다르지 안나요? {채소는 계절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10502 #2 그러지요. {그렇지요.} @ 보메는 머 어떻 게 이꼬 머 {봄에는 뭐 어떤 것이 있고 뭐}

10502 #2 보메는 인자 상추가통 겐 {봄에는 이제 상추 같은 것.} @2 예

10502 #2 그릉 거 주로 시금추 가통 겐 그거시 주로 저기허제. {그런 것 주로 시금치 같은 것 그것이 주로 저기 하지.}

10502 @2 여르메느뇨? {여름에는요?} #2 여르메는? 여르메는 벨로 전 저기허제. {여름에

는? 여름에는 별로 저 저기 하지.}

10502 #2 여름 반찬년 상추는 벨라 읍스, 저 저런 디 가서 절 {여름 반찬은 상추는 별로 없으, 저 저런 데 가서 저}

10502 #2 머:식 한디가선자 하우스에다 한 사라미나 마, 주로 허제 여런 디서는 벨로 상추는 마:니 아네. {뭐 하는 데 가서 이제 하우스에다 하는 사람이나 주로 하지 이런 데서는 별로 상추는 많이 안 해.} @ 네

10502 #2 페냐 저기 허제. {내나 저기 하지.} @ 호:박 까통 거 여르메 하자나요 {호박 같은 것 여름에 하잖아요?} #2 호:박 이꼬 까:주 이꼬. {호박 있고 가지 있고} @2 예, 까:지 이꼬 까:주 {가지 있고 가지}

10502 #2 여여 거시기 저저 {이이 뭐 저저} @ 여기는 까:주라고 해요? {여기는 '까주'라고 해요?} #2 까:지 {'까지'} @ 까:지 {'까지'} #2 예, 깔, 까:지아고 시금추 아니 저 거시기 {예, 가 가지하고 시금치 아니 저 뭐}

10502 #2 아까 네가 머이라갑단자? {아까 내가 뭐라고 합디까?('-읍딘자'는 '-읍디까'의 방언)} @ 호:박 {호박} #2 호:바 가고 {호박하고} @2 예

10502 #2 저런 뜯: 고추아고 {저런 또 고추하고} @ 예예 @2 네

10502 #2 저기 또 머이 {저기 또 뭐} @ 소:른 언:제 합니까? {부추는 언제 합니까?('솔'은 '부추'의 방언)} #2 솔: 솔: 솔:도 페냐 보메 해먹지요 보메. {부추, 부추, 부추도 내나 봄에 해먹지요, 봄에} @ 아 네.

10502 #2 예. 예:아고 @ 예:아고 #2 무레 {물외}@ 무레 {물외}

10502 #2 요세도 요세는 또 열무도 마 하지 안나요 여그서는 열무? {요세도 요세는 또 열무도 많이 하지 않나요?} # 요세는 열무가 아니라 절 저기 무: 하데요. 저저절 거 먼: 무: {요세는 열무가 아니라 저 저기 무 하데요. 저저저 그 무슨 무?}

10502 #2 초롱무. 초롱무가 시여씨, 초롱무. {초록무. 초록무가 ***. 초록무.} @ 초롱무요? {초록무요?} #2 예.

10502 #2 초롱무도 허고 암무도 허고. {초록무도 하고 '암무'도 하고} @2 아 #2 여 지비서 머금 거슨 암무 승거요. {이 집에서 먹는 것은 '암무' 먹어요.}

10502 @2 암무요? {'암무'요?} #2 예, 암무. {예, '암무'} @ 암무가 머예요? {'암무'가 뭐예요?} #2 암무수라고 이씨요. 이파리만 머금 겐. {'암무'라고 있어요. 이파리만 먹는 것.}

10502 @2 아 아 요 이러케 미테는 쫄:끔 하고 {아, 아 이 이렇게 밀은 조금 하고} #2 으응, 쫄:끔 하고 {으응, 조금 하고} @2 그거시 열무 아닝가요? {그것이 열무 아닝가요?} #2 그 페냐 열무제 페냐 그거시. 그거뽀다 암무라게 여그는. {그 내나 열무지 내나 그것이. 그것보고 '암무'라고 해 여기는.} @2 아 여기서는 암무라고 해요? {아, 여기서는 '암무'라고 해요?} @ 응 응

10502 @ 아 #2 페냐 열무제 페냐. 그에도 암무라고도 그거뽀다 그러고 {내나 열무지 내나. 그래도 '암무'라고도 그것보고 그러고} @ 암무라는 마를 쓰군요. 아:: {'암무'라는 말을 쓰는군요.} #2 예 열무란 마리 암무라고 해. {예, 열무라는 말이 '암무'라고 해.} @ 아 암근디 고:가 {아, 암 그런데 그것이.}

10502 @ 김치 담:짜나요? {김치 담그잖아요?} #2 예 @ 여르메? {여름에?} #2 예 @ 암무 김치~. {'암무' 김치} #2 예, 그거뽀다 페냐 열무라고 그래요? {예, 그것보고 내나 열무라고 그래요?} @2 예 금 초롱무는? {예, 그러면 초록무는?}

10502 #2 초롱무는 요로코 미시 드러씨. 요로코 요로코. {초록무는 이렇게 밀이 들었어.}

@2 그거 이러케 {그것 이러케} #2 똥그라케 {둥그랗게} @2 아 그거까치 다 김치 담꼬?
 {아, 그것까지 다 김치 담그고} #2 응

10502 @ 에 서울 사람들 거 알타리무시라 허 {예, 서울 사람들 그 알타리무라 하} #2 또
 알타리 무수 또 이썬. {또 알타리무 또 있어.} @ 아 #2 알타리 무수는 시야네 이썬. {알타
 리무는 겨울에 있지.} @ 아

@2 이러케 텅거 {이렇게 된 것.} #2 으~ 알타리 무수는 인자 요 가시레 시야네 그때가 이
 썬. {응, 알타리무는 이제 이 가을에 겨울에 그때에 있어.} @ 가시레 향 거시고? 여르 열
 보메 아이 여르메 하능게 초롱무라고 {가을에 하는 것이고? 여르 봄에 아니 여름에 하는 것
 이 초록무라고,} #2 예, 초롱무라고 하고 {예, 초록무라고 하고.} @2 금 저히 어제 반차네
 머거멍 거시 {그러면 저희 어제 반찬 해 먹었던 것이,}

10502 #2 그거슨 그거시 암 거시기 무수, 암무. {그것은 그것이 암 뽕 무, '암무'} @2
 아::: @ 아, 암무 {아, '암무'} #2 예

10502 #2 열무라장거. 검: 무수. {열무라고 하는 것. 그건 무.} @ 에 여기서는 암무라고
 그렇가보구나. {예, 여기서는 '암무'라고 그러나 보구나.} #2 예, 암무라고. {예, '암무'라고.}

10502 #2 그거뽏다 페나 열무라고도 허고 암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것보고 내나 열무라
 고도 하고 '암무'라고도 하고 그래요.} @ {웃음}

10502 @2 베:추도: 겨우레는 이러케 통 드러 인능 거 멩는데, 여르메는: {배추도 겨울에는
 이렇게 통 들어 있는 것 먹는데 여름에는,} #2 여르메는 전 거심 먼: 먼 무슌 먼: 베:추?
 {여름에는 저 뽕 무슨 무슨 무 무슨 배추?}

10502 #2 열가리 {열갈이} @2 에:: #2 그거뽏다 열가리라가드라고 폭 썰:칸 향거뽏다가.
 {그것보고 열갈이라고 하더라고. 포기 조그마한 것보고.} @2 에에 #2 열가리 베:추. {열갈
 이 배추.}

10502 @2 열가리 베:추는 다머도 마시뜨라구요. {열갈이 배추는 담가도 맛있더라고요.}
 #2 으~, 마시썬. 요새는 그거시 더 마시썬이~. {응, 맛있어. 요새는 그것이 더 맛있소.} @2
 에. 겨우레는 통배추 {예, 겨울에는 통배추.} #2 통배추가 마시꼬 {통배추가 맛있고,} @
 에. 가:꼬 {예, 그래 가지고}

10502 @ 열가리라능 거슨 머예요? 열가리? {열갈이라는 것은 뽕예요?} #2 거 폭 썰:칸
 향거뽏다 열가리라고. {그 포기 조그마한 것보고 열갈이라고.}

10502 #2 폭 찰자:랑거뽏다. 요새는 그거시 더 마시따가데요. {포기 자잘한 것보고. 요새는
 그것이 더 맛있다고 하데요.} @ 음 #2 열가리가 {열갈이가.} @2 예.

10502 @2 그 다옴에 마늘 가통 거또 가:시지요?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것도 가시지요?}
 #2 그러제. {그렇지.}

10502 @2 양념할라고 마늘도 가:시고 그레야 또 여르메 머 {양념 하려고 마늘도 가시고
 그레야 또 여름에 뽕,} #2 그러제 응, {그렇지 응} @2 반찬 할 때 {반찬 할 때} #2 찌거
 느코 그라제. {쪄어 넣고 그러지.}

10502 @2 마느라고 또 반찬 하실 때는 머:머 그 양념 하실 때는 머머 {마늘하고 또 반찬
 하실 때는 뽕 뽕 그 양념 하실 때는 뽕 뽕?} #2 양념 할 때, 마늘 느:코 고춧가리 느:코 껌
 느:코 {양념 할 때 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2 예.

10502 #2 거신 인제 소금치고 {뽕 이제 소금 치고} @ 에 #2 장:도 칠람 치고 {장도 치려
 면 치고} @2 에

10502 #2 거시기 썬 {뽕 저} @ 그렇 거 다 찌기서 거더가꼬 {그런 것 다 저기서 걸어 가

지고}

10502 #2 그러제. 바테서 거더가꼬 인자 해:나따가 그거까꼬 하제. {그러지. 밭에서 걷어가지고 이제 해 났다고 그것 가지고 하지.}

10502 @2 예. 깨도 저러케 말리시고 {예. 그래도 저렇게 말리시고,} #2 이~ 깨도 저러고 보아서 양념 느:코 {응, 깨도 저렇게 볶아서 양념 넣고} @2 예, #2 거시기 전 또 다마네기 썬:러 느:코. 반찬 혈라면. {뭐 저 또 양파('다마네기'는 '양파'의 일본말) 썰어 넣고, 반찬 하려면.} @ 네

10502 @2 농사도 진:나요? {농사도 짓나요?} #2 다마네기? {양파?} @2 예 #2 썰::끔 승거. {조금 심어.} @2 양념 하실라고? {양념 하시려고?} #2 우리 머글 롬 응, 양념 한다고. {우리 먹을 것, 응, 양념 한다고.}

10502 @2 어디:: 그러며는 아까 말:썸 하싱 거, 그 보메는 보메 나는 채:소들: 언:제 씨뿌려가꼬 어뜨게 {어디 그러면은 아까 말썸하신 것, 그 봄에는 봄에 나는 채소들 언제 씨 뿌려 가지고 어떻게?} #2 보메: 보메 머글 꺼슨 요 가시레 뿌레. {봄에 봄에 먹을 것은 이 가을에 뿌려.}

10502 @2 보메 머글 꺼느뇨? {봄에 먹을 것은요?} #2 예 #2 예, 주로 가시레 뿌리능 거슨 {예, 주로 가을에 뿌리는 것은} #2 시:올따레나 동지따레나 뿌레. {시월에나 동지달에나 뿌려.} @2 머:머를 그면 그때 뿌리시나? {뭐 뭐를 그러면 그때 뿌리시나?}

10502 #2 상추씨, 찌그 저 시금추 씨 {상추씨, 저기 저 시금치 씨.} @2 예.

10502 #2 가똥씨 {갓씨. ('갓동'은 '갓'의 방언)} @2 예, 갓 아 {예, 갓, 아.} #2 갓 {갓.} @2 예 #2 그렇 거 뿌레. {그런 것 뿌려.}

10502 #2 그라문 인자 보메 무거. {그러면 이제 봄에 먹어.} @2 보메요? {봄에요?} #2 응, 보메 빼레서 보메 무글라면 기냥 동 서부러. {응, 봄에 뿌려서 먹으려면 그냥 동 서 버려.} @2 아.

10502 #2 그렇게 시야네 뿌레서 그거시 조금 나야, 인자 그 놈 인자, 보메 무끼가 조:아, 오래 무거. {그러니까 겨울에 뿌려서 그것이 조금 나야 이제 그것 이제 봄에 먹기가 좋아, 오래 먹어.}

10502 @2 예 보메 며돌따레나 그림 그걸 멩나요? {예, 봄에 몇 월에나 그림 그걸 먹나요?} #2 인자 쏙 이삼사:위레 묵제~. {이제 이삼사 월에 먹지.} @ 에

10502 #2 고 노미~ 이:올 사모레 모도 그때 묵제. {그 이것이 이월 삼월에 모두 그때 먹지.} #2 시:월따레 뿌리며는? {시월에 뿌리면은} #2 응, 그래, 응. {응, 그래 응.} @2 이:월따레 ***. 글면 보메 뿌리능 거 보메 뿌리능 거슨? {이월에 ***. 그러면 봄에 뿌리는 것 봄에 뿌리는 것은?}

10502 #2 보메 뿌링 거슨, 페냐 보메도 인자 상추 빼리기는 빼리제. 그래도 인자 더 얼름 동 서부러. {봄에 뿌리는 것은, 내나 봄에도 이제 상추 뿌리기는 뿌리지.}

10502 @2 네. #2 시금추 가통 거 상치 가통 거. {시금치 같은 것 상추 같은 것.} @2 인제 봄 데면 반농사도 시자카시자나요? {이제 봄 되면 밭농사도 시작하시잖아요?} #2 그라제. {그렇지.}

10502 @2 머:덜 여기다 오래 하셔썬요? {뭐 뭘 여기다 오래 하셨어요?} #2 오렌: 머 항거 또 업썬. 깨아고 {올해 뭘 한 것도 없어. 깨하고,} @2 예. #2 들, 들께 인자 앵게노코. {들, 들께 이제 읊겨 놓고,}

10502 @2 들께요? {들께요?} #2 응 @2 예 #2 고추아고 {고추하고} @2 고추 하시고

{고추 하시고} #2 응, 찌질 머시기 호:박 {응, 저것 뭐 호박.} @2 에
10502 #2 까:지 {가지.} @2 에 #2 예: @2 에.
10502 #2 그렇 거 뿌니 업:씨. 저질 머여 토란. {그런 것밖에('뿐이'는 '밖에'의 뜻) 없어. 저 저 뭐야 토란.} @2 토란 하시고 {토란 하시고} #2 토라는 켜::깐 땀 뎀 나무 송거저씨. {토란은 조금 몇 그루('나무'는 '그루'의 뜻) 심어졌어.}
10502 #2 인자 나물 해:무근다고. {이제 나물 해 먹는다고.} @2 에, 다 씨만 이러케 딱 뿌리면 데능 거예요? {예, 다 씨만 이렇게 딱 뿌리면 되는 것이에요?} #2 씨만 뿌리자네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2(웃음) #2 쪼 그 모종을 헌당께. {저 그 모종을 한다니까.} #2 모종으로? {모종을요?} #2 응, 모중. {응, 모중.}
10502 #2 모종을 사다가 앵게. {모종을 사다가 옮겨.} @2 에. #2 그거슬 {그것을}
10502 @2 장에서 이러케 {장에서 이렇게} #2 으응, 장에서도 사고 여그 마으레서 인자 그거슬 부셔. 종자 사다가. {응, 장에서도 사고 여기 마을에서 이제 그것을 부어.} @2 에 #2 그람 거그서 사다 해. {그럼 거기서 사다 해.} @2 에 #2 이녀기 허자네. {자기가 하지.}
10502 #2 그 상추씨 가통 거슨 이녀기 뿌리고 종자 바다 나:따가 {그 상추씨 같은 것은 자기가 뿌리고 종자 받아 왔다가.} #2 상추, 시금치는 이러케 뿌리시고 나머지는 데 다: 어떤 거 그 {상추, 시금치는 이렇게 뿌리시고 나머지는 다 어떤 것 그}
10502 @2 그 고추나 {그 고추나} #2 고추도 {고추도} @2 모중, 모종으로 하능 거슨 멈: 명가요? {모중, 모종으로 하는 것은 뭐 뭔가요?} #2 모종으로 하능 거슨 고, 고추, {모종으로 하는 것은 고 고추.} @2 에
10502 #2 저런 웨: {저런 오이.} @2 에
10502 #2 쪼:그 저 호:박, 호:박또 야:튼 이넉쪼쪼 송굴라문 송구고, {저기 저 호박, 호박도 하여튼 자기 집에서 심으려면 심고,}
10502 @2 에 #2 안 송굴라문 인자 거시기 저 놈더리 종자 네:논 놈 어더다 송구고. {안 심으려면 아제 뭐 저 남들이 종자 내 놓은 것 얻어다 심고.}
10502 @2 에 #2 그러제 {그렇지.} @ 에 #2 웨:, 까:지, 호:박 저렁 거시길 머시길 {오이, 가지, 호박 저런 뭐 뭐}
10502 #2 들께, 토란 {들께 토란.} @2 들께는 {들께는} #2 토란페 {토란 줄기.} @2 그렇 거또 다 모종으로 해:요? 들께도? {그런 것도 다 모종으로 해요? 들께도?} #2 그라제. 모중 이로 하제. {그렇지. 모종으로 하지.}
10502 @에 #2 이녀기 씨 빠레. 빠레가꼬 나:면 고놈 웅:게. {자기가 씨 뿌려. 뿌려 가지고 나면 그것 옮겨.} @2 에, 다른데로 {예, 다른 곳으로.}
10502 #2 어~, 다른 데다 앵:게. {응, 다른 곳에다 옮겨.} @2 에. #2 그라면 인자 거그서 널: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열지.('널다'는 '열다'의 방언)}
10502 @2 토라는 토라는 {토란은 토란은} #2 토란 토라는 씨로 송구고. {토란 토란은 씨로 심고,} @2 씨: 이느를 그머는 어:트게 장녀네 {씨 이것을 어떻게 작년에?} #2 장년 해: 뜬 놈 딱 어:따 무더나. {작년 했던 것 딱 어디에다 묻어 놔.}
10502 @2 땅소게다가요? {땅속에다가요?} #2 으~, 땅소게다 무더 놀라면 무더노코 어:디 {응, 땅속에다 묻어 놓으려면 묻어 놓고 어디}
10502 #2 박스에다가 흑 따머서 무더나따가 송구고. {박스에다가 흙 담아서 묻어 왔다가 심고,} @2 에.

10502 #2 써거불고 읍:쓰면 또 사다 송구고.(웃음) {썩어 버리고 없으면 또 사다 심고.}

10502 @2 에 그레가지고 보메 {예, 그레 가지고 봄에} #2 보메 인자 먹제. {봄에 이제 먹지.}

10502 @2 예. #2 요새 먹제. {요새 먹지.} @2 예, 보메 해: 노으시면 인제 {예, 봄에 해놓으시면 이제} #2 먹제. {먹지.}

10502 #2 보메 송거가꼬 요새 인자 끄느제. {봄에 심어 가지고 요새 이제 끊지.}

10502 #2 끄너서 인자 말려가꼬 베게가꼬 인자, 말려서 인자, 고놈 당, 쌀마가꼬 {끓어서 이제 말려 가지고 벗겨 가지고 이제 말려서 이제 그것 담, 삶아 가지고} @2 예

10502 #2 당가따가 나물 해: 묵제. {담갔다가 나물 해 먹지.} @2 예. #2 거그다 나물 할 때 들깨까리 치고 {거기다 나물 할 때 들깨 가루 치고}

10502 #2 모도 꿔: 양념 지름 곧 다:: 치고 인자 만들제. 그래서 먹제. {모두 깨 양념 기름 다 치고 이제 만들지. 그래서 먹지.} @2 여르메는 여르메 또 송구능 거 이쓰 이쓰싱가요? 여르메? {여름에는 여름에 또 심는 것 있으 있으시나요? 여름에?}

10502 #2 머 여르메는 먼: {뭐 여름에는 무슨}

10502 #2 요새는 벨: 저기해. 무시, 무시나 뭘 {요새는 별 저기해. 무 무나 무슨} @2 지금 인자 곧 하실 때 데쪼? {지금 이제 곧 하실 때 됐지요?} #2 으~? 으~, 곧 인자 하제. {응? 응, 곧 이제 하지.} @2 예.

10502 #2 인자 무수 송:제. {이제 무 심지.} @2 무수 송거요? {무 심어요?} #2 으~, 겐 에무수, {응, 그 일본무.('외무수'는 '일본무'의 뜻)} @2 에무수. 에무수라고 {일본무, 일본무라고.} #2 찌드런: 항 거 이썬. {기다란(찌드런하다'는 '기다랗다'의 방언) 것 있어.} @2 아 흑씨 그 {아, 흑시 그}

10502 #2 다짱무 마니로 지드런 해. {단무지무처럼('다짱'은 '단무지'의 일본) 기다래.} @2 아 여그서도 그거 시므세요. {아, 여기서도 그것 심으세요?} #2 예 시므제. 그레가꼬 그거가꼬 한지 다며. {예, 심지. 그레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지' 담아.} #2 한:지요? {'한지'요?} #2 흐:가니 거 백찌. {하얗게 그 백김치.}

10502 @2 에 #2 그 큰:: 끌텅이로 해서 거 항아리에 다뭍뭍자. 물로. {그 큰 뿌리로 해서 그 항아리에 담그잖습니까? 물로?} @2 에 #2 그거. {그것} @2 아, 그거를 끓여는 그거가 싱건지아고 다름 거예요? {아, 그것을 그러면은 그것이 물김치하고('싱건지'는 '물김치'의 방언) 다른 것이예요?} #2 그거 싱건지. {그것이 물김치.}

10502 #2 아 근데 이렇 거 이리케 얹봉 거 이렇 걸로 다무세요? (아, 그런데 이런 것 이렇게 얹은 것 이런 것으로 담그세요?) @2 응 #2 그거트 {그것} @2 이리케 이리케 생긴 통통한 무 {이렇게 이렇게 생긴 통통한 무} @ 조선무시 {조선무} #2 통통 저 조선무수는 더 뽕뜨게. {통통 저 조선무는 더 특특해.} @2 에

10502 #2 더 딱딱 하고, 여 에무수는 더 사근사근 하고 그레. 김치 다머노문 {더 딱딱하고 이 일본무는 더 사근사근하고 그레. 김치 담가 놓으면은.} @2 에 #2 그랑게 {그러니까} @2 그러며는 {그러면은}

10502 @2 그거또 지금 심:쪼? 조선무시도? {그것도 지금 심지요? 조선무도?} #2 인자 쯔 이따 송:제. {이제 쯔 이따가 심지.} @2 에 파롤파리면 {예, 팔 월이면} #2 으~, 파롤파레 송:거. {응, 팔 월에 심어.}

10502 @2 지금 또: 김장꺼리 할 꺼 지금 심나요? {지금 또 김장거리 할 것 지금 심나요?} #2 아니, 토음 더 이따가 {아니, 조금 더 이따가.} @2 아, 며돌파레나 김장꺼리 하며는

{아, 몇 월에나 김장 거리 하먼은}

10502 #2 며칠따가 아니라 곧 송거. {몇 월이 아니라 곧 심어.} @2 그조. {그렇지요.} #2 응 저저 거 하:지는, 하지? 하:지 말고 거 머이요? {응, 저저 그 하지는, 하지? 하지 } 말고 그 뭐예요?}

10502 #2 거 먼: 채:수 아니 저 {그 뭐 '채수' 아니 저} @2 처:서? {처서?} #2 처:서 처:서: 그 언더리 송거. {처서, 처서 그 부근에('언더리'는 '부근'이나 '근처'의 뜻) 심어.} @2 처:서 근:더리에 심:능 거시 인제 김장 때 쓰실라고 {처서 그 부근에 심는 것이 이제 김장 때 쓰시려고?} #2 예, 김장 때 쓸 꺼. {예, 김장 때 쓸 것.}

10502 @2 예. #2 배:추는 그 아:네 쫘 송, 웅기고. {배추는 그 안에 쫘 심, 웅기고,} @2 처:서 처:서 {처서, 처서.} #2 처:서 아:네 웅기고 {처서 안에 웅기고,}

10502 @2 웅기고 {웅기고,} #2 무시는 처:서 너무먼 앵, 송구고 {무는 처서 넘으면 웅, 심고,} @2 예, #2 머글 로문. 그라고 또 팔 싸람드른 처:서 아:네 송구고 그레요. {먹을 것은. 그리고 또 팔 사람들은 처서 안에 심고 그레요.} @2 더 빨리: {더 빨리?} #2 이~ 더 빨리 송구고. {응, 더 빨리 심고,}

10502 @2 그러케 하고, 가으레도 심능 게 아까치메 시월따레 심능 거 인제, 그 보메 잡쭈 실라고 {그렇게 하고, 가을에도 심는 것이 아까('아까침'은 '아까참'의 방언으로서 '아까'와 같은 뜻) 시월에 심는 것 이제,}

10502 @2 그거슨 마늘. {그것은 마늘} @2 마늘. 아, 마늘도 {마늘, 아 마늘도,} #2 마늘 {마늘}

10502 #2 파: 가통 거 {파 같은 것.} @2 마느라고 파:아고 {마늘하고 파하고,} #2 응응 @2 예 그 다메 아까 양파도 쪼끔 그때 시무:시나요? 양 {예, 그 다음에 아까 양파도 조금 그때 심으시나요?}

10502 #2 그라제. 양파도 응 동 시:월따레 송거. {그렇지. 양파도 응 동 시 월에 심어.}

10502 @2 양파도 그때 시므 {양파도 그 때 심으} #2 이~ {응} @2 마늘도 그 정도 갈:시, 가:시조? {마늘도 그 정도 갈, 가시지요?} #2 응 그라제. 마늘도 그때 갈:제. {응, 그렇지. 마늘도 그때 갈지.} @2 예

10502 #2 마늘:도 곧 엄:마 아이쓰면 파릴, 파릴 구:열 시:올 동지팔 그 언:더리 송거라. 시:월따레나. {마늘도 곧 얼마 안 있으면 팔월, 구월, 시월, 동짓달 그 부근에 심어요, 시월 에나.}

10502 #2 느게 송거도 켜자나고 일찍 송거, 무단 사라문 파릴 따레도 송구데요. 마늘. {늦게 심어도 괜창고 일찍 심어, 어떤 사람은 팔월에도 심데요, 마늘.} @2 아 그러머는 어:트케 데요? {아, 그러머는 어떻게 돼요?}

10502 #2 그라문 인자 그거 인자 보메 인자 케제, 여르메. {그러면 이제 그것 이제 봄에 이제 캐지, 여름에.} @2 여르메요? 아니 빨리 파롤따레 시머도 여르메 케고 {여름에요? 아니, 빨리 팔월에 심어도 여름에 캐고,} #2 예 그레. {예, 그레.} @2(웃음) #2 그거시 일찍 송근 사라미 이꼬 느게 송근 사라미 이꼬 그레라. {그것이 일찍 심는 사람이 있고 늦게 심는 사람이 있고 그레요.} @2 예

10503 @2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나온 채:소들 음식: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나온 채소들 음식}

10503 @2 보미른 먼: 해:잡쭈시고 그렇 거 예:기 쫘 해:주셔쓰면 조켄는데. 할아버지 잘 잡쭈세요, 음식? {봄이면 뭐 해 잡쭈시고 그런 것 애기 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잘 잡수세요? 음식?)

10503 #2 잘 잡쭈제. {잘 잡수지.} @2 머: 조아하세요, 보메는? 머: 헤드리면 {뭐 좋아하세요 봄에는? 뭐 해 드리면?} #2 페냐 상추지 가통 거 {내나 상추 김치 같은 것.} @2 에 @ 이렇게 저렇게 머:냐, 체:소가꼬야제, 베:추면 베:추가꼬는 뭘: 하시능가? 그러케 아 여쭈에 {이렇게 저렇게 뭘냐 채소 가지고 이제 배추면 배추 가지고는 뭘 하시나? 그렇게 아 여쭈.} @2 베:추로요? {웃음} {배추로요?}

10503 #2 베:추는 베:추지만, 베:추지 담:쎄. 가시: 으~, 시야네. {배추는 배추김치만, 배추김치 담그지. 가을 응, 겨울에.} @2 시야네. {겨울에} #2 이~.

10503 @2 아 #2 시야네 다머가꼬 여여 여름 여 하:나고 무꼬 인잔 또 인잔 또 짐체 다무도록까장 무거야제 베:추. {겨울에 담가 가지고 이이 여름 이 계속 먹고('한하고'는 '계속'의 뜻) 이제 또 이제 또 김치 담그도록까지 먹어야지 배추.} @2 예 베:추로? {예, 배추로?} #2 으~, 베:추지. {응, 배추김치.} @2 에

10503 #2 무수지도 {무김치도.} @2 제::일 마:니 쓰시조? {제일 많이 쓰시지요?} #2 그라제. 제:일 마:니 쓰제, 베:추지가. {그렇지. 제일 많이 쓰지, 배추김치가.} @2 그 다으메 또 그 다으메 저기 김장 하실 때도 베:추지 다물 때도 또 먼: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저기 김장 하실 때도 배추김치 담글 때도 또 무슨 또} #2 무수지 당:꼬. {무김치 담그고,} @2 무수지 담:꼬 {무김치 담그고,} #2 으~. {응}

10503 #2 또 고춘넙 당:꼬 {또 고춧잎 담그고,} @2 고춘넙 담:꼬. {고춧잎 담그고,} @ 무수지는 어트케 다무세요? {무김치는 어떻게 담그세요?}

10503 #2 무수지는 무수 이 싱건지라고 {무김치는 무 이 물김치라고,} @2 에 #2 그 인자 {그 이제} @2 한:지? {'한지'?} #2 예, 히:강 거. 히:가니 다뭇 거슨 그냥 무수 뽀바다가 따드마서 {하얀 것. 하얗게 담근 것은 그냥 무 뽀바다가 다들어서,}

10503 @2 아 #2 이파리 쎄까만 송:넙 쏘까만 느:코 버드란 놈 쏘:끔 느:코 {이파리 조금만 속잎 조금만 넣고 보드러운 것 조금 넣고,} @2 에

10503 #2 인 히쳐가꼬 인잔 거시 소그메다 절거나따가 향아리에다 인잔 양념 마늘씨 양념 {이제 씻어 가지고 이제 그것이 소금에다 절여('절구다'는 '절이다'의 방언) 놓았다가 향아리에다 이제 양념 마늘('마늘씨'는 '깎 마늘'을 가리킨다.) 양념}

10503 #2 찌으전 양파 썰:고 베 잔 썰:고 어던 거시긴 그릉 건 모도 양념 해:가꼬 {저기 저 양파 썰고 배 조금 썰고 뭐 그런 것 모두 양념 해 가지고,}

10503 #2 딱 가네나. 이러콘 향아리에다 딱 둘금둘금 해:나따가 인자 전 찰밥또 쏘끔 해:서 싸:서 느:코 {딱 간해 냈. 이렇게 향아리에다 딱 둘레둘레('둘금둘금'은 향아리나 시루의 안에 둘레둘레 싸 놓는 모양을 가리킨다.) 해 났다가 이제 저 찰밥도 조금 해서 싸서 넣고,}

10503 @2 아 #2 고추도 쏘끔 건 들들들 가라가꼬 {고추도 조금 그 들들들 갈아 가지고} @2 에 #2 쎄꼬치 가라가꼬 거다 싸:서 찰밥 하고 양념 하고 딱 싸:서 너:. 향아리 소:게다 너:가꼬 인자 물 한 사을마네 물 부셔. {생고추 갈아 가지고 거기에다 싸서 찰밥하고 양념 하고 딱 싸서 넣어. 향아리 속에다 넣어 가지고 이제 물 한 사흘만에 물 부어.}

10503 #2 그라몬 인자, 그거시 인자, 딱: 가니 드러가꼬 시야네 머그면 인자 마시쎄.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딱 간이 들어 가지고 겨울에 먹으면 이제 맛있지.} @2 에

10503 #2 그러케 다므제. {그렇게 담그지.} @ 무수지를 고거 아니고도 또 저기도 그냥 김장할 때에: 양념 빨:가케 해:가꼬도 {무김치를 그것 아니고도 또 저기도 그냥 김장할 때에 양념 빨갳게 해 가지고도,} #2 예, 그걸또 또 만들제. {예, 그것도 또 만들지.}

10503 @ 고건 머:라고 합니까, 고거슨?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2 깍:뚜기도 당:꼬 {깍뚜기도 담그고,} @ 깍뚜기요? {깍뚜기요?} #2 예, 깍:뚜지 짐치도 {예, 깍뚜기 김치도} @ 쿵: 거 엔:나른 이러케 깍뚜기 쪼끄마케 썰:기도 하지만 쿵: 걸로 {큰 것. 옛날은 이렇게 깍뚜기 조그맣게 썰기도 하지만 큰 것으로,} #2 예, 그그 통지도 담:쥔 또. {예, 그그 '통지'도 담그지 또.} @ 통지라고 험니까? {'통지'라고 합니까?} @2 통지. {'통지'}

10503 #2 그거또 다머서 머꼬. {그것도 담가서 먹고.} @2 김장 늘: 때는 양념 머:머 너:가 꼬 하세요? {김장 넣을 때는 양념 뭐뭐 넣어 가지고 하세요?} #2 김장 배:추지 할 때는? {김장 배추 김치 할 때는?} @2 예에, 집점마다 다르드라구 {예에, 집집마다 다르더라고요.} #2 응, 거시기 전, 땀치전 느:코, {응, 뭐 젓, 멸치젓 넣고}

10503 #2 잡썰시라고 느:코 {잡젓이라고 넣고,} @2 예, #2 또 저 세우전 느:코, {또 저 새우젓 넣고,}

10503 #2 굴: 느:코, {굴 넣고,} @2 예 #2 모도 저 썰: 거시기도 늘:라든 느:코 고기도 사서 늘:라든 느:코, {모두 뭐도 넣으려면 넣고 고기도 사서 넣으려면 넣고,}

10503 @2 먼: 고기? {무슨 고기?} #2 멘테 가통 거. {명태 같은 것} @2 아. #2 멘테도 사서 늘, 포 떠서 늘:라든 느:코 {명태도 사서 넣을 포 떠서 넣으려면 넣고,}

10503 #2 데야지 고기 거, 빼: 사다가 폭:: 가:가꼬, 그름 지름 딱 거더불고 그노메, 그놈도 늘:라든 느:코 {돼지고기 그 빼 사다가 폭 과 가지고 그것 기름 딱 걷어 버리고 그것에 그것도 넣으려면 넣고,} @2 예 #2 인자 그라제. {이제 그렇지.}

10503 @2 그러케 해:가꼬 인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2 그가꼬 딱: 인자 거 거시기 에다 전 모도 끼레서 한테다 딱: 조합 해:가꼬 {그래 가지고 딱 이제 그 뭐에다 젓 모도 끓여서 한테에다('한테'는 '한테'의 방언) 딱 조합해 가지고} @2 예 #2 꼬치까리나 양념 썩:: {고춧가루나 양념 썩}

10503 #2 썰그전 다라이 해:가꼬 인자 그거까꼬 짐치든 담:쥔. 고추까리랑 썩:: 양념 깨 머 이여 다: 너:가꼬. {저기 저 큰 대야('다라이'는 '큰 대야'의 뜻을 갖는 일본말) 해 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김치를 담그지. 고춧가루랑 썩 양념 깨 뭐야 다 넣어 가지고} @2 얼:마나 다르세요? {얼마나 담그세요?} #2 응? @2 양:을 얼:마나 다르세요? {양을 얼마나 담그세요?}

10503 #2 뭐, 우리는 우리 짐체또 썰 짐체 저기로 야달 통 들제:. 거시기가. 거 짐치 넌:장고 야달 통 든 노미로 우레로 한나, {뭐 우리는 우리 김치 또 저 김치 저기로 여덟 통 들지. 거시기가. 그 김치 냉장고 여덟 통 든 것으로 우리 것은 하나.('우레'는 '우리 야'로서 '우리 것'의 뜻)}

10503 #2 우리 큰 아들레 짐체통 우레만 한 노미로 야달 깨, 또 거시기 {웃음} {우리 큰 아들네 김치통 우리 것만큼 한 것으로 여덟 개, 또 거시기}

10503 #2 우리 저 큰 딸레 시: 통잉가 니: 통잉가 짐체통 거그는 잘잘하드만. 거: 가져가 쥔. 우리 망네네 또 존:, 한 통 조:쥔. {우리 저 큰 딸네 세 통인지 네 통인지 김치통 거기는 자잘하더구먼. 그 가져갔지. 우리 막내네 또 쫘 한 통 쫘지.}

10503 #2 거시긴 사둔네가 누구 할 싸람 업승께 거그 한통 쥐:쥔. {뭐 사둔네가 누가 할 사람 없으니까 거기 한 통 쫘지.} @2(웃음) #2 또 또 사둔네 또 한 통 쥐:쥔. {또 또 사둔네 또 한 통 쫘지.} @ (웃음)

10503 @ 사둔네까지 해:주(웃음) {사둔네까지 해 주 (웃음)} #2 예 사둔네까지 해년마지 해:서주제~. {예, 사둔네까지 해마다 해서 주지.}

10503 #2 이거 겐:나게 마:니 헤::, 김체를. 멘 {이것 굉장히 많이 해. 김치를 몇} @2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시 어:뜨게 어:뜨게 하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2 노버더 가꼬 인자 허제~. {일꾼 얻어 가지고 이제 하지.} @ 아 놉 어더 {아, 일꾼 얻어}

10503 #2 예, 오레는 유드키 네가 다리 아풍께: {예, 올해는 유독 내가 다리 아프니까,}

10503 #2 노버더가꼬인, 다리 나 막 수술하고 {일꾼 얻어 가지고 다리 나 막 수술하고,}

10503 #2 물거쏘 한 다리나 데야쓰 한달 쫘 너머서등가 짐장하기 드러써. {모르겠소 한 달이나 됐으 한 달 좀 넘어서든가 짐장하기 들었어.}

10503 #2 그레가꼬 나는 모:다고 인자 놉떠리 와서 헤:줘제. 절문사람드리 와서 지반 모도 질부드리 와서 동서드리 와서 헤:써. {그레 가지고 나는 못하고 이제 놉들이 와서 해 줬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집안 모두 질부들이 와서 동서들이 와서 했어.}

10503 #2 그레가꼬 머: 가져가제. {그레 가지고 뭐 가져갔지.} @2 에 지금도 가레가꼬 그걸 마시뜨라구요. {예, 지금도 그레 가지고 그것 맛있더라고요.} #2 어:제 암 마시드. 오레는 더 어:제 암 마시데. {어쩐 일인지 안 맛있더. 올해는 더 왜 안 맛있데.} @2 에 #2 더너머 싱구와가꼬 {더 너무 싱거워 가지고}

10503 @2 그때 또 저기 할 때 하실 때 그거 김장 할 때 그거 말:고 {그때 또 저기할 때 하실 때 그것 김장할 때 그것 말고} #2 응 @2 또 담능 걸 이쓰세요? {또 담는 것 있으세요?} #2 또 {또} @2 겨우린 데 인제 잡쑤신 {겨울인데 이제 잡수신} #2 인자 그라제 거거 {이제 그리고 그거}

10503 #2 큰 무수 거, 쿵: 거 푹푹 뿌어가꼬 고 크:게 다뭇 거, {큰 무 그 큰 것 푹푹 부러뜨려 가지고 그 크게 담그는 것} @2 통무? {통 무?} #2 응, 통무 그거또 전 인자 양념 헤:서 그거또 당:꼬 {응, 통무 그것도 저 이제 양념해서 그것도 담그고,} @2 에, #2 또 저 가똥지도 당:꼬 {또 저 갓김치도 담그고,}

10503 #2 응, 무수 서꺼서 당:꼬 또 파도 전 판낭 짜:저 저:기 가똥낭 {응, 무 섞어서 담그고 또 파도 저 파랑('낭'은 '랑'의 방언) 저저 저기 갓이랑} @2 에 #2 머 서꺼서 또 당:꼬 {뭐 섞어서 또 담그고}

10503 #2 겨으레 다머나따가 인자 묵제. {겨울에 담가 놔다가 이제 먹지.} @2 양녀른 다:가치 가똥 거 {양념은 다 같이 같은 것} #2 이~ 푹가똥 거시로 헤. {응, 푹같은 것으로 해.}

10503 @2 가똥 걸로 양념 헤:가지고 {같은 것으로 양념해 가지고} #2 으~ 가똥 거시로 양념 헤:가꼬 고늬 다 버무리제 인자. {응, 같은 것으로 양념해 가지고 그것 다 버무리지 이제.}

10503 @ 지금 방금 말씀하때 이러케 말허거든. 판낭 가똥으낭 말씀하셔꺼든. {지금 방금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 '판낭' '가똥으낭' 말씀하셨거든.}

10503 #2 예 판 파또 느 파도 느:코 {예, 파 파 또 넣 파도 넣고} @ 파낭 {'파낭'} #2 에 갓 가똥낭 {예, 갓, '가똥낭'} @ 응 가똥낭 {응, '가똥낭'} #2 예,(웃음)

10503 @ 가똥낭 판낭 갓 파낭 가똥낭 {가똥낭 판낭 갓 파낭 가똥낭} #2 예, 파도 너:코 가똥 가또 느:코 인자 가시라고 그란디 여그 그 엔:나레 가똥이라고 그라요안. {예, 파도 넣고 갓 갓도 넣고 이제 갓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옛날에 '갓동'이라고 그러잖소?}

10503 #2 에 지그른 가시라고 그란디 엔:나레 가똥이라고 그레써요. 그 가똥 너:코 파 느:코 {예, 지금은 갓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갓동'이라고 그랬어요.}

10503 #2 모도 그 고로고로 해서 {모두 그 고루고루 해서} @2 에 #2 인잔 거시기 만들 제. 이려고 모도 전 딱 만드라 나:따 고음 {이제 거시기 만들지. 이렇게 모두 젓 딱 만들어 봤다 그것}

10503 #2 베:추지 비빈 그 양니메다가 {배추김치 버무리는('비비다'는 여기서 '버무리다'의 뜻) 그 양념에다가} @2 에 #2 비베. 그레나따 머그먼 마시떼요. {버무리. 그레 봤다가 먹 으면 맛있데요.} @2 에

10503 #2 그레가꼬 그렇 겐 헤:서 먹쎄.(웃음) {그레 가지고 그런 것 해서 먹지.} @2 에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10503 @2 여기 다른 거 그 머 보메 보메는 이제 세김치 즈, 드시고 십짜나요 {여기 다른 것 그 뭐 봄에 봄에는 이제 새 김치 드시고 싶잖아요?} #2 응 @2 그러며는 {그러면은}

10503 #2 인자 세 김치 들곤 은음 {이제 새 김치 들고} @2 에 #2 헤:무꼬 자면 인자 사 다가 다머 묵쎄. {해 먹고 싶으면 이제 사다가 담가 먹지.} @2 베:추 베:추* {배추 배추*} #2 베:추 사다가 다머 묵쎄. {배추 사다가 담가 먹지.}

10503 @2 에 #2 그란디 함 번도 안 사다 무거바쎄. {그런데 한 번도 안 사다 먹어 봤어.} @2 보메는 잘 {봄에는 잘} #2 응 김치 이쎄께. 베:추지 {응, 김치 있으니까 배추김치.} @2 그지요. 그러며는 김장 다므셔가지고 보:통은 {그렇지요. 그러면은 김장 담그셔 가지고 보통은}

10503 @ 여르메까지 {여름에까지} @2 여름까지 {여름까지} #2 여름까지 세 김치 나드롱 머거. {여름까지 새 김치 나오도록 먹어.}

10503 @2 에 그리고 여,여름 데머는 그 열무 가통 거 사가지고 {예, 그리고 여름 되면은 그 열무 같은 것 사 가지고} #2 예. @ 암무 암무 아까 암무. {'암무', 아까 '암무'} #2 암무 암무 사서 인자 사다가 인자 갈: 지그른 가라도 몸:무거. {열무 열무 사서 이제 사다가 이제 갈, 지금은 갈아도 못 먹어.}

10503 #2 보라지 땀세도 {벌레('보라지'는 '벌레'의 방언) 때문에.} @2 아 #2 나 즈즈 이: 처넌 주고 종자 사다가 빼레떠니 한::나도 읍:쎄 보라지가 썩 무거부쎄. 다 뽀바서 네:뿌리 불고. {나 이천 원 주고 종자 사다가 뿌렸더니 하나도 없이 벌레가 썩 먹어 버렸어.}

10503 @ 아 #2 쎄:그 바테다가 쎄 감:나무 밋에다가 쎄:까 오부작오부작 송거뜨니 그노미 여:칸 조아가꼬 쎄:번날 그 김치 거 {저기 그 밋에다가 감나무 밋에다가 조금 오보록하게('오부작오부작'은 작은 것들이 서로 밀착되어 모여 있는 모양, 곧 '오보록하다'의 뜻.) 심었더니 그것이 아주 좋아 가지고 저번에 그 김치 그} @2 에 #2 그거시 그 김치여. {그것이 그 김치야.}

10503 @2 에 #2 (웃음) @2 다르지요? 김장 담능 거하고 또 열무 담능 거하고 방버비 다르 {다르지요? 김장 담그는 것하고 또 열무 담그는 것하고 방법이.}

10503 #2 아 거자 가터. {아, 거의('거자'는 '거의'의 방언) 같아.} @2 거자 가타요? {거의 같아요?} #2 응 그: 양념 페냐 드러가. {응, 그 양념 내나 들어가.} @2 아 #2 그레도 열무 다른 디는 그냥 {그레도 열무 담그는 것은 그냥}

10503 #2 거 잘자란 세우 이쎄안? {그 자잘한 새우 있잖소?} @2 에 #2 응 세우 사고 {응, 새우 사고} @2 에 #2 페냐 액쎄시 쏘끔 치고 {내나 액젓 조금 치고} @2 에 #2 그레 가꼬 다머. {그레 가지고 담가.} @2 에 #2 양념 느:코 {양념 넣고}

10503 @2 금 더 간편하지 안나요? {그러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2 더 간편해. {더 간단해.} @2 어트켄 {어떻게?}

10503 #2 짜:거즈 배:추지는 오:만 양니를 다 너:야 쓰지마는 요거슨 {저것 배추김치는 온 갓('오만'은 '온갓'의 방언) 양념을 다 넣어야 되지마는 이것은}

10503 #2 머 액쩍 쫄 치고 세우전 쫄 치고 인자 마,마늘 {뭐 액젓 쫄 치고 새우젓 쫄 치고 이제 마 마늘}

10503 #2 고추까리 {고춧가루} @2 에 #2 그렇 겐 모도 너:서 다뭉께 체 십:썰. {그런 것 모두 넣어서 담그니까 훨씬 쉽지.} @2 에

10503 @2 푸른 말:로 하세요? {푸른 뭍로 하세요?} #2 풀도 너:코 푸른 찹쌀까리 가라가 꼬. {풀도 넣고. 푸른 찹쌀가루 갈아 가지고}

10503 @2 찹쌀하셔 가지고 {찹쌀 하셔 가지고} #2 응 찹쌀도 가:라서도 할라브 하고 바비로 끼레서도 당:꼬 그래, 찹쌀로. {찹쌀도 갈아서도 하려면 하고 밥으로 끓여서도 담그고 그래, 찹쌀로.} @2 에 찹쌀로 꼬러가지고요? {예, 찹쌀로 끓여 가지고요?} #2 으~, 끼레가 꼬 다르면 그냥 사거부러. {응, 끓여 가지고 담그면 그냥 삭아 버려.}

10503 @2 에 #2 찹쌀리라. 그래가고 죽 써서 인자 겐: 짐치 담:썰. {찹쌀이라. 그래 가지고 죽 썬서 이제 그 김치 담그지.} @2 에

10503 @2 글고 여르메 또 다룽 거 다룽 김치도 흑씨 또 다르세요? 저거 말:고: {그리고 여름에 또 다른 것 다른 김치도 흑씨 또 담그세요? 저것 말고.}

10503 #2 벨로 이런 디서는 머 벨로 짐치 다룽 겐 트기항 거슨 안 해무거. {별로 이런 곳에서는 뭐 별로 김치 다른 것 특이한 것은 안 해 먹어.} @2 켄니브로도 {갯잎으로도}

10503 #2 켄니비로도 허고 {갯잎으로도 하고} @2 에 #2 켄넵또 {갯잎도} @2 켄니브로는 어:뜨게 하세요? {갯잎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2 켄니빈 켄넵 따:다가 바테서 인잔 켄넵 지름 넵쩌가니 지르며 {갯잎은 갯잎 따다가 밭에서 이제 갯잎 자라 넵적하게 자라면('지르다'는 여기서 '자라다'의 뜻)} @2 에

10503 #2 보들보들할 때 따:다가 시쳐서 인자 이려고 가주러니 추레. {보들보들할 때 따다가 씻어서 이제 이렇게 가지런하게 추려.} @2 에

10503 #2 대가리 가지러니 치레가꼬 {대가리 가지런하게 추려 가지고} @2 에 #2 너머나 진: 놉 찰:라불고 {너무나 긴 것 잘라 버리고} @2 에 #2 거시기 전 장: 왜간장 사다가 외간장에다가 인잔 {거시기 저 장 왜간장 사다가 왜간장에다가 이제}

10503 #2 외간장 부서나 찰박:하니 {왜간장 부어 놉, 잘팍하게.} @2 에 #2 그라든 인자 그놈 오래:테머 인자 거그다가 인자 {그러면 이제 그것 오래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10503 #2 마늘씨 까:고 헤:서 푼 여짱 치고 헤서 끼레. {마늘 까고 해서 또 엇 쫄 치고 해서 끓여.} @2 에 #2 여 소테다 푹:푹 끼레가꼬, {이 솥에다 푹푹 끓여 가지고,}

10503 #2 거그다 인자 마늘씨 헨:낭 헤:서 부서나. 그웁 그레쓰 인자 냉:장고 너:나두면 이그면 먹썰. {거기다 이제 마늘 해서 부어 놉. 그래 그래서 이제 냉장고 넣어 놉 두면 익으면 먹지.}

10503 @2 에 #2 그거슨 벨 양념 안 드러가 {그것은 벨 양념 안 들어가.} @2 에 #2 여쫄치고 응 마늘씨 잔 치고 {엇 쫄 치고 응 마늘 쫄 치고,} @2 에

10503 #2 인자 거그다 액쩍슬 쪼금 칠람 치고 그냥 거시기 전 장:만 치, 외간장만 칠람 치고 인자 그거 이닝 마:미여. {이제 거기다 액젓을 쪼금 치려면 치고 그냥 뭇 쪼 장만큼 치, 왜간장 치려면 치고 이제 그것 자기 마음이야.}

10503 @2 에 #2 그레가꼬 헤:서 인자 이구면 에기덜 조:아락 하테요. {그래 가지고 해서 이제 익으면 아이들 좋아라고 하테요.} @2 그지요 {그렇지요.} #2 응 이자 그 머글 때는

깨 좀 쪼깐 느:코. {응, 이제 그 먹을 때는 깨 좀 조금 넣고,} @2 에
 10503 #2 기름도 쪼깐 그단 느:코 그래각 치고 그래가꼬 무쳐서 먹제. {기름도 조금 거기에다 넣고 그래 가지고 치고 그래 가지고 무쳐서 먹지.} @2 에
 10503 @2 지난 버네 또오 글 저기 마늘로: {지난 번에 또 그 저기 마늘로,} #2 으 @2 또 머 만드셔짜나요? {또 뭐 만드셨잖아요?} #2 마늘 짱아찌 {마늘 장아찌} @2 에
 10503 #2 그거또 팽상 그래. 그은 왜간장 치고 {그것도 내나 그래. 그 왜간장 치고} @2 에
 10503 #2 또 찌 저런 양념 모도 다 너:서 고로고 만드라 {또 저 저런 양념 모두 다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2 먼: 양념?(웃음) {무슨 양념? (웃음)} #2 페냐 마늘씨 느:코 {내나 마늘 넣고,}
 10503 @2 마늘씨 (웃음) 마늘 짱아찌니까 마늘씨 느:코 {마늘씨 (웃음) 마늘 장아찌니까 마늘 넣고,} #2 그래도 마늘씨도 너:야제. {그래도 마늘도 넣어야지.} @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 암만 마늘씨여도 마늘씨 양념 너:체 {아무리 마늘이라도 마늘 양념 넣지.} @2 마늘 통 이것을 어:뜨게 하세요? 통채로 하세요? 아니면 이러케 까:가꼬 {마늘 통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통채로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까 가지고?}
 10503 #2 통차로도 할람 하고 찌저서도 늘:람 느:코 인자 그러제. {통채로도 하려면 하고 찢어서도 넣으려면 넣고 이제 그러지.} @2 에
 10503 #2 그래가꼬 페남 모도 깨 느:코 전 느:코 {그래 가지고 내나 모두 깨 넣고 젓 넣고,} @2 에
 10503 #2 그러케 마늘, 짱아찌로 헐라면 {그렇게 마늘 장아찌로 하려면,} @2 에 #2 그냥 왜간장 느:코 {그냥 왜간장 넣고,} @2 에
 10503 #2 그 이 먼: 양념 쪼깐 너:코 헤:서 그냥 짱아찌로 다머노코 {그 이 무슨 양념 조금 넣고 해서 그냥 장아찌로 담아 놓고,} @2 에
 10503 #2 또 마늘 반찬을 다물라면 이자 파지나 그렇 건 다물라면 전 모:든 양념 헤:서 당:꼬 {또 마늘 반찬을 담그려면 이제 파김치나 그런 것 담그려면 젓 모든 양념 해서 담그고,}
 10503 #2 거 전:까터 저깅가통 거 그릉거 다:: 가쳐서 너:. {그 젓 같은 것갈 같은 것 그런 것 다 갖춰서 넣어.} @2 어. #2 파 김치 그렇 거슨 {파김치 그런 것은.} @2 에에에
 10503 #2 그라고 저런 저 켄넵 가통 거 저렁 건 저기 다물라면 그냥 장: 치고 {그리고 저런 저 깻잎 같은 것 저런 것 저기 담그려면 그냥 장 치고,}
 10503 #2 마늘 쪼깐 느:코 여쭙 처:소 헤:서 데레서 인자 부서나. 그러면 그거시 인자 장: 에지가 데제. {마늘 조금 넣고 엇 좀 치고 해서 달여서 이제 부어 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장아찌가 되지.} @2 에
 10503 @2 그니까 꼬추가루는 안 드러가고 거 짱아찌는 그러케 당:꼬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안 들어가고 그 장아찌는 그렇게 담그고,} #2 으~, 그러제. {응, 그렇지.} @2 파김치는: {파김치는} #2 으~, 파김치는 인자 양념 다: 느:코 {응, 파김치는 이제 양념 다 넣고,} @2 에에 #2 꼬추까린낭 {고춧가루랑}
 10503 @2 그 다으메 지금 또 여르메 술:로도 {그 다음에 지금 또 여름에 부추로도,('술'은 '부추'의 방언)} #2 술:로돈 {부추로도}
 10503 #2 술:도 또 전 페냐 거시기 전 전 멜치전 {부추도 또 젓 내나 거시기 젓 젓 멀치젓.} @2 에

10503 #2 세우전 {새우젓} @2 에 #2 거 액쩍 그렇 낀 다: 처가꼬 양념 안헐 양념 모도
깨: 그렇 낀 다: 너:가꼬 인자 또 {그 액젓 그런 것 다 처 가지고 양념 안 할 양념 모두 깨
그런 것 다 넣어 가지고 이제 또}

10503 #2 죽 쭉고 그레가꼬 인자 또 다머. {죽 쭉고 그레 가지고 이제 또 담가.} @2 에
10503 #2 베:차지 담:떼끼 {배추김치 담그듯이.} @2 베:추지 담:뜨시 {배추김치 담그듯
이.} #2 그레가꼐 그레가꼬 먹제. {그레 가지고 그레 가지고 먹지.} @2 에

10503 @2 가김치는 그러며는 {갓김치는 그러면은} #2 가김치도 그라고 {갓김치도 그러
고} @2 여기서 지금 그거는 겨우레만 담찌요? {여기서 지금 그것은 겨울에만 담그지요?}
#2 으~, 겨우레만 담:제. {응, 겨울에만 담그지.} @2 여르메는? {여름에는} #2 여르메는
업썸. {여름에는 없어.} @2 업:썸. 안 당꼬 가똥? {없어. 안 담그고, 갓?} #2 에

10503 #2 인자 {이제} @2 저:쪽 다른 쪼그로는 {저쪽 다른 쪽으로는} #2 으~ {응} @2
저기 여:수쪼그로는 {저기 여수쪼으로는} #2 여:수쪼기론 그라제 돌:간 {여수쪼으로는 그렇
지 돌산갓.} @2 에 다른 가시여서 {예, 다른 갓이라서} #2 이~ 돌:간 {응, 돌산갓.} @ 돌
싼 돌싼 # {돌산 돌산} #2 돌:간 돌:쌍깁 {돌산갓, 돌산갓.} @2 응

10503 @2 에 #2 여그서도 돌:쌍깁 해:서 머거요 {여기서도 돌산갓 해서 먹어요.} @2 여
기서 어:디가 나나요? {여기서 어디에 나나요?} #2 인자 그 종자 송거. {이제 그 종자 심
어.} @2 에

10503 @2 에 #2 빠레 바테다. 그라문 돌:쌍가슨 데야. 그레가꼬 그롬, 우리 그놈네 시안네
해:서 머거썸. {뿌려, 밭에다. 그러면 돌산갓은 돼. 그레 가지고 그것 우리 그것 겨우내 해서
먹었어.}

10503 @2 에 여기서 기르셔가지고 {예, 여기서 기르셔 가지고} #2 예 마시썸, 해:노면.
{예, 맛있어, 해 놓으면.} @2 에에에

10503 #2 그란디 인잔 지금 쥘:: 언:제까정 무건넌지 다: 무꼬 인자 오 떠러저부러제. {그
런데 이제 지금 저 언제까지 먹었는지 다 먹고 이제 오 떨어져 버렸네.} @2 에 여기서도
그 {예, 여기서도}

10503 #2 처:메는 마시썸라우 {처음에는 맛있어요.} @2 베:추지 담능 거랑 거이 {배추김
치 담그는 것이라 거의} #2 이~ 또까터. 베:추지 다뭇 거 가치로 {응, 똑같아. 배추김치 담
그는 것같이.} @2 그문 절구능 거시 어:뜨케 차이가 인나요? 절구능 거슨 어때요? {그러면
절이는('절구다'는 '절이다'의 방언)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절이는 것은 어때요?}

10503 #2 절구능 거슨 여로코 절 시쳐서 소금 쳐서 절귀 노면 딱 저 게양 주거, 숨. {절이
는 것은 이렇게 젓 썰어서 소금 쳐서 절여 놓으면 딱 저 그냥 죽어, 숨.} @2 에

10503 #2 그라문 인자 고놈 카:카리 히쳐서 바타나따 물 쪽: 빠지면 인자 {그러면 이제 그
것 깨끗이('깔깔이'는 깨끗이 씻거나 세탁하는 모양을 가리킨다.) 씻어서 받아 났다 물 쪽
빠지면 이제,} @2 에 #2 거그따 또 풀 푸를 치고 {거기다 또 풀 풀을 치고}

10503 #2 풀 썸:서 풀 치고 인자 저런 모:든 양념 해:가꼬 또 다머. {풀 썸서 풀 치고 이제
저런 모든 양념 해 가지고 또 담가.} @2 에 #2 그레가꼬 이그면 마시썸라. {그레 가지고
익으면 맛있어요.}

10503 @2 여르메는 또 그거 말고 무슨 반찬 해: 드세요? 갑짜기 머 {여름에는 또 그것 말
고 무슨 반찬 해 드세요? 갑자기 뭐,}

10503 #2 여르메는 요세는 벨 먼: 먼 반찬 {여름에는 요세는 별 무슨 무슨 반찬} @2 아
까 {아까} #2 까:지 가룽 낀 {가지 같은 것.} @2 까:지 가룽 거. 까:지는 어:뜨게 하세요?

{가지 같은 것. 가지는 어떻게 하세요?}

10503 #1 까:지 무레 {가지, 오이.} #2 까:지는 거시기 저 무레다가 살짝 들쳐가고 {가지는 뭐 저 물에다가 살짝 데쳐('들치다'는 '데치다'의 방언) 가지고} @2 에 #2 고놈 짹:짹 찌저서 인자 {그것 짹:짹 찢어서 이제,}

10503 #2 인자 지름 치고 껌 치고 마늘 치고 장: 치고 그래서 인자 쪼물락 거서 만드라아꼬 거 반찬 하고 또 {이제 기름 치고 껌 치고 마늘 치고 장 치고 그래서 이제 주물럭거리서 만들어 가지고 그 반찬 하고 또,}

10503 #2 그르케 안하고 그냥 노물로 해:무글라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물로 해 먹으려면,} @2 에

10503 #2 또 이러 썬:러가꼬 잘자라니 이러코 한 접씨 썬:러가꼬 {또 이러 썰어 가지고 잘하게 이렇게 한 접씨 썰어 가지고,} @2 에

10503 #2 먼 장: 치고 여러쿤 여 양념 껌: 치고 지름 치고 모도 {뭐 장 치고 이렇게 이 양념 껌 치고 기름 치고 모두}

10503 #2 마늘씨 느:코 해:가꼬 더끔더끔더끔 해:서 인자 이그면 또 그 그 보까서도 머꼬, 그레 {마늘 넣고 해 가지고 약간 튀어서('더끔더끔'은 약간 튀는 모양을 가리킨다.) 이제 익으면 또 그 그 볶아서 먹고 그레.} @2 에

10503 @2 아까 무레는 무레는 어:트케 {아까 오이는 오이는 어떻게?} #2 응, 무레는 지:쑤 탈람 타고. {응, 오이는 김칫국('쑤'은 '김칫국'의 방언) 타려면 타고,} @2 에. #2 지:쑤 탈라면 뜯 저기허제, 채:로 썬:러서, {김칫국 타려면 또 저기하지, 채로 썰어서,}

10503 #2 또 그거또 소그메다간 소금 잔 쳐서 껌 양념 모도 너:서 인자 지:쑤 타고 {또 그것도 소금에다가 소금 좀 쳐서 껌 양념 모두 넣어서 이제 김칫국 타고,} @2 에 #2 물 타고 {물 타고,}

10503 #2 또 썬:게 하머년 초 쪼금 치고 그레가꼬 지:쑤 타고, 또 그냥 만드라 무글라면 썬:러가꼬 또 거시기 쥔 소금 잔 치고 해:서 또 {또 적게 하면은 초 조금 치고 그레 가지고 김칫국 타고, 또 그냥 만들어 먹으려면 썰어 가지고 또 거시기 저 소금 좀 치고 해서 또,} @2 에

10503 #2 인제 인잔 그 때는 모도 양념 마늘씨 양념 모도 고추까리 쪼가석 너:가꼬 또 주물러서 무꼬 {이제 이제 그때는 모두 양념 마늘 양념 모두 고춧가루 조금씩 넣어 가지고 또 주물러서 먹고,}

10503 #2 그냥 무글라면. 지:쑤 안 타고. {그냥 먹으려면, 김칫국 안 타고.} @2 에

10503 #2 또 나물도 멘드라무글라면 고:가꼬 나물도 만들고 {또 나물도 만들어 먹으려면 그것 가지고 나물도 만들고,} @2 무레로요? {오이로요?} #2 응, 무레로. {응, 오이로.} @2 너:트케 {어떻게?}

10503 #2 거:또 또 그 양념:노 치고 지름 치고 {그것도 또 그 양념 치고 기름 치고,} @2 에 #2 양념치고 껌 치고 해:서 거눔도 {양념 치고 껌 치고 해서 그것도,}

10503 #2 썬:러서 요러코 나방나바이 썬:러가꼬 그거또 노물 해:노몬 또 머글만 해:라. {썰어서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썰어 가지고 그것도 나물 해 놓으면 또 먹을 만해요.} @2 에

10503 #2 항 가지꺼 가꼬 벨시럽게 여러 가지 껌도 할 쥬 이썬. {한 가지('한 가짓것'은 '한 가지'의 뜻) 가지고 벨스럽게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어.} @2 (웃음) #2 (웃음) 마:리 이썬떠여? 무수 항 가지가꼬 열두 반찬 만든다고. (웃음) {(웃음) 말이 있잖습디까? 무 한 가지 가지고 열두 반찬 만든다고? (웃음)}

10503 #2 채:로 썰:고 깎뚜기 당:꼬 거시기 점: 무수지 당:꼬 뭇 {채로 썰고 깎뚜기 담그고 거시기 무김치 담그고 뭇}

10503 #2 저기 노물 하고 국 끼리고 하면 열뚜가지 다문다 해:써 마리. {저기 나물 하고 국 끓이고 하면 열두 가지 담근다 했어, 말이.} @2 에 #2 무수 향갈, 한나 가꼬 (웃음) {무 한가지 하나 가지고(웃음)}

10503 @2 지남 버네 그거 그: 고:구마 시머가지고 순 네:서도 또 {지난 번에 그것 그 고 구마 심어 가지고 순 내어서도 또}

10503 #2 응 그거또 또 들쳐갈 베게. 고놈 순 뜨더서. {응, 그것도 또 데쳐 가지고 벗겨.} @2 에 #2 이파리 뜨더불고 인자 이놈 껍딱 바께가꼬 인잔 {이파리 뜯어 버리고 이제 이것 껍질 벗겨 가지고 이제}

10503 #2 쌀마가꼬 {삶아 가지고} @2 에, #2 소금 잔 쳐서 쌀마, 쌀뜨페. {소금 좀 쳐서 삶아. 삶을 때} @2 아, #2 그레야 세파:레. {그레야 새파래.} @2 에

10503 #2 쌀무 때 물 좀 부:꼬 소그물 한 줌 거그다 느:코 {삶을 때 물 좀 붓고 소금을 한 줌 거기다 넣고,} @2 에 #2 폭:폭 끼리다가 인자 감자떼 거그따 너:. 그라머 세파래라우. {폭폭 끓이다가 이제 감자 줄기 거기에다 넣어. 그러면 새파래요.}

10503 #2 그레가꼬 조:아. 그레가꼬 덩찌 말:고 그냥 그놈 쌀마. 더퍼부면 누:레저봉께. {그레 가지고 좋아. 그레 가지고 덮지 말고 그냥 그것 삶아. 덮어 버리면 누래져 버리니까.} @2 에

10503 #2 그레가꼬 고놈 쌀마가꼬 알:마치 쌀마가꼬 금 네:서 인자 거시긴 모둔 {그레 가지고 그것 삶아 가지고 알맞게 삶아 가지고 그러면 내서 이제 거시기 모두}

10503 #2 건 고치장 잔 치고 된:장 잔 치고 양념 모도 {그 고추장 조금 치고 된장 조금 치고 양념 모도} @2 에 #2 마늘 양념 꼬:치까리 께 그렇 건 치고 인자 또 주물러. {마늘 양념 고춧가루 께 그런 것 치고 이제 또 주물러.} @2 에

10503 #2 그레가꼐 또 모기도 하고 {그레 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2 에 #2 고놈 또 노물 해: 무글라면 {그것 또 나물 해 먹으려면} @2 에 #2 그냥 그놈 베게서 쌀마가꼬 {그냥 그것 벗겨서 삶아 가지고}

10503 #2 들쳐가꼬 거그다가 거 쥔 들께까리, 들께까리 좀 치고 {데쳐 가지고 거기다가 그 저 들께가루, 들께가루 좀 치고,}

10503 #2 인자 양념 해:서 그놈 인자 저 보까 또 보까. 금 또 그노메:나도 마시씨라우. {이제 양념 해서 그것 이제 저 볶아. 또 볶아. 그러면 또 그것 해 놔도 맛있어요.} @2 에 지남 버네 또 김치도 다므신다고 {예, 지난 번에 또 김치도 담그신다고.} #2 짐치도 다머. {김치도 담가.}

10503 #2 고놈 가라가꼬 꼭 짐체 다므면 열무 담:떼끼 {그것 갈아 가지고 꼭 김치 담그면 열무 담듯이,} @2 에 #2 그 양념 해:가꼬 담:째. {그 양념 해 가지고 담그지.} @2 에

10503 #2 그람 그거또 마시씨. 뽕::곤 들쳐가꼬 {그러면 그것도 맛있어. 불곤(?) 데쳐 가지고} @2 에 #2 쌀마가꼬 뽕::깡 짜야씨. 그레야 무리 안 나와. {삶아 가지고 짹('뽕깡'은 힘 있게 짜거나 불곤 일어나는 모양) 짜야 돼. 그레야 물이 안 나와.} @2 아

10503 #2 무리 나오면 너머 안 조체. {물이 나오면 너무 한 좋지.} @2 에에 #2 궁께 뽕:깡뽕깡 짜:불고 그거또 전 전: 모도 끼리고 {그러니까 짹 짹 짜 버리고 그것도 젓 젓 모두 끓이고.}

10503 #2 거 베:추지 담:떼끼. 그거또 쥔 끼리고 모도 마늘씨여 머:시여 다 너:서 그놈도

거 만드라. {그 배추김치 담듯이. 그것도 젓 끓이고 모두 마늘이야 뭐야 다 넣어서 그것도 그 만들어.} @2 에

10503 #2 열 꼬:치 잔 갈:고 {고추 좀 갈고} @2 에 #2 그레가꼬 만드라노면 그러케 해서도 모도 잘 묵떼요. 그람 더 오래 무꼬 그란다고. 또 마시썸. {그레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도 모두 잘 먹데요. 그러면 더 오래 먹고 그런다고. 또 맛있어.} @2 아 #2 더 오래 무거, 그레노면. {더 오래 먹어, 그레 놓으면.}

10503 #2 망 나물 해면 그냥 시여불제마는 그거슨: {막 나물 하면 그냥 시어 버리지마는 그것은} @2 에 #2 오래 무거, 더. {오래 먹어 더.} @2 에 #2 나:두고 무거도. {봐 두고 먹어도.} @2 에

10503 #2 조아현 사라른 데:게 조아해라. 노물 저 반찬 해서 머근 사람드른 조아해.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해요. 나물 저 반찬 해서 먹는 사람들은 좋아해.}

10503 #2 또 마시꼬 또. {또 맛있고 또.} @2 에 #2 어중가니 저:궁께 모:따뭇께 그라제. {어중간하게 적으니까 다 못 먹으니까 그러지.} @2 양이 저거서요? {양이 적어서요?} #2 응, 자:궁께 그라제. {응, 적으니까 그러지.} @2 에

10503 @2 여기서 혹시 그 고들빼기나 이렇 거똥 하시나요? {여기서 혹시 그 고들빼기 이런 것도 하시나요?} #2 고:들빼기 그릉거 하:도 안 해. {고들빼기 그런 것 하지도 않아.}

10503 @2 김치 이렇 거는 {김치 이런 것은} #2 네 @ 산중에 산중에서 {산중에, 산중에서,} #2 안 해. 그런 노무른 업:썸. {안 해. 그런 나물은 없어.} @2 글지요이~. {그렇지요.} @ 구레나 썸 에에 곡썸에나 {구레나 저 곡성에서나} @2 이런데서는 그 바테서 나는 걸로만 {이런 곳에서는 그 밭에서 나는 것으로만} #2 응

10503 #2 바테서 나능 거 그 썸상 그릉 거빼끼 업:썸. 나 아까 말:항 거 그릉 거빼긴 업:썸. {밭에서 나는 것 그 내나 그런 것밖에 없어. 나 아까 말한 것 그런 것밖에는 없어.} @2 아

10503 #2 다릉 거슨 안 항께. {다른 것은 안 하니까} @2 에 #2 페냐 그거. {내나 그것} @2 에. @ 일썸 오썸 일 *** {1.5.1 ***} @2 이거요? {이거요?} @ 응

1.5.2. 나물 채취와 요리

10504 @2 그 다으메 이제 그 사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에} #2 응 @2 혹시 나물 뜨드러도 가시나요? {혹시 나물 뜯으러도 가시나요?} #2 양: 가. 나물 뜨드러 생전 양게 바썸. {안 가. 나물 뜯으러 생전 안 가 봤어.} @ 엔:나레 엔:나레 {옛날에 옛날에} #2 에, 양 가바썸요. 생:전 {예, 안 가 봤어요. 생전.} @ 다른 양반드른 {다른 양반들은}

10504 #2 다른 양반들도 벨로 양 가쓰꺼시여. {다른 양반들도 별로 안 갔을 것ियो.} @ 으~, 꼬사리 가통 거슨 어뜨케 {응, 고사리 같은 것은 어떻게?} #2 꼬사리 가통 거슨 인모도 끌로 텅입따다. 나는 생::전 다리 아퐁게 안 텅게 {고사리 같은 것은 이제 모두 끓으려 다닙디다. 나는 생전 다리 아프니까 안 다녀.} @2 {웃음}

10504 #2 망 노무더런 가서 막 꼬사리 꼬너가꼬 해:무꼬 그란 디 나는 당에 이날 쏘 나 꼬사리 꼬느려 양 가바썸.{웃음} {막 남들은 가서 막 고사리 끓여 가지고 해 먹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당에'는 '아직'의 방언) 이날까지 나 고사리 끓으려 안 가 봤어. {웃음}} #1 모:

까. 양 가. {못 가. 안 가.}

10505 #2 사다가 함 버니나 무꼬자면 사다 무꼬 {사다가 한 번이나 먹고 싶으면 사다 먹고,} #1 사네 가든 다 이제. 꼬사리 이쓰면 한나:씩 꼬너다 무꼬. {산에 가면 다 있지. 꼬사리 있으면 하나씩 끓어다 먹고,} @2 네, 잘 안 다니세요?(웃음) {네, 잘 안 다니세요? (웃음)}

10505 #2 페냐 꼬사리 꼬사리도 꼬너가꼬 말려가꼬 쌀마가꼬 또 그거또 쌀마. {내나 꼬사리 꼬사리도 끓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삶아 가지고 또 그것도 삶아.} @2 에

10505 #2 쌀마가꼬 당가나:따가 인자 그거또 들깨까리 쭝 치고 {삶아 가지고 담가 났다가 이제 그것도 들깨가루 쭝 치고} @2 에 #2 모도 모든 냥님 해:서 그놈도 인자 {모두 모든 양념 해서 그것도 이제}

10505 #2 박 보꼬제. 지름 치고 모도 해:서. 그레가꼐 나물 해:서 무꼬. {막 볶지. 기름 치고 모두 해서. 그레 가지고 나물 해서 먹고.} @2 에

10506 @2 그며는 저기 바테서 나능 거 빼:노코는 보메 이렇 거 그레도 절므서쥬 때라 {그러면은 저기 밭에서 나는 것 빼 놓고는 봄에 이런 것 그레도 젊으셨을 때라} #2 응 @2 봄 나물 쭝 하러 다니고 그러시지 아난나요? {봄나물 쭝 하러 다니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2 봄 @2 쭝기나 {쭝이나} #2 쭝 쭝 캐러 텡게제, 쭝긴. {쭝 쭝 캐러 다녔지, 쭝은.} @2 쭝 쭝기나 머 또 다름 건? {쭝 쭝이나 뭐 또 다른 것은?}

10506 #1 그땀 나물 캐러 간닥 하든 쭝기나 케제. {그땀 나물 캐러 간다고 하면 쭝이나 쥔지.} #2 쭝근 쭝근 케제. {쭝은 쭝은 쥔지.} @2 쭝기나 쭝기나 케셔쥔요? {쭝이나 쭝이나 캐셨어요?} #2 쭝 캐고 또 반노물 이제. {쭝도 캐고 또 밭나물 있지.} @2 반노물? {밭나물?} #2 응 @2 어떤 반노무리 {어떤 밭나물이?}

10506 #2 반노무리 엔:나레 우덜 에레서 반노물 이쥔쥔. 먼 여른 논뚜러게는 빼:빼쟁이 이꼬 {밭나물이 옛날에 우리들 어려서 밭나물 있었어. 무슨 이런 논두렁에는 질경이('빼빼쟁이'는 '질경이'의 방언) 있고,}

10506 #2 (웃음) 논뚜러게 가면 빼:빼쟁이 이쥔 이쥔라우. {(웃음) 논두렁에 가면 질경이 있어요.} @2 에에 보메 {예예, 봄에} #2 그릉 걸 이꼬 {그런 것 있고.} @2 에

10506 #2 또 거 쓴 노무리라고 썸바기라고도 이꼬 {또 그 쓴나물이라고 썸바귀라고도 있고,} #2 에에 썸바기 {예예, 썸바귀} #2 싸랑부리 {'싸랑부리'} @2 싸랑부리 {'싸랑부리'} #2 엔:나레 그거뽀다 싸랑부리라간디 그거뽀다 썸바기라게. {옛날에 그것보고 '싸랑부리'라고 하는데 그것보고 썸바귀라고 해.} @2 에에

10506 #1 싸랑부리 거 그걸 무그면 입마시 당궁 거시여. {썸바귀 그 그것 먹으면 입맛이 당기는 것이야.} #2 그걸 캐다가 그 그걸 캐다가 {그것 캐다가 그 그것 캐다가}

10506 #2 무쳐 무그면 쓰디:: 쥔도 좋아안 사라면 겹:나 조아라게.(웃음) {무쳐 먹으면 쓰디 쥔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라고 해.} #1 아 그거시 일본 행니미 와서 거시기 하드만. {아, 그것이 일본 형님이 와서 뭐 하더구먼.}

10506 #2 일본 시수근 그거 조아라게. 오시면 그랑게 싸랑부리 그놈 캐다가 해. {일본 시숙은 그것 좋아라고 해. 오시면 그러니까 썸바귀 그것 캐다가 해.} #1 그랑게 어머니가 캐다 쥔 거시기 무쳐주면 잘 잡쥔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캐다 저 뭐 무쳐 주면 잘 잡수지.} #2 에 쥔:로 그걸 조아라게. {예, 제일 그걸 좋아라고 해.} @2 에

10506 #1 일본 형니름 {일본 형님은} #2 그레제. 바테 가면 반노물 엔:나레 보리쥔게 보리갈머년 보리쥔게가 {그랬지. 밭에 가면 밭나물 옛날에 보리 속에 보리 갈머년 보리 속에}

@2 에

10507 #2 반노를 이썬 먼:. 나:발쟁이라고도 이름도 이꼬 나상, 나생이라고 이꼬. {발나물 있어 무슨. '나발쟁이'라고도 이름도 있고 나상 '나생이'('나생이'는 '냉이'의 방언)라고도 있고.}

10507 #2 저런 {저런} #1 세메답또 이꼬 {'세메답'도 있고} #2 나:발쟁이라고도 이꼬 세메답또 이꼬 며: {'나발쟁이'도 있고 '세메답'도 있고 뭐}

10507 #2 공:두메도 이꼬, 여러 종뉴여 나물 종뉴가 바테서 켜거슨. {'공뚫대'도 있고, 여러 종류야 나물 종류가. 밭에서 캐는 것은} @2 에 #2 거에 어레서 케로 텅길 때. {그 어려서 캐러 다닐 때}

10507 #2 그렇 거 캐다가 모도 썰마서 무쳐무꼬 그레썬라우. {그런 것 캐다가 모두 삶아서 무쳐 먹고 그랬어요.} @2 에 #1 그란디 공:두메도 {그런데 공뚫대도} #2 엔:나레 {옛날에} #1 썰마서 무건능가? {삶아서 먹었는가?}

10507 #2 공:두메 공:두께도 무건, 그저네 무거제. {공뚫대 공뚫대도 먹었 그전에 먹었지.} #1 저 거시기 세메다븐 저 해:서 무그른 부, 부짜:네? {저 뭐 세메답은 저 해서 먹으면 붓잖아?} #2 응 부서. {응, 부어.}

10507 #2 거시기 저저저 {뭐 저저저}

10507 #2 노물도 여러 가진 디 다 이저무거부런네. {나물도 여러 가진데 다 잊어 먹어 버렸네.} @2 다 잘 기억 하시는데요(웃음) {다 잘 기억하시는데요. (웃음)} #2 응 그래도 거시기 {응, 그래도 뭐} @2 에

10509 #2 그레가꼬 고놈 인자 그 노물 인자 에레서 케로 가머는 {그레 가지고 그것 이제 그 나물 이제 어려서 캐러 가면은,} @2 에

10509 #2 칭구드리랑 여러니 가제. 바구리에다 바구리 가꼬 칼 가꼬 {친구들이랑 여럿이 갔지. 바구니에다 바구니 가지고 칼 가지고.} @2 에 #2 가머는 인자 고놈 노물 케:가꼬 보리쑈게서 노물 케가꼬 보리도 케고 노물도 케가꼬 {가머는 이제 그것 나물 캐 가지고 보리속에서 나물 캐 가지고 보리도 캐고 나물도 캐 가지고}

10509 #2 인자 거 가서 언능 아노고 인자 그놈 칼베기 헐다고 (웃음) {이제 그 가서 얼른 안 오고 이제 그것 칼박이 한다고. (웃음)} @2 칼베기요? {칼박이요?}

10509 #2 인자 칼 저 그 노무를 케가꼬 인자 저기 하거덜. {이제 칼 저 그 나물을 캐 가지고 이제 저기하거든.} #1 서로 따무글라고? {서로 따먹으려고?} #2 서로 따 무글라고 노물 그놈. (웃음) {서로 따먹으려고 나물 그것. (웃음)} #1 오 {오!}

10509 #1 예끼 순 {예끼 순!} #2 여로고 칼로 여곤 팍:: 여러콘 칼베기 여러콘 탁 어퍼지면 여러고 각 쟁게지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팍 이렇게 칼박이 이렇게 탁 얹어지면 이렇게 콕 끼이게 되면('쟁기다'는 '끼이다'의 방언)} @2 에

10509 #2 인자 이녀기 이계따고 고놈 따:서 인자 이녀께로 가져오고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그것 따서 이제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2(웃음) #2 지면 또 껌끼** 또 사:람 주고 {지면 또 **** 또 사람 주고}

10509 #1 에이 해진떡! 암 베게지면? {에이, 해진떡! 안 박히면?} #2 암 베게지면 인자 자빠져부면 인자 안 주제. {안 박히면 이제 넘어져 버리면 이제 안 주지.} #1 거: {그} #2 인자 그리고 막 해:썬라우. 어려서. {이제 그렇게 막 했어요, 어려서.}

10509 @2 에 #2 그레가꼬 인자 땅 무더나. 노물 캐서. 구덩이 파서 거따나 암 몰르라고. 무더노꼬 케가꼬 바구리로 한:나썬 케가꼬. {그레 가지고 이제 딱 물어봐. 나물 캐서. 구덩

이 파서 거기다가 안 마르도록. 물어 놓고 캐 가지고 바구니로 하나씩 캐 가지고,}

10509 #2 가꼬와서 고놈 들쳐서 무쳐무꼬 그레:쥔. 덴:장 치고 폐야 양념 마늘썬 양념 모
도 지름 느:코 무쳐노른 그거또 마시썬. {가지고 와서 그것 데쳐서 무쳐 먹고 그랬지. 된장
치고 내나 양념 마늘 양념 모두 기름 넣고 무쳐 놓으면 그것도 맛있어.} @2 에

10509 #2 에레서는 {어려서는} #1 우이 술짜인 나는 그런 줄도 모를쥔 아라떠니 지양시릅
께 쥔네. {아니 상당히 나는 그런 줄도 모를 줄 알았더니 깃긋게 쥔네.} @2(웃음) #2 우더
리 업:마나 지양시릅께 커따고 에레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깃긋게 쥔다고? 어려서는.} @
(웃음)

10509 @2 그러면 아까 그 고사리 꺼끄셔따고 아 양 꺼끄셔따고. 근데 여기서는 산나물 드
시능 게 고사리 바께 업:나요? 머 취나 이렇 거또? {그러면 아까 그 고사리 꺾으셨다고 안
꺾으셨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산나물 드시는 것이 고사리밖에 없나요? 뭐 취나 이런 것도?}
#2 취도 업:썬. 이런 디는. {취도 없어. 이런 곳은.} @2 아

10509 #2 취가 어디 나가야 이제 요른 디는 업:썬 취. {취가 어디 나가야 있지 이런 곳은
없어. 취.} @2 에 취도 업:꼬 다릉 {예, 취도 없고 다릉} #2 고사리 베께 업:썬, 단숙. {고
사리밖에 없어, 오로지.('단수'는 '오로지'의 뜻)} @2 에

10509 @2 머 도라지나 이렇 거는? {뭐 도라지나 아른 것은?} #2 도라지도 잘 업:썬 요른
디는. {도라지도 잘 없어 이런 곳은.} @2 (웃음) #2 도라지도 업:썬라. 그란디 무단 사라문
한 집썬 쪼끔썬 송거가꼬 해:무근 사람도 이때요. {도라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집썬 쪼끔썬 심어 가지고 해 먹는 사람도 있데요.} #1 썬기여 도라지 송근 디가 {저기 저
도라지 심는 곳이} @2 에 지베다가? {예, 집에다가.} #2 응 지베다가 {응, 집에다가.} #1
저 거시기 미오기네가 송거저데. {저 뭐 미옥이네가(고유명사) 심어졌네.}

10509 #2 도라지 송거가꼬 거그는 머:더나머년 {도라지 심어 가지고 거기는 뭐 하나면은}
#1 돌간 {도라지.} #2 거시기 저절 베 베발 이썬께 베 베 따:다가 인자 쥔네. {거시기 저
저 베 베발 있으니까 베 베 따다가 이제 쥔 내.}

10509 #2 쥔네서 파라무글때 도라지 늘:라고 모도 가:수원 한 사람드른 송거. {쥔 내서 팔
아 먹을 때 도라지 넣으려고 모두 과수원 하는 사람들은 심어.} #2 에 송근 거만 이제 궁께
사네서는 {예, 심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산에서는} #2 응 양::케. 업:썬 그릉거. {응, 안 캐.
없어 그런 것.} @2 멘 인제 드:레서 나능 건만 {맨 이제 들에서 나는 것만.} #2 이~, 드:
레서 나능 거슨 꼬사리 베끼는 {아, 들에서 나는 것은 고사리밖에는}

10509 #2 여그는 단수 그릉 거시나 끄느러 땡임따다. 나는 당에 안 가바썬.(웃음) {여기는
오직 그런 것이나 끊으러 다닙디다. 나는 아직 안 가 봤어.} @ 에 도라지를 여기서는 머:라
그레썬요 엔:나레? {예, 도라지를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10509 #2 돌간 {'돌갓'} #1 돌간 {돌갓} @2 아 #1 돌간뽀다 도라지라 그레. {돌갓보고
도라지라 그레.} @2 아 돌간 {아, 돌갓} #1 저 도라지 도라지 백또라지 아납떠여 {저 도라
지 도라지 백도라지 하잖습디까?} #2 (웃음)

10509 @ 여기는 노래를 달라 해야쥔네. {여기는 노래를 달리 해야쥔네.} #1 심심산처네
백또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 돌간 돌간 백돌가지라 해야쓰건네 {돌갓 돌갓 백돌가
지 해야 되쥔네.} #2(웃음) #1 한 두 뿌리만 캐여도 {한 두 뿌리만 캐도} @2(웃음)

10509 #2 그란디 여그는 도라지 도라지 백또라지 그레썬. {그런데 여기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그랬어.} @2 노래는 그러케 하고 {노래는 그렇게 하고} #1 헤헤요 헤헤요. 헤헤
헤요.

10508 @2 거 나물 캐러 가실 때에 머: 들고 가서썬요? {그 나물 캐러 가실 때에 뭐 들고 가셨어요?} #2 바:구리 {바구니} #2 바구리에다가? {바구니에다가?} #2 엔:나레는 {옛날에는} #1 바구리 가꼬 가제. {바구니 가지고 가지.} #2 뎡뎡바구리라고 이썬. {'댄뎡바구니'라고 있어.} @2 에? #2 뎡뎡바구리라고 이따고. {'댄뎡바구니'라고 있다고.} #1 뎡뎡바구리라면 {'댄뎡바구니'라면} #2 엔:나레 {옛날에}

10508 #1 그 엔:나레 뎡뎡구리 이썬가꼬 그놈 뜨더다가 바구리를 뎡그라썬. {그 옛날에 뎡뎡쿨이 있어 가지고 그것 뜯어다가 바구니를 만들었어.} @ 데 데 뎡뎡쿨로요? {대 대 뎡뎡쿨로요?} #1 아니 영쿨 여 지금 여 썬시기가 이썬요. {아니, 뎡쿨 이 지금 이 거시기가 있어요.} @ 아

10508 #2 저썬 사네가머넌 이르고 {저 산에 가면은 이렇게} #1 (기침) #2 이파리가 납작 납작 향거시 지드::런허니 영쿨 이썬. {이파리가 납작납작한 것이 기다랗게 뎡쿨 있어.} #1 껌:저가꼬 {파저 가지고} #2 뎡뎡 영꾸리라고. {'댄뎡' 뎡쿨이라고.} @2 에 #1 그라고 고거시, {그렇게 그것어.}

10508 #1 안 떠러지고 {안 떨어지고} #2 찔:그요이~ {질겨요.('찹다'는 '질기다'의 방언)} @2 아 #2 그놈가꼬 인자 이런 데 비여가꼬 {그것 가지고 이제 이런 곳 베어 가지고} #1 (기침) #2 데 비여서 조:케 이러가꼬 {대 베어서 좋게 만들어('일다'는 여기서 '만들다'의 뜻) 가지고}

10508 #2 인자 고놈 인자 뎡:뎡 돌려서 인자 바구리 저러. {이제 그것 이제 빙빙 돌려서 이제 바구니 곁어.} #1 데를 {대를} #2 데를 {대를} #1 알:께 이러가꼬 {얹게 만들어 가지고}

10508 #2 고노를 뎡:뎡 돌려서 인자 그그 뎡뎡 그거시로 영꺼서 바구리로 뎡드라가꼬 {그것을 빙빙 돌려서 이제 그 그 '댄뎡' 그것으로 엮어서 바구니로 만들어 가지고} #1(기침) #2 거노마고 카라고 가꼬가. {그것하고 칼하고 가지고 가.} @2 에 #2 노물케로 엔:나레. {나물 캐러 옛날에.}

10508 #2 그레가꼬 {그레 가지고} @ 뎡뎡바구리이~ {'댄뎡바구니'} #2 예, 뎡뎡바구리. {예, 뎡뎡바구니} @2 뎡뎡바구리요 {댄뎡바구니요?} #2 예, 그레가꼬 거그다가 노물 케가꼬 {예, 그레 가지고 거기다가 나물 캐 가지고} #1 데로 뎡드라따 헤:서 뎡뎡바구리. {대로 만들었다 해서 뎡뎡바구니.}

10508 @ 뎡뎡뎡꾸리라 허면 뎡뎡 뎡쿨 {댄뎡 뎡쿨이라 하면 뎡뎡 뎡쿨} #2 예 @ 뎡뎡 영쿨 {댄뎡 뎡쿨} #1 아 영꾸리 뎡뎡영꾸리 아니라 그 먼 영꾸리 이르미 이썬꺼인디. {아, 뎡쿨이 뎡뎡 뎡쿨이 아니라 그 무슨 뎡쿨이 이름이 있을 것인데.} #2 뎡뎡 바구리 그 {댄뎡 바구니 그}

10508 #2 그거이 몰라. 먼: 영꾸렁가는 몰라도 뎡뎡바구리라게썬. {그것이 몰라. 무슨 뎡쿨 인지는 몰라도 뎡뎡 바구니라 했어.} #1 인자 그랑께 인자 그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레.} #2 데로 영꾼닥 헤:서 뎡뎡 바구리. {대로 엮는다 해서 뎡뎡 바구니.}

10508 #2 그레가꼬 그런 산 모도 산 거시기 {그레 가지고 그런 산 모두 산 거시기} #2 아 모:릉 거슨 소네다 쥐여도 모:르니까 {아, 모르는 것은 손에다 쥐여도 모르니까.} #2 바테가서 노물 케다가 그러게 무처무꼬 그런 노물 베께 엮:썬. {밭에 가서 나물 캐다가 그렇게 무쳐 먹고 그런 나물밖에 없어.} #1 얼릉 생가기 안낭 거또 {얼른 생각이 안 나 그것도.}

10509 #2 다른 노무른 엮:꼬. {다른 나물은 없고.} @2 나물 캐러 가실 때에 혼자 가세요? {나물 캐러 가실 때에 혼자 가세요?} #2 여러니 가제. {여럿이 가지.} @2 여러니 가요?

{여럿이 가요?} #2 그라지, 청구들랑 {그렇지. 친구들이랑.} #1 혼자서 안가제이~. {혼자서는 안 가지.} @2(웃음)

10509 #1 누가 어버가면 으짜게? {누가 업어 가면 어떻게 해?} #2 크네, 크네기때 저 쪼깐 헤:서 여러:니 가제. {처녀, 처녀('큰애기'는 '처녀'의 방언) 때 저 조그매서 여럿이 가지} @2 에에 #2 여러니 가서 그러코 장난치고 막 그라제. 거 칼베기 험다고 구라고 {여럿이 가서 그렇게 장난치고 막 그러지. 그 칼박이 한다고 그러고.} @2 칼베기 함 번 허시고 {칼박이 한 번 하시고.} #2 응

10509 #2 요로코 명겨 가꼬 {이렇게 던져 가지고} @ 아 지 지 지지리 딸 케가꼬 다 이러 버리면 어트케요? {아, 기껏('지지리'는 '기껏'의 방언) 캐 가지고 다 잃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2 (웃음) 그라문 또 케가꼬 오지요 인자. {그러면 또 캐 가지고 오지요 이제.} #1 인자 보지라니 케야제. {이제 부지런히 캐야지.} #2 보지라니 케야제. (웃음) {부지런히 캐야지. (웃음)}

10509 @2 아:: 이런 데는 먼 그걸 그 나물케러 가따가: 짐승 만나고 머 {아, 이런 곳은 뭐 그것 그 나물 캐러 갔다가 짐승 만나고 뭐} #2 그렇 거슨 업:썩. {그런 것은 없어.} @2 업:썩? {없지요?} #2 여거 여 머 거시기가 아니라 {여기 여 뭐 거시기가 아니라}

10509 @2 사니 아니라 {산이 아니라} #2 사니 아니라 {산이 아니라} #1 기폰 산중이 아니라 {깊은 산중이 아니라} #2 응 아니라 그렇 거 업:썩. {응, 아니라 그런 것 없어.} @2 에

10509 @2 머 다름 건 아까 그거 칼베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 제민능 거슨 업:쓰세요? {뭐 다른 것 아까 그것 칼박이 말고 또 다른 이야기 재미있는 것은 없으세요?} #2 어쓰 먼 업:썩. (웃음) {없으 뭐 없어. (웃음)}

10509 #2 나는 먼: 이야기를 모단당께. {나는 무슨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 @2 어이 잘 하시 {아니, 잘 하시} #2 입따미 업:썩가꼬 이야기를 으 모:데. 곰:방 이저부러 다. {입담이 없어 가지고 이야기를 못해. 금방 잊어 버려 다.}

10509 #2 거 곰:방 드러가꼬도 머시락 향고 그레지고 이이 언:능 이지미 마:네가꼬 {그 금방 들어 가지고도 뭐라고 하나 그레지고 이 얼른 잊음이 많아 가지고} @2 에

10509 #2 아이 곰:방 냉장고에로 먼: 가지로 가도 아니 네가 머:까지로 완느디 이라고 보라꼬 이따냐 {아니, 금방 냉장고로 뭐 가지러 가도 아니 내가 뭐 가지러 왔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냐?}

10509 #2 아:서 생각 하면 그걸 아:: 네가 그걸 가지로 와꾸나 그로코 생강나. 그러코 꺾:방 이저불고 이저불고 이집썩이 마:네. {와서 생각하면 그것 아 내가 그것 가지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나. 그렇게 꺾박 잊어 버리고 잊어 버리고} @2(웃음) #2 무장 더 그레. {점점 더 그레.('무장'은 '점점'의 방언)}

1.5.3. 밀반찬의 조리

10510 @2 (웃음) 에 그 다으메 인제 밥 어뜨케 헤: 드시는지 그 예:기:: 좀 헤 {예, 그 다음에 이제 밥 어떻게 해 드시는지 그 얘기 좀 헤.}

10510 @2 엔:나레는 여기 저기 이러케 입썩부억 아:니고: {옛날에는 여기 저기 이렇게 입

식 부엌 아니고} #2 불 때:서 밥 해제. 검정소테다가 {불 때서 밥 했지, 검정술에다가.}
 @2 검정소테다가 어:트게? 주로:: 밥 헤드시지요? {검정술에다가 어떻게? 주로 밥 헤드시
 지요?} #2 그러제. {그렇지.}
 10511 @2 다룽 낀 다룽 낀 별미로 뭐 또 해: 드시능 거 이쓰세요? 밥 하시고 {다른 것 다
 른 것 별미로 뭐 또 해 드시는 것 있으세요? 밥 하시고?} #2 밥 말고는 인자 {밥 말고는
 이제}
 10511 #2 또 벨메로 향 거슨 찰바비나 하고 그라제. {또 별미로 한 것은 찰밥이나 하고 그
 러지.} @2 찰밥 하시고 {찰밥 하시고} #2 응 찰밥 하고, {응, 찰밥 하고}
 10511 #1 보리메? {보름에?} #2 아니 암:제라도 {아니, 아무 때라도} @2 보통 인제 {보
 통 이제} #2 보통 인자 머꼬 시푸면 {보통 이제 먹고 싶으면}
 10511 #2 찰바비나 해:서 머:꼬 또 밀:까리 사두면 밀:까리 사다 주거나 썬무꼬 수제비
 {찰밥이나 해서 먹고 또 밀가루 사 두면 밀가루 사다 죽이나 썬 먹고 수제비} #2 수제비
 하시고 {수제비 하시고} #2 이~, 그룽 거이나 하고 똑 {응, 그런 것이나 하고 또}
 10512 #2 또 머기 시림 또 국쭈이쓰며 여르메 국쭈 함 번씩 끼레무꼬 {또 먹기 싫으면 또
 국수 있으면 여름에 국수 한 번씩 끓여 먹고} @2 국수 함 번 끄려 잡쭈시고 {국수 한 번
 끓여 잡쭈시고} #2 응 그러제. {응, 그렇지.} @2 에
 10512 @2 그 다으메: 여기서 반찬은 주로 어떻 거 어떻 거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서 반찬은 주로 어떤 것 어떤 것 준비하세요?} #1 반찬 {반찬} @2 에 반찬은 {예, 반찬
 은}
 10512 #2 반찬 쟁상 이 먼: 반찬니썬? {반찬 내나 이 무슨 반찬 있어?} @2 머 김치하고
 {뭐 김치하고} #2 김치하고 {김치하고} #1 여르메 **먼 저 썬 옐:무레 따다 와 썬 거시
 해:썬요. {여름에 *** 저 저 오이 따다 오 저 거시기 했어요.}
 10513 #2 까:지 따다 노물 하고 {가지 따다 나물 하고} @2 아 나물 만드시고 {아, 나물
 만드시고} #2 나물 만들고 {나물 만들고} @2 에 #1 까:지는 짹:짹 썬저서 노물하고 {가지
 는 짹:짹 썬저서 나물 하고} #2 (웃음)짹:짹 썬저서 까:지 노물 하고 {짹:짹 썬저서 가지 나
 물 하고}
 10513 #1 똑:똑 썬저서 호:방노물 {똑:똑 썬저서 호박나물} #2 똑:똑 썬저서 호:방노물 하
 고 (웃음) {똑:똑 썬저서 호박나물 하고 (웃음)} #2 나물하시고 {나물 하시고} #2 채:로 썬
 저서 무시 노물 하고 {채로 썬저서 무나물 하고} #2 에
 10513 #2 (웃음) @2 주로 나물 드시고 저깅도 마:니 드세요? {주로 나물 드시고 젓갈도
 많이 드세요?} #2 저깅도 그러제. 뭇치저또 자 무체 무글라면 무체무꼬 {젓갈도 그렇지. 뭇
 치젓도 이제 무쳐 먹으려면 무쳐 먹고} @2 에
 10515 #2 인자 잡썬또 사다 무체무꼬 {이제 잡젓도 사다 무쳐 먹고} @2 에 #2 향시리저
 또 다머서 머글라면 무꼬. {황새기젓도 담가서 먹으려면 먹고.}
 10515 #2 여러가지 인자 저까른 모도 종:뉴가 마썬또 이꼬 {여러 가지 이제 젓갈은 모두
 종류가 맛젓도 있고,} @2 에 #2 세비저또 이꼬 {새우젓도 있고,} #2 에 @2 저런 거시기
 먼: 저기 저또 이꼬 다: 모도 {저런 거시기 무슨 저기 젓도 있고 다 모두}
 10515 #2 여러 빈지락썬 이꼬 다: 이제. {여기 바지락젓(?) 있고 다 있지.} #1 옐:나레는
 거시히 썬** 조구 저 거시기 다뭇 거시른 머여? 먼: 저싱가? {옛날에는 거시기 *** 조기 저
 거시기 담그는 것은 뭐야? 무슨 젓인가?} #2 알가미젓 {아가미젓('알가미'는 '아가미'의 방
 언)} #1 알가미젓? {아가미젓?}

10515 #2 마:리 알가미저시라 {말이 '알가미젓'이라.} #1 또 우에절 웅에저또 이꼬 {또 웅어젓 웅어젓도 있고.} #2 웅에저또 이꼬 {웅어젓도 있고} @2 웅에저시요? 예 저갈 마:니 드셔쥬? {웅어젓이요? 예 젓갈 많이 드셨지요?} #2 으~. {응}

10515 #2 마니쥬. 그:저네는 거거 도포 그조게가 {많이 있지. 그전에는 그 도포(고유명사) 그쪽에} #1 거 항서리전 {그 황새기젓} #2 항서리전 마:니쥬쥬. {황새기젓 많이 있었지.} @2 예

10515 @2 상에 여르메는 그며는 여르메 드실 때에 {상에 여름에는 그러면은 여름에 드실 때에}

10516 @2 머 밥 하시고 반찬 인자 손님 마:냐게 오거나 아니면 지베서 시꾸들끼리 밥 머 꺼나 밥 하시고 또 김치 하나 올려노코 저갈 올려 노코 또 머 먼: 준비하세요? {뭐 밥 하시고 반찬 이제 손님 만약에 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식구들끼리 밥 먹거나 밥 하시고 또 김치 하나 올려 놓고 젓갈 올려 놓고 또 뭐 뭐 준비하세요?}

10516 #2 먼 나물 사다 {무슨 나물 사다} @2 나물 {나물} #2 나물 허고 {나물 하고} @2 하시고 {하시고} #2 또 쥬게 하고 {또 쥬게 하고} @2 쥬게: {쥬게} #2 응 @2 하시고 {하시고}

10516 #2 또 먼 구꺼니 이쓰면 국 끼리고 {또 무슨 국거리('국거니'는 '국거리'의 방언) 있으면 국 끓이고} @2 응, 구꺼니 이쓰면 국 끼리시고 {응, 국거리 있으면 국 끓이시고}

10516 #2 그렇 겐 저렁 겐 하제. {그런 것 저런 것 하지.} @2 예.

10514 @2 그러케 하고 머 인제 야:체가통 거 싸:잡쥬시게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야채 같은 것 싸서 잡쥬시게} #2 으~. {응} @2 하머는 {하면은}

10514 #2 인자 싸:머글 거슨 상추 고기 싸무글 때는 상추 하고 {이제 싸서 먹을 것은 상추 고기, 싸서 먹을 때는 상추하고} @2 예 #2 고추 하고 들겐넌 하고 {고추하고 들겅알고.} @2 예

10514 #2 그 그렇 거 사서 또 싸:묵제. {그 그런 것 사서 또 싸서 먹지.} @2 예 텐:장이랑 {예, 된장이랑} #2 응, 텐:장아고 {응, 된장하고}

10514 #2 고추장낭 해:서 {고추장이랑 해서} @2 텐:장이랑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2 응, 고추장이랑 으~ 마늘랑, {응, 고추장이랑 응 마늘이랑}

10513 @2 이진 어:트케 무러바야 델쥬 모르겐네요. {이것은 어떻게 물어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 이거 고기 가통 거슨 안 드셔쥬요? 쥬션? {이거 고기 같은 것은 안 드셨어요? 쥬션?} #2 쥬션도 들지요. {쥬션은 들지요.} @ 어떤 쥬션들 마:니 귀 잡쥬션나요? {어떤 쥬션들 많이 구워 잡쥬셨나요?} #2 조기 {조기}

10513 @ 예 조구 {예, 조기} #2 조구 하고 저런 저 {조기하고 저런 저} #1 뵙치 가통 거 {병어 같은 것} #2 뵙치 가통 거 {병어 같은 것} @2 예 #2 저기 저저저 머이요 그거시 {저기 저저저 뭐요, 그것이?}

10513 #2 저 강 강꼬등에 {저 간 간고등어} @2 고등에 {고등어} #2 고등어 예 그릉 거또 마:니 사서 해:머꼬 {고등어 예 그런 것도 많이 사서 해 먹고} @ 쥬션 장쥬 여르 도라다넌 니까? {쥬션 장쥬 여기 돌아다넌니까?} #2 예 여그 도라 다니 네:리 심복짱이다면 꼭 오늘 와:요. {예, 여기 돌아다니 내일이 심복짱이라 하면 꼭 오늘 와요.}

10513 @2 아 {웃음} #2 여자 아주마가 꼭 와요. {여자 아주머니가 꼭 와요.} #1 그란디 오느리 심복짱잉게 어 쥬 어제 {그런데 오늘이 심복짱이니까 저 어제} #2 어제 와쥬. {어제 왔어.}

10513 #2 꼭: 심복짱이 네:리락 하든 꼭 오늘 아침에 아요. {꼭 심복짱이 내일이라고 하면 꼭 오늘 아침에 와요.} @2 에 #2 장사가 {장수가.} #1 그랑께 어제 와써써. 오느리 심복짱 잉께. {그러니까 어제 왔었어. 오늘이 심복짱이니까.} #2 차 가꼬 아주마가. 거 영삼포서 꼭 다녀. {차 가지고 아주머니가. 그 영삼포서 꼭 다녀.}

10513 @ 엔:날부터 그레썬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2 예? @ 에,엔:날부터? {예, 옛날부터} #2 예 #1 아니여:: {아니야.} #2 아니요 중가네부텨 텡게 {아니요, 중간에서부터} #1 중가네부텨 텡이고 {중간에서부터 다니고}

10513 @2 저:네 저 {전에 저} #2 그:: 저네 뜯 저 아주마가 한나가 저 이:고 또 이려고 텡게써. {그전에 또 저 아주머니가 하나가 저 이고 또 이렇게 다녔어.} @2 세버게 {새벽에} #2 세부게면 꼭 와 이려고 {새벽이면 꼭 와 이렇게.} @2 예 저이 동네도 와꺼등요. {예, 저희 동네도 왔거든요.}

10513 #1 게 땅 먼 이:고 꼭 오 {그래 딱 무슨 이고 꼭 오} #2 쩌: 영삼포 아지마가 꼭 텡게써. 그란디 인자 그 영삼포 아줌마는 안 텡이고 또 따른 사라미 텡이데. {저 영삼포 아주머니가 꼭 다녔어. 그런데 이제 그 영삼포 아주머니는 안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이 다니 데.}

10513 @2 아 {아} #1 그라든 또 시 쩌 장에 시:장에 가서 먼 사가꼬 {그러면 또 시 장에 시장에 가서 뭐 사가지고} @ 장에 가서 또 잡쑤고 시퐁 거 {장에 가서 또 잡쑤고 싶은 것} #2 예 그러지요. {예, 그러지요.}

10513 #2 조기도 조 갈치도 사다묵꼬 다: 사다묵썬요 인자, 장에 인능 거슨 썬서는 {조기도 저 갈치도 사다 먹고 다 사다 먹지요 이제, 장에 있는 것은 썬은.}

10513 #2 오:리도 사다 오:리탕도 헤:무꼬 데야지고기도 사다 헤:무꼬(웃음) {오리도 사다 오리탕도 해 먹고 돼지 고기도 사다 해 먹고 (웃음)} #1 오,오늘또 형수씨가 저: 오:리 함 마리 사와써. {오늘도 형수가 저 오리 한 마리 사 왔어.}

10513 #2 어:디 형수씨가라우? {어디 형수가요?} #1 아 큰집 형수씨. {아, 큰집 형수} #2 아게습떠요? {오셨습디까?} #1 아노고 저 쩌 쩌 질부한테 보네떼. 데두엄마 {안 오고 저 저 저 질부에게 보냈데. 대두엄마.(고유명사)} #2 워:메 {아이고}

10513 #1 그레 냉:장고에 너:나써. {그레 냉장고에 넣어 났어.}

10514 @ (웃음) 국쑤는 지베서 이러케 만드시지는 안초? 사다 잡쑤셔쑤? {국쑤는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지는 않지요? 사다 잡쑤셨지요?}

10514 #2 그저네 그저네 밀: 허 헤:쑤 데는 밀: 가라쑤 떼는 밀:로 거시기 밀: 건 간 가라다가 쩌 쩌 기계에 가서 몽글::게 {그전에 그전에 밀 했을 때는 밀 갈았을 때는 밀로 거시기 밀 갈아다가 저 저 기계에 가서 몽글게}

10514 #2 가라다가 거시기 쩌 국쑤 빼:썬요. {갈아다가 거시기 저 국쑤 뺐어요.} @ 국쑤를 빼:기도 하셔썬요? {국쑤를 빼기도 하셨어요?} #2 예 빼:기도 헤썬요. {예, 빼기도 했어요.} #1 빼:기도 하고 반주글 이게서 여기서 {빼기도 하고 반죽을 이겨서 여기서} @ 그믄 기계는 국쑤 기계는 어디가 이썬요? {그러면 기계는 국쑤 기계는 어디에 있어요?} #2 인자 쩌 가서 이제. 거 기계 인는디 가서 {이제 저기에 있지. 그 기계 있는 데 가서}

10514 #1 아 엔:나레는 거시기 아네따고? {아, 옛날에는 거시기 안 했다고?} #2 엔:나레는 쩌 바람장에 가면 이썬. {옛날에는 저 반남장에 가면 있어.} #1 여러케 미러서 또 {이렇게 밀어서 또} #2 심복 까도 이꼬 {심복 가도 있고}

10514 @2 칼국쑤 {칼국수} #1 빼:서 마:니 아네썬? {빼서 많이 안 했어?} #2 그거슨 인

자 칼국쑤제. 그거승 칼국쑤고 앵: 국쑤 빼:다가 그때는 마:니 빼:다가 해: 무거제. {그것은 이제 칼국수지. 그것은 칼국수고 국수 빼다가 그때는 많이 빼다가 해 먹었지.} #1 그라문 그노른 물러가꼬 또 거시하제이~? {그러면 그것은 말려 가지고 또 거시기하지?} #2 그라제~. {그렇지.}

10514 #2 빼:가꼬 땅 여러고 물리드만. 그레가꼬 여로코 타발로 짬메여서 각 가따노코 마:니 해: 무거제. {빼 가지고 딱 이렇게 말리더구먼. 그레 가지고 이렇게 꼬나풀로 잡아매서 가져다 놓고 많이 해 먹었지.} #1 그러케 쟈 다발로 쟈:밍 거슨 그때 즈그가 다 찢라 주고. {그렇게 저 다발로 잡아매는 것은 그때 저희가 다 잘라 주고} @2 에 #2 해:서 마:니 그거 또 해: 무거제. {해서 많이 그것도 해 먹었지.} @ 그러쿠뇨. {그렇군요.} @2 그

10520 @2 고추장: 어뜨케 다르세요? {고추장 어떻게 담그세요?} #2 고추장? @2 예 #2 처:메 거시기 전 열 싸고 {처음에 거시기 저 옛 사고} @2 예

10520 #2 텐:장은 이녁 텐:장이로도 허,혈람 허고 살 장에 가서도 텐:장 고추장텐:장 살라 문 사고 그레가꼬 텐:장 하고 {된장은 자기 된장으로도 하려면 하고 장에 가서도 된장 고추장 된장 사려면 사고 그레 가지고 된장 하고}

10520 #2 거시기 여:다고 또 저절 참쌀가리아고 {거시기 옛하고 또 저저 참쌀가루하고}

10520 #2 인자 그레가꼐 끼레. 여 소테다 폭:폭 끼레가꼬 여다고 텐:장까리 하고 {이제 그레 가지고 끓여. 이 솥에다 폭폭 끓여 가지고 옛하고 된장가루하고}

10520 #2 전 거그다가 마늘씨 잔 가라서 느:코 그레가꼬 폭:폭 끼레가꼬 거그다가 인자 퍼:. 인자 폭:폭 끄르면. {저 거기다가 마늘 좀 갈아서 넣고 그레 가지고 폭폭 끓여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퍼. 이제 폭폭 끓이면}

10520 #2 여 저 다라이예다 퍼가꼬 인자 쪼끔 쪼끔 시글락 하문 거그따가 인자 거 고추장 메주 잔 사고 {이 저 대야에다 퍼 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 식으려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그 고추장 메주 좀 사고} @2 에

10520 #2 장에 가서 메주까리 {장에 가서 메주가루} @2 메주까리요? {메주가루요?} #2 응 사:고 인잔 고추장까리 인잔 쟈 고추를 몽글게 뽀사. {응, 사고 이제 고추장 가루 이제 저 고추를 몽글게 뽀아.}

10520 #2 고추장 만들라고. 그레가꼬 고노마고 해:서 딱 모까 나:두문 인잔 {고추장 만들려고. 그레 가지고 그것하고 해서 딱 반죽해 놔 두면 이제}

10520 #2 응 그레가꼬 거그따 세주도 치고 {응, 그레 가지고 거기다 소주도 치고} #2 소주요? {소주요?} #2 응 소주도 칠람 치고 또 저 사이다도 잔 치고 {응, 소주도 치려면 치고 또 저 사이다도 좀 치고} @2 에, #2 거 물 치지 말:고 {그 물 치지 말고}

10520 #2 인자 물치면 부글부글 게:고 그랑게 사이다 치고, 술 치, 세주 치고 그레가꼬 {이제 물 치면 부글부글 궂고 그러니까 사이다 치고, 술 치고 소주 치고 그레 가지고}

10520 #2 폭:폭 끼레가꼬 인자 쪼끔 시글락 하면 고추까리 처. 저 고추까리 이케 나:따가 간 차:꼬 마쳐 소금. {폭폭 끓여 가지고 이제 조금 식으려고 하면 고춧가루 처. 저 고춧가루 이겨 뵈다가 간 자꾸 맞춰. 소금.}

10520 #2 너머 짜도 모:쓰고 너머 싱가도 모:쓰고 함께 알마치 간 마쳐따가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하니까 알맞게 간 맞췄다가}

10520 #2 인자 딱: 처 테:나따가 인 고놈 거시기하면 쫌 사글락 하면 그냥 한 이틀 이따가 그냥 통에다 다머선 {이제 딱 치대 뵈다가 이제 그것 거시기하면 쫌 삭으려고 하면 그냥 한 이틀 있다가 그냥 통에다 담아서는}

10520 #2 냉:장고에다 너: 부러. 잔 여러 디다 나:두면 겐잔 해:도 부글부글 게:깎송께. {냉장고에다 넣어 버려. 좀 이런 곳에 놔 두면 괜찮아도 부글부글 필까 무서우니까.} # 예

10520 #2 그레노른 생:전 언:제까지 나:도 겐찬하드만. {그레 놓으면 생전 언제까지 괜찮더구먼.} @2 에 저:네는 근데 바께다 이러케 네:나 쓸 꺼 아니예요? 냉:장고 업:쓸때는? {예, 전에는 그런데 밖에다 이렇게 내놓았을 것 아니예요? 냉장고 없을 때는?} #2 응 저네는 베까테다 네:나제. {응, 전에는 밖에다 내놓았지.} @2 에 그러면? {예, 그러면}

10520 #2 인자 암만 해도 게:고 그러제~. {이제 아무래도 괴고 그러지.} @2 에, #2 게:고 그러면 시여도 지고 그러지만 지그믄 먼: {괴고 그러면 시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무슨}

10520 #2 냉:장고에다 너:봉께 머:시든지 보먼 냉:장고에 드러강께. (웃음) 그레가꼬 고치장 해: 목제. {냉장고에다 넣어 버리니까 뭐든지 보먼 냉장고에 들어가니까 (웃음) 그레 가지고 고추장 해 먹지.}

10520 @2 네, 된:장은 어뜨케 만드세요? {예, 된장은 어떻게 만드세요?} #2 텐:장은? {된장은?} @2 에 #2 콩 뚜두러 가꼬 {콩 두들겨 가지고} @2 에 #2 콩 그노믄 인자 말레 가꼬 {콩 그것을 이제 말려 가지고}

10520 #2 콩 뚜듬 알:메이를 쫄 말레가꼬 인자 그놈 인자 당가가꼬 콩 인자 {콩 두들기면 알맹이를 쫄 말려 가지고 이제 그것 이제 담가 가지고 콩 이제} #1 다 일리리 다 치리고 {다 일일이 다 ***} #2 거시기 {거시기} #1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10520 #2 당가나따가 인자 고놈 인자 시처가꼬 소테다가 인잔 다머가꼬 {담가 났다가 이제 그것 이제 씻어 가지고 술에다가 이제 담아 가지고} @2 에

10520 #2 소테다 부서가꼬 물 잔 부:꼬 {술에다 부어 가지고 물 좀 붓고} @2 에 #2 때: 불 인자 폭:폭 메 빨 한 서너 불 때:라우. {때, 불 이제 폭폭 몇 벌 한 서너 불 때요.}

10520 #2 때:머닌 거이 물렁물렁물렁 해:저 콩이. 그러면 그노믄 인자 퍼:가꼬 찹 {때면은 거의 물렁물렁해져 콩이. 그러면 그것을 이제 퍼 가지고 저} #1 도구통에다 {절구통에다} #2 물 바터가꼬 도구통에다가 인자 {물 받아 가지고 절구통에다 이제}

10520 #2 도 지그믄 고구통에다 찌:도 아네. 찌찌접 푸테에다 다머서 탁 볼바. 발로. {지금은 절구통에다 찹지도 않아. 저저 부대에다 담아서 탁 밟아, 발로.} @2 아: 예. @ 엔:나레는 엔:나레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1 찌,찌연는디 {찹였는데} #2 예

10520 #2 도구통에다 막 찌여찌요. {절구통에다 막 찹였지요.} @2 아 #2 그란디 지그믄 찌:도 잘 안 해. {그런데 지금은 잘 찹지도 않아.} #1 그레가꼬 푸테에다 다머가꼬 {그레 가지고 부대에다 담아 가지고} #2 마:다리 푸테에 다머아꼬 {한 말 들이('마다리'는 원래 '한 말 들이'의 분량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흔히 '부대'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부대에 담아 가지고}

10520 #2 막: 머 우:게다간 비니루라 둘러싸여가꼬 막 발로 막 막 볼바. 그람 막 이끄러져 버먼 이르고 딱딱 여러코 지금 사람드른 {막 뒤편에다가 비닐이랑 둘러 씌워 가지고 막 발로 막 막 밟아. 그러면 딱 으깨져('이끄러지다'는 '으깨지다'의 방언) 버리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10520 #2 거시기 저 이러코 만들데요, 머슬 데마냥. 나 이려고 발 아풍께 네가 빼:꼬 이쑈. 나 미야네도 어쥬 쑈 업:쑈. {거시기 저 이렇게 만들데요, 뭘 대처럼. 나 이렇게 발 아프니까 내가 뻘고 있소. 나 미안해도 어쩔 수 없어.} @2 예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0520 #2 그레가꼬 요로코 테마니로 만드라가꼬 거그다 한:나 다머가꼬 거그다이 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대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가득('한나'는 '가득'의 뜻) 담아 가지고 거기다 무슨}

10520 #2 포장 한 나 너:가꼬 어따 짱 너:가꼬는 깍::깍 눌러가꼬는 요로코 쏙 빼:서 노코 노코 하면 지금 꼭 장:기짱 마니로 {포장 가득 넣어 가지고 어디에다 짹 넣어가지고는 꼭꼭 눌러 가지고는 이렇게 쏙 빼서 놓고 놓고 하면 지금 꼭 장기짜처럼} #1 니:모 뽀드다게 해:가꼬 {네모 반듯하게 해 가지고} #2 니:모 뽀드데다꼬, 그레가꼬 {네모 반듯해 가지고 그레 가지고}

10520 #2 인자 여 불 때:면 정:기 춘 찌저 보일라 방에다가 {이제 이 불 때면 전기 저저 보일라 방에다가}

10520 #2 딱:: 지블 까라. {딱 짚을 잡아.} @2 에, #2 깔:고는 그 우게다 두금::금 놔. {깔고는 그 위에다 둘레둘레 놔.} @2 에, #2 졸:졸졸졸 놔. {졸졸졸졸 놔.} #1 뜨라고 그라제. {뜨라고 그러지.} #2 뜨라고 {뜨라고} @2 에

10520 #2 그래서 인자 차:꼬 하레면 날:마지 그놈 뚜저끄레 메주를. 그레가꼬 인자 한: 다리나 데머년 {그래서 이제 자꾸 하루면 날마다 그것 뒤적거려 메주를. 그레 가지고 이제 한 달이나 되면은}

10520 #2 한 다리나 거자 데야면 인자 떠. {한 달이나 거의 되면 이제 떠.} #1 다 떠썩게 {다 떴으니까} @2 에 #2 그러면 인자 고놈 네:서 인자 짱짱 물려가꼬 인자 {그러면 이제 그것 내서 이제 팡팡 말려 가지고 이제}

10520 #2 또 메주 다들라든 물 풀:고 무레다가 소금 푸러. {또 메주 담그러면 물 풀고 물에다가 소금 풀어.} @2 에

10520 #2 인자 가:사 거 장: 한하, 한 동우에 {이제 가령 그 장 한 동이에}

10520 #2 거시긴 저 소금 두: 데씩 푸러. {거시기 저 소금 두 되씩 풀어.} @2 아

10520 #2 두: 데 풀:고, 그레가꼬 인자 거그다가 짹랑가 어짹랑가 모롱게 게라늘 너:. {두 되 풀고. 그레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짹지 어떨지 모르니까 달걀을 넣어.}

10520 @2 에 #2 거 항에다가 거 메주 품:스로. 게라늘 너:가꼬 게란 게라니 {그 항아리에다가 그 메주 품으면서. 달걀을 넣어 가지고 달걀 달걀이,}

10520 #2 베곤짜리 돈: 한나마나 우:에가 떠. 요로코 동동 뜨며 {백 원짜리 돈 하나처럼 위에 떠. 이렇게 동동 뜨면}

10520 #2 그람 마치 조:아. {그러면 알맞게('마치'는 '알맞게'의 뜻) 좋아.} @2 아 소그미 요. {아, 소금이요?} #2 응 소그미 {응, 소금이.} #1 시:번짜리: {십원짜리.} #2 이~ 베곤짜리. {응, 백원짜리.} @2(웃음) #2 베곤짜리 {백원짜리} #1.***** 시번짜리제 베곤짜리 (***** 십원짜리지 백원짜리) #2 웨:그메 베곤짜리 돈 하나 느:머년 {아이고, 백원짜리 돈 하나 넣으면은}

10520 @2 크기가 {크기가} #1 시방 시번짜리를 마니 느:트만. {지금 십원짜리를 많이 넣더구먼.} #2 베곤짜리를 {백원짜리를}

10520 #2 느:차네 게라늘 너: 그 항아리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달걀을 넣어, 그 항아리에다.}

10520 #2 메주 쓴 인자 장: 쓸 항아리에다가 {메주 쑤 이제 장 담글 항아리에다가} #1 그거는 남자드른 모르이까 {그것은 남자들은 모르니까} #2 느:머년 {넣으면은}

10520 #2 그 게라니 베곤짜리 돈 한나마나 우:게가 베일라 말라 해. {그 달걀이 백원짜리

돈 하나만큼 위가 보일락 말락 해.} @2 에에 #2 요 동동동 뜨머넌. 그람 돈 한나마나마니 나 {이 동동동 뜨머넌. 그러면 돈 하나만큼이나} #1 그람 베곤짜리도 그 똥:가? {그럼 백원 짜리도 그 뜨나?}

10520 @ 베곤짜리가 아니라 (웃음) {백원짜리가 아니라} #2 음마마 베곤짜리가 아니라 게 라늘 는:닥 함께. {어머머, 백원짜리가 아니라 달걀을 넣다고 하니까} #1 게라니 뜬다 구라 제. {달걀이 뜬다 그러지.} #2 달가를 거그다 늘:르는 베곤짜리마::나 우:게가 올라온당께. 게라니. {달걀을 거기다 넣으면은 백원짜리만큼이나 위가 올라온다니까 달걀이.} #1 올레 게라니 표준마린디. {원래 계란이 표준말인테}

10520 #2 그러면 인자 거거시 인자 거시기 한당께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거시기 한다 니까} #1 달가리라 해:야제. 다갈. {달걀이라 해야지. '닥알'} #2 (웃음)

10520 @ 네 그레. {예, 그레.} #2 그 거거시 가늘 마쳐. 그람 인자 고놈 인자 {그것이 간 을 맞춰. 그러면 이제 그것 이제}

10520 #2 거자 한 다리나 {거의 한 달이나} #1 글 그걸 중시그로 또 거시가 하구마이~. {그 그것 중심으로 또 거시기 하는구먼.} #2 응 거자 한 다리나 데면 인자 또 그노른 인자 장:어린자 {응, 거의 한 달이나 되면 이제 또 그것은 이제 장을 이제}

10520 #2 건제. 텐:장을 {건져. 된장을.} @2 에에 #2 건제가꼬 인자 다른 향아리에다 물 쪽: 이려고 장 쪽: 바터가꼬는 {그래 가지고 이제 다른 향아리에다 물 쪽 이렇게 받아 가지 고는}

10520 #2 거그다 이려고 둘금둘금 고놈 께:가꼬 인자 {거기다 이렇게 둘레둘레 그것 께 가지고 이제} #2 에 #2 고 인자 초 칭겨울테면 소그를 잔 치고 {그 이제 싱겨울 것 같으면 소금을 줌 치고}

10520 #2 안 칭겨울테면 그냥 막 쟁에가꼬 {안 싱겨울 것 같으면 그냥 막 쟁여 가지고} #1 (하품) #2 우게다 장 쪼간 떠 부서나. {위에다 장 조금 떠 부어 놔.}

10520 @2 에 #2 그레가꼬 따둑:따둑 해:가꼬는 우:게다가 소금 잔 쳐서 {그래 가지고 다 독다독 해 가지고는 위에다가 소금 줌 쳐서} @2 에 #2 딱 저기 해:노른 인자 거거이 사그 먼 인자 {딱 저기 해 놓으면 이제 그것이 삭으면 이제}

10520 #2 인자 텐:장이 {이제 된장이} @2 언,언:제 멍나요? 그러케 만드러 노면 언:제 멍 나요? {언제 먹나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 먹나요?}

10520 #2 강 이그먼 암제라도 무거. {그냥 익으면 아무 때라도 먹어.} @2 아 그람 이글라 먼 열:마나 시가니 걸려야 이거서? {아, 그러면 익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익어서?}

10520 #2 인자 그:저네 무근 텐:장 인는 놈 무꼬 {이제 그전에 먹는 된장 있는 것 먹고} @2 에, #2 또 그놈 또 머거 사그먼. {또 그것 또 먹어 삭으면} @2 에

10520 #2 쪼끔 이쓰면 인자 익제.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익지, 그냥.} @2 에

10520 @2 장:은 장:은 요 인제 지금 만드러전는데 요거는 그러면 {장은 장은 이 이제 지 금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그러면} #2 그노른 인자 쪼:금이쓰면 인자 장:은 건져가꼬 인자 또 데레. {그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장은 건져 가지고 이제 또 달여.}

10520 #2 소테다가 {술에다가} @2 에 #2 그 장: 물만. {그 장 물만.} @2 에, #2 물만 인자 폭:폭 데레가꼬 {물만 이제 폭폭 달여 가지고}

10520 #2 잔 다라든 들:: 하니 인자 데레가꼬 {좀 닳아진 듯하게 이제 달여 가지고} @2 에, #2 또 향에다 퍼나따가 퍼서 딱 더퍼나. {또 향아리에다 퍼 났다가 퍼서 딱 덮어 놔.} @2 에

10520 #2 그라몬 인자 그눔 떠:다 묵게. {그러면 이제 그것 떠다 먹지.} @2 바로 바로 머 거요? {바로 바로 먹어요?} #2 응 그거슨 바로 머거. 안 데레도 무꼬 데레도 무꼬 그레라우. {응, 그것은 바로 먹어. 안 달여도 먹고 달여도 먹고 그래요.}

10520 @2 에 #2 그란디 데레나야 안심헤. {그런데 달여 놔야 안심헤.} @2 에, #2 다레노 먼 암 변:하제. {달여 놓으면 안 변하지.}

10520 #2 막 날장으로 무그먼 {막 생 장으로 먹으면} @2 에 #2 더 변하기도 일고 그란디 또 데레노머년 조:아. {더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달여 놓으면은 좋아.}

10520 #2 장:은 항:상 막 갈르면 데레부러야쎄. {장은 항상 막 가르면 달여 버려야 돼.} @2 아 #2 소테다가 {솔에다가}

10520 @2 그거 장: 암 만들고 텐:장 만드는 경우도 인나요? {그것 장 안 만들고 된장 만드는 경우도 있나요?} #2 그라제. 장: 암 만들고 텐:장 만들라면 {그렇지. 장 안 만들고 된장 만들려면}

10520 #2 그냥 메주 쏜노물 떤: 노물 깍::깍 뽀사가꼬 {그냥 메주 쏜 것을 뜯 것을 꼭꼭 뽀아 가지고} @2 에 #2 인자 거그다가 소금 쳐서 인자 장: 치고 소금 치고 인자 요려고 만들드만. {이제 거기다가 소금 쳐서 이제 장 치고 소금 치고 이제 이렇게 만들더구먼.}

10520 @2 에 #2 그레가꼬 전 텐:장 만드라. 그라몬 그거뽀다 막짱이락 하드만. {그레 가지고 저 된장 만들어. 그러면 그것보고 '막장'이라 하더구먼.} @2 에 #2 막웁:장. {막된장} @2 달라요? {달라요?} #2 응? @2 두 게가 여룬 기냥 장 뽀: 거하고 암 뽀거하고 {두 개가 이렇게 그냥 장 뽀 것하고 안 뽀 것하고}

10520 @2 어뜨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2 더 마시딱 하데. {더 맛있다고 하데.} @2 에:: #2 긍까 장:이 안 뽀:붕게 더 마시따게. {그러니까 장이 안 뽀 버리니까 더 맛있다고 해.}

10520 #2 막짱 다몬눔. {막장 담근 것.} @2 에 그먼 할머니돈 그러케 {예, 그러면 할머니도 그렇게} #2 나는 그르케는 안 해:바쎄.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봤어.} #1 (기침) #2 그러케 안 해:머년 놈들 그러케 하면 더 마시딱 하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남들 그렇게 하면 더 맛있다고 해.} @2 에

10523 #1(기침) @2 여기서 흑씨 또 머 열 까툇 거 흑씨 과: 보셔쎄요? 열 {여기서 흑씨 또 뭐 열 같은 것 흑씨 과 보셨어요 열?}

10523 #2 열 까툇 거 {열 같은 것} #1 (하품) #2 그:저네는 절 나 절머쥔 떤는 함 번씩 열 해:무거 받는다 지그몬 안 항게. {그전에는 나 젊었을 때는 한 번씩 열 해 먹어 봤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10523 #2 열 페냐 열 하머년 저기 허제. {열 내나 열 하면은 저기 하지.} @2 멀:로 만드셔쎄요? {뭇로 만드셨어요?} #2 시케 시케. {식혜 식혜.} @2 시케로요? {식혜로요?} #2 응 보리 지러가꼬 보리를 인자 시야네 지러. 지르몬 이려고 초기 나요. 시푸라니 초기 나머는 {응, 보리 길러('길우다'는 '기르다'의 방언) 가지고 보리를 이제 겨울에 길러. 기르면 이렇게 짹이('축'은 '쥬'의 방언) 나요. 새과랴게 짹이 나면은} #1 여찌름 남 {옛기름 남} #2 여찌름. 차::꼬 히치. {옛기름. 자꾸 씻어.} @2 에

10523 #2 차::꼬 히치면 그거시 여러 번 시치룩 달다고 엔:나레는 그레쎄. {자꾸 씻으면 그것이 여러 번 씻을수록 달다고 옛날에는 그랬어.}

10523 #2 그 자:꼬 시치면 인자 이러코 쪼까석 {그 자꾸 씻으면 이제 이렇게 조금씩} #1 수니 나도 {순이 나도} #2 이러고 수니 뽀쭈뽀쭈 나머년 자:꼬 인자 시치. {이렇게 순이 뽀

죽췌죽 나면은 자꾸 이제 씻어.}

10523 #2 무레다 시쳐서 또 여 바구리에다 퍼노코 퍼노코 헤:따가 인자 그거시 호::가니
싸기 인자 나면 인자 {물에다 씻어서 또 이 바구니에다 퍼 놓고 했다가 이제 그것이 하얗게
썩이 이제 나면 이제}

10523 #2 너러. 마당에다 너러가꼬 그놈 인자 밤니슬 마치면 서리 {널어. 마당에다 널어
가지고 그것 이제 밤이슬 맞히면 서리}

10523 #2 서리오고 그레 보메. {서리 오고 그레 봄에.} #1 더 달다게서 인잔 {더 달다고
해서 이제} #2 으~ 서리마쳐, 호::간 서리. {응, 서리 맞혀. 하얀 서리.} @2 에, #2 마당에
다 땅: 너러 나:따가 {마당에다 딱 널어 났다가}

10523 #2 고놈 인자 짱::짱 물러가꼬 인자 기계에 가서 가라. 가라다가 고놈가꼬 인자 시
카 시케 멘들제. {그것 이제 팡팡 말려 가지고 이제 기계에 가서 갈아. 갈아다가 그것 가지
고 이제 식혜 식혜 만들지.}

10523 @2 에 #2 그레가꼬 시케 그레가꼬 시케 물 쪽:: 따라가꼬 그놈 가꼬 인자 소테다
테레. 테리먼 그거시 여시 데야. {그레 가지고 식혜 그레 가지고 식혜 물 쪽 따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술에다 달여. 달이면 그것이 엿이 돼.} @2 아

10523 #2 그레가꼬 그거이 연 멘드라. {그레 가지고 그것이 엿 만들어.} @2 에

10523 @2 드끼에는 간단할 꺼 가튼 디 (웃음) {듣기에는 간단할 것 같은데 (웃음)} #2
이~(웃음) {응. (웃음) @2 그거시 {그것이} #2 시케물 그놈 그 시케 그놈 가라다가 {식혜
를 그것 그 식혜 그것 갈아다가} @2 에

10523 #2 인자 물 모까서 걸러. {이제 물 쳐서 걸러.} @2 에 #2 걸러가꼬 딱: 갈앙그머는
{걸려 가지고 딱 가라앉으면은}

10523 #2 미테 거 처징 거슨 버레불고 {밑에 그 처진 것은 버려 버리고} @2 에 #2 말:간
무릅 인자 그 {말간 물 이제 그}

10523 #2 찰밥 헤:서 바블 인자 양:처나 시케. 거 소테다 양:처가꼬 시케가 데머는 {찰밥
해서 밥을 이제 안쳐 놔 식혜. 그 술에다 안쳐 가지고 식혜가 되면은} @2 에

10523 #2 그놈 인잔 쪽 바텡, 인자 거 연 할라면 쪽 바터불고 {그것 이제 쪽 받아, 이제
그 엿 하려면 쪽 받아 버리고} @2 에 #2 그 물로 테레. {그 물로 달여.} @2 에 #2 그람
여시 데. {그럼 엿이 돼.} @2 시가니 오::레 걸리지요? 그러케 그거 연 이러케 다: 이러케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렇게 그것 엿 이렇게 다 이렇게.}

10523 #2 그라제. 흘차니 걸리제. {그렇지. 상당히 걸리지.} @ 열 그 전 땅게가 조:청을
만들자나요? {엿 그 전 단계가 조청을 만들잖아요?} #2 에 그러지요. {그렇지요.}

10523 #2 그레가꼬 그거까꼬 썩떡또 찌거무꼬 그레찌요. {그레 가지고 그것 가지고 썩떡도
찍어 먹고 그랬지요.} @ 예예예 여까지는 양 가도 조:청까지는 마:니 만들러 붓 거 가튼데
요. {예예예, 엿까지는 안 가도 조청까지는 많이 만들어 본 것 같은데요.} #2 에 그러지요.
{예, 그렇지요.}

10523 #2 여슨 안 마드라췌도 조:청 청은 만드라제. {엿은 안 만들었어도 조청 청은 만들
었지.} @ 에 @2 아

10523 #2 그레가꼬 {그레 가지고} @ 조청을 더 조리면 인제 여시 텐다고 {조청을 더 졸
이면 이제 엿이 된다고,} #2 예예 그런닥 헤찌요. {예예, 그런다고 했지요.} @ 예 초청 암
만:들고 인자 시케는 마:니 만드는데 {예, 초청 안 만들고 이제 식혜는 많이 만드는데,} #2
에 그라지라 시케는. {예, 그렇지요 식혜는.}

10523 @ 감:주라는 거 또 이씨요? {감주라는 것도 있어요?} #2 감:주가 시케여. {감주가 식해야.} @ 감주가 시케예요. {감주가 식해예요.} #1 감주가 시케여. {감주가 식해야.}

10523 #2 감주가 시케 {감주가 식해.} #1 시케보다 감, 감주라고 {식해보고 감, 감주라고.} @ 단수른 머예요? {단술은 뭐예요?} #2 단수런 {단술은}

10523 #2 머요 당신 아까치메 누룩 누룽 말합띠여? {뭐요 당신? 아까 누룩 누룩 말합띠까?}

10523 #1 다른 술 인자 달거께 멩궁께 인자 {다른 술 이제 달도록 만드니까 이제} #2 카마니씨. 네가 하께. 여그서 차:꼴 거싱항께. {가만 있어. 내가 할께. 여기서 자꾸 뭐 하니까.}

10523 #2 다수런 아까 거거 밀: 거시기로 {단술은 아까 그그 밀 거시기로} @ 밀씨올? {밀기울?}

10523 #2 에 밀지올로 거 띄워서 거 {예, 밀기올로 그 띄워서 그} @ 누룩 {누룩} #2 누룩 디든닥 합띠여? {누룩 딴는다고 합디까?} @2 에 #2 그놈 가꼬 {{그것 가지고}

10523 #2 인자 엔:나레는 보리바비안 밥 하먼 마:니 나므요안? {이제 옛날에는 보리밥이랑 밥 하먼은 많이 남잖소?} @ 예, 쉬여 {예, 쉬어.}

10523 #2 이:라고 그람면 일: 놉 마:니 어더서 일하머넌 {이렇게 그러면 일 남 많이 얻어서 일하먼은}

10523 #2 그 시근바비 나무면 시:깎송께 {그 찬밥이 남으면 쉴까 무서우니까} @ 음 #2 이른 오가리에나라 그 단수를 해:나. 그?은 저 거 {이런 향아리에다나('오가리'는 '작은 향아리'를 가리킨다.) 그 단술을 해 봐. 그 저거}

10523 #2 술 누룩 하고 밥 하고 요로코 서꺼 나라, 물 잔 치고. {술 누룩하고 밥하고 이렇게 섞어 봐요. 물 좀 치고.} @ 아 #2 그레 노면 인자 {그레 놓으면 이제}

10523 #2 오늘 저니 해:나딱 하먼 네:일 저니게 고놈 또 걸러요. 무거보든 타디 다요이~. {오늘 저녁 해 왔다고 하먼 내일 저녁에 그것 또 걸러요. 먹어 보면 다디달아요.}

10523 @ 아하 #2 그거시 단술 데야가고이~ 그람 끼레가꼬 그놈. {그것이 단술 돼 가지고 그럼 끓여 가지고 그것.}

10523 #2 걸러가꼬 끼레서 무그면 그거이 단수리여요. {걸러 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그것이 단술이에요.} @2 아

10523 @ 보리 보리밥 하고 누룩하고 서꺼가지고 {보리 보리밥하고 누룩하고 섞어 가지고} #2 예예

10523 @ 아 #2 거 저 참밥하고 {그 저 찬밥하고} #2 지그면 누루기 업:썰께 사서 할라면 저기 형께 {지금은 누룩이 없으니까 사서 하려면 저기 하니까}

10523 #2 지그면 거 저 시케까리 시케까리 사다가 밥하고 서꺼 나두면 그거이 또 단술 데야. {지금은 그 저 식해 가루 식해 가루 사다가 밥하고 섞어 봐 두면 그것이 또 단술 돼.} @2 아

10523 #2 그람 지: 돌마네 고노를 걸러서 끼레. {그럼 제 돌만에 그것을 걸러서 끓여.} @2 함번 해:바야 데겐네요. {한 번 해 봐야 되겠네요.}

10523 #2 해:바. 그럼 마시씨. {해 봐. 그럼 맛있어.} @ 음, 그럼 술끼우는 업:나요? {그럼 술기운은 없나요?} #2 아 술기운 업씨요. {아, 술기운 없어요.} #1 그거슨 그거슨 단수른 술기운 {그것은 그것은 단술은 술기운} @2 아 술기운 업:꼬 달짝찌근 하기만 허고이~ {아, 술기운 없고 달짝지근하기만 하고} #2 예, 달고 그라지요. {예, 달고 그렇지요.}

10523 @2 공께 단술하고 감주하고는 다르자나요 {그러니까 단술하고 감주하고는 다르잖아요?} #2 야 틀, 다르지요. {예, 틀 다르지요.}

10523 @2 근데: 그거슬 {그런데 그것슬} #2 감주 따로 이꼬 시케 따로 이꼬 아니 거시기 따로 이꼬 {감주 따로 있고 식혜 따로 있고 아니 거시기 따로 있고} @2 하루 땅 나뒹고 이거를 이러케 바터서 꼬리며는 {하루 딱 놔 두고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끓이면은}

10523 #2 취:기가 엄:는데 그거 야깐 시가니 {취기가 없는데 그것 약간 시간이} #2 이~오래 나며 그라문 저 거시기 하제. 술데야 불제 인자. {응, 오래 놔 두면 그러면 저 거시기 하지. 술 돼 버리지 이제.}

10523 #2 (웃음) 제 너머가꼬 (웃음) {(웃음)} 지나쳐('제넘다'는 '지나치다'의 뜻) 가지고 (웃음) @2 아는 애:가 그 {아는 애가 그} #1 그랑게 오래데면 인자 술 데부러. {그러니까 오래 되면 이제 술 돼 버려.}

10523 #1 그거이 오래 데문 술 돼고 {그것이 오래 되면 술 되고} #2 응 오래 데면 술 데야 불제. {응, 오래 되면 술 돼 버리지.} @2 야깐 도카게 도카게 데면 {약간 독하게 독하게 되면} #2 응 그래. 도카게 데야부러. {응, 그래. 독하게 돼 버려.}

10523 @ 수른 인자 보리바브로 안 하자나요. 찌 꼬두바븐 쌀:로 해:야지요. {술은 이제 보리밥으로 안 하잖아요?} #2 응 그러지요. {응, 그렇지요.}

10523 #2 머:스료? {뭘로?} @ 술 {술} #1 아이 술 할 때. {아니 술 할 때} @ 수를 술 만들 때는 {술을 술 만들 때는} #2 술 만들 때 보리쌀도 마:니 보리쌀 예 보리쌀로 해요. {술 만들 때 보리쌀도 많이 보리쌀 예 보리쌀로 해요.}

10523 #2 아 엔:나레 머 어디가 쌀: 이씨요? {아, 옛날에 뭐 어디에 쌀 있어요?}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 보리쌀로 다 하지. 지그밍게 저 쌀:로 허:제. {보리쌀로 다 하지. 지금이니까 저 쌀로 하지.} @ 술빠비 보리싸리여요? {술밥이 보리쌀이에요요?} #2 예 보리싸리여요. 보리쌀 찌가꼬 저 술 해찌요. {예, 보리쌀이에요요. 보리쌀 찌 가지고 저 술 했지요.}

10523 @ 나는 흰:쌀 꼬:두밤만 바:가지고 {나는 흰 쌀 고두밤만 봐 가지고} #1 아이 그라고 {아니 그리고} @ 응 #1 시야네는 인자 쌀로 마:니 찌서도 하고 {겨울에는 이제 쌀로 많이 찌서도 하고}

10523 #2 중가네 인자 가다가 싸:리 마:니 낭게 쌀:로 찌서 술 해찌 그:저네 {중간에 이제 가다가 쌀이 많이 나니까 쌀로 찌서 술 했지 그전에} @ 아 보리쌀로 {아, 보리쌀로} #2 예 10523 #2 보리쌀로 해:제. 어디가 쌀: 이씨서 쌀: 하거쑈? 쌀:밥또 업:씨서 몸: 무거넌디. {보리쌀로 했지. 어디에 쌀 있어서 쌀 하겠소? 쌀밥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 아 #2 아 예레 엔:나레 어:런덜 밥 해머는 {아, 어려 옛날에 어른들 밥하면은}

10523 #2 쌀: 조금 네:다가 오부렉::하니 소테다 영거가꼬 {쌀 조금 내다가 오보룩하게('오부렉하다'는 '오보룩하다'의 방언) 술에가 없어 가지고}

10523 #2 어:런덜만 고놈만 톱 떠드리면 얼::마나 고노미 머꼬 시푸꺼시요? 쌀:밥 그거시? (웃음) {어른들만 그것만 톱 떠 드리면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을 것이지요?} #1 그랑게 찌 이너근 쌀밥 몸:무꼬 {그러니까 저 자기는 쌀밥 못 먹고} #2 몸: 무꼬, 어:런덜만 톱 떠서 디리고, {못 먹고, 어른들만 톱 떠서 드리고}

10523 #2 건:디 어:디가 쌀:밥 이씨서 쌀:술 허거쑈요. {그런데 어디에 쌀밥 있어서 쌀 술 하겠어요?} @2 예 #2(웃음)

10523 @ 아 그러니까는 단수리 ** 시가니 조금 더 데:면 수리 데능 거고 {아, 그러니까 단술이 ** 시간이 조금 더 되면 술이 되는 것이고} #2 예 그러지요. {예, 그렇지요.} @ 그

러케 데겐네요. 네 알게쥬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알겠쥬니다.} #1 그란디 열 두시간 데면 단수리 텐다 하이 {그런데 열두 시간 되면 단술이 된다 하니} @2 예

#10523 2 오늘 저니게 해딱 하든 벨: 쯤니게 인자 끼레야썬. {오늘 저녁에 했다고 하면 내일 저녁에 이제 끓여야 돼.} @2 근디 인자 업 바빠가꼬 {그런데 이제 없 바빠 가지고} #2 응 모끼리면 그거이 저 제너머불면 인자 어:짜면 시기도 해: 불고 술 데야 불고 그래. {응, 못 끓이면 그것이 저 지나쳐 버리면 이제 어찌면 시기도 해 버리고 술 돼 버리고 그래.} @2 아

10523 # 단수리 제 너므면 {단술이 지나치면} #1 인제 시여저봉께 인제 수리 데제. {이제 시어져 버리니까 이제 술이 되지.} #2 {웃음} @2 그래서 그걸 마:니 이러케 머그면 {웃음} 애가 놀다가 갑자기 픽 {그래서 그걸 많이 이렇게 먹으면 {웃음} 애가 놀다가 갑자기 픽}

10523 #2 응 그래 {웃음} 해: 바꾸만 {응, 그래. {웃음} 해 봤구먼.} @2 아니 그 가튼:: 저 어려쥬 때도 그걸 마:니 머거꺼드노. 근데 {아니, 그 같은 저 어렸을 때도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10523 #1 단술 마:니 자:셔바꾸만. {단술 많이 자셔 봤구먼.} @2 아니 따른 애가 머꼬 완는데 {아니, 다른 애가 먹고 왔는데} @ 취해가꼬 와썬? {취해 가지고 왔어?}

10523 @2 놀다 갑자기 픽 쓰러져서{웃음} {놀다 갑자기 픽쓰러져서 {웃음}} #2 엄마가도 해:도 조:구 조:쥬. 단술도 {엄마가 해서도 쥬지, 단술도.} @2 예 인제 그러케도 머건는데 따른 애가 함명이 그러케 한 저기 이썬요. {웃음} {예. 이제 그렇게도 먹었는데 다른 애가 한 명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 금게 단수른 {그러니까 단술은}

10523 @ 나른 밥 처:치 하기 위해서 {남은 밥 처리하기 위해서.} #2 예예 그래요. {예예, 그래요.} @ **** 하능 거시군요. {**** 하는 것이군요.} #2 또 먹꼬 시플 때는 또 함 버니 나 또 해:무글 쥬도 이꼬 그라지요. {또 먹고 싶을 때는 또 한 번이나 또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러지요.} @ 음 예

10523 #2 그란디 인자 잘 안 해무거저요 그거시. {그런데 이제 잘 안 해 먹어저요 그것이.} @2 예, #2 거 해:무끼가 술차니 머리 무구와. {그 해 먹기가 상당히 머리 무거워.} @2 예

10523 @ 게 이게 별썬기네. {그래 이게 별식이네.} #2 예 그러지요. {예, 그렇지요.} @2 그 무까통 거또 쥬:셔썬요. {그 목 같은 것도 쥬썬지요?} #2 그라제. 목또 쥬:제. {그렇지. 목도 쥬지.} @2 예

10523 @2 머 무슨 목 무슨 목 {뭐 무슨 목 무슨 목?} #2 메물. {메밀} @2 메물 {메밀} #2 메물, 바테다가 메물 가라가꼬 {메밀, 밭에다가 갈아 가지고}

10523 #2 인자 메물 씨롭 바테다 빠리면 그 메무리 나머는 {이제 메밀 씨를 밭에다 뿌리면 그 메밀이 나머는} @2 예 #2 그거시 인잔 {그것이 이제}

10523 #2 이러고 자라가꼬 그거시 썬 피여. {이렇게 자라 가지고 그것이 썬 피여.} #1 꼬 시 피:면 흐,흐:가니 피:고 {꽃이 피면 하얗게 피고} #2 썬 피여가꼬 그거시 열:매가 너러. 메물 우 열:매가 널:머는 {꽃 피어 가지고 그것이 열매가 열어. 메밀 열매가 열면은}

10523 #2 그노를 인자 이그머년 비여다가 마당에 노코 뚜두러가꼬 {그것을 이제 익으면은 베다가 마당에 놓고 두들겨 가지고}

10523 #2 그 열:매를 인자 열:매만 딱 까불라면 {그 열매를 이제 열매만 딱 까부르면}

10523 #2 열:매만 쥬 껌그시 남:쥬. 그라면 인자 고놈 가서 인자 {열매만 쥬 껌껌이 남지. 그러면 이제 그것 가서 이제}

10523 #2 메또게다 가라. 지비서 엔:나레닌. {맷돌에다 갈아. 집에서 옛날에는} @2 에 #2 메또게다 갈:머닌 꺾떠근 꺾떡떼로 나오고 알:맹이는 알:맹이데로 나와. 그라몬 {맷돌에다 갈면은 꺾질은 꺾질대로 나오고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나와. 그러면}

10523 #2 그노를 이 알:맹이를 인자 무레다가 모까. {그것을 이 알맹이를 이제 물에다가 물을 쳐.}

10523 #1 거시기 하제. 치로 안 칭가? {거시기 하지. 체로 치잖나?} #2 궁께 치로 다 쳐:가꼬 인자 조:케 인자 알:맹이만 빼:가꼬는 인자 {그러니까 체로 다 쳐 가지고 이제 좋게 이제 알맹이만 빼 가지고는 이제}

10523 #2 무레다 땅 모까 나:따가 거시기 꼭:꼭 찌여라, 도구통에다가. {물에다가 딱 물을 쳐 냐다가 거시기 꼭꼭 찼어요, 절구통에다} @ 아 또 찌여요? {아, 또 찼어요?} #2 지그몬 엔:나레는 미싸기가 업:쥬께. {지금은 옛날에는 믹서기가 없으니까} @2 에

10523 #2 도구통에다 꼭:꼭 찌여가고는 구놈 인잔 걸러. {절구통에다 꼭꼭 찼어 가지고는 그것 이제 걸러.}

10523 #2 자 이려고 걸르몬 아조:: 무 켜르기가치 사:낭 건 업:썸. {이제 이렇게 거르면 아주 목 거르기같이 사나운 것 없어.} #1 어이 어이 끼레가꼬 앙 걸룻가? {어이 어이! 끓여 가지고 거르잖나?} #2 아이고, 앙 끼레가꼬 구노를 걸르몬 아조 먼 {아이고, 안 끓여 가지고 그것을 거르면 아주 무슨}

10523 #2 함빡울씩 푹:푹:푹:푹: 떨어지게 해:야제. 줄:줄 걸러부머는 목: 목 데도 아네. {한 방울씩 푹푹푹푹 떨어지게 해야지 줄줄 걸러 버리면은 못, 목 되지도 않아.}

10523 #2 여러고 걸르 치에서 이려고 걸르몬 미테로 함빡울씩 {이렇게 거르 체에서 이렇게 거르면 한 방울씩} #1 푹: 푹: 떨어져야 {푹푹 떨어져야} #2 푹 푹푹푹 떨어져야 그거시 무기테제 {푹푹푹푹 떨어져야 그것이 목이 되지.}

10523 #2 줄:줄:줄:줄: 미테로 술 거르데 빠져부먼 목 데도 쓰도 모:데. {줄줄줄줄 밑으로 술 거르다 빠져 버리면 목 되지도 쏙지도 못해.}

10523 #2 금:나 그거시 어라라. 목 쓰기가. {그러면 그것이 어려워요. 목 쏙기가.} #1 아 그 이:체가 다 이꾸만. {아, 그 이치가 다 있구먼.} #2 거 걸르기가. 걸르기가 사:나. {거 거르기가. 거르기가 사나워.}

10523 #2 그란디 지그몬: 미싸기로 들:라니 가라가꼬 물 딱 갈앙치머닌 줄:라니 따라가꼬 함께 지그몬 조:은디 엔:나레는 {그런데 지금은 믹서기로 드르륵하게 갈아 가지고 물 딱 가라앉히면 조르르 따라 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좋은데 옛날에는}

10523 #2 그놈 뽕다::뽕다: 골라가 걸러가꼬 그놈 끼리면 {그것 뽕다뽕다 골라 가 걸러 가지고 그것 끓이면}

10523 #2 조:아. 그레가꼬 뭉 만들고 그레썸. 엔:나레는. {좋아. 그래 가지고 목 만들고 그랬어, 옛날에는.} #1 그래서 그, 그, 그레케 멩근 노미 마시썸. {그래서 그 그 그렇게 만든 것이 맛있어.} #2 마시썸. 고노미. 그란디 지금더론 {맛있어 그것이. 그런데 지금들은}

10523 #2 장 미싸기에다 가라가꼬 무레다가 훌헝하니 해:가꼬 그놈 따라불고 함께 마시업:썸 더. {믹서기에다 갈아 가지고 물에다가 훌헝하게 해 가지고 그것 따라 버리고 하니까 맛이 없어 더.} @ 에 늘렁늘렁하지요. {예, 물렁물렁하지요.('늘렁늘렁하다'는 '물렁물렁하다'의 뜻)} #2 예 덜 마시업:썸. {예, 덜 맛이 없어.} @2 에

10523 #2 엔:나레는 꼬수와요이~. 고놈 해:노몬 {옛날에는 고소해요. 그것 해 놓으면} @2 다른 목도 쏙썸썸? 메물뭉 말:고 다른 목도 {다른 목도 쏙썸썸? 메밀목 말고 다른 목

도?) #2 다른 묵또 인자 전 도토리묵 까통 거또 썬:쥬. {다른 묵도 이제 저 도토리묵 같은 것도 썬지.}

10523 #2 도토리묵 인자 사다가 {도토리묵은 이제 사다가} @2 아 #2 사다가 그거슨 도토리묵 거: {사다가 그것은 도토리묵은 그}

10523 #2 그 가리가 이 커:비로 한나요? {그 가루가 이 컵으로 하나요?} @2 에

10523 #2 그라든 물도 커:비로 한 나쁜 물 다서께 부서야쥬. {그러면 물도 컵으로 하나면 물 다섯 개 부어야 돼.} @2 에

10523 #2 커:비로 한나쁜 그 커:비로 다서께 부서. {컵으로 하나면 그 컵으로 다섯 개 부어.}

10523 #2 그레가꼬 그거시로 두:리면 열 개 부:꼬 {그레 가지고 그것으로 돌이면 열 개 붓고.} @2 에 #2 그레가꼬 끼레. {그레 가지고 끓여.} @2 에 #2 여러고 인자 묵 쭈든 인자 거그다가 {이렇게 이제 묵 쭈면 이제 거기다가} #1 그거도 이제. {그것도 있지.}

10523 #2 거시기잔 치고 거그다가 참지름 쪼깐 인잔 끼릴 때 {거시기 좀 치고 거기다가 참지름 조금 이제 끓일 때}

10523 #2 끼릴 때 참지름 잔 치고 소금 잔 치고 해: 노면 해:서 땅 묵 썬. 그라든 {끓일 때 참지름 좀 치고 소금 좀 치고 해 놓으면 해서 딱 묵 썬. 그러면}

10523 #2 요로코 묵 썰: 때 요로코 요로고 요요저 주버기로 똥: 여러코 데로코 여로코 {이렇게 묵 썰 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저 주걱으로('주걱'은 '주걱'의 방언) 꼭 이렇게 이렇게}

10523 #2 소테가 푹 푹 푹 떠러져야 무기 뉘제, 너머나 질:라니 하머년 너머 누거가꼬 안 뉘. {술에 푹푹 떨어져야 묵이 되지 너무나 지르르하게 하면은 너무 녹어 가지고 안 돼.} @2 에

10523 #2 그레가꼬 묵 썬 퍼:나따가 인자 시그든 찰라머꼬 그라제. {그레 가지고 묵 썬 퍼 났다가 이제 식으면 잘라 먹고 그러지.} @2 에

10523 #1 아:야 @2 저히 그 외가쩍 뒤에 상:수리나무가 쿵: 거시 이썬썬. {저히 그 외가 뒤에 상수리나무가 큰 것이 있었어요.} #2 그레 {그래.}

10523 #2 명절때 가면 상수리로 묵 해요. {명절 때 가면 상수리로 묵 해요.} #2 그레 상:술로도 묵 하제. 페냐 그러코 해. 상:술도. {그레 상수리으로도 묵 하지. 내나 그렇게 해. 상수리도.}

10523 #2 가라가꼬 {갈아 가지고} @2 에 #2 우레불고 {우려 버리고} @2 마시 가통가요? 다통가요? 도토리하고 상:술하고 {맛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도토리하고 상수리하고.}

10523 #2 가통 거, 거자 가트꺼여. 거자 가터. 썬썬하디. 인자 자:꼬 무를 가라야제 그랑께. {같은 것, 거의 같을 거야. 거의 갈아. 썬썬하디('썬썬하디'는 '썬썬하디'의 방언). 이제 자꾸 물을 갈아야지 그러니까.} @2 에

10523 #1 거시기 해:야 쓰거쏘야 {거시기 해야 되겠소.} @2 에 #1 바람또 무레노꼬 비실 또 뿌레나쥬 {*** 물 해 놓고 ** 또 뿌려 났어.} #2 나:코 해끄테 가쥬. 해끄테 가. {나중에('나코'는 '나중에'의 방언) 해거름에('해끝'은 '해거름'의 방언) 가시오. 해거름에 가.} #1 끈 냥: {끝 나} @2 떡 헤드싱 거또 쭈 여쭈 보까요? 엔:나레 떡 이리케 이리케 해 해:드서 쪼? {떡 해 드신 것도 좀 여쭈 볼까요? 옛날에 떡 이렇게 이렇게 해 드셨지요?} #2 응 #1 응? @2 떡 #2 떡

10523 #2 힌 떡? {흰떡} @2 엔:나레는 지그든 저기 그 그 {옛날에는 지금은 저기 그 그}

10523 @2 뭇조? 방아까네 가서 다 떡 해:오는데 엔:나레는 마으레서 {뭇지요? 방앗간에}

가서 다 떡 해 오는데 옛날에는 마을에서} #2 그라제. {그렇지.} #1 마으레서 떡 처제. {마을에서 떡 쳤지.} @2 에

10523 #1 네가 잘 헨는디 그렇 거슨 {내가 잘 했는데 그런 것은.} @2 (웃음)

10523 #2 힌떡 {힌떡} @2 어:뜨케 하셔썬요? {어떻게 하셨어요?} #2 힌떡 거 데떡 {힌떡 그 가래떡.('대떡'은 '가래떡'의 방언)} @2 에에 #2 데떡 허머넌 쌀:까리 뽕사가꼬 {가래떡 하면은 쌀가루 빵아 가지고} @2 에

10523 #2 뽕사가꼬 인자 그거슬 인잔 무레다가 살:라니 모까가꼬 {빵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물에다가 사르르 반죽해 가지고('모끄다'는 물을 쳐서 반죽하다의 뜻)} @2 에

10523 #2 고눔 인자 시리에다 찢:썬. 찢가꼬는 인자 이른 도구통에다가 탕:탕 처. {그것 이제 시루에다 찢어. 찢 가지고는 이제 이런 절구통에다가 탕탕 처.}

10523 @2 에 #2 그노를 이끔 저 쌀: 가리 이커서 {그것을 익혀 저 쌀가루 익혀서}

10523 #2 시리에다 찢가꼬 이커가꼬 {시루에다 찢 가지고 익혀 가지고} #1 네가 그건 그 잘 친디 {내가 그것 그 잘 치는데} #2 탕:탕 저 거시기에단 {탕탕 저 거시기에다}

10523 #2 이근 늬 처가꼬 {익은 것 처 가지고} #1 힌떡도 잘 치고 찰떡또 잘 치고 {힌떡도 잘 치고 찰떡도 잘 치고} #2 지비서 인자 요로고 열 {집에서 이렇게 이}

10523 #2 큰 암:반 이썬. {큰 안반 있어.} @2 에 에 #2 암:바네다 막:: 요로코 만드라. {안반에다 막 이렇게 만들어.} #1 비베 비베. {비벼, 비벼.} #2 데떡 여로고 되게. {가래떡 이렇게 되게.}

10523 #2 그레가꼬 요로꼐 딱딱 찰라나따가 인자 구드른 인자 스:: 썰:문 이러구 그거이 떠죽 뒀제. {그래 가지고 이렇게 딱딱 잘라 냈다가 이제 굳으면 이제 썰면 이렇게 그것이 떡국 되지.} @2 에 #1 그거시 떠죽 데제. {그것이 떡국 되지.} #2 (웃음)

10523 #2 그르코 해: 무거썬. 그:저네는 지비서 {그렇게 해 먹었어. 그전에는 집에서.} @2 에 #1 그랑겐 떡 그때 떡 칠때야 하: 데야 무자게. 그노른 문저 몽게 해야제. 막 처:불면 뛰여 나:불고 (웃음) {그러니까 떡 그때 떡 칠 때에 아 힘들어 무지하게. 그것은 천천히('문저 몽게'는 '천천히'의 뜻) 해야지. 막 처 버리면 튀어 나가 버리고. (웃음)}

10523 @ 음 #2 그레가꼬 음 떠죽 해: 무거제. 지그밍게 기계산 발동기에서 해:다 몽 {그래 가지고 음 떡국 해 먹었지. 지금이니까 기계 사 발동기에서 다 해 다 먹} #1 떡또 무지하게 처썬. {떡또 무지하게 쳤어.} #2 거시기에서 기계에다 해: 무궁게 조:체. {거시기에서 기계에다 해 먹으니까 좋지.} @ 음

10523 #2 삼:꼬 떡 해무글라른 지그른 처나 신:디 엔:나레는 떡 해무글라른 엄:마나 힘드런 {쉽고 떡 해 먹으려면 지금은 아주('천하'는 여기서 '매우'와 같은 뜻) 쉬운데 옛날에는 떡 해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었} @2 에 #2 고로꼬 해: 무글랑께. {그렇게 해 먹으려니까.}

10523 @2 그 과 {그 과} #1 그라고 톡 {그리고 또} #1 멍 멍길때 무를 마:니 처 불번 게양 철부덕 철부덕 하니 뛰여오고 (웃음) {떡 만들 때 물을 많이 처 버리면 그냥 첼퍼덕첼퍼덕하게 튀어 오고. (웃음)}

10523 @2 썩떡또 그러케 만드셔젠네요? {썩떡도 그렇게 만드셨겠네요?} #2 썩떡 썩떡또 썩 캐다가 {썩떡도 썩떡도 썩 캐다가} @2 에

10523 #2 썩 인자 쭈기 크머는 캐다가 말레가꼬 쌀마가꼬 {썩 이제 썩이 크면은 캐다가 말려 가지고 삶아 가지고} @2 에

10523 #2 인자 소:다 처서 살짝 쌀마. 쌀마가꼬 물리른 세파::라니 쭈기 조:아. 그라른 {이제 소다 처서 살짝 삶아. 삶아 가지고 말리면 새파랗게 썩이 좋아. 그러면}

10523 #2 고놈 짱::짱 몰려 나:따가 인자 다머나따가 {그것 팡팡 말려 왔다가 이제 담아 왔다가}

10523 #2 인자 설 다치면 인자 서:레 고놈 쌀마. 주글 또 쌀마. {이제 설 다치면 이제 설에 그것 삶아. 썩을 또 삶아.} @2 에

10523 #2 쌀마가꼬 인자 {삶아 가지고 이제} #1 그놈 또 짜:야제. {그것 또 짜야지.} #2 당가 나:따가 걷 {담가 왔다가 그것}

10523 #2 거시기 도간 물 빠지머닌 뽕깡뽕:깡 아조 물 안 나올 정도로 짜:가꼬 인잔 {거시기 독한 물 빠지면은 힘껏 아주 물 안 나올 정도로 짜 가지고 이제}

10523 #2 찹쌀 당가가꼬 인자 기계에 가서 빠사가꼬 고노메다 서꺼가꼬 찌서 {찹쌀 담가 가지고 이제 기계에 가서 뽕아 가지고 그것에다 섞어 가지고 찌서}

10523 #2 찌서 인잔 {찌서 이제} #1 여그서 치기도 하고 {여기서 치기도 하고} #2 오 그:저네는 지비서 처꾸나. 그레가꼬 지비서 처서 인잔 {오, 그전에는 집에서 쳤구나. 그레 가지고 집에서 처서 이제}

10523 #2 썩떡또 만드라 무꼬 그레제 지비서. {썩떡도 만들어 먹고 그랬지, 집에서.} @2 에 #2 그저네는 다 지비서 해: 무거제. {그전에는 다 집에서 해 먹었지.} @2 에

10523 #2 지그밍께 기계가서 해:목제. {지금이니까 기계 가서 해 먹지.} #1 그:저네는 그르케 하면 찹쌀 너:서 꼬:두밥 너:서 서꺼서 해:노면 처노면 무끼도 마시꼬.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 찹쌀 넣어서 고두밥 넣어서 섞어서 해 놓으면 처 놓으면 먹기도 맛있고,} #2 에

10523 #2 그다메 흑씨 뭇: 여기:: 여기서만 해: 멍는 음식 가통 거 이쓰까요? 이러케 무러 보면 데까요? {웃음} {그 다음에 흑씨 뭇 여기 여기서만 해 먹는 음식 같은 것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 보면 될까요?} #2 머이 음식 {뭇 음식}

10523 @ 아이 인 다른 지방에 업:씨 이 이 지방 이 동네에서만 특빠리 해: 멍는 반찬이나 이렇 거시 이 이께썸 {아니, 이 다른 지방에 없이 이 이 지방 이 동네에서만 특별히 해 먹는 반찬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

10523 #2 페냐 그거 저 우리 해:무거 아까 그 말:항 거 그거시 해:목제 다룽 거 업:씨. {내나 그거 저 우리 해 먹어 아까 그 말 한 것 그것이 해 먹지 다른 것 없어.} @ 에에 그렇 거시조? {예예, 그런 것이지요?} #2 다룽 거슨 업:씨. 페냐 그걸 해:목제. {다른 것은 없어. 내나 그것 해 먹지.}

10523 @ 그러머는 지그문 다 형 걷 간네이~ 에에 청국짱 멘 꼬테 일 공오이 공 {그러면은 지금은 다 한 것 같네. 예 예 청국짱 맨 끝에 10520}

10520 #2 청국짱은 {청국장은} @ 청국짱은 어:뜨케 해:요? {청국장은 어떻게 해요?}

10520 #2 쿵이로 페냐 거 저 장: 쓰데끼 쿵 카:카리 히처가꼬 소테다 쌀마. {쿵으로 내나 그 저 장 썩듯이 쿵 깨끗이 씻어 가지고 술에다 삶아.}

10520 #2 쌀마가꼬 딱 퍼지면 저런 바구리나 시리에다나 딱 퍼. {삶아 가지고 딱 퍼지면 저런 바구리나 시루에다가 딱 퍼.} @2 에

10520 #2 미테다가 집 쪼깐 깔:고 {밀에다가 쪼 조금 깔고}

10520 #2 거 시리 미테다가 {그 시루 밀에다가} #1 뜨거께 인자 멘드능구마. {뜨겁게 이제 만드는구먼.} #2 시리에다가 머:슬 거시기 저 지벌 깔:든지 {시루에다가 뭇 거시기 저 쪼을 깔든지}

10520 #2 알븐: 보로 보제기를 미테다 깔:등, 그레가꼬 쿵을 어:따 퍼가꼬 따둑따둑 해:가 꼬는 거그따 쿵 딱 뜨건뜨건 한 놈 퍼가꼬는 {삶은 보로 보자기를 밀에다 깔든지 그레 가지

고 콩을 어디에다 퍼 가지고 다독다독 해 가지고는 거기다 콩 딱 뜨끈뜨끈한 것 퍼 가지고는}

10520 #2 거그다가 집 여 베 베접 이쑤안 {거기다가 쥘 이 벼 벗질 있잖소?} @2 에 #2 베접 이쑤면 {벗질 있으면}

10520 #2 한 서너개씩 여로코 꼬구작 꼬작꼬작 여로코 꼭 여로코 진: 놔 여로코 딱 꼬굴 차 꼬구작 꼬구자꼬 해: 가머가꼬 {한 서너 개씩 이렇게 꼬기작 꼬기작꼬기작 이렇게 꼭 이렇게 긴 것 이렇게 딱 구부려. 꼬기작꼬기작해. 감아 가지고}

10520 #2 거그다 시:게를 똑똑 찢러나 그 콩에다가. {거기다 세 개를 똑똑 찢러 놔. 그 콩에다가.}

10520 #2 그레가폰 딱: 머 보제기로나 무:름 써여서 각 쥔:메나라우. 그레가꼬 딸 따따단 방에다가 딱 무더나. {그레 가지고 딱 뭐 보자기로나 뭐를 씌워서 꼭 잡아매 놔요. 그레 가지고 따뜻한 방에다가 딱 물어놔.}

10520 #2 그러면 그거시 한 사날마네 딱 청구기 떠. {그러면 그것이 한 사나흘만에 딱 청국이 떠.}

10520 @2 아 #2 그라면 인잔 찌여서 인잔 소금 치고 {그러면 이제 찜어서 이제 소금 치고}

10520 #2(기침) 거그따가 마늘씨 잔 느:코 찌여가꼬 {거기다가 마늘 좀 넣고 찜어 가지고}

10520 #2 소금 쳐서 인자 찌여가꼬 그레가꼬 청국 묵제. {소금 쳐서 이제 찜어 가지고 그레 가지고 청국 먹지.} @2 에

10520 #1 거가 그러케 마시썬.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 #2 (기침) 시야네는 또 청구기 조:쑤이~. {겨울에는 또 청국이 좋소.}

#2 술차니 마시썬 {상당히 맛있어.} #1 잘 떠야 마시썬. {잘 떠야 맛있지.} #2 잘 뜨면 마시꼬 {잘 뜨면 맛있고} @ 혹시 이렇 거 해: 보셔썬요? {혹시 이런 것 해 보셨어요?} #2 (기침)

10520 #2 (기침) #2 집짱 가통 거라고 집짱이랑 거 보셔 {집장 같은 것이라고 집장이란 것 보셔} #1 집짱이랑 거슨 페냐 {집장이란 것은 내냐} #2 엔:나레 집짱도이 현 디도 어:런드리 하먼 {옛날에 집장도 하는 곳도 어른들이 하먼} @2 으응

10520 #2 저기하더라고 집짱에다가 {저기하더라고 집장에다.} #1 집짱은 부사케다가 마:니 합니다. {집장은 아궁이에다가 많이 합니다.} #2 (기침)

10520 #2 거그다 메주까리 느:코 무수 무수지 이쑤안? {거기다가 메줏가루 넣고 무 무김치 있잖소?}

10520 #2 무수지 고놈 똑똑 뿌어 느:코 배:추지 잔 썬:러 너코 거 짐체 궁물 하고 {무김치 그것 똑똑 부러뜨려 넣고 배추김치 좀 썰어 넣고 그 김치 국물 하고} @ 에 #2 해:서 집짱 {해서 집장}

10520 #2 다머서 저런 머시기 저 {담아서 저런 머시기 저} #1 부옥 여 불 켜 디다 {부엌 불 때는 곳에다} #2 불 켜다도 느터,느:키도 하고 {불 때는 곳에다도 넣기 넣기도 하고}

10520 #2 (기침) 저런 디 먼 제뜬디다도 깡:: 무더나두고 그라데요. {저런 데 무슨 재 뜨는 곳에다가도 꼭 물어 놔두고 그러데요.} @ 응 따따 현디다가 {응, 따뜻한 곳에다가} #2 예 따따현디다가. 그라몬 그거시 이그먼 인자 {예, 따뜻한 곳에다가. 그러면 그것이 익으면 이제} #1 저 집짱이 덴다고. {저 집장이 된다고.} #2 집장이 데야가꼬 마시썬. {집장이 돼 가지고 맛있어.} @ 음 음

10520 #2 (기침) @ 말쓰를 마:니 하시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1 그란디 저 손녕 쑹 모는 저 {그런데 저 손녕 숙모는(고유명사) 저}

10520 #1 부사케다 마:니 하데. {아궁이데다 많이 하데.} #2 부세케다 그랑게 부사케다 다:먼 조:아. {아궁이에다 그러니까 아궁이에다 담으면(?) 좋아.}

=1 @2 물 한 잔 가따 드리까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2 아니라우 뱀 뒤:게. {아니요. 내버려두셔.}

10521 @ 그 다음에::는 먼 저또 다머 보셔썬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뭐 것도 담가 보셨어요? 여기서?} #2 그라지요. 저또 다머 {그렇지요. 것도 담가} @2 머:슨 저슬 여기서 {무슨 것을 여기서?} #2 뿔치저또 다마보고 황시리저또 다마보고 {뿔치것도 담가 보고 황새기 것도 담가 보고} @ 황시리전 니야기 함번 헤: 주실레요? {황새기것 이야기 한 번 해 주실래요?} #2 (웃음) @2 어:뜨케 답습니까? 황시리전 {어떻게 답습니까? 황새기것?}

10521 #2 황시리 저슬 항시리 인자 장사 오면 {황새기것을 황새기 이제 장사 오면}

10521 #2 황시리 사 가꼬 거 머리빠근 인자 잘 안 머궁께 머리뺍 떠여불고 카:까리 시처 가꼬 {황새기 사 가지고 그 머리는 이제 잘 안 먹으니까 머리 떼어 버리고 깨끗이 씻어 가지고}

10521 #2 소그물 그 항시리나 소그미나 거자 가:께 가네야썬요. {소금을 그 황새기나 소금이나 거의 같게 간해야 돼요.} @2 아 #2 그레야 먹제 그라넌 싱:고꼬 고레부러서 몸: 무거요. {그레야 먹지 그러지 않으면 싱겁고 끓아('끓하다'는 '끓다'의 방언) 버려서 못 먹어요.}

10521 #2 아 소금 마니 처야 {아, 소금 많이 처야} #2 예 소금 마니 처야제. 소금 썬격썬격하게 반작 하데끼 헤:가꼬 가네서 {예, 소금 많이 처야지. 소금 '썬격썬격하게'(소금이나 모래 따위가 촉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오롯이 있는 모양) 반작하듯이 해 가지고 간해서}

10521 #2(물 마시는 소리) 다 가네서 따독::따독 헤:나따가 {다 간해서 다독다독해 왔다가}

10521 #2 인자 그거또 이그먼 머거요. {이제 그것도 익으면 먹어요.}

10521 #2 거:또 항시리저또 이거요 인자. 인자 가니 다: 드러가꼬 이그문 무그먼 마시썬요. 꼬수롬: 하니 {그것도 황새기것도 익어요 이제. 이제 간이 다 들어 가지고 익으면 먹으면 맛있었요. 고소하게.('꼬수롬하다'는 '고소하다'의 뜻)} @2 예 #2 아 그레가꼬 {아, 그래 가지고}

10521 @2 (웃음) 치세요? {치세요?} #2 그르게 헤:가꼬 무꼬, 또 저런 저 뿔치저또 {그렇게 해 가지고 먹고, 또 저런 저 뿔치것도}

10521 #2 메리전 이썬안? {뿔치것 있잖소?('메리'는 '뿔치'의 방언)} @ 예 #2 메리 장사 드로먼 {뿔치 장수 들어오면}

10521 #2 여그는 거시기에다가 조하베다 신청을 헤:요. {여기는 거시기에다가 조합에다 신청을 해요.} @ 조하베다가 {조합에다가.} #2 조하베다가. 예 신청을 헤:요. 거 부닌 헤:장한테 {조합에다가. 예, 신청을 해요. 그 부인 회장한테} @ 아

10521 #2 신청 허머닌 메리 그놈 하나꾸 살라면 하나꾸를 하던지 두: 하꾸 살라면 두: 하꾸 신청하드니 헤:노꼬꼬 {신청 해 놓으면 뿔치 그것 한 상자 사려면 한 상자를 하든지 두 상자 사려면 두 상자 신청하든지 해 놓고}

10521 #2 그롬 사가꼬 지비 오머닌 한 카:카리 시처가꼬 그롬 인자 항아리에다 당: 거시기 통에다 당:꼴 {그것 사 가지고 집에 오면은 한 깨끗이 씻어 가지고 그것 이제 항아리에다 담, 거시기 통에다 담고}

10521 #2 고롬도 소금 한, 한 상자머 한 박, 거 한 박쓰머는 {그것도 소금 한 한 상자면

한 박 그 한 박스면은}

10521 #2 소금 서: 데 잔 몬 너야쑤. {소금 석 되 좀 못 넣어야 돼.} @ 음

10521 #2 서: 데 잔 몬: 느코 반싱때로 열때 느:면 {석 되 좀 못 넣고 반승되로 엇 되 넣으면}

10521 #2 한 상자에 썬라우. {한 상자에 썬요.} @ 아 #1 거 반싱때 열 썬 열 {그 반승되 엇 저 엇} #1 여뎡게 서:데제 {여섯 되니까 석 되지.} #1 서:데제. {석 되지.} #2 응 서:데제. {응, 석 되지.}

10521 #2 그름 느:면 가니 딱 마저요. {그것 넣으면 간이 딱 맞아요.} @ 으음 #2 그레가 꼬 인자 딱:: 여로론 {그래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10521 #2 소:게다가 비뉴른 향아리에다 다 거 비뉴리 느:코 {속에다가 비닐, 향아리에다 다 그 비닐 넣고}

10521 #2 향아리 소게다가 인자 걸 비뉴르 느:코 비니뉴 소:게다가 그 저슬 다머. 인자 소금 처서 뚜적뚜적 해:가꼬 인잔 {향아리 속에다가 이제 그것 비닐 넣고 비닐 속에다가 그것을 담아. 이제 소금 처서 뒤적뒤적해 가지고 이제}

10521 #2 따독따독 해 다머노코는 우:게다는 모게를 썬:전 {다독다독해 담아 놓고는 위에 다가는 '모개' (?)를 저기 저}

10521 #2 머시길 사료푸테라우, {뭐 사료 부대요.} @ 예 #2 사료푸테를 딱 썬저가꼬 그 모게를 그 소:게다가 느:머 {사료 부대를 딱 썬어 가지고 그 모개를 그 속에다가 넣으면}

10521 #2 그 전 거 지르미 그 거시 사료푸테가 딱 움:막 둘러쓰제. 그라몬 지름끼가 더 업:제, 저세가. {그 젓 그 기름이 그것이 사료 부대가 딱 온통('움막'은 '온통'의 뜻) 둘러쓰지. 그러면 기름기가 더 없지, 젓에.} @2 아

10521 #2 그레가꼬 그놈 인자 건저 네:불고 인자 전 인잔 검 이그면 끼레가꼬 {그래 가지고 그것 이제 건저 내버리고 이제 젓 이제 그것 익으면 끓여 가지고}

10521 #2 인자 가시레 짐치 담:쫘, 베:추지. {이제 가을에 김치 담그지요. 배추 김치.} @ 예 그러케 멀치저쑤 다무션네요. {예, 그렇게 멀치것을 담그셨네요.} #2 예.

10521 @ 자 이거슬 마지마그로 이거슬 마지마그로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것을 마지막으로}

10522 @ 수를 아까 마:니 다뭇,가보셔따게쑤요? {술을 아까 많이 담그 가 보셨다고 했어요?} #2 예 술 @ 예 술 당그능 거만 인자 마지마그로 해 좀 {예, 술 담그는 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해 좀} #2 수런 {술은}

10522 #2 그 아까 거 썬 걸 밀:로 누룩 띄여가꼬 {그 아까 그 저 그것 밀로 누룩 띄워 가지고} @ 예

10522 #2 인자 술뺨 인자 보리쌀을 슌 당가가꼬 그노를 썬요 시리에다가. 꼬드:꼬득 하니 인자 거 꼬두밥 썬데끼 썬가꼬 이그면 그 보리쌀리 땅 이그면 {이제 술뺨 이제 보리쌀을 담가 가지고 그것을 썬요, 시루에다가. 꼬득꼬득하게 이제 그 꼬두밥 썬듯이 썬 가지고 익으면 그 보리쌀이 딱 익으면}

10522 #2 그노를 퍼서 인잔 저런 도리방식 가튼디다가 딱 인잔 시켜요. {그것을 퍼서 이제 저런 도래방식 같은 곳에다가 딱 이제 식혀요.} @ 예

10522 #2 딱 시크면 거그다가 그 누루글 인자 서꺼. {딱 식히면 거기다가 그 누룩을 이제 섞어.} @ 예

10522 #2 거자 밤바툼 데게 누루글 서꺼가곤 향아리에다가 인잔 {거의 반반 되게 누룩을

섞어 가지고는 향아리에다가 이제}

10522 #2 물 부꼬. 물 알만치 부:꼬 인잔 그 술 만 다머. {물 붓고. 물 알맞게 붓고 이제 그 술만 담아.}

10522 #2 다머가꼬 아렌모게다 따타단디다 딱 더퍼노면 막 부글부글부글 게:면 한 사올마네 {담아 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곳에다 딱 덮어 놓으면 막 부글부글부글 피면 한 사흘만에}

10522 #2 딱 게:요 {딱 피요.} @2 에 #2 그러면 거그따 인자 얼릉 데게 할라몬 소주쪼깁치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얼른 되게 하려면 소주 조금 치고}

10522 @ 음 #2 거그 수레다가. 그레가꼬 인자 술략 치고 {거기 술에다가. 그레 가지고 이제 술략 치고}

10522 #2 또 술 야기 이썬요. {또 술약이 있어요.} @ 술라기 이썬요? {술약이 있어요?} #2 예, 또 술 야기 이썬. 잘자:란 싸:레기마니로 쓰, 거시기 저 {예, 또 술약이 있어. 자잘한 싸라기처럼 거시기 저}

10522 #2 서:쑥쌀마니로 생게썬. 그람 장에서 엔:나레 사다가 {쑥쌀처럼('서쑥쌀'은 '쑥쌀'의 방언) 생겼어. 그러면 장에서 옛날에 사다가} @2 에

10522 #2 술략 치고 그레가꼬 {술략 치고 그레 가지고} #1 갈라기 이썬썬요. (*약이 있었어요.) #2 그롬 치고 술 만드라가꼬 {그것 치고 술 만들어 가지고}

10522 #2 그놈 한 사올마네면 데면 인자 인잔 치에다 걸러서 인자 그거이 수 수 {그것 한 사흘만이면 되면 이제 이제 체에다 걸러서 이제 그것이 수 수}

10522 #2 인자 마꺠리 데지요. {이제 막꺠리 되지요.} @ 마꺠리 {막꺠리.} #2 예, 그레가꼬 무그면 잘 모다몬 그거시 술 시여저불고 {예, 그레 가지고 먹으면 잘 못하면 그것이 술 시여져 버리고}

10522 #2 오::메 이:랄 때 {아이고, 일할 때} #1 그랑께 마꺠리가 마시 이쓰머는 아이 시다고 여페서 {그러니까 맛이 있으면은 아이 시다고 옆에서} #2 묵또 아네라. {먹지도 않아요.} #1 몸: 무께 할라고 {못 먹게 하려고}

10522 #1 아이고 시다 그러몬 인자 {아이고 시다 그러면 이제} #2 마,마시쓰머는 {마 맛 있으면은}

10522 #2 몸: 무께 할라고 아이고 예고 수리 시다 시다 그러면 차말로 암 묵쏘이~ {못 먹게 하려고 아이고 술이 시다 시다 그러면 정말로 안 먹소.}

10522 @(웃음) #2 잘 모:페면 그거이 수리 시여 불머는 {잘못 되면 그것이 술이 시여 버리면} @2 아

10522 #2 이:랄때 술 한나만 잘 데야불머는 {일할 때 술 하나만 잘 돼 버리면은}

10522 #2 열:마나 그거이 조:타고요. {얼마나 그것이 좋다고요.} #1 그러제. {그렇지.} #2 수리:: {술이} #1 아이 노버더가꼐 수리 마시씨야쥔. {아이, 놉 얻어 가지고 술이 맛있어야지.}

10522 #2 마시씨야제. 그람몬 차말로 잘데머는 {맛있어야지. 그러면 정말로 잘 되면은}

10522 #2 겹들킴하니 마시씨요 술 {'겹들킴하게' 맛있어요.} #1 그랑께 욱씨미 마:난 술 마뽕고는 {그러니까 욱심이 많은 술맛 보고는} #2 마꺠리 잘데면 {막꺠리 잘 되면} #1 아 함

10522 #1 수리 마시쓰면 아이고 시다거 지가 더 머글라고 {술이 맛있으면 아이고 시다고. 제가 더 먹으려고.} #2 (웃음)

10522 #1 그니까 건 전 아는 쟈 친구들 이쓰면 술 마시쑈 그라고 해:싸 {그러니까 그 저 아는 저 친구들 있으면 술 맛있어 그렇게 해 대.} @2(웃음)

10522 #2 그르케 해:싸 {그렇게 했어.} @ 그걸 주로 마꺄리를 그르케 {그걸 주로 막꺄리를 그렇게} #2 예 #2 또 인자 청:주:: 제사상에 올릴라고 {또 이제 청주 제삿상에 올리려고} #2 청주하면 인자 우:게 동동동동 뜯 놈 인자 뜨지요. 가마니 노오::란 놈 우:게가 떠요. {청주 하면 이제 위에 동동동동 뜯 것 이제 뜨지요. 가마니 노란 것 위에 떠요.} @ 에

10522 #2 그라면 인자 가마::니 어그다간 거시기 치나 머이 너:콤 바터요. {그러면 이제 가마니 거기다가 거시기 저 체나 뭐 넣고 받아요.}@ 에

10522 #2 고름 인잔 바가치 너:서 인자 바터가꼬 고놈 상에 나:요. 청주. {그것 이제 바가지 넣어서 이제 받아 가지고 그것 상에 놔요. 청주.} @2 음

10522 #2 예 그 그거시 청주여. 참쌀로 해:가꼬 {예, 그 그것이 청주야. 참쌀로 해 가지고}

10522 #2 그거시 청주 여 상에다 {그것이 청주 이 상에다} @2 ***** 보통 인자 대개 {보통 이제 대개} #2 예 보통 할때는 걸르고 {보통 할 때는 거르고} @2 걸러가지고 {걸러가지고} #2 치에다가 {체에다가} @2 에

10522 #2 물 치고 인자 걸르지요. 처 템:스로 막 {물 치고 이제 거르지요. 처 대면서 막.} @2 엔:나레 소주꼬리 이러케 이쑈가지고 {옛날에 소줏고리 이렇게 있어 가지고} #2 응 @2 또 다시 아 끄리고 그렁 거 하지 아난나요? {또 다시 아 끓이고 그런 것 하지 않나요?} #2 소주 {소주} @2 소주는 여기서 허는 데가 이쑈쑈요? {소주는 여기서 하는 곳이 있었어요?} #2 소주도 {소주도.}

10522 #2 그거스 엔:나레 소주는 나도 예레서 소주 네린 디도 바:싸. {그것은 옛날에 소주는 나도 어려서 소주 내린 것도 봤어.} @2 에

10522 #2 소주도 수를 이려고 만드라 가꾼 {소주도 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10522 #2 수리 시그나 어짜그나 하면 소주를 네레볼드라고 {술이 시거나 어찌거나 하면 소주를 내려 버리더라고.} #1 시:문 어 소주 네리드라고 {시면 어 소주 내리더라고.} #2 우:쭈고 네리냐머는 {어떻게 내리느냐면은}

10522 #2 그 소주를 소테다 당:꼬 소테다 당:꼬는 {그 소주를 술에다 담고 술에다 담고는}

10522 #2 그 우:게다가 인자 {그 위에다가 이제} #1 물 암부서? {물 안 부어?} #2 물 그랑게 소테다가 그 페냐 거 수랑게 무림, 무리제 그라면, {물 그러니까 술에다가 그 내나 그 술이니까 물이지 그러면}

10522 #2 그 스스 여 우:게다가 건 먼: 요로코 머:술 한나 다라를 느:통가 뱅얼 너:통가 그라면 {그 스스 이 위에다가 그 무슨 이렇게 뭇 하나 대야를 넣든지 병을 넣든지 그러면}

10522 #2 그 무리 짐: 서림스로 그 거시게로 푹푹푹푹 떨어져요. {그 물이 김 서리면서 그 거시기로 푹푹푹푹 떨어져요.} #1 아 여러케 수:: {아, 이렇게 수} #2 응 요로코 {응, 이렇게} #1 지:미 거시게가꼬 {김이 뭐해 가지고} #2 지:미 푹푹푹 소두방 꼭지에서 {김이 푹푹푹 술뚜껑('소두방'은 '술뚜껑'의 방언) 꼭지에서}

10522 #2 푹푹푹푹 떨어지면 그거이 셔주가 데야요. {푹푹푹푹 떨어지면 그것이 소주가 돼요.} @2 아 #2 그레가꼬 세주 네리데요. {그래 가지고 소주 내리데요.} @2 에

10522 @2 그 그거 어려쑈 때 봉 거 가테요. {그 그것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2 예에 @2 뒤퍼버짐 {뒤퍼버지} #2 뒤퍼버지든 당 요로코 소두방 뒤퍼버노면 그거이 푹푹푹푹 떨어져 {뒤퍼버지면 이렇게 술뚜껑 뒤퍼버 놓으면 그것이 푹푹푹푹 떨어져.} #1 시리뻔 보르 데끼 안 보르등가? {시룻변 바르듯이 바르잖던가?} #2 응 불라가꼬 거 짐: 어디로 안 세:고

그:리 떠러지라고. {응, 발라 가지고 그 김 어디로 안 새고 그리 떨어지도록.}

10522 @2 예 #2 그레가꼬 소주 네리드고 그라테요. {그래 가지고 소주 내리고 그러테요.}

@ 아 소주 네링 거슨 아까 마꺄리가 좀 시여지고 그러면 {아, 소주 내리는 것은 아까 막꺄리가 좀 시여지고 그러면} @2 예

10522 #2 시여지머는 고거 가꼬 소주 네리고 {시여지면은 그것 가지고 소주 내리고} #1 그레가꼬 암 버리고 그놈 인자 쇠주 네리 {그래 가지고 안 버리고 그것 이제 소주 내리} #2 세주 네레가꼬 무그면 {소주 내려 가지고 먹으면}

10522 @ 예 #2 을::마나 도가다고 그거시, 세주가. {얼마나 독하다고 그것이, 소주가.} #1 그거시 저 함빡울씩 떠러짐서 무악태사니라 술,술차니 마:니 나와 {그것이 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무악태산'이라(?) 상당히 많이 나와.} #2 마:니 나와요. 그거또 홀차니. {많이 나와요. 그것도 상당히.} @2 네.

10522 #2 우덜 에레서 어:런덜 보면 그라더라고 {우리들 어려서 어른들 보면 그러더라고.}

@ 알쿨 도:쑤가 눅쑤요. {알코올 도수가 높지요.} #2 예 #1 그랑께 꼰쑤::라고 {그러니까 꽃쑤라고} #2 그거뽀다 꼬쑤라가고 그렌넌디 {그것보고 꽃쑤라고 그러는데} @2 꼬쑤요? {꽃쑤요?} #2 도가다고. 도가다게서. {독하다고, 독하다고 해서.}

10522 @ 아 아이구 이걸 오늘 너무 이 에 말씀 마:니 하셔쑤요이~ {아이고, 이것 오늘 너무 예 말씀 많이 하쑤지요.} #2 (웃음) #1 자 그란 {이제 그런}

제 2 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나라기라 허제
20102	이삭	나랑모가지라고
20103	볍씨	썸나락
20104	못자리	왕:판
20104	못자리	모짜리라고 그레
20105	모판	왕:파네다 하능 거시 모짜리제
20105	모판	모짜리를 만들제
20106	쟁기	쟁기
20107	보습	가레
20107	보습	가레
20108	벧	벧
20108	벧	쟁기 베시
20108	벧	가레베제
20108	벧	벧썰
20108-0-1	-이	베시구만
20108-0-1	-이	벧썰가
20108-0-1	-이	베시라
20109	극쟁이	*
20110	씨레	씨우레여
20111	번지	*
20112	모내기	모 찌고 심:꼬
20113	흙덩어리	흙땡어리
20113	흙덩어리	베땡어리라
20114	고무래	미레땅글게나
20114	고무래	미레땅글게
20114	고무래	당글겐디
20114	고무래	미레땅그레라고도 하고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당글게라고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미레땅그레라고
20114-2	고무래(재 용도)	제땅글게라 그러제
20114-3	고무래(흙 용도)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미레땅글게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제땅글게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당글게
20115	쇠스랑	글캥이 (발이 대엿개. 발이 짧다. 흙을 고를 때 사용)

20115	쇠스랑	소시랑입니다(발이 셋. 발이 길다. 재 를 굽을 때 사용)
20116	곡괭이	한:세괭이
20116	곡괭이	꼬괭이라 헌디
20117	괭이	괭이라 하등만
20118	삽	사비고
20119	호미	호메~이
20119	호미	호맹이라게 호맹이
20120	농기구	그 연장 빌리로 간다
20121	김	푸리 지서따고 그러제
20121	김	지시미 지서따고 그레쥌
20122	김매다	지심 메로 간다고 그레쥌
20123	애벌 매다	초불
20123	애벌 매다	초보리라고 허제
20123	애벌 매다	초보리라 허고
20123-1	두벌 매다	함버리라고 그레
20123-1	두벌 매다	함불
20123-1	두벌 매다	함불 그람니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맘:드리
20124	논두둑	논뚜럭
20124-1	논두렁	논뚜러긴디
20125	밭둑	바뚜럭
20126	밭두둑	받 두루기라고도 하고
20126	밭두둑	바뚜럭
20127	밭고랑	고랑이고
20128	발이랑	*
20128-1	(발이랑을) 타다/갈다/썰다/파다	고랑을 친다
20128-1	(발이랑을) 타다/갈다/썰다/파다	바뚜렁 멘다
20128-2	이랑밟기	보리밭 뺨는다 그레
20129	보리	보리 아니여
20129-1	가을보리	보리
20129-2	봄보리	춤모
20130	보리쌀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추경이라고
20132	깜부기	깜부기
20133	두엄	퇴:비라고도 허고
20133	두엄	제거르민디
20133	두엄	제라고 합니다
20133	두엄	제라 그러제
20134	거름	거르미란 소리여
20134	거름	거름 사오씨요
20134	거름	똥:거름이라고 해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가을한다고
20202	벼단	함 묻(여섯 줌 정도로 묶은 벼의 묶음)
20202	벼단	항 가레(열 묶의 벼의 양)
20202	벼단	한 지미라고(열 묶의 벼의 양)
20202	벼단	*
20202-1	벼단(한 줌정도)	*
20202-2	벼단(타작할 정도)	한 무시라 그러그덩
20202-3	벼단(한 아름정도)	*
20203	가리(積)	베늘
20203	가리(積)	장작 베늘
20203	가리(積)	나락베누리
20204	가리다(積)	벼늘 누른다
20205	벚가리	벼늘
20206	날가리	나락베느리고
20207	타작	나락 흘른다
20207	타작	흘타가지고
20207	타작	나락흘른다
20207	타작	나락흘타라
20208	벼훑이	가락흘테여
20208-1	그네	그거시 소놀데
20209	개상	*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
20210	도리께	도리께
20210-1	도리깨장부	도리께떼
20210-2	도리깨열	도리께열:
20210-3	도리깨꼭지	도리께꼭찌
20211	벚짚	지비제
20211	벚짚	지비여
20211-0-1	-을	지벌 가조라
20211-0-2	-에	지베다
20212	새 패기	회:기
20212	새 패기	집회:기라 거제
20212	새 패기	지뵈:기라
20213	쭈정이	주거리
20214	티	문지락 허제
20215	까끄라기	꺼시락
20216	풍구	풍노
20217	원두막	외:막
20218	허수아비	허세비 시운다고
20219	흥년	승년
20220	머슴	모시미야
20221	놉	노블 어더서
20221-0-1	-을	노블 언넌다
20222	품앗이	푸마시
20223	품삔	썩 뻬는다
20223-0-1	-으로	싸글 받는다

2.1.3. 방아찝기

20301	방아	방에 찌:찌
20301	방아	방에라게찌
20302	디딜방아	디들뺑아
20303	방앗공이	방에꼬
20304	방아확	화:기라게 확: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제
20306	연자방아	그거시 연자방아
20307	절구	도:굳 통
20308	절구통	도:구통이라고
20309	절굿공이	도:구떼랑께
20310	절구질	도:구떼질 하고 이따
20310	절구질	도:구떼지리여
20311	겨	제라 그러지
20312	보릿겨	보리찌
20313	왕겨	멧찌
20313	왕겨	왕:제
20314	등겨	이무께
20314	등겨	누까
20314	등겨	몽근제라고
20315	검불	검부리락헤(벼 타작할 때 나오는 처진거리)
20316	겹질	나락겹찌리제
20316	겹질	나락겹딱
20316	겹질	겹따기라 헨:는데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씨기 만:헤야(+ 구)
20401	곡식	곡씨기(+ 신)
20402	참쌀	참쌀
20403	멥쌀	몹:쌀
20404	쌀보리	쌀보리
20405	조	서:수기여
20406	차조	찰서숙 그러제
20407	메조	모:서숙
20408	좁쌀	서:숙 아:리라
20408	좁쌀	서:숙쌀
20409	잘다	잘다
20410	조이삭	서:송모가지
20410	조이삭	서:송모게
20411	수수	쭈시나무
20411	수수	쭈시
20411-1	붉은색 수수	*
20411-2	장목수수	*
20411-3	찰수수	찰쭈시
20411-4	메수수	모:쭈시

20412	수수깡	*
20412	수수깡	쭈시떼 가꼬
20413	옥수수	깡넝이라고도 허고(+ 구)
20413	옥수수	옥썬시라 (+ 신)
20413-1	찰옥수수	찰깡넝이고
20413-2	메옥수수	모:깡넝이
20414	귀리	*
20415	메밀	메무리라고
20416	콩	콩도
20417	콩깍지	콩깍찌
20418	메주	메주제
20419	매달다	메주 다라멘다고
20420	떡우다	메주를 띠운닥 해제
20421	곰팡이	곰:팡이라 허제
20422	강낭콩	강낭콩
20423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참깨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꼬:썩따고 그레제
20425	고소하다	마시 고소와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라고
20502	나물	노물
20502-1	"나물(밭 재료)"	*
20502-2	"나물(밭 반찬)"	*
20502-3	"나물(들 재료)"	노물캐러 가세
20502-3	"나물(들 재료)"	들:로물
20502-4	"나물(들 반찬)"	노무리라 그라제
20502-5	"나물(산 재료)"	*
20502-6	"나물(산 반찬)"	*
20503	푸성귀	*
20504	다듬다	따듬는다구레
20505	반찬	반차니라고 그레제 (+ 신)
20505	반찬	경계 (+ 구)
20506	무	무시(+ 구)
20506	무	무:라 구러제(+ 신)
20507	썰다	썰:제
20507	썰다	잘잘하게 썬러
20508	무청	무신니비제
20509	시래기	시라리라고도 하고
20509	시래기	실가리
20510	무말랭이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짱다리여
20512	배추	베:추
20513	고깻이	베:추소:기여

20514	오이	무뻤라고
20515	오이지	장아찌
20515	오이지	외:장아찌
20515	오이지	짬아찌
20516	오이소박이	숙:빼기라 허나
20516	오이소박이	소:베기
20517	가지(茄子)	가지라 하제
20518	호박	호:박
20519	고구마	감자고(+ 구)
20519	고구마	고:구마 아니라고(+ 신)
20519	고구마	징감자라 하고(+ 구)
20520	감자	부감자
20521	우엉	우엉
20522	파	파 아넘니까
20523	고추	고추
20524	시금치	시금추
20525	미나리	미나리라 헤:꼬
20526	부추	술:
20527	상추	상치(+ 구)
20527	상추	상추라 한디(+ 신)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나상게
20531	달래	달롱게락 헤써 달롱게
20532	도라지	돌가시여 돌간
20533	더덕	더더기고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바비라고 그러제
20602	찬밥	시근 바비라 그러제
20602-1	더운밥	따순밥
20603	조밥	서:숙 빠비라 허제
20604	누룽지	깎:밥
20605	눌은밥	누룽바비여
20605	눌은밥	누룽밥
20606	송늬	송니미라 그러제
20607	뜨물	뜨무리라고
20608	김(蒸氣)	지:미라 허제
20609	갱죽(羹粥)	시라리주기라 허제
20610	싱겁다	싱겁따 허제
20611	국수	국쭈라 그러제
20611	국수	국쭈라
20611	국수	밀:국쭈라

20612	칼국수	칼국쭈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
20613	건더기	국 건더기
20613-1	국물	물궁만 주냐(+ 구)
20613-1	국물	궁무리라(+ 신)
20614	고명	고맹이라 형가
20614	고명	꼬시라 허꺼시요
20615	꾸미	떡쭈까심
20616	미역	미역쭈
20617	김(海苔)	해우
20618	수제비	수제비라 허제
20618	수제비	탈국쭈라고도 하고
20619	끼니	끼니를 걸러따
20620	미음	밈:
20620	미음	멤: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멤:쭈다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미:물 쭈다 그러제
20621	옛기름	열찌름 지른다고
20622	식혜(食醴)	감주가 시캐(+ 신)
20622	식혜(食醴)	시캐도 만들고(+ 구)
20623	식혜(食?)	*
20624	달다(甘)	단 더 달게 멘들게
20625	가루	떡까리여
20625-0-1	-에	가리에다
20625-0-2	-을	가리 몸치제
20625-0-3	-도	밀:까리도 업:따
20626	밀가루	밀까리
20627	밀기울	밀찌울
20627	밀기울	지울
20628	미숫가루	미수 가리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장:
20702	된장	된:장이라고
20703	고춧가루	꼬:치까리
20704	고추장	꼬치장
20705	소금	소금
20706	김치	짐치(+ 구)
20706	김치	김치라고 현디(+ 신)
20706	김치	무수지
20707	김장	짐장(+ 구)
20707	김장	김장한다고(+ 신)
20708	깍두기	깍뚜기(+ 신)
20708	깍두기	깍:떼기(+ 구)
20709	나박김치	*
20710	담그다	짐치 담는다

20710-0-1	-고	김치 당:꼬 인네
20710-0-2	-어라	다머라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무리다
20712	버무리다	비빈다고
20713	버섯	버섯
20713-0-1	-이	버서시지
20714	콩나물(재료)	콩 노무리라
20714-1	콩나물(반찬)	콩노물
20714-2	숙주(나물)	녹뚜노물
20715	두부	뚜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
20717	달걀	달걀
20718	가래떡	데떠기
20719	시루떡	시리떠기라
20720	송편	성편 만든다
20721	빫다	생편 만든닥 허제
20722	흰떡	흰떡
20723	고물	고무리라 그레
20724	팔죽	동지죽
20725	새알심	세알
20726	백설기	백설기
20727	튀밥	티바비락 헤써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막걸리
20730	소주	소주만
20731	부침개	전: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수마기라
20802	가마솥	조선쏘시라
20802	가마솥	육철 소시라고도
20802	가마솥	가만쏘시라 하고(소 여물 끓이는 솥)
20802	가마솥	밥쏘시라고만 허제
20802-0-1	-을	소솥
20802-0-2	-에	소데
20803	아궁이	부삽꾸넉
20803	아궁이	부삽
20803	아궁이	부사께
20803-0-1	-이	부사비 크다
20803-0-1	-이	부사께다 불 너라
20804	그을음	끄시름
20804	그을음	끄시름
20805	불쏘시개	쏘시기
20806	연기	지그른 영기(+ 신)

20806	연기	냉갈란다 (+ 구)
20806-1	내(煙氣)	냉갈
20807	그을리다	끼실레따고
20808	부지깽이	비땅
20808	부지깽이	비:땅 마까지
20808	부지깽이	비:땅
20808	부지깽이	비지땅이라
20809	부삽	당글게
20809	부삽	제송쿠리라고
20810	넵다	누니 뽕따고 그레
20810	넵다	네와
20810	넵다	네옴따
20811	넵비	넵비제
20812	그릇	그르시제(+ 신)
20812	그릇	그러기라(+ 구)
20812-0-1	-을	바끄러게다 퍼따
20813	뚜껑	보께라
20813	뚜껑	뚜경
20814	주발 뚜껑	보께뚜경
20815	사발 뚜껑	뚜경이라
20815	사발 뚜껑	보께라
20816	술뚜껑	손뚜경
20817	밥주걱	주벽
20818	술가락	수제락 헤써
20819	젓가락	저금 그라고마
20820	종지	장:깍쟁이
20821	보시기	보세기
20822	뚝배기	뚝씨발
20823	접시	접씨
20824	조리	조:리
20825	이남박	함박
20826	바가지	쫐:뺨
20827	행주	행기락 헤:째
20828	행구다	빨레 행군다고
20829	설거지	기영 찬:다고도(+ 구)
20829	설거지	설거지(+ 신)
20829	설거지	기영시친다고(+ 구)
20830	개숫물	꾸정무리라 형가
20830	개숫물	기영무리라고
20831	찌꺼기	찌갱이
20832	화로	화:리
20833	화롯불	화:리뽕 쪼:라
20834	부젓가락	불찌그미제
20834-0-1	-이	불찌그미
20834-1	불순가락	불쏸
20835	다리쇠	*
20836	석쇠	적싸
20837	도시락	바꾸리
20837	도시락	바꾸리 아닝가 (대로 만듦)
20838	바구니	바구리

20839	뒤주	뒤지락 하제
20840	찬합	차:납
20841	강판	체:칼
20841	강판	강파니라
20842	개다리소반	도리상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큰방이란 소리가
20902	벽	베기락 헤써
20902	벽	베람빱
20902	벽	베랑빱
20903	다락	다락뽕이라고
20904	벽장	백짱
20905	감추다	감치냐
20906	흙	험:
20907	돌쩌귀	돌쪼구가
20907-1	암 짝	암똥쪼구 그러제
20907-2	수 짝	수똥쪼구
20908	미달이	미다지라 허제
20909	여달이	여:는문
20910	덧문	덤문
20911	열다	여러
20911	열다	연:다 그제
20912	문고리	몽꼬리
20913	자물쇠	쇠통이라 그라제
20914	간히다	가쳐따
20915	열쇠	쇠때
20916	잠그다	문 꺾 장구씨요
20916	잠그다	잘 잠구씨요
20917	구멍	창꾸넉
20917-1	취구멍	취구넉
20918	찢다	찌저따
20919	구들	방뚝
20920	흙받기	흑파니라
20920	흙받기	나무손
20921	흙손	쇠소니라 허제
20922	흙칼	쇠손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소니고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쇠소는
20923	바르다	벼글 바르다 (+ 신)
20923	바르다	볼라따고 (+ 구)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종우떼기
20926	도배	되복헌다
20926	도배	되벽
20927	구석	구석떼기
20927	구석	꾸석떼기라
20928	굽도리	*
20929	깨끗하다	깨:끗허다
20929	깨끗하다	깨깁하다
20930	문지방	문턱
20930-0-1	-에	문터게
20931	틈	문틈
20931	틈	문트메기라고
20932	가장자리	가:상다리
20932	가장자리	가:세
20933	가운데	가운데
20934	시렁	시렁까레락
20935	살강	살강
20936	선반	섬반
20937	서랍	빼:간
20938	경대	경:데
20939	거울	명:경
20939	거울	밍:경
20939	거울	거울
20940	걸다	거러야제
20941	호룽	초꼬지
20941	호룽	등잔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에 올라간다
21002	기와	지아(+ 구)
21002	기와	기와(+ 신)
21003	기와집	기와집(+ 신)
21003	기와집	지아집(+ 구)
21004	수키와	쭝끼와
21005	암키와	암끼와
21006	대들보	대들뽀
21007	서까래	서끌
21008	추녀	춘서라고도
21008	추녀	추녀
21009	처마	지시라기라고
21010	오두막	오막쩍
21010	오두막	오막싸리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영	마람
21012-0-1	-에서	마라메

21013	용마름	용마람
21014	기스락	지시라기라
21015	낙숫물	지시랑물
21015-1	기스락물	지시랑무리라고
21016	사닥다리	사다리
21017	용마루	용마루
21018	토방	토방은
21019	댓돌	*
21019-1	섬돌	*
21020	마루	토:지
21020-0-1	-에	토:지 올라가지 마라
21021	뿔마루	*
21022	기둥	지둥
21023	주춧돌	지추또린데
21023-0-1	-을	지추또를 놔야
21024	굴뚝	기:뚝

2.3.3. 마당

21101	뜰	꼬뻘
21102	마당	마당이제
21103	넓다	너롭따
21103-0-1	-어서	널루와서
21104	넓히다	널펴야 쓰거따
21105	곳간	고간
21106	외양간	소마구청
21107	마구간	말마구청
21108	광	말레
21109	헛간	허청
21110	쓰레기	쓰레기
21111	장독대	장:짱
21112	장독 뚜껑	항:뚜껑
21112	장독 뚜껑	뚜껑이라 허제
21113	변소	치간
21113-1	똥장군	똥짱군
21114	울타리	울타리
21115	담	땀 싼닥 헤써
21115	담	땀:
21115	담	다:미라 허제
21115-0-1	-에	따:메
21115-0-2	-도	땀:도 짜그라저 불고
21116	사립문	싸리문
21116	사립문	사립무니라 헤써
21117	뒤꼐	뒀:마당
21117	뒤꼐	뒀안
21117-0-1	-에	뒀야네 가서 놀:지 마라라
21118	바깥	바까테가 시끄럽따

21118-0-1	-에	마까테
21119	모통이	담모통이
21120	모서리	귀텡이라 헤:째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부라근
21201	마을	둥:네
21202	윗마을	온:똥네
21203	이웃	유:찌비여
21203	이웃	유:제란 소리
21203-0-1	-이	유:제싸라미라게
21203-0-2	-에	유:제 사라요
21204	마을가다	모실 간다
21205	우물	세:미제
21205	우물	시암까에서 놀지마라
21205	우물	시암
21206	두레박	틀박
21206	두레박	틀박
21207	샘(泉)	옹돌세야미라고도
21207	샘(泉)	오강세야미니
21208	가(邊)	시암까시 우리 동네는 요러케 야차와
21208-0-1	-을	시암 가:슬
21208-0-2	-에	받까세
21208-0-2	-에	시암까세서 놀지 마리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점:뽕
21211	싸다	신부기 더 싸고
21212	비싸다	비싸
21213	흥정	흥정을 부쳐
21214	중매인(거간꾼)	거강꾸니라
21215	잔돈	잔전
21216	에누리	까:꺼주라고
21217	거스름돈	잔돈
21218	거스르다	네:준다고
21219	꾸다(借)	꿔:온다
21219-0-1	-어야	꿔:주라
21219-0-1	-어야	꿔:가꼬
21220	구두쇠	꼬:뽑쟁이
21221	말기다	메께노코
21222	나머지	나머지 뉁기 가꼬 와라
21222	나머지	남지기
21223	덤	우:수 안 줘
21224	몫	몫
21224-0-1	-을	네 모글
21225	빚	비시 만타
21225-0-1	-을	비슬 가꾸라고

21225-0-2	-에	비세 쪼들런다고
21226	이자(利子)	이:자
21227	심부름	심:바람
21228	두름	두름
21228-1	촉	추가제
21228-2	쾌	쾌
21228-3	접	접
21228-4	쌈	한 쌈
21228-5	두름	함 뭉텅이
21228-5	두름	한 두름
21228-6	단/못(작은 묶음)	한 무시락 허제 (짚의 묶음)
21228-7	단/못(서너 개 묶음)	한 다발
21228-8	툇	한 툇 (10개)
21228-8	툇	툇(100개)
21228-9	모숨	한 주미라
21229	컬레	항 커리
21230	마지기	한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이:백평
21231	꾸러미	한 줄
21232	그루	한나무 두나무
21233	포기	한 폭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차두
21235-0-1	-을	쌀차두를 가조니라
21235-0-2	-에	쌀차두에다 다머라
21236	하나	한낭께 한나 하나라
21236-1	한-개	항 개
21236-2	한-되	한 데
21236-3	한-말	함 말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 게
21237-2	두-되	두: 데
21237-3	두-말	두: 말
21238	셋	셋:
21238-1	세-개	세: 게
21238-2	세-되	세: 데
21238-2	세-되	시:데라도
21238-2	세-되	서:데
21238-3	세-말	세: 말
21238-3	세-말	서:말
21238-3	세-말	서: 말
21239	넷	넷:
21239-1	네-개	네: 게
21239-2	네-되	네: 데
21239-2	네-되	너:데
21239-3	네-말	네: 말
21239-3	네-말	너:말
21240	다섯	다섯
21240-1	다섯-개	다섯 게
21240-2	다섯-되	다섯 떼

21240-2	다섯-되	단뻬
21240-3	다섯-말	다섬 말
21240-3	다섯-말	담마리라고도
21240-3	다섯-말	담말
21241	여섯	여선
21241-1	여섯-개	여서 껌니다
21241-2	여섯-되	여선 떼
21241-2	여섯-되	여뎡디
21241-3	여섯-말	염말
21241-3	여섯-말	여섬 말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개	일곱 껌
21242-2	일곱-되	일곱 떼
21242-3	일곱-말	일곱 말
21243	여덟	야달
21243-1	여덟-개	야달 껌
21243-2	여덟-되	야달 떼
21243-3	여덟-말	야달 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오 껌
21244-2	아홉-되	아홉 떼
21244-3	아홉-말	아홉 말
21245	열	열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 껌
21245-1	열-개	열 껌
21245-2	열-되	열 떼
21245-2	열-되	열 떼
21245-3	열-말	열 말
21245-3	열-말	열 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개	수무 껌
21246-2	스무-되	수무 데
21246-3	스무-말	수무 말
21247	서른	서룬
21247-1	서른-개	서룽 껌
21247-2	서른-되	서룬 데
21247-3	서른-말	서름 말
21248	마흔	마운
21248-1	마흔-개	마옹 껌
21248-2	마흔-되	마운 데
21248-3	마흔-말	마옴 말
21249	쉰	쉬운
21249-1	쉰-개	쉬운 껌
21249-2	쉰-되	시운 데
21249-3	쉰-말	쉬옴 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개	예송 껌
21250-2	예순-되	예순 데
21250-3	예순-말	예숨 말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개	이름 게
21251-2	일흔-되	이른 데
21251-3	일흔-말	이름 말
21252	여든	야든
21252-1	여든-개	야등 게
21252-2	여든-되	야든 데
21252-3	여든-말	야듬 말
21253	아흔	아은
21253-1	아흔-개	아응 게
21253-2	아흔-되	아은 데
21253-3	아흔-말	아음 말
21254	백	베깁니다
21254-1	백-개	베 껌니다
21254-2	백-되	백 뎌니다
21254-3	백-말	벵 말
21255	이백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한 두:게만
21256-2	한두-되	한두 데
21256-3	한두-말	한두 마리제
21257	두셋	
21257-1	두세-개	*
21257-2	두세-되	두세데
21257-3	두세-말	*
21258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 게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 제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 말
21259	서넛	
21259-1	서너-개	서너 게
21259-2	서너-되	서너 데
21259-3	서너-말	서너 말
21260	네댓	
21260-1	네댓-개	너데 껌 가꼬니라
21260-2	네댓-되	너넨 떼
21260-3	네댓-말	너넨 말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테:여서 껌
21261-2	대여섯-되	테:열 떼
21261-3	대여섯-말	테:염말
21261-3	대여섯-말	테:여섬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개	예일고 껌
21262-2	예닐곱-되	여일곱 떼
21262-2	예닐곱-되	여닐곱 떼
21262-2	예닐곱-되	여서일곱 떼
21262-2	예닐곱-되	예:일곱 떼라고도
21262-3	예닐곱-말	여일곱말
21262-3	예닐곱-말	예일곱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일고야달 께나
21263-2	일여덟-되	일고야달 웨:
21263-3	일여덟-말	일고야달 마른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야다라호 께
21264-2	여덟아홉-되	야달아홉 떼라도 하고
21264-3	여덟아홉-말	팔구 마리라도
21264-3	여덟아홉-말	야다라홉 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여나무 게락 하제
21265-2	여남은-되	여나무 데
21265-3	여남은-말	여나무 마리라고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메라고도 하고
21302	길이	지럭끼라고
21302	길이	기럭찌
21302	길이	지럭끼가 질:다
21302	길이	지럭끼
21303	저고리	저구리 입찌요
21304	색동저고리	까:치저구리
21305	두령이	*
21306	무늬	무누라 하제
21307	고쟁이	고쟁이를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둘메기라고
21309	두루마기	둘메기보다
21310	의복	오슨
21311	구겨지다	구부진다
21311	구겨지다	구부가 지지라이
21312	옷고름	오꾸름
21313	단추	단초
21314	동정	동전
21315	겉	겹떡하고 안:하고
21315	겉	겹떡
21315-0-1	-에	겹떡게가
21315-0-2	-을	겹떡글
21316	홀옷	호깁
21316	홀옷	호꺼시여
21316	홀옷	항겹떡
21317	겹옷	젹깁
21317	겹옷	젹꺼시

21318	잠방이	무중우
21319	누더기	두덕찌를
21320	거지	거:라시드리
21321	구결	동:냥
21321	구결	동:냥치라도
21321	구결	동:냥한다
21322	조끼	조끼
21323	내의	네이
21324	껴입다	포게 이분다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조마이 조마니
21326	주머니	조마니
21327	호주머니	호랑
21327	호주머니	괴야썸
21328	허리띠	허리끈
21328	허리띠	헐끈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복
21331	삿갓	사까심니다
21331-0-1	-에	사까세
21332	고깔	꼬:까림니다
21333	사모	사:모간데
21334	유건	유건
21335	대님	덴님
21336	감발	발쌍게
21337	짚신	집썰기(+ 곱게 삼은 것)
21337	짚신	집썸
21337	짚신	털메기(+ 거칠게 삼은 것)
21338	미투리	*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뜨다/결다	삼는다
21339	나막신	용날미:트리
21339	나막신	나막씨닙니다
21340	설피	설피여(+ 신)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맹기베
21401-1	명주실	맹기실
21401-1	명주실	맹기실
21402	목화	다:레나무
21402-1	목화다래	다:레 따서
21403	무명	미영베제
21403-1	무명실	미영실
21403-1	무명실	미영씨
21404	씨아	씨야시
21405	자새	자세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베짖다
21408	길쌈	미영 잔는다
21408	길쌈	길쌈 (+ 소)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진고리	상지
21411	가위	가세
21411-0-1	-을	가세를
21411-0-2	-에	가세에
21412	마르다(裁)	오감 빈:닥 하제
21412-0-1	-고	
21412-0-2	-어라	
21413	형끓	형:겹떼기
21413-0-1	-을	형:겹떼기를
21413-0-2	-에	형:겹떼기에
21414	마늘	마너레다가
21415	꿰다	꿰:다고
21415-0-1	-고	꾸지 마:라
21415-0-2	-어라	꾸여라
21416	마느질	마너질
21417	재봉틀	재봉틀 아임니까
21418	끈	노끈데기
21419	노끈	노끈데기는
21419	노끈	삼:노끈
21420	참바	*
21421	매듭	고다릴 멘다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멘:닥헨:넌디
21422	보자기	보
21423	이불	이불
21424	숨	소케 (+ 구)
21424	숨	소:밈니다 (+ 신)
21425	포근하다	포근하다고
21425	포근하다	폭싹허다고
21426	홀이불	혼:니불
21427	겹이불	jem니불 이꼬
21427-1	숨이불	숨:니부리제
21428	누비이불	뉘빈니불 이제
21429	베개	비:게
21430	베갯잇	호지
21430	베갯잇	비:게 호지짚다고
21430-0-1	-에	호지에 가서
21431	목침	몽:침
21431	목침	몽:치른 (+ 통나무로 만듦)
21432	퇴침	퇴침 (+ 판자로 만듦)
21433	방석	방석
21434	담요	담:노제
21435	빨래하다	빨:레한다
21436	빨랫방망이	방마니
21436	빨랫방망이	방만치
21437	빨래터	빨:레터도 이꼬
21438	빨랫줄	빨:레줄

21439	다리미	다루
21439-1	다림질	다루질
21440	인두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두메빵마니
21442	다듬잇돌	다두메뜯
21443	다듬이질	다두무질
21443	다듬이질	방마~이질 안 허요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나리라고 하지요
21502	설	서:리고
21503	선달 그믐날	서:딸금: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오레
21505-0-1	-는	오레른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그러께라고 그라제
21505-3	내년	맹년
21505-4	후년	저맹년
21505-5	내후년	저저맹년
21506	작은설	*
21507	웃	유시락 하지요
21507-0-1	-을	유슬 던진다 그라제
21507-0-2	-에	유세 마저부따고
21507-1	웃놀이	윤노립니다
21508	웃가락	유토망 망그러가꼬
21508-1	도	툼니다
21508-2	개	게
21508-3	걸	걸:
21508-4	웃	순
21508-4	웃	수시 나와따
21508-5	모	모:
21509	단동	헵
21509	단동	헵찌
21509	단동	헵찌고
21509	단동	헵똥생이
21509-1	외동무니	헵찌
21509-2	두동무니	두기 간다고
21509-2	두동무니	독점바리
21509-2	두동무니	독똥생이
21509-2	두동무니	두동생이가 간다고
21509-3	석동무니	석점바리

21509-3	석동무니	석찜바리
21509-3	석동무니	석똥생이
21509-4	넉동무니	막똥사니
21509-4	넉동무니	막똥생이
21509-4	넉동무니	막찜바리
21509-5	막동	헤비 나마따
21509-5	막동	험찌가 나머따
21509-5	막동	막 간다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르밍니다
21510-1	삭망	*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불노리
21512	망월	가:레뿌리라(+ 각 집안에서 불을 피워 놓고 불 위를 넘어 다니는 놀이)
21512	망월	불싸밍니다
21513	귀불놀이	귀불노리라(+ 신)
21514	자치기	땅:까
21514-1	작은막대	뜸마까지
21514-2	긴막대	자마까지
21515	수수꺼끼	수수꺼끼여
21516	호미씻이	풍장입니다
21517	썰과리	강:세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세:꼴
21520	무당	당골레
21520-1	박수	당고란테나
21521	고수레	퇴:를 헤:야쓴다
21521-1	고수레!	퇴:고시라 하고
21522	점쟁이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생에
21524	굴건	굴간
21525	제사	제:모신다고
21525	제사	지:사라고도 하고
21526	제기	제:기
21526	제기	제:기점씨
21527	귀신	구:신
21528	도깨비	도까비불
21528	도깨비	도까비라고도 하고
21528	도깨비	도깨비라고도 하고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피삐
21602	굴레	굴레
21603	멍에	멍에
21604	길마	구:라

21605	부리망	임망
21606	구유	구시
21607	작두	작:뚜
21608	꿀	꿀: 비여 오니라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소죽
21611	쇠죽바가지	가메쫌빻
21612	수레	구루마엄마 아님니까
21613	끝다	끈는다
21613	끝다	끄는다
21613-0-1	-고	구루마를 끄:꼬 가야지요
21614	바퀴	구루마 발통
21615	새끼(繩)	사네키
21615-1	새끼(짐승의)	데야지 세끼
21616	망태기	망테
21617	떡등구미	골망템니다
21618	거적	꺼적 꺼적
21619	가마니	집까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자림니다
21621	자리틀	*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짠:닥하고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전:다각 해야조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째:니다(자리)
21622	왕골	양:골
21623	삼태기	제송쿠리
21623-1	짚 삼태기	집송쿠린다
21623-2	싸리 삼태기	싸리송쿠리
21624	명석	덕씨깁니다
21625	어레미	얼멩이여
21625-1	고운채	치
21625-2	굵은채	얼멩이
21626	대장장이	성:냥쟁이
21627	대장간	성:냥간
21628	풀무	풍눔니다
21629	모루	성냥세:라고 마니 하지요
21630	모루채	망치로 때리고
21631	갈퀴	갈쿠
21632	집게	찌:께
21633	장도리	장:도리
21633	장도리	망치
21633-1	노루발	*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베 비여따
21635	도끼	도꿈니다
21636	자루(柄)	자루(+ 신)
21636	자루(柄)	자리(+ 구)
21636-0-1	-을	자리를
21636-0-2	-에	자리에
21637	갈고리	까꾸리

21638	썰기	쇠약
21638	썰기	쇠야글 주제
21639	송곳	송:구심니다
21639	송곳	송:굳
21639-0-1	-에	송:구세 쭈셔따
21640	뽀족하다	쪼뽀하다
21640	뽀족하다	날캄하지요
21641	숫돌	거거시 시뚜릅니다
21641-0-1	-에	시뚜레다 간:다
21642	맷돌	메뜰
21642-1	수쇠	바닥쪼시라고
21642-2	암쇠	*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바:작
21645	지게 작대기	짜:떼기
21646	막대기	막떼기라고도
21646	막대기	마까지라고도
21647	몽둥이	몽텅이라고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찌라깁니다
21702	광주리	바구릅니다
21703	소쿠리	데바구리
21704	함지	
21705	폴비	회:기비찌락
21705-1	귀얄	소:릅니다
21706	독	항아릅니다
21706-0-1	-에	항아리:다가
21707	물독	항아리다 분는다
21708	항아리	항아린디
21709	단지	단제기
21710	물동이	물똥우
21711	빠리	또가리
21712	옹기	옹:구
21713	표주박	쪼구레기
21713	표주박	쪼뽀
21713	표주박	물쪼뽀 가통건
21714	키(箕)	침니다
21715	떡살	떡쌀
21716	다식판	다식판
21717	시루	시리
21717-0-1	-을	시리를
21717-0-2	-에	시리에다
21718	시룻밀	시리미슬 깔:지요
21718-0-1	-에	시리미테
21719	시룻번	시리뽀

21720	부싯돌	산:독
21720-0-1	-을	산:도게다 떼리며년
21721	부시	부수
21722	부싯깃	부수쫄미라고 합니다
21722	부싯깃	쫄쫄미제
21723	담배	담:베
21724	담뱃대	담:베떼
21725	담배설대	설떼
21726	담배통	데통
21726	담배통	데통
21727	물부리	담베빨떼
21727	물부리	빨:찌
21727	물부리	빨:뿌리라고도
21728	담배쌈지	담:베 쌈: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루
21732	가락지	까락찌라고도
21733	비녀	비:네
21734	참빗	참빈
21734-0-1	-을	참비슬 가져오니라
21734-0-2	-에	참비세
21735	얼레빗	어리빈
21736	세숫대야	세:숴 테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
21739	활대	쓰실코
21739	활대	채똥
21740	잉앗대	잉:에떼
21741	부티	분:테
21742	도롱이	우장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메가
21802	이마빼기	이마빠기라고
21803	눈자위	망:주
21803	눈자위	눈뚜경이
21804	검은자위	꺼명창
21805	흰자위	힌창
21806	눈꺼풀	눈뚜경이라

21806	눈꺼풀	눈뚜껑
21806	눈꺼풀	눈껍딱
21807	거적눈	꺼징눈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 빠:저따고
21809	속눈썹	송:눈썹비라고
21809-0-1	-이	송:눈썹비 길다
21810	눈두덩	눈탱이
21811	안경	앙:경
21812	안경 집	앙:경 집
21813	돋보기	독빼기 아님니까
21814	주름살	주름싸리라
21814-0-1	-이	주름싸리 만타해서
21815	엷되다	*
21816	수염	쉬염
21817	구레나룻	굴레쉬염
21817-0-1	-을	굴레쉬여름 까까따
21817-0-1	-을	쉬여름 까까따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크다
21819	콧수염	코썩염
21820	코딱지	코딱찌
21821	콧구멍	콧 구멍
21821	콧구멍	코꾸녁
21821-0-1	-을	코꾸머글 마게야지요
21821-0-2	-에	콧 구녀게서 나오지요
21822	콧물	콧물
21823	입술	입썰
21823-0-1	-에	입썩레
21824	다물다	오무라지고
21824	다물다	더퍼라
21824	다물다	다무리라고
21825	어금니	아금니
21826	덧니	빠드렁니 아님니까
21827	휘파람	휘까락 분:다
21828	침	춤 바튼다고
21829	삼키다	생킨다
21830	가래(痰)	가:렘니다
21831	빨다	피마터라
21831	빨다	피마터 부러야제
21831	빨다	페마터
21832	혀	서빠닥
21833	혓바늘	서빠늘 이러따
21834	귓볼	귀미시락 해:야제
21835	귀고리	귀고리
21835-1	귀걸이	귀마게
21836	귀지	귀빠빔니다
21837	귀이개	귀오지기
21838	소리	말소리가 더 잘 들지
21838	소리	소리가

21839	엿듣다	여:뜨꼬 이따
21839	엿듣다	여:뜨른다
21840	귀칭	귀창 떠러진다
21841	귀밀	*
21841-0-1	-을	
21842	관자놀이	
21843	기미	지멤니다
21844	주근깨	주궁께
21845	턱	테가지
21845	턱	텍
21846	턱수염	테가지 쉬엄
21846	턱수염	텍썬여미라
21847	뺨	뺨: 떼린다
21847-1	볼	볼테기
21847-1	볼	볼탁찌라고도
21847-1	볼	볼테기가 시얌파진다
21848	가름하다	자라죽하다
21849	보조개	버데기로
21850	머리카락	머크라기 떠러저따
21851	비듬	비즘
21852	기계총	기계뚝 아넘니까
21853	정수리	쥐구녁
21853	정수리	숨:통이라
21853	정수리	쥐구멍
21854	대머리	할딱뺨이
21854	대머리	데머리라 아나요
21855	고수머리	꼬시랑머리
21856	가르마	가르메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가리메 탄다
21857	가마	가:마
21857	가마	쌍가마
21857-1	가마(鼎)	가마썰
21857-2	가마(轎)	가:메
21857-3	가마(질그릇)	구:리락
21857-4	가마(가마니)	항가마니
21858	뒤통수	뒤꼭찌
21859	뒗덜미	목뜰머리
21859	뒗덜미	모가지 자버따
21860	목	모가지
21861	먹살	멕쌀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쭙찌
21901	어깨	더수기
21902	밀치다	미킨다
21902	밀치다	미크런냐 그라고

21903	겨드랑	제팔미시
21903	겨드랑	제탈미시
21903	겨드랑	제떨미시
21904	등	등거리
21905	가슴	가심
21905	가슴	아까심
21906	결리다	절린닥 하고
21907	갈비뼈	갈비뼈
21908	허파	허파
21909	쓸개	씨레
21909	쓸개	썰게라기도
21910	콩팥	콩관
21910-0-1	-에	콩과세
21910-0-2	-을	콩파슬
21911	팔	팔뚝
21912	팔꿈치	팔뚝꿈치
21913	팔짱끼다	팔찌고 간다고
21914	손톱	손톱
21915	오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웬:손
21917	다르다	다 틀리지요
21917-0-1	-아서	틀레야 지요
21917-0-1	-아서	틀링께
21917-1	틀리다	틀린다고
21918	왼손잡이	왼:손제비라
21918	왼손잡이	외약제비라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까락
21920	집게손가락	곰지
21921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송까락
21922	약손가락	약송까락
21923	새끼손가락	께:끼송까락
21924	생인손	*
21925	사마귀	사:마굽니다
21926	손아귀	버:마구
21926	손아귀	손 아구지가
21927	손목	팔목
21928	뺨	뺨 젼:다고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21931	옆구리	역꾸리
21932	간지럽다	겐지롭따 하고
21933	간지럽	겐지바빔니다
21933	간지럽	겐지빠블 미긴다
21934	잔허리	허리가 쪼뻔하다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꼽
21937	목물	허리막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송쌔:니다
22002	발가락	발꼬락
22003	발바닥	발 바닥
22004	발톱	발톱
22005	냄새	냄:세난다고
22006	고린내	꼬랑네 난다고
22007	굳은살	모시 베게따
22008	정강이	성문
22009	종아리	종아리라고도
22009	종아리	아:레또리
22010	장딴지	장:딴지
22011	회초리	회:초리
22012	무릎	물파기 아프다
22012-0-1	-을	
22012-0-2	-에	물파게
22013	오금	오금쟁이
22014	엉덩이	응치라고도
22014	엉덩이	응:뎡이가
22014	엉덩이	넙떡찌
22014	엉덩이	엉:뎡이
22014	엉덩이	궁:뎡이라고도
22015	궁둥이	궁:뎡이
22016	불기	궁:뎡이
22017	명	청둥난다
22018	명울	비지바비라
22018	명울	몽오리라
22019	가랑이	가:렝이를 버리지
22019	가랑이	가:쟁이
22020	사이	이빨썩:에
22021	살	사세다
22021	살	에기 사탕고라고
22021-0-1	-이	사시
22021-0-2	-을	사슬
22022	사타구니	
22023	가래뿔	가리떼 슨다
22023-0-1	-을	가리떼가 서따고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라고
22024	허벅다리	허벅찌라고
22025	넓적다리	허벅찌
22025	넓적다리	허벅 다리라고
22026	가부좌(跏趺坐)	행:감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쳐따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게:짐머리
-------	----	-------

22102	기침	지침
22103	채채기	제치미라
22104	사레	사레들레따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사레 들려따
22105	딸꾹질	포각찹
22106	트림	트름 나온다
22107	곰보	뽕:뽕가
22107	곰보	뽕:뽕 되야요
22108	천연두	수두소님 하먼
22109	여드름	이:두름입니다
22110	학질	할거리
22110-1	하루거리	할거리
22110-2	이틀거리	할거리라고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1	홍역	호녁
22112	볼거리	태중난다
22113	땀띠	땀뚜름
22114	두드러기	뚜두럭
22115	버짐	버짐
22115	버짐	버짐 피여따
22115-1	마른버짐	건버짐
22115-1	마른버짐	모른버짐
22115-2	진버짐	돈:버짐
22115-3	도장 버짐	돈:버짐
22115-3	도장 버짐	돈:버지미여
22116	문둥이	문:둥아치라
22116-1	문둥병	문:둥뽕
22117	부스럼	부시럼 나따
22117-1	종기	곰:발
22118	고름	고름 나오제
22119	곰기다	창근드러따
22119	곰기다	근든다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사:파리 하다고
22121	사팔뜨기	먼:삼베기라도
22122	언청이	제:보
22123	소경	봉:사
22123-1	당달봉사	달달봉사라고
22124	애꾸	에꼬
22125	눈곱	눈꼽
22126	다래끼	다:레 나따고
22126	다래끼	다라끼 나따고
22126	다래끼	다레
22126	다래끼	다:랄
22126	다래끼	다라시라고도
22126	다래끼	다라시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7	질름발이	찹툭뽕기라
22128	곱사등이	꼽:싸

22129	귀머거리	귀먹쟁이
22130	말더듬이	말 더드문다
22131	병어리	버버리라기도
22132	잠꾸러기	잠충이라도
22133	줄리다	아이고 자문다
22134	하품	함:
22135	줄음	자미 쏘다진다
22135-0-1	-을	
22135-0-2	-에	
22136	잠꼬대	잠뜨슬 마니 한다

2.7. 육아

22201	입덧	입떠시 시:마다
22201-0-1	-을	입떠슬
22202	갓난아이	간나네기
22202	갓난아이	깐나네기
22203	어린아이	에기드리 논:다고
22204	경기(驚氣)하다	경풍끼라
22204	경기(驚氣)하다	경풍나따고
22205	눅히다	넌:다고
22205	눅히다	뉘핀다고
22206	계집아이	가시네
22207	예쁘다	이뿌다
22208	사내아이	머시메
22209	아우 타다	아시탄다고
22209-1	아우보다	지:가 터폴라간다고
22209-1	아우보다	아:시분다고
22210	야위다	모른다 그라고
22210	야위다	야와판 말도 하고
22210	야위다	너머 야와따
22211	쌍둥이	쌍:둥이
22212	오줌	오짐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걸레라고
22215	뉘다(排便)	똥 닌:다
22215	뉘다(排便)	똥 뉘여라
22216	방귀	방:구
22216-1	뀌다	방:구 꺾여꾸나
22217	구린내	구령네난다
22218	구리다	아따 냄세난다 그라고
22219	포대기	보닥찌
22219	포대기	보테기라고도 하고
22220	기지개	지지기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기 켜다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기 쓴다
22221	거짓말	궁:갈 치지마

22221	거짓말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남부꾸롭다
22223	겹쟁이	겹쟁이라
22224	불쌍하다	짜:나다
22225	죄암죄암	취염취염취염
22226	곤지곤지	지게지게지게
22227	따로따로	서따서따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작짜꿍	작짱작짱
22230	부라부라	들:깡달:깡
22231	거름마	거름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따박따박
22233	넘어지다	어:푸러저따
22234	곤두박질	땅빠다게 떠러저따
22235	안기다	앵기기만 허먼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출:레분다
22238	숨바꼭질	숨바깍질
22239	소꿉놀이	빠:끔사리라도 허고
22239	소꿉놀이	바깹사리
22240	사금파리	세금팔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동쟁이 이꼬
22241-1	방패연	똥쟁이 이꼬
22241-2	가오리연	뽀닥찌연
22242	걸리다	나무 우게 가서 마:니 걸리고 그러제
22243	고누	꼰 뒤자 그라고
22244	땅뽀기	땅게미끼
22244	땅뽀기	땅게비끼라고도 하고
22245	팽이	뽕도리
22246	딱지치기	폐지치기제
22247	구슬	다마치기
22248	그네	군:디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군:디 뽀:다
22249	밀싹개	군:디발판
22250	굴렁쇠	도:롱테 굴굴린다
22251	굴리다	굴굴린다고
22251	굴리다	굴굴치지요
22251-0-1	-고	굴굴치고 간다
22251-0-1	-고	굴굴리고 이따
22251-0-2	-어야	굴굴쳐가꼬 만들지요
22252	자전거	자정거
22253	목말	몽물
22254	말타기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탐바꿀 잘 친다
22256	썰매	썰:메탄다고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어름 타러 가자
22256-2	송곳	*
22257	엄살	엄살 한다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부린다

22258

부아

부에난다

2.8. 친족

22301	아버지	우리 아버지
22301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아부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하고 부르지요
22302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고
22302	어머니	우리 엄니요
22302-1	어머니(호칭)	엄니! 엄니!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하나부지
22303	할아버지	우리 하네요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네! 하네!
22304	할머니	할머니
22304	할머니	우리 할메라고도 하고
22304	할머니	할마니
22304	할머니	함메
22304	할머니	우리 함무니
22304-1	할머니(호칭)	함무니 함머니
22305	남편	우리 짐냥바니라고
22305	남편	남편니제
22305	남편	우리 실랑
22305-1	남편(호칭)	상네아빠!
22305-1	남편(호칭)	에마리오! 그냥 그레부씨
22306	아내	우리 집싸라밍니다 하고
22306	아내	우리 텡네라고 그러고
22306-1	아내(호칭)	아:무게 엄마
22307	형	우리 성이요
22307-1	형(호칭)	성! 성!
22308	아우	네 손미테 동생이다
22308-1	아우(호칭)	동생! 이루와
22308-1	아우(호칭)	이르믄 마:니 부르지
22309	누나	우리 누니미요
22309	누나	누니미라고
22309-1	누나(호칭)	누님! 누님!
22310	누이	동생이라고
22310-1	누이(호칭)	동생!
22310-1	누이(호칭)	이르믄 마:니 불르쥬 지금
22311	자식	에기드리
22311	자식	자석뜨리
22312	맏아들	크나들
22313	맏딸	큰딸
22314	막내	막뚜~이동생 이쓰면
22315	오빠	우리 오빠요 그러고
22315-1	오빠(호칭)	오빠! 그레야제

22316	언니	우리 언니라고 (+ 신)
22316	언니	성이라기도 하고 (+ 구)
22316-1	언니(호칭)	성! (+ 구)
22316-1	언니(호칭)	시방잉께 언니언니 하제 (+ 신)
22317	아비	아무게 아빠 어디 간냐
22317	아비	저 어디 간냐
22317-1	아비(호칭)	아무게 아빠야! 그레야제
22317-1	아비(호칭)	본 이르믄 불르제
22318	어미	아무게 엄마 어디 가냐
22318	어미	자부 어:디 간냐
22318	어미	저 어디 간냐
22318-1	어미(호칭)	아가야! 하기도 하고
22319	손자	손지라고 헤야조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손지딸
22320	손녀	솔려
22321	사위	사우
22321-1	사위(호칭)	무슨서방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외솔려
22324	꾸짖다	지천
22324	꾸짖다	지천한다
22324	꾸짖다	꾸지름 드러따
22324-0-1	-고	
22324-1	나무라다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크네기
22327	혼인	계론
22327	혼인	계론헌다고
22327-1	혼인식	예식
22328	혼인 잔치	데:사친다
22329	장가가다	장:가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집간다
22330	혼숫감	혼수라
22331	함	함:
22332	겹사돈	겹싸둔
22333	새 색시	세각씨
22333-1	새 색시(호칭)	세텍
22334	시아버지	시아바지라고도
22334	시아버지	시아버니
22334	시아버지	시아버지
22334	시아버지	시아버니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부니! 그라제
22335	시아버지	시아버니라고
22335-1	시아버지(호칭)	어머니! 그라제
22336	비위	비우 마친다
22337	아주버니	시승님
22337	아주버니	우리 시수기다
22337-1	아주버니(호칭)	시승님
22338	서방님	시아제

22338-1	서방님(호칭)	시아제!라고도
22338-1	서방님(호칭)	아제 !
22338-1	서방님(호칭)	아제!
22339	도련님	우리 도련니미다고
22339-1	도련님(호칭)	도련님!
22340	형님	우리 성님이다
22340-1	형님(호칭)	성님!
22341	시누이	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에기씨라고
22341-2	아가씨	시누라 그라제
22341-3	아가씨(호칭)	에기씨!
22342	올케	성니미라 헤야제
22342	올케	오라부덕
22342-1	올케(호칭)	형님! 그라고 불러제
22343	매형	매양
22343	매형	매부라고도
22343-1	매형(호칭)	매양!
22344	매제	매제라고
22344-1	매제(호칭)	매제!
22345	큰아버지	백쑤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제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 크나부지! 헤야제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자근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두:제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시:제 크나부지라고
22346	큰어머니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자근크너머니라고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세:제크너머니라고도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자근아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근아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근어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근어머니!
22350	삼촌	삼추니라
22350-1	삼촌(호칭)	삼춘! 삼춘!
22351	아저씨	당:숙
22351	아저씨	아제
22351-1	아저씨(호칭)	당:숙!
22351-1	아저씨(호칭)	아제!
22352	아주머니	당:송모님
22352	아주머니	아집
22352-1	아주머니(호칭)	송모니미라도
22352-1	아주머니(호칭)	당:송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짐! 아짐! 하고
22353	조카	조카지요
22354	조카딸	질러라고도
22354	조카딸	조카라고도
22355	고모	고모락 헤야제
22355-1	고모(호칭)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님! 고모님!
22356	고모부	고숙
22356	고모부	작쑥도 되고
22356-1	고모부(호칭)	작쑥! 작쑥!
22356-1	고모부(호칭)	고숙!
22357	고종	네:종간
22358	이모	이모요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님!
22359	이모부	이:숙
22359-1	이모부(호칭)	이:숙!
22360	이중	이:종간
22361	외삼촌	외숙
22361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외숙!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추니락 허제
22362	외숙모	외승모
22362-1	외숙모(호칭)	외승모님!
22363	외중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네라 하고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나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나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네!
22365	외할머니	외함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함머니!
22366	장인	제:인영가미제(+ 구)
22366	장인	장:인(+ 신)
22366	장인	장:인영감(+ 신)
22366	장인	제:인(+ 구)
22366-1	장인(호칭)	아버지라고도
22366-1	장인(호칭)	이름없음
22367	장모	장:모님
22367-1	장모(호칭)	장:모니미라고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남!
22369	처남댁	처나무덕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무덕!
22370	홀아비	호레비
22371	홀어미	호럼씨
22372	계모	이부더머니
22372	계모	이부더메라고도
22372-1	계부	이부다버지제
22373	아저씨	아제라 허고
22373-1	아저씨(호칭)	아제! 그라고
22374	아주머니	아짐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짐씨!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지미라고도
22375	사나이	*
22376	영감	영:감님
22376-1	할망구	저 노무 망:구탱이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이를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 잔치	항:갑잔치한다고
22379	사투리	사:투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라
22402	민물고기	강꼬기
22402	민물고기	물꼬기지
22403	피라미	피릅니다
22404	지느러미	날개
22405	아가미	아감지
22406	창자	창사
22407	송사리	눈쟁이
22408	헤엄	쉬엄치고 다니조
22409	메기	미:기
22410	자라	자:레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꼬라지
22413	개구리	깨울테기
22414	올챙이	얼챙이라고도
22415	두꺼비	앙뚜께비 아니요
22415	두꺼비	뚜께비가 됩니다
22416	거머리	거:마리
22417	다슬기	다사리
22418	우렁이	우렁입니다
22418	우렁이	우렁
22419	고둥	고둥 아님니까
22419	고둥	게꼬둥
22420	달팽이	달팡이
22421	새우	세빔니다
22421-1	새우(민물 대)	징금세비
22421-2	새우(민물 소)	또랑세비라 하고
22421-3	새우(바다 대)	데하세비라고
22421-4	새우(바다 소)	세비락 하데요
22422	새우젓	토하절
22422	새우젓	세비저시라도 하고
22422-0-1	-이	세비저시 짜다
22423	가재	가:제
22424	갈치	갈치 간네요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간:지메
22427	가자미	*
22428	멸치	메리
22429	명태	멘테
22429-1	동태	동:테
22429-2	황태	*
22429-3	노가리	*
22429-4	복어	부거라 안 하요?
22429-5	생태	멘테
22429-5	생태	생테라 안 하고
22430	조기	조구
22431	도미	돔:
22432	뱀장어	장엄니다
22432	뱀장어	짱:어요
22433	낙시	낙쭈
22434	미끼	낙쭈빠비라고
22435	낙숫대	낙쭈 데
22436	얼레	자세
22436	얼레	연:짜세
22437	조개	꼬마김니다
22438	소라	소: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버레
22501	벌레	벌가지
22502	날벌레	하로사리
22503	파리	포리
22503-1	쉬파리	시포리
22504	쉬슬다	쉬 실른다
22505	가시	된:장보라지 이러따
22505	가시	쉬뽀라지 시러따
22506	진딧물	뜸물
22506-1	(진딧물) 끼다/얹다/생기다	뜸물 찌따
22507	잠자리	점:자리
22508	방아깨비	땅게비
22508-1	암컷	땅게비고
22508-2	수컷	떼떼라고
22509	메뚜기	메뚜김니다
22510	여치	연:치
22511	사마귀	거마제비
22511	사마귀	동:낭치라고
22512	벌	벌:
22512-1	(벌) 치다/기르다/키우다	키우지요
22513	땅벌	오빠시도 이꼬
22514	나비	나뵈니다
22515	하루살이	하리사리

22516	풍뎡이	둥구
22517	모기	모:구라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메:미
22520	개똥벌레	게:똥벌레라고(+ 신)
22520	개똥벌레	게:똥볼가지(+ 구)
22521	반딧불	게:똥부리 나라텅긴다고
22522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굼:벵이
22524	구더기	구더리
22525	노래기	사네기
22526	그리마	구지메
22526	그리마	거리메
22527	지네	지:넴니다 지:네
22528	개미	게:미
22529	바구미	바:금
22530	진드기	비리
22531	벼룩	베룩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써까리
22532-2	빈대	빈뎡니다
22533	송충이	송:챙이
22534	귀뚜라미	귀뚜라미
22535	누에	누예
22536	고치	누예꼬치
22537	번데기	뽕데기
22538	지렁이	거시랑치
22539	회충(蛔蟲)	충 드러따
22539	회충(蛔蟲)	혜 드러따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물똥구

2.9.3. 가축

22601	가축	짐성이라고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소양치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멤메멤메멤
22605	황소	쑥쑥
22605	황소	뿌사리
22606	길들이다	질갈친다고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와: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려)	이레이리이리 이리이리이리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려)	자라자라자라자라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러 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8	고기(肉)	육 까툇거슨
22608	고기(肉)	육꼬기라 안 하요?
22609	둘치	이리도시제
22610	꼬리	꼴랑지
22611	망아지	말세끼 나따고
22612	당나귀	땅나구(+ 구)
22612	당나귀	당나귀(+ 신)
22613	갈기	머리터리요
22614	돼지	되야지
22614-1	멧돼지	메뵤야지라기도 하고 (+ 구)
22614-1	멧돼지	메뵤지(+ 신)
22615	주둥이	주뎡이
22616	돼지 머리	되야지머리
22617	돼지우리	되야지마구
22617	돼지우리	마구청
22617-1	오래오래	도레도레
22618	개(犬)	게:
22618-1	수개	쑥개
22618-2	암개	암:개
22619	강아지	강아지 (+ 신)
22619	강아지	게:세끼라고 그레써 (+ 구)
22619	강아지	갱아지라도 하고
22620	염소	멤소
22620	염소	멤생이락 헤쏘
22621	고양이	괴:더기
22621-1	수고양이	쑥피드기
22621-2	암고양이	암피데기
22622	토끼	테깽이
22623	거위(鵝)	떼:까우
22624	암탉	암탁
22625	병아리	뺑아리
22626	모으다	모툃다
22627	수탉	짱:닭
22627-0-1	-이	짱다기
22628	벼슬(鷄冠)	베실
22629	부리	주뎡이
22630	모이	당모시
22630-0-1	-을	모시를
22630-1	모이다	모툃다
22631	닭털	닥털
22631	닭털	닥터를 뽏분다
22631	닭털	터럭
22632	닭똥	닥똥
22632	닭똥	달구똥
22633	어리	다까레
22634	닭장	달구장테
22635	둥우리	복썰미에다 알 난:다고 (짚을 모아 서 닭이 알을 품도록 만든 자리)
22635	둥우리	닥통어리(=달구장테. 대로 만듭.)
22635	둥우리	닥찌베다

22636
22637
22637-0-1

날개
깃
-을

날개
날개쭉쭉털
날개쭉쭉터를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22702
22703
22704
22705
22706
22706-0-1
22706-0-2
22707
22708
22709
22710
22711
22712
22712
22713
22714
22715
22715
22716
22717
22718
22719
22719
22720
22721
22722
22723
22724
22725
22725
22726
22727
22727-1
22728
22729
22730
22731
22732
22733
22733

호랑이
살쾡이
여우
원숭이
사슴
노루
-이
-를
고슴도치
두더지
족제비
뱀
도마뱀
구렁이
구렁이
살모사
생쥐
박쥐
박쥐
거꾸로
다람쥐
새(鳥)
꿩지
꿩지
솔개
독수리
제비(燕)
두루미
소쩍새
평
평
장끼
까투리
꺼병이
종달새
빼꾸기
기러기
뜸부기
올빼미
까치
까치

호:랭이
쌀:가지
여시
원:생이
사슴
노리

노리를
고슴도치
뒤지기
쪽:제비
비암
동에배암
꾸렁이라고
구렁이
*
쉬양지
빡:쥬
박쥬
꺼:꿀로
다람쥐
세:가
세:꿀랑지
꿀랑지털
솔갱이
독쭈리
제:비
한:쉐
소쩍새라 하제
쑥꿩이라 한디
꿩:
쟁:깡이
암꿩
꿩:세끼라고
종달새라고
빼꼭썰요
기러기
뜸북썰
오빼미
간:치(+ 구)
까:치(+ 신)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세
22735	덧	도심니다
22735-0-1	-을	도설
22736	올가미	치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창꼐
22801	진달래꽃	창꼬시고
22802	철쭉꽃	게:꼬심니다
22803	민들레	민들레라게
22804	맨드라미	멘드레미라 허씨요
22805	봉선화	봉:송아
22806	파리	떼알
22806	파리	띠알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꼐 봉아리제
22809	시들다	사그라저따고
22810	질경이	찢격이푸리라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뻬:뻬쟁이가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찢격이노무리라고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뻬:뻬쟁이 너물 케서
22811	빨기	뻬:비
22812	비름	비린넙
22813	쇠비름	게:비린넙
22813	쇠비름	비린니비요
22814	썸바귀	싸랑부리
22815	고들빼기	*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꼬사리
22817	고비	*
22818	도깨비바늘	동:낭치나무
22819	도꼬마리	테:꼬마리
22819	도꼬마리	테:꺼마리
22820	억새	난나리풀
22821	갈대	갈떼
22822	이끼	잉:끼라
22823	아주까리	피마지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쭈세미
22826	덩굴	넝쿨리 꺼저서
22827	덤불	덤풀

22827-1	가시덤불	
22828	잔디	뛰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솔라무
22902	솔방울	솔빵울
22903	관솔	강:솔
22904	솔가리	갈쿠나무
22905	그러모으다	글거서 인자 모툰닥 해야조
22906	뽕나무	뽕나무구만
22907	오디	뽕떼알
22907	오디	오돌게라고 해요
22908	도토리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도토리나무에서
22910	상수리	상:솔
22911	웃	오 쥘
22911	웃	오치리라 그레
22911-0-1	-으로	오시 올른다
22912	버드나무	버들나무라고
22913	느티나무	당:산나무
22914	그림자	그림자
22914-1	그늘	그늘
22915	숲	수비 우거저따
22915-0-1	-을	
22915-0-2	-에	
22916	시원하다	시연하다
22917	찢레	찢구나뭉니다
22918	쭈	쭈
22918-0-1	-에	칭영쿠레
22918-0-1	-에	치기 크다
22919	가지(枝)	가지
22919	가지(枝)	가:지가
22919	가지(枝)	감:나무 가:쟁이
22920	끝	꼬터리가
22920-0-1	-이	꼬터리가
22920-0-2	-을	꼬터리를
22920-0-3	-에	꼬터리에
22921	삭정이	자장게비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꼬너따
22922	나무	나:무
22922	나무	나:무라게야제(목재)
22922-0-1	-을	나:물 비여 와야제
22922-0-2	-에	낭구에 걸려따
22922-0-2	-에	나:무에 걸려따
22923	나무하다	나:무헤 오니라
22924	그루터기	미끝텅

22924	그루터기	미똥이라 안 하요?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미끌텅이 나마따
22925	등걸	끌텅
22926	장작	장작
22927	꽤다	쪼긴다
22927	꽤다	장자글 펜다
22928	부스러기	장작쪼가기라 해야제
22929	숫	수뎡이
22929-0-1	-이	수시
22929-0-2	-을	수슬
22929-0-2	-을	수뎡이를
22929-0-3	-에	수뎡이에다
22929-0-3	-에	수세다
22930	불잉걸	너무 잉글잉글하다고
22931	썩	썩기 잘 나따고
22931	썩	초기 잘 터따고
22931	썩	종자가
22932	잎	입썩
22932-0-1	-을	입싸글
22932-1	잎사귀	상춘닙썩
22933	가랑잎	가:람닙(도토리나무의 잎만을 가리킴)
22934	뿌리	뿌렁구라고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23002	돌배	독:배
23003	복숭아	복썩
23004	곶감	꼬:감
23005	홍시	홍:시감
23006	고욤	메:감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23011	석류	성:누
23012	모과	모:게
23013	과일	과:시리라고
23014	꼭지	꼭찌
23015	밤	밤:임니다
23015-1	밤송이	밤:썩이
23015-2	팥밤	썩바미라
23015-3	알밤	알:빠미라
23015-4	쌍동밤	쌍밤
23016	보늬	비늘
23017	호두	호도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덜구
23021	다래	*
23022	청미래덩굴	멩:감
23023	으름	어:름
23024	참외	웨:
23025	딸기	딸기
23025	딸기	뛰알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산떼야리라
23026	뱀딸기	베암떼알
23027	마름(菱)	모:람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뽕떼기
23102	기슭	산비탈가리
23102	기슭	산비탈가:지
23102-0-1	-에	산비탈가지다 지벌 진는다
23103	골짜기	상꼴차기 지푸다
23104	메아리	사눌리미라
23105	고함	구와를 지른다능 거슨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구왈 지른다
23106	묘	뵈:시 크다
23106	묘	메:똥이
23107	뿔자리	메:짜리
23107-1	광중	청강꾸덩이
23108	구덩이	구텅이 판다
23109	비탈	신비탈가:지라고
23110	가파르다	비탈가지가 고씨다
23110	가파르다	깔쿠마기락 헤야제
23111	언덕	어덕 올라간다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진다
23113	들(野)	들:로
23113	들(野)	드:리
23113-0-1	-에	드:레로
23114	벌	벌판
23114	벌	벌파니로

23115	갈림길	갈라저따
23115	갈림길	상거리
23115	갈림길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갈린다
23117	바위	바우
23117-0-1	-을	바우를
23117-0-2	-에	바우에
23118	돌(石)	독:
23118-0-1	-을	도:걸
23118-0-2	-에	도:게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세
23120-0-1	-를	모세를
23121	진흙	질흑땅
23121	진흙	지느기라고
23121-1	찰흙	질흑땅이조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23202	거품	버کم
23203	개운하다	개얀하다
23204	도랑	또랑
23204	도랑	또랑창이라고도
23204-1	붓도랑	메기친 또랑이라고
23204-1	붓도랑	보꼬랑
23205	독	뚝 싸:따고
23206	잠기다	물 쟁게따고
23207	개울	*
23208	내(川)	네:시나
23209	미역 감다	메까문다
23210	밭가승이	깨복쟁이
23211	목욕하다	모욕한다(+ 신)
23211	목욕하다	메까문다고(+ 구)
23212	수채	시통이 메케따
23213	개골창	또랑으로 빠제
23213	개골창	꼬랑
23214	시궁창	시금창
23215	웅덩이	물 과:따고
23216	수렁	수랑노님니다
23217	늪	수랑
23217-0-1	-에	수랑에
23218	배(船)	베 탄다
23219	나루터	뽕모리
23220	돛	풍선 다라따
23220-0-1	-에	풍서네
23221	돛대	도떼 단:다

23221	돛대	*
23222	돛배	
23223	돛 줄	풍선꾸리제
23224	돛 줄	
23225	거루	뽕마
23226	상앗대	노 때까지여
23227	개(펼)	게빠닥
23228	물	육찌에
23228-0-1	-으로	육찌로
23229	밀물	드롬무리라고
23230	썰물	썸물
23230	썰물	물 쓴다고
23231	가라앉다	가랑저따
23232	그물	투망
23232	그물	금물
23233	해녀	해:녀라고

2.11.3. 시후

23301	새벽	세보게
23302	새벽밥	세복빤 무꼬
23303	아침	아지게
23303	아침	아치게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빤
23305	점심	정:심
23306	저녁	저녁떼
23306	저녁	저녁
23307	설핏하다	해가 슬픈하다고
23308	노을	*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빠:라다고
23310	해거름	해끄테라고
23311	땅거미	땅금든다
23312	봄	보미 오지요
23313	여름	여르미고
23314	더위	더우가
23315	추위	추:가
23316	가을	가으리요
23316	가을	가을 아님니까
23316	가을	가시리라고도
23316-0-1	-에	올까시레
23317	겨울	겨을
23317	겨울	시얀
23317-0-1	-에	올 시야네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넬: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고페
23323	그글피	그:고페
23324	어제	어저께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후:제
23328	하룻날	초하레
23329	이튿날	초이틀
23330	사흘날	초사을
23331	나흘날	초나을
23332	닷셋날	초다췌
23333	엿셋날	초여췌
23334	이렛날	초이레
23335	여드렛날	초야드레
23336	아흐렛날	초아흐레
23337	열흘날	초여를
23338	하루	하로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을
23342	닷새	다췌
23343	엿새	여췌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야드레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잘
23348-1	반나절	반:나잘
23349	그믐	금:나리
23349-1	그믐께	금:정께
23350	지금	지금
23351	아직	아직
23351	아직	당아
23352	이제	인자
23353	이미	이미
23354	요즈음	요세
23355	금방	곰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뵐 뵈친디다가
23401-0-1	-이	베시
23401-0-2	-을	베슬
23402	따스하다	따췌따
23403	아지랑이	짐:

23404	응달	응강진다
23405	양달	양:지 비춘다
23406	비(雨)	비가
23407	가랑비	가랑비가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양:게
23410	눈개	양:게비여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나기
23412	소나기	쏘낙뻘
23413	갑자기	그몹씨
23414	홍수	물썩따고
23415	번개	병게
23416	천둥	뇌성
23417	벼락	베락
23418	무섭다	무습제
23418	무섭다	아이구 무수와르
23419	함박눈	나:부눈
23420	싸락눈	싸레기
23421	발자국	발트지비
23421	발자국	발테죽
23422	진눈깨비	진누니 온다
23422	진눈깨비	눈비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두름
23425	햇무리	험머리
23426	달무리	달머리
23427	둥글다	똥글헤요
23428	은하수	벼:리 다머 부서따
23429	금성	세복뻘
23429	금성	초저녁뻘
23430	가뭄	가물다고
23430	가뭄	가뭄 드러따
23431	마르다	잘 모른다 헤야조
23431-0-1	-어서	몰래서
23432	위	우게 아니요?
23433	아래	아:레라고
23434	왼쪽	외약쪽
23435	오른쪽	오른쪽
23436	결	여폐가 이따
23436-0-1	-에	저테로
23437	회오리바람	소소리바람
23438	북풍	북풍이지요
23439	남풍	남풍이 분:다고
23440	동풍	마파람 분:다고
23440	동풍	동풍이라고
23441	서풍	하누바람

제 3 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
31001-0-1	테(輪)-이/가	테가 이뿌다
31001-0-2	테(輪)-보다	
31002-0-1	태(胎)-이/가	테
31002-0-2	태(胎)-보다	
31003-0-1	떼(群)-이/가	새 떼가
31003-0-2	떼(群)-보다	
31004-0-1	때(時)-이/가	떼가
31004-0-2	때(時)-보다	
31005-0-1	틀(機)-이/가	틀
31005-0-2	틀(機)-보다	
31006-0-1	털(毛)-이/가	털
31006-0-2	털(毛)-보다	
31007-0-1	글(文)-이/가	글
31007-0-2	글(文)-보다	
31008-0-1	걸(옷)-이/가	걸:
31008-0-2	걸(옷)-보다	
31009-0-1	기(旗)-이/가	기:
31009-0-2	기(旗)-보다	
31010-0-1	귀(耳)-이/가	귀:
31010-0-2	귀(耳)-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시:
31011-0-2	시(生時)-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쉬:
31012-0-2	쉬(蠅卵)-보다	
31013-0-1	쇠(鐵)-이/가	세:
31013-0-2	쇠(鐵)-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에국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에놈들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6	쉬:다(休)-더라	시:는 날
31016	쉬:다(休)-더라	췌:다
31016	쉬:다(休)-더라	신:다
31017	쇠:다(설을~)-더라	췌:다
31018-0-1	베(布)-이/가	베
31018-0-2	베(布)-보다	
31019-0-1	배(船)-이/가	베

31019-0-2	배(船)-보다	
31020-0-1	배(腹)-이/가	배가 아프다
31020-0-2	배(腹)-보다	
31021-0-1	(떡)메-이/가	메
31021-0-2	(떡)메-보다	
31022-0-1	매(鞭)-이/가	매
31022-0-2	매(鞭)-보다	
31023-0-1	메:다(擔)-더라	메고
31023-0-2	메:다(擔)-어서	
31024-0-1	매:다(繫)-더라	멘:다
31024-0-2	매:다(繫)-어서	
31025-0-1	떼:다(分離)-더라	떤:다
31025-0-2	떼:다(分離)-어서	
31026-0-1	때:다(炊)-더라	뎌:다
31026-0-2	때:다(炊)-어서	
31027-0-1	베:다(切斷)-더라	빈:다
31027-0-2	베:다(切斷)-어서	
31028-0-1	배:다(孕胎)-더라	베:따
31028-0-2	배:다(孕胎)-어서	
31029-0-1	세:다(算)-더라	센:다
31029-0-2	세:다(算)-어서	
31030-0-1	새:다(漏泄)-더라	센:다
31030-0-2	새:다(漏泄)-어서	
31031-0-1	뒤(後)-이/가	뒤:싱께
31031-0-1	뒤(後)-이/가	뒀:
31031-0-2	뒤(後)-보다	
31032-0-1	되(升)-이/가	데
31032-0-2	되(升)-보다	
31033-0-1	게:(蟹)-이/가	기:
31033-0-2	게:(蟹)-보다	
31034-0-1	개:(犬)-이/가	게:
31034-0-2	개:(犬)-보다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시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니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6-0-1	물결(波)-이/가	물결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육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오기라고도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9-0-1	규칙(規則)-이/가	귀척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교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으짤 니리나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1	궤:(짹)(櫃)-이/가	궤:짹
31044-0-2	궤:(짹)(櫃)-보다	
31044-0-3	궤:(짹)(櫃)-을/를	
31045-0-1	왜란(倭亂)-이/가	외란 떼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6-0-1	헛대(鷄架)-이/가	헤떼뽀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한다고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8-0-1	권:투(拳鬪)-이/가	꼰또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으:논한다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50-0-1	무늬(紋)-이/가	무늬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1-0-1	왕(王)-이/가	왕: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2-0-1	과자(菓子)-이/가	가자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일
31053-0-2	일(一)-보다	
31054-0-1	일:(事)-이/가	일:
31054-0-2	일:(事)-보다	
31055-0-1	매(鞭)-이/가	매
31055-0-2	매(鞭)-보다	
31056-0-1	매:(驚)-이/가	매:
31056-0-2	매:(驚)-보다	
31057-0-1	밤(夜)-이/가	원:망한다고 밤
31057-0-1	밤(夜)-이/가	밤
31057-0-2	밤(夜)-보다	
31058-0-1	밤:(栗)-이/가	밤:
31058-0-2	밤:(栗)-보다	
31059-0-1	눈(眼)-이/가	눈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눈 온다
31060-0-1	눈:(雪)-이/가	눈: 온다 그라제
31060-0-1	눈:(雪)-이/가	눈 씨러라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말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말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말
31063-0-1	말:(言)-이/가	말: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소님
31064-0-2	손(客)-보다	
31065-0-1	손(手)-이/가	손
31065-0-2	손(手)-보다	
31066-0-1	손:(孫)-이/가	손:
31066-0-2	손:(孫)-보다	
31067-0-1	배(梨)-이/가	배
31067-0-2	배(梨)-보다	
31068-0-1	배:(倍)-이/가	배:
31068-0-2	배:(倍)-보다	
31069-0-1	벌(罰)-이/가	벌
31069-0-2	벌(罰)-보다	
31070-0-1	벌:(蜂)-이/가	벌:
31070-0-2	벌:(蜂)-보다	
31071-0-1	솔(松)-이/가	솔
31071-0-2	솔(松)-보다	
31072-0-1	솔:(刷)-이/가	솔:
31072-0-2	솔:(刷)-보다	
31073-0-1	줄(鉉)-이/가	줄
31073-0-2	줄(鉉)-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줄:

31074-0-2	줄:(연장)-보다	
31075-0-1	돌:(石)-이/가	독:
31075-0-2	돌:(石)-보다	
31076-0-1	담(牆)-이/가	담
31076-0-1	담(牆)-이/가	땀
31076-0-2	담(牆)-보다	
31077-0-1	담:(膽)-이/가	담:
31077-0-2	담:(膽)-보다	
31078-0-1	들:(野)-이/가	들:
31078-0-2	들:(野)-보다	
31079-0-1	달-(懸)-더라	달:드라
31079-0-1	달-(懸)-고	달:드라
31080-0-1	달-(甘)-고	달드라
31080-0-1	달-(甘)-더라	달드라
31081-0-1	달:-(熱)-고	다라뜨라
31081-0-1	달:-(熱)-더라	달드라
31081-0-1	달:-(熱)-더라	다라뜨라
31081-0-1	달:-(熱)-고	달드라
31082-0-1	갈-(換)-더라	갈:드라
31082-0-1	갈-(換)-고	갈:드라
31083-0-1	갈-(磨)-고	갈:드라
31083-0-1	갈-(磨)-더라	갈:드라
31084-0-1	갈:-(耕)-더라	갈:드라
31084-0-1	갈:-(耕)-고	갈:드라
31085-0-1	걷-(收)-고	걷뜨라
31085-0-1	걷-(收)-더라	걷뜨라
31086-0-1	걸:-(步)-더라	걸:드라
31086-0-1	걸:-(步)-고	걸:드라
31087-0-1	적-(書)-고	적뜨라
31087-0-1	적-(書)-더라	적뜨라
31088-0-1	적:-(小)-더라	적:뜨라
31088-0-1	적:-(小)-고	적:뜨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1	막-(防)[ㄱ]-지	호리제
32001-0-2	막-(防)[ㄱ]-고	호르고
32001-0-2	막-(防)[ㄱ]-고	마꼬
32001-0-3	막-(防)[ㄱ]-더라	막뜨라
32001-0-3	막-(防)[ㄱ]-더라	호르드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호릉께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궁께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거따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홀러따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고
32002-0-2	흐르-(流)[ㅡ]-고	흘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르드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흘러따
32003-0-1	오-(來)[ㅓ]-지	오지
32003-0-2	오-(來)[ㅓ]-고	오고
32003-0-3	오-(來)[ㅓ]-더라	오드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옹께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와따
32004-0-1	듣-(聞)[ㄷ 변]-지	드찌
32004-0-2	듣-(聞)[ㄷ 변]-고	드꼬
32004-0-3	듣-(聞)[ㄷ 변]-더라	드뜨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드릉께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드러따
32005-0-1	많:-(多)[ㄴᄇ]-지	만:체
32005-0-2	많:-(多)[ㄴᄇ]-고	망:코
32005-0-3	많:-(多)[ㄴᄇ]-더라	만:트라
32005-0-4	많:-(多)[ㄴᄇ]-으니까	만:항께
32005-0-5	많:-(多)[ㄴᄇ]-아/어(왔/었다)	만:해따
32006-0-1	맡-(任)[ㅌ]-지	마트지
32006-0-2	맡-(任)[ㅌ]-고	마트고
32006-0-3	맡-(任)[ㅌ]-더라	마트드라
32006-0-4	맡-(任)[ㅌ]-으니까	마통께
32006-0-5	맡-(任)[ㅌ]-아/어(왔/었다)	마터따
32007-0-1	알:-(知)[ㄹ]-지	알:체
32007-0-2	알:-(知)[ㄹ]-고	알:고
32007-0-3	알:-(知)[ㄹ]-더라	알:드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알:께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아라따
32008-0-1	감:-(閉眼)[ㄱ]-지	눔 감찌
32008-0-2	감:-(閉眼)[ㄱ]-고	눔 강꼬
32008-0-3	감:-(閉眼)[ㄱ]-더라	감:뜨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가릉께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가머따
32009-0-1	벗-(脫)[ㅅ]-지	벗찌
32009-0-2	벗-(脫)[ㅅ]-고	보꼬
32009-0-3	벗-(脫)[ㅅ]-더라	버스드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버승께
32009-0-5	벗-(脫)[ㅅ]-아/어(왔/었다)	버서따
32010-0-1	옴-(可)[ㅍ]-지	옴체
32010-0-2	옴-(可)[ㅍ]-고	옴코
32010-0-3	옴-(可)[ㅍ]-더라	옴트라
32010-0-4	옴-(可)[ㅍ]-으니까	오릉께
32010-0-5	옴-(可)[ㅍ]-아/어(왔/었다)	오라따
32011-0-1	입-(着衣)[ㅍ]-지	입찌
32011-0-2	입-(着衣)[ㅍ]-고	입꼬
32011-0-3	입-(着衣)[ㅍ]-더라	입뜨라
32011-0-4	입-(着衣)[ㅍ]-으니까	이붕께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이버따
32012-0-1	바꾸-(換)[ㅌ]-지	바꾸지
32012-0-2	바꾸-(換)[ㅌ]-고	바꾸고
32012-0-3	바꾸-(換)[ㅌ]-더라	바꾸드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바꿈께
32012-0-5	바꾸-(換)[ㅌ]-아/어(왔/었다)	바까따
32013-0-1	덮-(覆)[ㄷ]-지	덮찌
32013-0-2	덮-(覆)[ㄷ]-고	덮꼬
32013-0-3	덮-(覆)[ㄷ]-더라	덮뜨라
32013-0-4	덮-(覆)[ㄷ]-으니까	더풍께
32013-0-5	덮-(覆)[ㄷ]-아/어(왔/었다)	더퍼따
32014-0-1	묻-(問)[ㅁ변]-지	무찌
32014-0-2	묻-(問)[ㅁ변]-고	무:꼬
32014-0-3	묻-(問)[ㅁ변]-더라	물트라
32014-0-4	묻-(問)[ㅁ변]-으니까	무릉께
32014-0-5	묻-(問)[ㅁ변]-아/어(왔/었다)	무려따
32015-0-1	낫-(癒)[ㅅ변]-지	나:째
32015-0-2	낫-(癒)[ㅅ변]-고	나:코
32015-0-2	낫-(癒)[ㅅ변]-고	나스고
32015-0-3	낫-(癒)[ㅅ변]-더라	나:뜨라
32015-0-4	낫-(癒)[ㅅ변]-으니까	나승께
32015-0-5	낫-(癒)[ㅅ변]-아/어(왔/었다)	나서따
32016-0-1	닫-(閉)[ㄷ]-지	다치지
32016-0-2	닫-(閉)[ㄷ]-고	다치고
32016-0-3	닫-(閉)[ㄷ]-더라	다치드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등께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쳐따
32017-0-1	쫓-(追)[ㅈ]-지	쫓치지
32017-0-2	쫓-(追)[ㅈ]-고	쫓치고
32017-0-3	쫓-(追)[ㅈ]-더라	쫓치드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칭께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차따
32018-0-1	베:- (枕)[ㅂ]-지	비:지
32018-0-2	베:- (枕)[ㅂ]-고	비:고 잔다
32018-0-2	베:- (枕)[ㅂ]-고	비:고 이따
32018-0-3	베:- (枕)[ㅂ]-더라	비:드라
32018-0-4	베:- (枕)[ㅂ]-으니까	빙:께
32018-0-5	베:- (枕)[ㅂ]-아/어(왔/었다)	비여따
32019-0-1	깨:- (破)[ㅂ]-지	깨:지
32019-0-2	깨:- (破)[ㅂ]-고	깨:고
32019-0-3	깨:- (破)[ㅂ]-더라	깨:드라
32019-0-4	깨:- (破)[ㅂ]-으니까	깡:께
32019-0-5	깨:- (破)[ㅂ]-아/어(왔/었다)	깨:따
32020-0-1	펴-(伸)[ㅍ]-지	피:지
32020-0-2	펴-(伸)[ㅍ]-고	피:고
32020-0-3	펴-(伸)[ㅍ]-더라	피:드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평:께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피여따
32021-0-1	밝-(明)[?]-지	박째
32021-0-2	밝-(明)[?]-고	바꼬

32021-0-3	밝-(明)[?]-더라	박뜨라
32021-0-4	밝-(明)[?]-으니까	발궁께
32021-0-5	밝-(明)[?]-아/어(왔/었다)	발가따
32022-0-1	삶:-(烹)[?]-지	쌈:찌
32022-0-2	삶:-(烹)[?]-고	쌈:꼬
32022-0-3	삶:-(烹)[?]-더라	쌈:뜨라
32022-0-4	삶:-(烹)[?]-으니까	쌀뭉께
32022-0-4	삶:-(烹)[?]-으니까	살뭉께
32022-0-5	삶:-(烹)[?]-아/어(왔/었다)	살마따
32022-0-5	삶:-(烹)[?]-아/어(왔/었다)	쌀마따
32023-0-1	음-(吟)[ㄹ]-지	을푸지
32023-0-2	음-(吟)[ㄹ]-고	을푸고
32023-0-3	음-(吟)[ㄹ]-더라	을푸드라
32023-0-4	음-(吟)[ㄹ]-으니까	을풍께
32023-0-5	음-(吟)[ㄹ]-아/어(왔/었다)	을퍼따
32024-0-1	밟:-(踏)[?]-지	봍:찌
32024-0-2	밟:-(踏)[?]-고	보:꼬
32024-0-3	밟:-(踏)[?]-더라	볼부드라
32024-0-4	밟:-(踏)[?]-으니까	볼뭉께
32024-0-5	밟:-(踏)[?]-아/어(왔/었다)	볼바따
32025-0-1	하-(爲)[ㅏ 변]-지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하고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드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향께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헤:따
32026-0-1	맺-(結)[ㅈ]-지	멘찌
32026-0-2	맺-(結)[ㅈ]-고	메꼬
32026-0-3	맺-(結)[ㅈ]-더라	멘뜨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메징께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메저따
32027-0-1	없:-(無)[?]-지	업:찌
32027-0-2	없:-(無)[?]-고	업:꼬
32027-0-3	없:-(無)[?]-더라	업:뜨라
32027-0-4	없:-(無)[?]-으니까	업:췌께
32027-0-5	없:-(無)[?]-아/어(왔/었다)	업:씨따
32028-0-1	앉-(坐)[ㅈ]-지	안찌
32028-0-1	앉-(坐)[ㅈ]-지	앙찌
32028-0-2	앉-(坐)[ㅈ]-고	앙꼬
32028-0-3	앉-(坐)[ㅈ]-더라	앙뜨라
32028-0-4	앉-(坐)[ㅈ]-으니까	안징께
32028-0-4	앉-(坐)[ㅈ]-으니까	앙궁께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앙거따
32029-0-1	비비-(刮)[ㅣ]-지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비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비비드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비빙께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비베따
32030-0-1	끄-(消)[ㅡ]-지	끄지
32030-0-2	끄-(消)[ㅡ]-고	끄고
32030-0-3	끄-(消)[ㅡ]-더라	끄드라

32030-0-4	끄-(消)[一]-으니까	꿈께
32030-0-5	끄-(消)[一]-아/어(왔/었다)	꺼따
32031-0-1	꺾-(折)[ㄱ]-지	꺾찌
32031-0-1	꺾-(折)[ㄱ]-지	꺾끄지
32031-0-2	꺾-(折)[ㄱ]-고	꿈끄고
32031-0-2	꺾-(折)[ㄱ]-고	꺾크고
32031-0-3	꺾-(折)[ㄱ]-더라	꺾크드라
32031-0-3	꺾-(折)[ㄱ]-더라	꺾꺼드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꺾꿈께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꺾꺼따
32032-0-1	신:-(履)[ㄴ]-지	신:찌
32032-0-2	신:-(履)[ㄴ]-고	상:꼬
32032-0-3	신:-(履)[ㄴ]-더라	신:뜨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능께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너따
32033-0-1	보-(視)[ㄷ]-지	보지
32033-0-2	보-(視)[ㄷ]-고	보고
32033-0-3	보-(視)[ㄷ]-더라	보드라
32033-0-4	보-(視)[ㄷ]-으니까	봉께
32033-0-5	보-(視)[ㄷ]-아/어(왔/었다)	바:따
32034-0-1	추-(舞)[ㅈ]-지	치지
32034-0-1	추-(舞)[ㅈ]-지	추지
32034-0-2	추-(舞)[ㅈ]-고	치고
32034-0-3	추-(舞)[ㅈ]-더라	치드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창께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처따
32035-0-1	피우-(吸煙)[ㅈ]-지	피지
32035-0-2	피우-(吸煙)[ㅈ]-고	피:고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피:드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핑:께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었다)	피여따
32036-0-1	서-(立)[ㅈ]-지	스지
32036-0-2	서-(立)[ㅈ]-고	스고
32036-0-3	서-(立)[ㅈ]-더라	스드라
32036-0-4	서-(立)[ㅈ]-으니까	승께
32036-0-5	서-(立)[ㅈ]-아/어(왔/었다)	서따
32037-0-1	기-(匍腹)[ㅈ]-지	기:지
32037-0-2	기-(匍腹)[ㅈ]-고	기:고
32037-0-3	기-(匍腹)[ㅈ]-더라	기:드라
32037-0-4	기-(匍腹)[ㅈ]-으니까	강:께
32037-0-5	기-(匍腹)[ㅈ]-아/어(왔/었다)	기여따
32038-0-1	이-(戴)[ㅈ]-지	이:지
32038-0-2	이-(戴)[ㅈ]-고	이:고
32038-0-2	이-(戴)[ㅈ]-고	이고
32038-0-3	이-(戴)[ㅈ]-더라	이:드라
32038-0-4	이-(戴)[ㅈ]-으니까	잉:께
32038-0-5	이-(戴)[ㅈ]-아/어(왔/었다)	여따
32039-0-1	아니-(否)[ㅈ]-지	아:니제
32039-0-2	아니-(否)[ㅈ]-고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ㅈ]-더라	아니드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닌께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니여따
32040-0-1	되-(升)[니]-지	테지
32040-0-2	되-(升)[니]-고	테:고
32040-0-3	되-(升)[니]-더라	테:드라
32040-0-4	되-(升)[니]-으니까	텅:께
32040-0-5	되-(升)[니]-아/어(왔/었다)	테:따
32041-0-1	있-(有)[쓰]-지	인쎄
32041-0-2	있-(有)[쓰]-고	익꼬
32041-0-3	있-(有)[쓰]-더라	인뜨라
32041-0-4	있-(有)[쓰]-으니까	이쎄께
32041-0-5	있-(有)[쓰]-아/어(왔/었다)	이쎄따
32042-0-1	놓-(放)[ㅎ]-지	노치
32042-0-2	놓-(放)[ㅎ]-고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노트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논께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놔:따
32043-0-1	훔-(擧)[꺄]-지	훔트지
32043-0-2	훔-(擧)[꺄]-고	훔트고
32043-0-3	훔-(擧)[꺄]-더라	훔트드라
32043-0-4	훔-(擧)[꺄]-으니까	훔통께
32043-0-5	훔-(擧)[꺄]-아/어(왔/었다)	훔터따
32044-0-1	굽:-(麗)[ㅂ변]-지	굽:쎄
32044-0-2	굽:-(麗)[ㅂ변]-고	곡:꼬
32044-0-3	굽:-(麗)[ㅂ변]-더라	굽:뜨라
32044-0-4	굽:-(麗)[ㅂ변]-으니까	고:웅께
32044-0-5	굽:-(麗)[ㅂ변]-아/어(왔/었다)	고:와따
32045-0-1	쥐:-(握)[ㄱ]-지	쥐지
32045-0-2	쥐:-(握)[ㄱ]-고	쥐:고
32045-0-3	쥐:-(握)[ㄱ]-더라	쥐:드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쥬:께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쥐여따
32046-0-1	가-(去)[ㅏ]-지	가지
32046-0-2	가-(去)[ㅏ]-고	가고
32046-0-3	가-(去)[ㅏ]-더라	가드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강께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간따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묵뜨라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쎄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뜨라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따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또까뜨라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뚝 가터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참뜨라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차와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허치드라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치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드라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간다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드라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리따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일:드라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리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드라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리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뜨라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뜨라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따고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쉽:뜨라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여도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눅:찌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뉘:뜨라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주:꼬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어뜨라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어따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밋:뜨라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워도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놉뜨라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파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진:뜨라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붓:뜨라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웁:뜨라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따
32066-0-1	"짖:-(吠)-지	-고	-더라"	지스드라
32066-0-2	"짖:-(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따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꽂뜨라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바따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트라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따
32069-0-1	"땅:-(?) -지	-고	-더라"	따:드라
32069-0-2	"땅:-(?)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따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끈뜨라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너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겐찬하드라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겐찬해:서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익뜨라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따
32073-0-1	"떨:-(漉)-지	-고	-더라"	떠:립뜨라
32073-0-2	"떨:-(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러와서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오르드라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따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땨:드라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리따
32076-0-1	"끓:-(?) -지	-고	-더라"	끓:코
32076-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리따
32077-0-1	"닿:-(? 연필 십이)-지	-고	-더라"	다라지드라

32077-0-2	"닿-(?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저따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테레지드라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테레저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드라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몰:드라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라서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드라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올라가드라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가따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푸드라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서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푸드라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파따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쏘:드라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쏴: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꿔:드라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꿈 끼예따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꿈 께: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모물고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무리따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따듬뜨라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드마따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디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데따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찌드라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드라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셔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드라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여따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따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기지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게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들지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두러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쓰지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따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지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따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벌세드라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벌세서
32099-0-1	"쉬:-(?) -지 -고 -더라"	쉬드라
32099-0-2	"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여따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호:가드라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호:게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보꾸지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보듬뜨라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두마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과무찌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과무더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지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지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뜨라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걸:뜨라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드라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라서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자울지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울러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지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러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찌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머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찌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마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굳:찌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따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어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뜨라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구와서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인:찌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서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빔:찌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따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검:뜨라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검:하드라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머따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머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너:치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가:지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과:따고
32120-0-1	"없-(載)-지 -고 -더라"	영찌
32120-0-2	"없-(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영거따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귀찬뜨라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귀찬하드라
32121-0-2	"귀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찬해:서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볼구지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볼가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막뜨라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따
32124-0-1	"끓:-(膿)-지 -고 -더라"	곰:뜨라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따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국:뜨라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서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바서
32127-0-1	"쑤:-(?) -지 -고 -더라"	실치
32127-0-2	"쑤:-(?)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이저볼드라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저부러따
32129-0-1	"핥:-(?) -지 -고 -더라"	할트지
32129-0-2	"핥:-(?)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타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자릅뜨라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봐서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레드라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레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드라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몬:하드라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테: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르드라
32134-0-2	"모르-(不知)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푸드라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퍼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드라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꿔:드라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쓰지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쓰드라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치드라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쳐따
32140-0-1	"테우-(?) -지 -고 -더라"	디:드라
32140-0-2	"테우-(?)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디여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이:드라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여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달리고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다르고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달르따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달려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시:드라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여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드라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따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쉴:드라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러따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데:드라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되야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드라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여파
32149-0-1	"할퀴-(擻)-지 -고 -더라"	허부드라
32149-0-2	"할퀴-(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버파
32150-0-1	"눌:-(?) -지 -고 -더라"	눌:트라
32150-0-2	"눌:-(?)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러파
32151-0-1	"깨달-(覺)-지 -고 -더라"	깨달드라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라파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달라라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메롭뜨라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네로와서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와서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꾸롭뜨라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꾸와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잡뜨라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까와서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집뜨라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지푸드라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서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끝뜨라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서파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시치드라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쳐파
32158-0-1	"짙-(搗)-지 -고 -더라"	찌:트라
32158-0-2	"짙-(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여파
32159-0-1	"값-(擻)-지 -고 -더라"	갈그드라
32159-0-2	"값-(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가파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뜨라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머파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타가고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게파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트라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서
32163-0-1	"끓:-(?) -지 -고 -더라"	골:트라
32163-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파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분뜨라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파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드라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탈파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모르드라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파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드라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서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푸드라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퍼파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푸드라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퍼파
32170-0-1	"쏘-(? 벌이)-지 -고 -더라"	쏟:뜨라
32170-0-2	"쏘-(?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파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지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어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드라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여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드라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되서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뿌수드라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서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나누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나따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둘리드라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소기드라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게따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둘려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찌드라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튀드라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어나드라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고이드라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여따
32180-0-1	"여위-(?) -지 -고 -더라"	몰르드라
32180-0-1	"여위-(?) -지 -고 -더라"	야우드라
32180-0-2	"여위-(?)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와따
32180-0-2	"여위-(?)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네웁찌요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네와서
32182-0-1	"뀌:-(?) -지 -고 -더라"	뛰드라
32182-0-2	"뀌:-(?)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여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고치드라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쳐따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실코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따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얻뜨라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따
32186-0-1	"빳-(粉碎)-지 -고 -더라"	뽀수드라
32186-0-2	"빳-(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뽀사따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파:라드라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레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틀리드라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틀려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드라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싸드라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싼따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뜨라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와따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고꼬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더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끼리고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레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드라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게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시드라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여서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드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저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이러나치고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나쳐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땡기드라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게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드라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베리드라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레따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레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돔부드라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돔바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드라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에우드라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와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기드라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겨따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씩찌라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겨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드라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드라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러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드라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러서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줄:드라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저따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송:뜨라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송겨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쓰다듬뜨라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씨다두무드라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다드마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싸:납뜨라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나와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가볍뜨라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구와서
32213-0-1	"젓:-(?) -지 -고 -더라"	젖:뜨라
32213-0-2	"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서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뜨라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와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르드라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러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뿐질드라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뿐지러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베: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와따
32218-0-1	"다리-(?)-지 -고 -더라"	테리드라
32218-0-2	"다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테려따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파더라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따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에리드라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레따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기리드라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레따
32222-0-1	"저리-(癰)-지 -고 -더라"	제리드라
32222-0-2	"저리-(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레따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리드라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려야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따습뜨라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수와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끼리드라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레라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늬비드라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늬베따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꼬불치드라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굴치드라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불쳐서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불쳐따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굴쳐서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굴쳐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고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여썌요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크고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커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메드라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멜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메드라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드라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여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뜨라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머따
32234-0-1	"가렵-(?)-지 -고 -더라"	겐지럽뜨라
32234-0-2	"가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겐지라서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페리드라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페릴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뜨라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와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뜨라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버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드라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지라드라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지레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르드라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딸:드라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따
32242-0-1	"쪼:- (啄)-지 -고 -더라"	죇뜨라
32242-0-2	"쪼:- (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사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고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뒤:드라(장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뒤:고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여따(장기)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기드라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게따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제리드라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레따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멍기드라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멍게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트드라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타따
32248-0-1	"만지-(?) -지 -고 -더라"	몸치드라
32248-0-2	"만지-(?)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몸쳐따
32249-0-1	"쪼:- (?) -지 -고 -더라"	쪼:드라
32249-0-2	"쪼:-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따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드라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러따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도와주드라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와주어따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씹뜨라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버따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롭드라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워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단뜨라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더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르드라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따
32256-0-1	"주무르-(?) -지 -고 -더라"	주무르드라
32256-0-2	"주무르-(?)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러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미:드라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여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습꼬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수워서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네리드라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네레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궁굴드라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궁구러따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멩길드라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멩그라따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늑뜨라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늘거따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트라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러따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라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르드라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따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드라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네드라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네따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뿐지러지드라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뿐지러저따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드라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쳐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드라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레서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치드라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쳐따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죄이드라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죄예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드라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뜨라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바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드라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여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끈네드라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끈네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가네드라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네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드라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여따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줍:뜨라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서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뜨라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서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울드라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울러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뜨라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와서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뜨라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와따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드라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지요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레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파라드라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레따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드러따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들드라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틀드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트러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우르드라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올러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습뜨라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수와서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뜨라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와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뜨라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그와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밍그럽뜨라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밍그러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드라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럽뜨라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서
32295-0-1	"알뜰-(憎)-지 -고 -더라"	미웁뜨라
32295-0-2	"알뜰-(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워서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식허드라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식해: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뜨라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좌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살시롭뜨라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시랍뜨라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시라서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살시좌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외롭뜨라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좌서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습뜨라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수와서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강강하드라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강강해서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뜨라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남:뜨라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머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넉기드라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넉게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자빨치드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빨쳐따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오글씨드라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글쎄따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비아고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예따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외우드라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위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질르드라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러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갈치드라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쳐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갈치드라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쳐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꼬누고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나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기드라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게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뽐바뜨라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뽐바더따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질드라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지러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리드라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려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위기드라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위게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알중알허드라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알중알헤:따
32321-0-1	"지꼴이-(騷)-지 -고 -더라"	지잘그리드라
32321-0-2	"지꼴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잘그레따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탱이드라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탱에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날치드라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쳐: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드라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드라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여따
32326-0-1	"솟-(湧)-지 -고 -더라"	소꾸드라
32326-0-2	"솟-(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까따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트라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아서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가드라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게따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끄꼬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서따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널롭뜨라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널뤄서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흐:가드라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게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글
32332-0-3	국(羹)-에(서)	구게서
32332-0-4	국(羹)-으로	구게로
32332-0-5	국(羹)-도	국또

32333-0-1	논(畛)-이/가	노니
32333-0-2	논(畛)-을/를	노늘
32333-0-3	논(畛)-에(서)	노네서
32333-0-4	논(畛)-으로	노네로
32333-0-5	논(畛)-도	논도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싸:를
32334-0-3	쌀(米)-에(서)	싸:레서
32334-0-4	쌀(米)-으로	쌀:로
32334-0-5	쌀(米)-도	쌀:도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므로는
32335-0-5	봄(春)-도	봄도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블
32336-0-3	집(家)-에(서)	지비
32336-0-4	집(家)-으로	지비로
32336-0-5	집(家)-도	집또
32337-0-1	옷(衣)-이/가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오슬
32337-0-3	옷(衣)-에(서)	오세가
32337-0-4	옷(衣)-으로	오스로
32337-0-5	옷(衣)-도	오편
32338-0-1	방(房)-이/가	방이
32338-0-2	방(房)-을/를	방을
32338-0-3	방(房)-에(서)	방에다가
32338-0-4	방(房)-으로	방으로
32338-0-5	방(房)-도	방도
32339-0-1	낮(晝)-이/가	나:시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나:제
32339-0-4	낮(晝)-으로	나:스로는
32339-0-5	낮(晝)-도	나:또
32340-0-1	낯(顔)-이/가	나시
32340-0-2	낯(顔)-을/를	나슬
32340-0-3	낯(顔)-에(서)	나세
32340-0-3	낯(顔)-에(서)	나세다
32340-0-4	낯(顔)-으로	나스로
32340-0-5	낯(顔)-도	나:또
32341-0-1	부엌(廚)-이/가	정계가
32341-0-2	부엌(廚)-을/를	정계를
32341-0-3	부엌(廚)-에(서)	정계에다
32341-0-4	부엌(廚)-으로	정계로
32341-0-5	부엌(廚)-도	정계도
32342-0-1	밭(田)-이/가	바시
32342-0-2	밭(田)-을/를	바슬
32342-0-3	밭(田)-에(서)	바테
32342-0-4	밭(田)-으로	바테로

32342-0-5	밭(田)-도	바또
32343-0-1	앞(前)-이/가	아:비
32343-0-2	앞(前)-을/를	아:벌
32343-0-3	앞(前)-에(서)	아:폐
32343-0-4	앞(前)-으로	아:푸로
32343-0-5	앞(前)-도	압:또
32344-0-1	넋(魂)-이/가	너기
32344-0-2	넋(魂)-을/를	너걸
32344-0-3	넋(魂)-에(서)	
32344-0-4	넋(魂)-으로	
32344-0-5	넋(魂)-도	넉또
32345-0-1	흙(土)-이/가	호기
32345-0-2	흙(土)-을/를	흐글
32345-0-3	흙(土)-에(서)	흐게서
32345-0-4	흙(土)-으로	흐기로
32345-0-5	흙(土)-도	흑또
32346-0-1	여덟(八)-이/가	야다리
32346-0-2	여덟(八)-을/를	야다를
32346-0-3	여덟(八)-에(서)	야다래서
32346-0-4	여덟(八)-으로	야달로
32346-0-5	여덟(八)-도	야달또
32347-0-1	돌(遇歲)-이/가	도리
32347-0-2	돌(遇歲)-을/를	도를
32347-0-3	돌(遇歲)-에(서)	도래
32347-0-4	돌(遇歲)-으로	
32347-0-5	돌(遇歲)-도	돌도
32348-0-1	값(價)-이/가	체:소까비
32348-0-2	값(價)-을/를	체:소까블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체:소까브로
32348-0-5	값(價)-도	체:소깍또
32349-0-1	속:(內)-이/가	소:기
32349-0-2	속:(內)-을/를	소:걸
32349-0-3	속:(內)-에(서)	소:게서
32349-0-4	속:(內)-으로	소:그로
32349-0-5	속:(內)-도	속:또
32350-0-1	돈:(錢)-이/가	도:니
32350-0-2	돈:(錢)-을/를	도:늘
32350-0-3	돈:(錢)-에(서)	도:네
32350-0-4	돈:(錢)-으로	도:느로
32350-0-5	돈:(錢)-도	돈:도
32351-0-1	발(足)-이/가	바리
32351-0-2	발(足)-을/를	바를
32351-0-3	발(足)-에(서)	바래서
32351-0-4	발(足)-으로	발로
32351-0-5	발(足)-도	발도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물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서
32352-0-4	짐(荷物)-으로	짐도

32352-0-5	짐(荷物)-도	지므로
32353-0-1	입(口)-이/가	이비
32353-0-2	입(口)-을/를	이블
32353-0-3	입(口)-에(서)	이베서
32353-0-4	입(口)-으로	이브로
32353-0-5	입(口)-도	입또
32354-0-1	낫(鎌)-이/가	나시
32354-0-2	낫(鎌)-을/를	나슬
32354-0-3	낫(鎌)-에(서)	나세
32354-0-4	낫(鎌)-으로	나스로
32354-0-5	낫(鎌)-도	나또
32355-0-1	강(江)-이/가	강이
32355-0-2	강(江)-을/를	강열
32355-0-3	강(江)-에(서)	강에가
32355-0-4	강(江)-으로	강으로
32355-0-5	강(江)-도	강도
32356-0-1	젓(乳)-이/가	저시
32356-0-2	젓(乳)-을/를	저슬
32356-0-3	젓(乳)-에(서)	저세서
32356-0-4	젓(乳)-으로	저스로
32356-0-5	젓(乳)-도	저또
32357-0-1	꽃(花)-이/가	꼬시
32357-0-2	꽃(花)-을/를	꼬슬
32357-0-3	꽃(花)-에(서)	꼬세서
32357-0-4	꽃(花)-으로	꼬스로
32357-0-5	꽃(花)-도	꼬또
32358-0-1	팥(赤豆)-이/가	포시
32358-0-2	팥(赤豆)-을/를	포슬
32358-0-3	팥(赤豆)-에(서)	포세서
32358-0-4	팥(赤豆)-으로	포스로
32358-0-5	팥(赤豆)-도	포또
32359-0-1	옆(側)-이/가	여비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블
32359-0-3	옆(側)-에(서)	여페
32359-0-4	옆(側)-으로	여프로
32359-0-5	옆(側)-도	엽또
32360-0-1	샀(賃金)-이/가	싸기
32360-0-2	샀(賃金)-을/를	싸글
32360-0-3	샀(賃金)-에(서)	싸게서
32360-0-4	샀(賃金)-으로	싸그로
32360-0-5	샀(賃金)-도	쌩또
32361-0-1	닭(鷄)-이/가	다기
32361-0-2	닭(鷄)-을/를	다글
32361-0-3	닭(鷄)-에(서)	다게서
32361-0-4	닭(鷄)-으로	다그로
32361-0-5	닭(鷄)-도	닥또
32362-0-1	밖(外)-이/가	베까시
32362-0-2	밖(外)-을/를	베까슬
32362-0-3	밖(外)-에(서)	베까테

32362-0-4
32362-0-5

밖(外)-으로
밖(外)-도

베카트로
베카또

제 4 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네가
40101-0-2	내	네걸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40101-0-5	나-와	나하고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저
40102-0-1	저-가	지:가
40102-0-2	저-의	지거시여요
40102-0-3	저-을/를	저를 만나러 와따
40102-0-4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하고
40102-0-6	저-는	저는
40102-0-7	저-도	저도 암:니다
40103	우리	우리 아버지
40104	저희	저이 아버집니다
40105	너	너 하꼬 가따 완냐
40105-0-1	-가	니:가 무거따
40105-0-2	-의	니꺼시다
40105-0-3	-을/를	너를 만나러 와따
40105-0-4	-에게	너한테 줘:따
40105-0-5	-와/과	너하고 가따
40105-0-6	-는	너는 안:다
40105-0-7	-도	너도 알:고
40106	자네	자네 이로소
40107	당신	당시니
40108	너희	느그 아버지
40108	너희	느가버지
40109	개	그아가
40109-1	애	이야가
40109-2	재	저 아가
40110	자기	지 말만 올타
40110	자기	자기말만 올타
40110	자기	이녕 말:만 올타
40110	자기	이녁 식꾸보다 이녀기라 가면
40111	당신	당신 방에서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요
40112-0-1	누-가	누가 항아리를 켜:는고
40112-0-2	누구-의	뉘양고
40112-0-2	누구-의	뉘 도니냐
40112-0-3	누구-를	누구 만나고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로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줄라고
40112-0-5	누구-와	누구하고 겨론탄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싱가:
40113-0-1	무엇-이	머:시 드런냐
40113-0-2	무슨	서우래서 먼:니를 하능가
40113-0-3	무엇-을	머:슬 무꼬 시퍼
40113-0-4	무엇-과	저 바우가 먼: 달만능가
40113-0-4	무엇-과	머:다고 달만느냐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자네 어:디로 가능가
40115	언제	자네 언:제 완능가
40116	어느	어:똥 거시 마:메 드능가
40117	왜	어째서 기래서 울고 인냐
40118	얼마나	엄:마나 걸리냐
40119	어떻게	어:트케 지녕가
40119	어떻게	어찌고 지녕가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요고시 엄:망고
40120	이것	요고 엄:망고
40121	그것	고곧 머:시여
40121	그것	고고시 머:시요
40122	저것	저걸 엄:마요
40122	저것	쩌 저거시 엄:마요
40123	여기	여그 잠 파라
40123	여기	여기를 파라
40124	저기	거그 잠 파라
40124	저기	거기를 파라
40125	저기	저기
40125	저기	저그라고도 하고

40126	이리	이리 오라
40127	그리	거:리 가그라
40128	저리	찌리 가그라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	물거니 비싸다
40202	-이/가	코가 크다
40203	-을/를	귀를 때레따
40204	-을/를	무를 뿌려야지요
40204	-을/를	무를 뿌린다
40205	-에게/게	이사람한테 저사람한테
40206	-보고/더러	누구한테 당시나라게
40206	-보고/더러	누구보다 당신나라게
40207	-보고/더러	누구한테
40208	-에	지비 간다
40209	-에	나코 만나자
40209	-에	후:제 만나자
40210	-에서	큰지비서
40211	-에서	서울써 만나자
40212	-에서	영아메서
40212	-에서	여그서 서울까지
40213	-으로	쌀:로 만들조
40214	-으로	지부로 째:니다
40215	-으로	사네키로 무꾼다게야제
40216	-으로	어:디로 가냐?
40216	-으로	얼:로 가냐
40217	-와/과	수:박하고 차메하고
40218	-와/과	나하고 가:치 가자
40219	-보다	행보듬
40220	-처럼	되야지마이로 살저따
40220	-처럼	되야지마이로 크다
40221	-만큼	너마나 커쓰면 쓰거따
40222	-만큼	머글 만치
40222	-만큼	머금 만치
40222	-만큼	무글 만치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봉나미
40225	-아/야	영수야
40226	-아/야	누넝
40226-1	-예	*
40227	-아/야	하라부지
40227	-아/야	하네

40227	-아/야	하나부지 하나부지
40227-1	-요	*
40228	-이랑	술하고 고기하고
40228	-이랑	고기랑 수리랑
40228	-이랑	술조차 고기조차
40229	-커녕	밤 무글 켜이는
40229	-커녕	마:넌 켜이는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머거도 담:배는 안 편다
40231	-만	즈그 딸만 이:빼 한다
40232	-도	키도 크고 얼굴도 조타
40233	-마다	날마지
40234	-부터	오늘뿌터
40235	-까지	네일까지
40236	-조차	물도
40236	-조차	마실 물조차 업:따
40236	-조차	너도 갈레
40236	-조차	너조차 갈레
40236-1	-할라	비할라 온디
40236-1	-할라	비할차 온디 머다로 가냐?
40237	-이야/야	마:른 조트라
40237	-이야/야	마:리사 조:체
40238	-을랑	바비랑 해:난냐?
40238	-을랑	반차니랑 해:난냐?
40238	-을랑	그런 소리랑은 하지도 말소
40239	-이라도	부자라도
40239	-이라도	부자여도
40240	-밖에	너베끼 업따
40241	-가지고	싸:가꼬 와따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가요
40243	알았어-요	아라씨요
40243	알았어-요	아라씨라우
40243	알았어-요	그레라우
40244	했지-요?	그라지라우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	앙거라
40302	-게	안쏘
40303	-으오	안지십씨요
40303	-으오	안지씨요
40304	-으십시오	안지십씨요
40305	-세요	안집씨요

4.3.2. 청유법

40306	-자	가:치 가자
40307	-세	가세
40308	-으오	가:치 갑씨다
40308	-으오	가십씨다
40309	-십시다	가이십씨다
40310	-세요	가입씨다

4.3.3. 의문법

40311	-니	비 오냐?
40312	-나	비 옹가?
40313	-오	비 오요?
40314	-습니까	비가 마:니 오요?
40315	-나요	비 오요?
40316	-니	가냐?
40317	-나	어:디 강가?
40318	-시오	어:디 가시요?
40319	-십니까	어:디 가시요?
40320	-세요	장모님 어:디 가시요?

4.3.4. 서술법

40321	-는다	잘 무근다.
40322	-네	잘 뭉네.
40323	-오	잘 묵쑤.

40324	-습니다	잘 목쏘.
40325	-네요	잘 목쏘.
40326	-다	적:따.
40327	-네	장:네.
40327	-네	정:네.
40328	-소	적:쏘.
40329	-으십니다	적:쏘.
40330	-으세요	적:쏘.

4.3.5. 반말

40331	-아	아품가?
40331	-아	아파?
40332	-지	가제?

4.3.6. -이다

40333	-이다	생일이다.
40334	-이니	생일이냐?
40335	-이네	생일이네.
40335	-이네	생일이시.
40336	-인가	자네 생이렁가?
40337	-이오	생이리요.
40338	-이오	생이리요?
40339	-입니다.	생시니요.
40339	-입니다.	생이리요.
40340	-입니까	생시니지라우?
40341	-이시지요	생이리요.
40342	-이시지요	생시니지라우?
40342	-이시지요	생시니요?
40343	-이냐?	머:시냐?
40343	-이냐?	머:이냐?
40344	-인가?	머:싱가?
40345	-이오?	머:시요?
40346	-입니까?	머:시요?
40347	-인가요?	머:시요?
40348	-이야?	머:싱가?
40349	-이어요?	머:시요?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마:남니다.
40351	-습디다	마:남띠다.
40352	-는구나/구나	밥 잘 무꾸나.
40352	-는구나/구나	잘 무근다이~.
40352	-는구나/구나	잘 무근다.
40353	-는구먼/구먼	바블 잘 무꾸마이~.
40354	-일세	오렌마니시.
40355	-으마	가꾸마.
40356	-음세	가품세.
40357	-을라	다친디 조:시메라.
40357	-을라	다칠라 조:시메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밤 무꼬 텔레비 본다.
40402	-으면서	텔레비 봄시로 밤 몽는다.
40403	-어/-어서	추와서
40404	-으니 /-으니까	따송께
40405	-관테	누가 와칸디
40405	-관테	먼:한디
40405	-관테	먼:니리간디
40405	-관테	누가 와까이~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만나먼
40407	-거든	만나그덩
40408	-더라도	떼를 써도
40408	-더라도	하드라도
40409	-으려고	머글라고
40409	-으려고	나나무글라고
40410	-도록	빼빠지게
40410	-도록	날세:도록
40410	-도록	죽뚜룩 일:해도
40411	-을수록	이글쭈룩
40411	-을수록	할쭈룩
40411	-을수록	이그먼
40412	-듯이	물 쓰데끼 쓴다
40413	-지	보제,

4.5. 주체 존대

40501	-셔	드러 와게라우.
-------	----	----------

40501	-서	이리 잔 와게 또 그라고
40502	-졌소	일: 헤게쑈?
40502	-졌소	먼:헤게쑈?

4.6. 시제

40601	웃는다	잘 우는다.
40602	기어간다	긴:다.
40603	크다	크다.
40604	생일이다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마:니 온다.
40605	오고 있다	비가 마:니 오고 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잡싸게쑈?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자:셔쑈?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자:션냐?
40607	왔었다	장녀네도 완넌디
40607	왔었다	와썌넌디
40608	먹더라	잘 목뜨라.
40609	먹더냐	잘 목띠야?
40610	만나는 친구	잘 만난
40611	만난 친구	어이께 만난
40612	만났던 친구	만나쁜 친구
40612	만났던 친구	만난 친군디
40613	만날 친구	만날 친구
40614	큰 아이	크네긴디
40615	크던 아이	크든 ऐ긴디
40616	켰던 아이	키가 크쁜 ऐ기가
40617	마시지 않겠다	술 암 무글라네.
40618	비가 오겠다	비 오건네.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 무건네.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나리 안 조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끗 안 하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장:게 앙 간네.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암 만나반: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밥또 암 무꼬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목또 앙코
40706-1	먹도 않고	목또 앙코 잘 잔다.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술 몸: 뭉네.
40708	맞잖소?/안 맞소?	마찌라우?
40708	맞잖소?/안 맞소?	네 마리 안 마저쑈?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린다
40802	늘리다	늘린다
40802	늘리다	느린다(고무줄 따위)
40803	말리다1	몰린다
40804	말리다2	말긴다
40805	얼리다	무를 얼린다
40806	녹이다	노킨다
40807	신기다	싱킨다
40808	보이다	베인다
40809	알리다	소식 알린다
40810	입히다	이핀다
40811	얹히다	양친다
40812	벗기다	베긴다
40813	웃기다	우긴다
40814	씩히다	써쿤다
40815	숨기다	쉽킨다
40815	숨기다	쉽킨다
40816	끓기다	궁킨다
40817	깨우다	켄:다
40818	돋우다	도둔다

4.8.2. 피동

40819	잡히다	제페따
40819	잡히다	제핀다
40820	깎이다	계께따
40821	끼이다	문썸에 쟁게따
40822	떼이다	떠여따
40823	채이다	치여따
40824	닫히다	다쳐따
40825	들리다	안 디킨다
40826	업히다	어페따
40827	바뀌다	베께따
40828	씹히다	씨페따고도
40829	엎히다	영쳐따
40830	찍히다	찌께따
40831	눌리다	흐게 눌러따
40832	실리다	차에 실려따
40833	끓기다	끓켜서
40833	끓기다	끓켜따

40834

급히다

끼께따

4.9. 보조용언

40901	싫다	먹꼬 잡따
40902	싫다	
40903	보다	이버 보십씨요
40904	버리다	다 머거 부러따
40905	대다	우러 썬다
40906	-나/는가 보다	오건네
40906	-나/는가 보다	비 올랑감네
40907	-나/는가 보다	장감네
40907	-나/는가 보다	장가 제용하다
40908	-나/는가 보다	충:갑따

4.10. 부사

41001	실컷	살:큰 무거라
41002	많이	마:니 머거라
41003	너무	너머 마이 무거따
41004	조금	쪼까 무거도
41005	자주	자지로 간다
41006	빨리	얼렁 와따
41006	빨리	더 빨리 와따
41007	얼른	얼렁 먹짜
41008	기어코	기여니 가따
41009	가끔	가끔 마신다
41010	먼저	너 먼저 가거라
41011	나중에	다으메 갑:꼬
41011	나중에	뒤에
41011	나중에	나코
41012	가득	무를 한:나 채운다
41013	몽땅	다: 다머라
41014	모조리	다 비여부런네
41014	모조리	썩 다 비여분따
41015	혼자	한자 오네
41016	항상	항상
41017	똑똑히	똑또가니
41018	겨우	포도시
41019	늘	밤나시로
41019	늘	밤나스로
41019	늘	하:미 늘 나오네
41020	저절로	지절로
41021	자꾸	하:미 자조 나오네

41021	자꾸	자지로 나오네
41021	자꾸	차꼬 나오네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함바트라면
41024	함께	함께
41024	함께	함께 간다
41024	함께	항꾸네 가따
41025	걸핏하면	꺼:뜯허면
41026	공연히	무담:씨
41027	그냥	게양 완네
41028	매우	데:게
41028	매우	검나
41029	곧장	허빤디 보지 말고
41029	곧장	눈폴지 말고
41029	곧장	핑: 가따 오니라
41030	벌써	벌써 끈넌나
41030	벌써	발써 끈넌나
41031	가장	제일 잘 번다
41032	가만히	가마이 이써라
41033	미리	미리서 줌:비헤라
41034	이따금	이따감 함번씩 오드라
41034	이따금	이따가면 한 번씩 오드라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구

41101	여보	아이 상인떡! 그랴요.(남편이 아
		내를 부를 때)(택호)
41101	여보	에마리요!(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41102	여보세요	아저씨(남자)
41102	여보세요	아주마(여자)
41103	들어가요	드러가씨요
41104	수고하세요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방감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진지 잡싸게쏘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아침 잡싸게쏘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베입씨다
41108	여기 있습니다	에씨요
41109	예	예
41110	아니	아니요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암:스랑토 아네요
41112	내버려 뒀	네비도: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기:나 교둥이나

4.11.2. 속담

41114 밭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미덥는 항아리에 물 부끼다
고:무도도기 데도둑 뎌다
고:무도도기 소도둑 뎌다
불 안 뎌 기:뚜게 영기 날까?

<English Abstract>

This report is the result of the dialect survey which has been made in Yeongam-gun area(in Jeollanam-do, Korea) from June to November in 2009.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has conducted the nationwide project to survey all Korean dialects since 2004, and this report shows how the survey was conducted in Jeollanam-do area.

The report includes natural conversation or narrative discourse, local words, phonological aspect and grammatical expressions of Yeongam-gun area through which we expect to understand the linguistic aspect of central area of Jeollanam-do.

Four informa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mong whom Okkyu Park gave much information at lexical, phonological, grammatical and discursive levels as a main informant.

The survey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questionnaire for about 34 hours, and especially four hours of narrative data was put into transcription, which covers ge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region and private and traditional way of life of the main informant.

Key Words :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dialect survey, Yeongam-gun, Jeollanam-do, phonological, grammatical, discourse, local word, transcription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 (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 (제주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 (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 (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 (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 (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 (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 (충남대학교) |
| ◆ 위 원 |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

